

# MAXIM



KOREA

## 9 MUSES NEWEST HOT DOLL

나인뮤지스의 신무기. 신입이 이렇게 예쁘면 언니들이 안 미워해?

### SIZE DOESN'T MATTER

상추를 입대시키고 홀로 남은 소리가 알려주는

〈단신남의 9가지 스타일 철칙〉 **MIGHTY MOUTH**

작다 무시하면 네 머리에 바람구멍, 세계 최강 권총 TOP5 **PISTOL**

미니라는 이름을 단 작은 고추들의 전쟁 **MINI VS MINI**

## NORTH KOREAN NUCLEAR BOMB

그래서 진짜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

## FIGHT CLUB

소나기 펀치 시전! 영춘권 라이프 스타일

국내 최고의 그래플러를 가리는 대회가 열렸다!

UFC IN JAPAN: 코리안 파이터 3인방 중 이기고 돌아올 남자는?

**직업 파이터가 링 위에서만 싸운다고?**

**통제불능 파이터들의 범죄 이야기**

## KATRINA BOWDEN

에미상을 휩쓴 최강 미드 〈30 ROCK〉의 섹시 아이콘.

떡진 머리의 NBC 방송 작가들 틈에서 나홀로 아찔한

핫팬츠 차림으로 낯을 빼놓는 미친 외모의 어시스턴트.

MAXIM 미국판 표지 모델을 꺾차다!

2013년 3월호  
정가 5,900원

## 4 GLAMOUR ATTACK

- 고두림 8번째 여신 발골 프로젝트의 품미작렬 글래머 종결자
- MISS MAXIM CONTEST OF THE MONTH  
역대급 글래머 일반인 vs. 프로 레이싱 모델! 당신의 선택은?
- MAXIM PARTY 물 반 고기 반, 여자가 더 많았던  
UFC 스페셜 파티! 우리나라 보통 여자들 몸매가 좀 이 정도임
- MAXIM이 선정한 이달의 핫한 GAME 캐릭터:  
대전 액션과 RPG의 결합 〈크리티카〉의 섹시한 흥일점

# F\*cker's Digest

섹스가 주는 18가지 선물 (찢어서 그녀에게 줄 것)  
병맛의 절정, 악명 높은 성도착자 리스트 (유명인 다량 포함)

ISSN 2233-4270 바코드는 뒷면에



RAZER  
**KRAKEN**  
MUSIC & GAMING HEADPHONES

Charlie Parra Del Riego  
[www.charlieparradelriego.com](http://www.charlieparradelriego.com)  
[www.youtube.com/charlieparradelriego](http://www.youtube.com/charlieparradelriego)

# LIFE IS JUST A GAME

[kr.razerzone.com](http://kr.razerzone.com)

© 2013 All Rights Reserved. Razer USA Ltd and affiliated companies. All other trademark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Actual products may differ from pictures. Information correct at time of printing.

FOR GAMERS. BY GAMERS.™

# Contents

MARCH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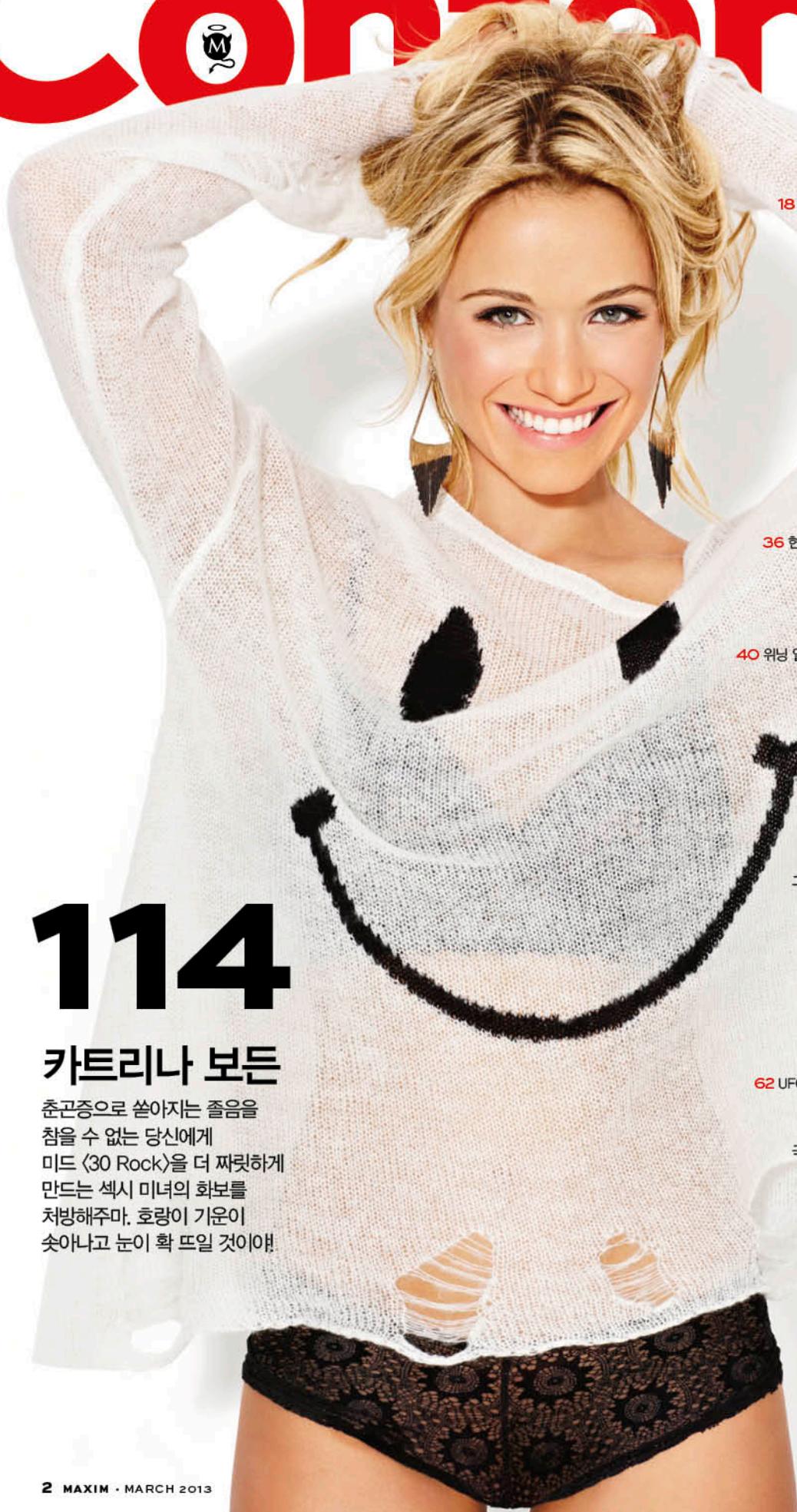


# 104

## 나인뮤지스

신곡 'Dolls'로 컴백한 나인뮤지스에 새 멤버 손성아가 영입됐다. 긴 다리에 늘씬한 허리, 작은 얼굴, 나인뮤지스의 명성에 걸맞는 최고의 보디라인! 진짜 인형이 따로 없구만!

# Contents



# 114

## 카트리나 보든

춘곤증으로 쏟아지는 졸음을  
참을 수 없는 당신에게  
미드 <30 Rock>을 더 짜릿하게  
만드는 섹시 미녀의 화보를  
처방해주마.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고 눈이 확 뜨일 것야.

### Circus Maximus

- 18 용변 보고 휴지가 없을 때 쓰면 좋을 대용품들
- 20 인류 최고의 발명품, 섹스 로봇
- 22 개발자들이 숨겨둔 게임 속 장난질
- 24 열도의 컵라면 BEST 4

### How To

- 26 상사한테 예쁨 받는 법
- 28 영춘권을 이용한 화끈한 인사법

### Sex

- 32 섹스를 해야 하는 이유

### Comment

- 34 이달의 영화 <베를린>: 직업이 스파이인 보통 남자를 이야기
- 36 현직 형사 변호사가 쓴 범죄 스릴러 <이지 머니>

### Game

- 38 이달의 캐릭터: <크리타카>의 홍일점 암살자, 그녀의 변신은 무죄!
- 40 워닝 일레븐 온라인 vs. 피파 온라인3, 최종 승자는?
- 42 모니터 속에서 빠져나온 미소녀를 카드 게임으로 만나자!

### Music

- 46 시나위 8대 보컬 오디션 현장에 가다

### SHORRY J

- 52 상추가 군대 가 있는 동안 마이티 마우스를 홀로 지키는 소리. 그는 매일 상추를 생각하며 상추쌈을 먹는다고.

### Brittany Cole

- 58 영화 <페인 앤 게인>과 <트랜스포머4>에 줄줄이 캐스팅된 브리트리 콜. 마이클 베이 감독이 짚한 금발 미녀는 다 슈퍼스타가 된다?

### Fight

- 62 UFC IN JAPAN: 코리안 파이터 3인방 동시 출격
- 64 통재불능 파이터들의 범죄 이야기
- 70 킹 오브 그레플링: 국내 최고의 그레플러를 가리는 대회가 열렸다!

### Sports

- 74 오심도 경기의 일부? 어이없는 프로농구 오심 총 집합

### Motor

- 76 MAXIM 시승기 #27 사나이를 위한 소형 해치백 시트로엥 DS3

### Stuff

- 83 안성맞춤 헤드폰 5종
- 89 작은 고추의 전쟁, MINI vs. MINI
- 90 이달에 MAXIM이 지른 물건#6: 아이커버 아이폰5 케이스



SWISS + MADE



# ESSENTIAL GEAR.

Navy SEAL Steel Colormark Series No. 3152: 44mm, stainless steel case, screw down crown & case back, carbon reinforced polycarbonate bezel, tempered scratch resistant mineral crystal, water resistant to 200 meters, stainless steel bracelet, and Luminox self-powered illumination. Swiss Made. Preferred timepiece of U.S. Navy SEALs.

[www.facebook.com/luminox](http://www.facebook.com/luminox)

[www.luminox.com](http://www.luminox.com)

**ALWAYS VISIBLE**

Constant Glow for up to 25 Years.

## 루미녹스 판매처

공식수입원 및 서비스 센터 밀리시계(주) (02)757-9866, A/S센터직통 (02)735-9880, [www.milimwatch.co.kr](http://www.milimwatch.co.kr)

**직영점**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1층(밀리시계) 02-772-3181 / 잠실점 1층(밀리시계) 02-2143-1920 / 대구점 1층(밀리시계) 053-660-3122 / 부산 광복점 1층(밀리시계) 051-678-4039 / 대전 점 1층(모멘토) 042-601-2109 / 아울렛 서울역점 2층(모멘토) 02-6965-2637 [현대백화점] 입산 킨텍스점 1층(모멘토) 031-822-2929 / 충청점 1층(모멘토) 043-909-4148

**특약점** 신도림 테크노마트 지하1층(TM 시계백화점) 02-2111-1120 / 강변 테크노마트 7층(타임2) 02-3424-7073 / 강변 테크노마트 1층(타임2) 02-3424-1210 / 동대문 오케이아웃도어닷컴 1588-8796 / 종로 YMCA 1층(타임존) 02-737-3627 / 종로 중앙상가(노블워치) 02-745-8789 / 동대문 두산타워 5층(때션코) 02-3398-7527 / 성내동(다이버스몰) 02-565-9897 / 상계동 하이힐빌 상가 A동(도라시계) 02-971-5334 / 종로 세운스퀘어 1층(정우상사) 02-2272-2688 / 이왕치(명동점) 02-771-7033 / 종로 피카디리 플라자1층(정신사) 02-741-9678 / 삼성동 코엑스몰(밤워치) 02-2051-6244 / 을지로6가 굿모닝시티 2층(사모) 02-2118-8075 / 잠실 롯데월드 웰빙센터 1층(제네바) 02-419-5622 / 남창동 단암빌딩1층(프로워치) 02-779-6964 / 은평 이마트 7층(스포츠빅텐) 02-389-8718 / 왕십리 민자역시3층(워타임) 02-2200-1355 / 안양 안양동(시계상자) 031-441-0158 / 안양 안양동(보석상자) 031-466-1014 / 부천 심곡동(특목) 032-662-2026 / 고양 장항동(타임24) 031-931-5555 / 성남 정자동(스포츠빅텐) 031-710-1260 / 용인 블루키 동백점 1층(텐어클라) 031-679-0145 / 안산 고진동(타임루트) 031-487-9057 / 평택 평택동(유빈) 031-658-6883 / 인천 홈플러스 가좌점 2층(스위스) 032-578-2002 / 인천 구월동(워치보이) 070-8632-5300 / 대전 세이브존 1층(타임리치) 042-482-2328 / 이마트 대전티미널점 4층(스포츠빅텐) 042-615-1265 대전 가오동(예진시계) 042-280-9117 / 대구 삼덕동(엘가시계) 053-255-6940 / 천안 신부동(알파&오메가) 041-564-5465 / 청주 가경동(보보 스와치) 043-235-1510 / 청주 남문로2가(복워치) 043-223-1333 / 전주 롯데백화점 5층(세팡당) 063-289-3592 / 익산 롯데마트(원남상사) 063-833-8536 / 광주 첨단롯데마트(원남상사) 062-971-8523 / 광주 롯데마트 웰드킵점(원남상사) 062-675-8521 / 포항 벨류플러스(조이필) 054-613-1170 / 이마트 동구미점 2층(스포츠빅텐) 054-480-1260 / 구미 원평동(엘가시계) 054-451-6940 / 진해 롯데마트 1층(원남상사) 055-542-8521 / 부산 광복동(국제시계) 051-245-1230 / 부산 해운대(리브워치) 051-746-6112

# Contents

126



## Style

- 92 단신남의 스타일 살리는 9가지 철칙을 소리에게 배워왔다.
- 94 흥대 옛지녀들이 말하는 매력적인 이성의 스타일은?
- 96 봄을 품은 따뜻한 감성의 시계

## MAXIM REPORT #7

101 일본 후쿠오카까지 날아가 찍을 찾아 헤매는 에디터의 '짜-규슈 여행' 체험기

## ICON

112 본지 독점! 진짜 수컷의 상징 MAXIM 심볼을 입은 진짜 남자의 담배가 나타났다! 세계 최초! 말하는 담배(와 대화를 나누는 정신 나간 에디터)가 등장했다!

## MAXIM vs. REFLEX

122 패기 넘치는 록밴드 리플렉스와의 치맥(?)을 건 피 튀기는 한판 대결!

## MAXIM 여신 발굴 프로젝트 #8 고두림

126 '한가인 닮은 열쌍'인 줄 알았는데 한가인을 능가하는 여배우를 꿈꾼다는 야심찬 이가씨, 어리고 예쁜데 심지어 글래머다!

## JUSTIN CHON

134 <트와일라잇> 시리즈로 이름을 알리고, 새 영화 <21&Over>에서 드디어 주연을 맡은 한국인 배우 저스틴 전과의 할리우드 뒷담화

## Hottest MISS MAXIM

140 역대 최강 글래머 도전자와 레이싱 모델 출신의 늘씬한 그녀, 당신의 선택은?

## Crazy Sex

146 성도착증에 대한 모든 것: 부디 당신 이야기가 아니길...

## MAXIM From Indonesia

154 인도네시아 인기 여자 탤런트 야스민 와일드블러드의 때문에 뜨거운 촬영장! (진짜 봄을 불렀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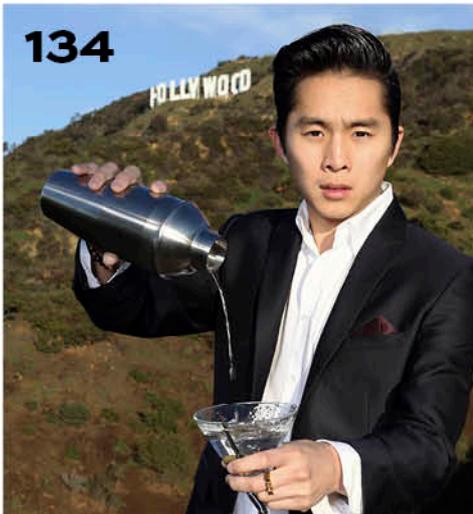
## Military

162 작다고 무시하지 마! 세계 최고의 권총 5선

## Party

166 역대 최고수질! UFC와 함께 한 MAXIM PARTY! 170 섹시 미녀 DJ 릴지

134



140

92



166



뜨기라면 뜨고  
소리라면 소켓어프!



FPS의 변화를 말하다!



QR 코드 찍고,  
A.V.A만의 여캐릭터를  
받으세요!

facebook

아바



© NEOWIZ GAMES.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RED DUCK Inc. All rights reserved.

# LAYERED UP&DOWN



대니시디자인 | (주)거노크퍼레이션 |  
www.danishdesign.co.kr | 02-3397-7100  
공식쇼핑몰 유료타임 www.eurotime.kr



[직영점] 롯데백화점 영등포 (02-738-2140) 대구백화점 프라자 (053-253-7133)  
롯데백화점 미아 (3/12 오픈) 라이힐 (3/8 오픈) 롯데백화점 부산 오픈예정  
[면세점] 제주중문면세점 (064-780-7671)  
[판매처] 롯데백화점 영등포 (02-2630-6883) / 대전 (042-601-2253) / 신세제백화점 원인 (041-640-5496) / 광주 (062-360-1291) 현대백화점 부산 (051-667-1159) AK PLAZA 구포 (02-839-5128) / 평택 (031-646-6139) NC백화점 순천 (061-720-5124) / 강서 (02-2667-9508) 뉴코아백화점 안산 (031-8085-1708) / 울산 (052-210-4010) / 아남 (031-701-6841) 2001아울렛 분당 (031-786-1808) 세이백화점 대전

# MAXIM

편집장 이영비  
yb@maximkorea.net

## Editorial / 편집부

에디터 대리 김희성 alice@maximkorea.net  
주임 박한빛누리 nu@maximkorea.net  
대리 김진옥 14k@maximkorea.net  
이사 유승민 sm@maximkorea.net  
주임 손인나 anna@maximkorea.net  
주임 이영환 lyh@maximkorea.net  
주임 조용재 wj@maximkorea.net  
인턴 에디터 박수현 mari@maximkorea.net  
박종원 ttt3314@maximkorea.net  
최동희 t578@maximkorea.net  
최성준 csjet89@maximkorea.net

객원 에디터 이용수 (객주 칼럼니스트) 굿시나스트 (카툰 작가)  
김대영 <<디펜스 타임즈 코리아>> 편집위원  
김덕중, 강산 <<엑스포>> 기자  
김광희, 박종현 (라면 리뷰어 누블라)  
이효복 (맥주 스타일리스트/WABAR 대표)

## Design / 디자인

디자이너 주임 서윤정 yoon@maximkorea.net  
주임 전은경 eun@maximkorea.net  
객원 한성미

## Advertisement Marketing / 광고 마케팅

팀장 김진옥 14k@maximkorea.net  
메니저 원정운 jw@maximkorea.net  
메니저 정진선 js@maximkorea.net

## Finance, General Affair / 회계 총무

대리 최인영 joy@maximkorea.net  
주임 장선영 sun0676@maximkorea.net  
비서 김하현 sm@maximkorea.net  
인턴 이현구 leehg@maximkorea.net

## Web Service / 웹

토크 탭장 서정민 oreiss@town.com

## Photography / 사진

ARC STUDIO www.arcstudio.co.kr  
포토그래퍼 실장 정기수  
실장 김영석  
실장 박 울  
오준섭

## 교역

신선경 kshin0111@daum.net

## Circulation / 유통

송주출판유통  
대표 이용관

## Printing / 인쇄 원색분쇄

(주)타라티피에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상지서리 192-1 인쇄인 이원순

## 발행인 / CEO 유승민

이사 양지용 / 이사 원혜진

www.maximkorea.net

광고/제휴 문의 partner@maximkorea.net  
070-4010-9049

구독 문의 joy@maximkorea.net  
02-323-1182



발행처 (주)와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TEL. 02-323-1182 / FAX. 02-6455-0193  
2013년 3월호 통권 제35호 / 등록일자 2009년 12월 30일 / 등록번호 마포 라-00250

## ALPHA MEDIA GROUP

EXECUTIVE CHAIRMAN: Jack Kliger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mcox  
SENIOR ADVISER: David J. Fishman

## MAXIM WORLDWIDE BRAND LICENSING

INTERNATIONAL PUBLISHING MANAGER: Stephanie Marino  
INTERNATIONAL EDITORIAL DIRECTOR: Simon Clays  
SR. INTERNATIONAL OPERATIONS MANAGER: Pauline Lam  
INTERNATIONAL RIGHTS COORDINATOR: Jeff Whitacre



## MEDIA NETWORK EDITORS IN CHIEF

|                                     |  |  |                                     |  |
|-------------------------------------|--|--|-------------------------------------|--|
| <b>ARGENTINA</b><br>Germán Pittelli | <b>CZECH REPUBLIC</b><br>Pavel Vondracek     | <b>ITALY</b><br>Paolo Gelmi                          | <b>RUSSIA</b><br>Sasha Malenkov     | <b>THAILAND</b><br>Surawong Kruaefan       |
| <b>AUSTRALIA</b><br>Santi Pintado   | <b>GERMANY</b><br>Mike Bleibtreu             | <b>MEXICO/LATIN AMERICA</b><br>André Félix Diaz Rojo | <b>SERBIA</b><br>Dragan Otašević    | <b>UKRAINE</b><br>Sasha Malenkov           |
| <b>BULGARIA</b><br>Hristo Zapryanov | <b>INDIA</b><br>Vivek Pareek                 | <b>POLAND</b><br>Krzysztof Papliński                 | <b>SOUTH KOREA</b><br>Young-Bee Lee | <b>UNITED KINGDOM</b><br>Alpha Media Group |
|                                     | <b>INDONESIA</b><br>Ronald Adrian Hutagalung | <b>PORTUGAL</b><br>João Espírito Santo Araújo        | <b>SWITZERLAND</b><br>Boris Etter   | <b>UNITED STATES</b><br>Dan Bova           |

MAXIM KOREA는 글로벌 남성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알파미디어그룹은 한국의 (주)와이미디어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주)와이미디어는 국내에서 MAXIM 한국어판을 출판,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알파미디어 그룹 (주)와이미디어 외에 어떤 제3자도 MAXIM의 트레이드마크나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의 글과 사진은 알파미디어 그룹과 (주)와이미디어에 귀속하므로 허락 없이 쓸 수 없습니다.

© 2013 Alpha Media Publishing, Inc. The name "MAXIM" and the MAXIM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Alpha Media Group Inc., which trademarks have been licensed to Y Media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wned by Alpha Media Group Inc. All rights reserved. The United States edition of Maxim is published monthly by Alpha Media Publishing, Inc. 415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17. For international publishing or licensing inquiries: maximworld@maxim.com



# ALBA

POSITIVE & SMART

ALBA 직영매장 세이코부티크 스타사티점 02)454-8400 / 모멘토 현대캐시점 03)822-2929 / 모멘토 현대충청점 043)909-4148 / 모멘토 롯데아울렛서울역점 02)6965-2637 / 모멘토 롯데대전점 042)601-2109 / 모멘토 롯데대구점(오픈예정) / 모멘토 롯데소공점(오픈예정) / 모멘토 롯데서면점(오픈예정) / 모멘토 AK원주점(오픈예정) / 현대아이파크 백화점 02)2012-4144 • **면세점** 롯데 / 신라 / 워커힐 / 동화 / 신세계 / J.C / J.T.O / K.T.O • **수입원 상점(지주)** 02)511-3182 • **전문점 서울(02)** 중구 이와치(771-7033) 종로 타임존(737-3627) / 노블워치(745-8789) / 장신사(741-9678) / 정우상사(2272-2688) **동대문** 패션존(3398-7527) / 사도(2118-8075) **서초** 시계독림(6282-2777) / 신비파(532-2121) **송파** 타임존(411-0829) **강동** 현대골드(484-2029) **용산** 해피타임(2012-0625) **서대문** 타임월드(313-4108) **은평** 타임랜드(350-8471) **관악** 타임(6299-7166) **구로** 시계백화점(211-1120) / 타임타임(211-1141) **양천** 티파니(2648-8333) **강서** 타임피스(2668-0871) **광진** TMT타임(23424-7073) **성북** 해시계(2117-1755) **노원** 도라시계(971-5334) **안원(032)** 남동 정타임(432-2430) **남구** 타임랜드(862-5534) **부천** 시계나라(329-0894) / 특목(662-2028) **경기(031)** 고양 타임(24931-5555) **성남** AK프라자(781-8194) / 동성당(753-0766) / 타임24시(728-5370) / 엔타임(707-1289) **수원** AK프라자(240-2199) / 텐어클라(201-7100) / 지지컬렉션(221-4997) **안양** 타임월드(383-5342) / 보석상재(441-1014) / 시계상재(441-0158) **동탄** 타임플러스(371-6860) **부산(051)** 중구 명성시계(253-5315) / 국제사(245-1230) / 불림(245-7965) / 타이머봄(919-4704) **부산진구** 플라이(922-2068) / 프로포즈(818-6573) / 동해사(844-5551) **울산(052)** 금보당(960-4848) **경남(055)** 마산 신세계스위스(224-2711) **창원** 롯데창원(279-3119) **진주** 갤러리아(791-1177) **대구(053)** 중구 주얼리(428-2688) / 바젤(425-8707) / 동아스위스(252-8111) / 해피타임(428-3086) / 엘가(255-6940) / 젤마(428-0338) / 레츠(425-0157) / 삼성사(422-3002) **경북(054)** 구미 타임프라자(455-2410) **포항** 조이텔(613-1170) / 주얼리(244-8172) / 타임피아(253-8855) / 스위스(246-8944) **충북(043)** 청주 명공사(256-4574) / 드림플러스(235-1510) **대전(042)** 보옥당(253-9241) / 세이백화점(257-7745) / 엔비(255-6292) / 세이브존(482-2328) **충남(041)** 천안 티파니(561-9438) / 일파와오페가(564-5465) / 신세계대전(640-5081) / 루치타임(522-6505) **강원(033)** 춘천 시계마을(253-7669) **광주(062)** 굿타임(233-3050) / 이프유(225-0175) / 현대제일사(515-7172) / 시계명가(228-2251) / 골드북(410-0137) / 티티(222-3114) **전주(063)** 세광당(289-2590) / 컵투(285-7596) **제주(064)** 순금사(758-1717)

# Letter From MAXIM

## 보인다, 보여!

여덟 살 때, TV 앞에서 오만상을 쓰고 있던 나를 데리고 어머니는 안경점에 가셨다. 당시 시력이 좌우 0.5, 0.8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어릴 적 나는 달리는 차 안에서 여백만 듯이 책을 읽고, 방 안에서 불을 끈 채 괜히 이불을 뒤집어쓰고 손전등으로 비춰가며 책을 읽는 걸 좋아했다. 한마디로 '독서 코스프레'를 즐기던 아이였다. 지금도 어머니는 "나는 옛날부터 약간 차폐 중세가 있었다"고 웃으며(?) 말씀하시곤 한다. 만화책, TV, 만화 영화는 또 오죽이나 좋아했는지, 자라면서 시력은 점점 떨어졌다. 안경 없이는 벌에 내놓은 두더지마냥 근거리의 면상도 식별하지 못했지만 신경쓰지 않았다. 안경 쓰면 되니까. 어두운 곳에서 뭘 읽거나 보는 나쁜 습관도 못 고쳤다. 어느 새 20년을 훌쩍 넘겨 안경을 써왔다. 얼마 전, 라식 수술을 했다. 추운 날씨에 밖에서 실내로 들어올 때마다 렌즈에 서리는 하얀 김은 너무 불거롭다. 게다가 난 안경을 쓰고 침드는 멍청한 습관도 있는데, 특히 얼어서 자는 내내 눈감을 코발침으로 압박하곤 했다. 아주리 군단도 놀랄 강한 압박. 자기 대가리로 자기 눈을 짓누르는 꼴인데 이 셀프 테리에 안경은 늘 혁혁한 공을 세웠다. 라식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맨눈으로 세상을 또렷하게 보고 싶어서였다. 수술 후 현재 맨눈 시력은 양쪽 모두 1.2다. 태어나 처음 안경이나 렌즈 없이 선명한 세상을 보니 신기할 따름이다. 여전히 안경 쓸 때의 버릇이 나온다. 잊지도 않은 안경 코발침을 올리기 위해 콧등을 찡긋거리고, 안경다리가 있어야 할 관자놀이 부근을 손끝으로 먼저 울리며, 자고 일어나면 더듬더듬 안경을 찾는다. 안경 없는 맨 얼굴은 아직 어색하다. 하지만 오랜 습관도 곧 사라질 것이다. 안경이 없어 느끼는 편안함과 맨 얼굴엔 이미 익숙하다. 왜 이제야 했다. 동굴초원의 천리안 매 사냥꾼이 된 이 기분!

군주론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시대와 상황이 변했는데도 군주가 자기 방침을 바꾸지 않는다면 망하고 만다. 그러나 시대와 상황에 적응하는 현명한 인간은 사실 흔치 않다. 인간은 타고난 성질대로 기울기 쉽고, 거기서 헤어나가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마흔이라면 군주론)의 저자 김경준은 책에서 그린란드 바이킹과 이누이트를 예로 들어 이를 설명한다. "노르웨이를 떠나 가혹한 환경의 그린란드에 정착한 바이킹들은 984년부터 5세기 동안 그린란드에 교회를 세우고, 라틴어와 고대 노르웨이어를 쓰며, 철로 연장을 만들고 가족을 키웠다. 1400년대 초 소(小)빙하기가 닥쳤고 기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유럽 문명을 고집했던 바이킹은 결국 소멸했다. 반면 1200년 경 그린란드에 건너온 이누이트는 고래와 바다표범 기름을 태워 난방을 하고 조명을 밝혔다. 곧조에 바다표범 가죽을 씌워 배를 타고 먼바다로 나가 고래를 사냥하기도 했다. 이누이트는 살아남았다." 다윈의 진화론이 말하듯, 생존을 위한 선택과 적응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다. 변화하고 진화해야 할 시기가 왔다면 피하지 말고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오히려 즐기며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는 건 어떨까? 그러기에 딱 좋은 3월, 새 봄이다.

MAXIM은 독자님의 삶과 일상에 기본 좋은 변화를 드리기 위해 몇 가지 아이템을 준비했다. 마이티 마우스 소리가 알려주는 '단신님을 위한 9가지 스타일 철칙'(p.59)으로 "나는 원래 키가 작아서 뭘 해도 여자들이 안 좋아해!"라며 절망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자 한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생을 위해 '신입사원을 위한 오피스 팁'(p.26)도 준비했다. "한가인 님은 일장에서 한가인을 뛰어넘는 여배우가 되겠다"고 말하는 스물두 살 고두림 양의 당찬 인터뷰(p.126)를 보고 기운을 얻으시라. 그외에도 화끈하고 재미있는 기사와 화보를 준비했다. 이로써 이 한 권의 MAXIM이 작게나마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길. (아, 물론 좋은 쪽으로 말이다. '악명 높은 성도착자'(p.146)이나, '통제불능 범죄를 저지른 파이터'(p.64)같은 기사를 따라하진 마. 제발, 플리즈)

2013년 3월 편집장

이영희

# GATSBY

FACE CARE SERIES

이제, 페이스케어도 **가스비!**



웨이셜 워시  
퍼펙트 스크럽



웨이셜 워시  
오일 크리어 폼



웨이셜 워시  
소프트 스크럽



웨이셜 워시  
아이스 쿨링 젤

**Misson Complete!**



2013. 3 고두림



2013. 2 이예빈



2013. 1 한그림



2012. 12 배소은



2012. 11 김예빈

## This Month's Hottest Request

MAXIM 모델을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기회! 섭외 요청 게시판으로!



MAXIM에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모델이 있나? 그렇다면 MAXIM 홈페이지 메인에서 '섭외 요청 게시판' 배너를 클릭하라! 당신이 그토록 MAXIM에서 만나고 싶던 모델을 직접 추천할 수 있다. MAXIM 편집부는 그동안 독자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강예빈, 배소은, 한그림, 이예빈 등을 섭외하여 화보에 담았다. 이번 달 섭외 요청 게시판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모델은 고두림이다. 인터넷 열풍으로 유명한(물론 몸매도) 그녀는 TV 프로그램 <얼짱시대>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동시에 매체 노출을 즐기며 못 남성들의 애간장을 녹인 주인공이기도 하다. 다른 잡지에선 눈 씻고 찾아도 볼 수 없는 그녀의 화보를 MAXIM '여신 발굴 프로젝트'에 담았으니 서둘러 확인하도록!

홈페이지 왼쪽 상단의 **섭외 요청 게시판** 배너를 클릭하고  
MAXIM에서 만나고 싶은 모델을 직접 추천하자!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



**가슴 크면 인기 없는 나라가 있다?**  
북한에선 B컵 이하의 가슴이 더 먹여준다는 소식, 최근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북한 여성은 큰 가슴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그들이 왜 큰 가슴을 부끄럽게 여기는지 궁금하다면 MAXIM 홈페이지로 오라! 이밖에도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과감하고 흥미로운 뉴스들이 당신을 기다린다!

### MAXIM SURVEY

#### 다시 보고 싶은 여성 듀오 그룹은?

- 1위 타샤니(269표 36.7%)
- 2위 비비(232표 31.7%)
- 3위 허쉬(94표 12.8%)
- 4위 코코(70표 9.5%)
- 5위 SUE(68표 9.3%)

총 투표자: 733명 / 투표 기간: 2013년 1월 21일 ~ 2월 11일



10년 전만 해도 당신의 마이마이와 책받침, 축축한 꿈속의 주인공은 그녀들이었다. MAXIM은 추억 속 여성 듀오 중 다시 만나고 싶은 그룹에 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1위는 동네 오락실 펌프 기계 대표곡 '경고'로 인기를 끈 타샤니가 차지했다. T유미라와 애니로 이뤄진 타샤니는 수준높은 힙합과 알앤비 음악을 선보였다. (하지만 저 더듬이는 어찌지?) 뒤이어 '널 위해 그 좋은 나이트도 안 간다'던 미녀 듀오 비비가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올랐다. 그밖에도 재미있고 기발한 설문 조사가 MAXIM 홈페이지에서 당신의 환표를 기다리고 있다!



**This Month's Hot Scan**  
2월호 잡지 속 QR 코드 중, 독자들이 가장 많이 스캔한 코드는 과현화 화보에 있었다. 화보 촬영 현장 영상이 담긴 페이지는 순식간에 수천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 못지않게 화끈한 영상이 3월호 곳곳에 숨어 있으니 스캔해 보도록!



Swiss made  
Sapphire glass  
See-through case back  
ZASPERO Cal. 3540D.Z1

# PERFETTO

Moderno Collezione 201

공식수입원 : (주)자스페로 코리아 1688-8907

- 직 영 점(여의도) 02)783-8910
- 롯데백화점(미아점) 02)944-2042
- 롯데백화점(안양점) 031)463-2184
- 롯데백화점(대구점) 053)660-3132
- 롯데백화점(울산점) 052)960-4783
- 신세계백화점(광주점) 062)360-1934
- AK백화점(평택점) 031)646-6139
- NC백화점(배운대) 051)709-5741
- 세운스퀘어(종로점) 02)2272-2688
- 디큐브시티(신도림) 02)2211-0149
- 타임랜드(은평점) 02)350-8471
- 시계상사(안양점) 031)441-0158
- 뽕 끼 등(부천점) 032)662-0686
- 열 가(대구점) 053)255-8940
- 타임뱅크(광주점) 062)410-0110
- 인터볼고점(양성점) 055)911-7111
- 종문면세점(제주점) 064)780-7665
- 롯데백화점(노원점) 02)950-2139
- 롯데백화점(부평점) 032)452-2168
- 롯데백화점(포항점) 054)230-1137
- 신세계백화점(영등포) 02)2639-1337
- 현대백화점(중동점) 032)623-2163
- AK백화점(원주점) 033)811-5535
- 갤리아백화점(수원점) 031)548-8996
- 이타일랜드(신촌점) 02)313-4108
- 테크노마트(신도림점) 02)2111-1120
- 원 타 임(왕십리) 02)2200-1355
- 사론주얼리(안양점) 031)463-9788
- 뉴코에몰렛(부천점) 032)624-8337
- 해피타임(대구점) 053)428-3086
- 골 드 록(광주점) 062)410-0137
- 타 임 볼(부산점) 051)919-4704
- 롯데백화점(분점) 02)772-3124
- 롯데백화점(건대점) 02)2218-3143
- 롯데백화점(인천점) 032)450-2153
- 롯데백화점(창원점) 055)279-3119
- 신세계백화점(경기점) 031)695-1277
- 현대백화점(광주점) 062)510-7171
- NC백화점(강서점) 02)2667-9514
- 대구백화점(대구점) 053)422-3191
- 와 와 치(강남점) 02)537-8977
- 두산타워(동대문) 02)3398-7527
- 미 금 사(종로점) 02)434-4880
- 탑 타 임(안산점) 031)413-7656
- 케이플레이스(천안점) 041)564-5485
- 공주나라(대구점) 053)256-0975
- 골드캐니언(광주점) 062)714-1121
- 불 량(부산점) 051)245-7965
- 롯데백화점(삼삼점) 02)2143-7282
- 롯데백화점(관악점) 02)842-7706
- 롯데백화점(청주점) 043)219-9108
- 롯데백화점(광복점) 051)678-3155
- 신세계백화점(의정부) 031)8082-0344
- AK백화점(구로점) 02)839-5128
- NC백화점(불광점) 02)350-8478
- 동아백화점(대구점) 053)780-1701
- 가든파아브(송파점) 02)2157-5000
- 두산타워 2(동대문) 02)3398-5528
- 테크노마트(강변점) 02)3424-7073
- 워치보이(인천점) 070)8632-5300
- 북 와 치(청주점) 043)223-1333
- 교보문고(대구점) 053)425-9961
- 티 파 니(광주점) 062)671-7458
- 롯데백화점(영등포) 02)2630-6734
- 롯데백화점(일산점) 031)909-3293
- 롯데백화점(대전점) 042)601-2149
- 롯데백화점(시흥점) 051)810-4138
- 신세계백화점(인천점) 032)430-1496
- AK백화점(수원점) 031)240-2199
- NC백화점(분당점) 031)780-3114
- 대동백화점(창원점) 055)212-8383
- 오해피타임(울산점) 02)2012-0625
- 헬로우APM(동대문) 02)6388-2927
- 워 치 록(노원점) 070)4136-5090
- WatchF1(부평점) 032)501-7015
- 예친시계(대전점) 042)280-9117
- 열 가(구미점) 054)451-8940
- 조 이 필(포항점) 054)613-1170
- 롯데백화점(청양리) 02)3707-1190
- 롯데백화점(평촌점) 031)8086-9248
- 롯데백화점(전주점) 063)289-3191
- 롯데백화점(천안점) 051)730-3235
- 신세계백화점(천안점) 041)640-5496
- AK백화점(분당점) 031)781-8194
- NC백화점(부산점) 051)509-7221
- 이 와 치(영등점) 02)771-7033
- W MALL(구로점) 02)2081-0921
- 굿모닝시티(동대문) 02)2118-8075
- 타임 24 (일산점) 031)931-5555
- 타 임 련(부평점) 070)7516-4545
- 삼 성 시(대구점) 053)422-3002
- G-ZONE(구미점) 054)455-2410
- 타임피어(포항점) 054)253-8855

# Letters

꽃피고 봄이 오는 3월에 너님 소식 전해주오.



## 설에 찾아온 테러리스트들

설에 조카들에게 테러당하기 싫어서 책상 정리를 하던 중 책장에 꽂혀 있는 MAXIM이 벌써 43권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았소. 제대한 지 벌써 4년이 되다니 나이를 먹었구나 하고 우울해 하는데 갑자기 조카들이 뜬금없이 세배를 하는 것이 아니겠소! 담뱃값으로 아껴둔 잔돈마저 싹 털어가는 바람에 고통은 더 우울한 설날이 되었소. (이민섭, 이메일 사연)



**에디터 조웅재** MAXIM 콜렉션도 지나간 세월의 흔적이 될 수 있군요. 저도 가끔은 하도 깊숙한 곳에서 추억의 AV배우 마이크 유키의 95년작 <템테이션>을 꺼내 보며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세뱃돈이라는 것은 나이를 먹으면서 상송곡선을 그리다가 어느 순간 바닥을 친 이후로는 마이너스 곡선을 그리게 되지요. 억울해 하지는 마세요. 미래의 우리 손자인 아들딸도 옛날의 우리처럼 '보관해 달라'며 세뱃돈을 바칠 테니까요.

너도 낚였나?

### 어장관리 당하는 남자

어학원에서 손이 너무나도 예쁜 처자에게 반해 고민고민하다 용기를 내어 번호를 따냈소. 의외로 반응이 괜찮았던 처자와 그 이후로도 연락을 하며 종종 만나 식사까지 하는 사이로 발전했소. 그러다 이 때에 싫어 어느 날 고백을 했는데 "난 널 이성으로 본 적이 없다"며 거절하는 것이 아니겠소! 결국 본인은 그동안 어장관리 당하고 있었던 것이요?! (David Jung, 이메일 사연)



### 여친이 MAXIM을 싫어해요

제 여친은 제가 MAXIM 보는 것을 자꾸 막으려 합니다. 그래서 아이패드에는 MAXIM 어플을 새로 샀는지 매일 검사까지 해요. 저번에는 MAXIM 과월호 30권을 중고장터에서 샀다가 여친에게 들켜서 지식 보내는 심정으로 재활용품 처리했습니다. 엉엉. 오늘은 부산에 일이 있어서 기차역에서 몰래 보려고 2월호를 샀어요. 저는 맥심이 좋은데, 여친을 설득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박인수, 모바일 사연)



난 그걸 봐야만 해



**에디터 박한빛누리** 하도 어장관리를 당해 별명이 '아쿠아맨'인 에디터가 보기에도 독자님은 어장관리를 당한 것이 맞습니다. 언제까지 양식장에서 던져주는 '여지'를 받아먹으면서 그녀의 밥값을 지불할 건가요? 하루빨리 그녀 방안의 수족관으로 옮겨서 옷 갈아 입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물고기가 됩시다. 아니면 이 어장과 저 어장을 옮겨 다니는 개구리처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에디터 이영환** 세상에는 설득이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님이 스티브 잡스도 아닌데 무슨 방법으로 질투심에 가득찬 여친을 설득하겠습니까? 계속 구라를 치거나 여친 말 씌고 계속 보세요.(아님 우릴 위해 그 여자과 헤어져! 흑흑...) 여친과 싸워 우울할 땐 저희 파티에 오세요. MAXIM을 사랑하는 남자를 최고로 치는 MISS MAXIM들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 이달의 스페셜 투고: 사우디에서 온 편지



저는 30대 초반의 Great Sex(GS)건설 Mechanical Engineer 손군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사우디에서 파견 근무중인데, 작년 7월에 파견을 오면서 아이상젠 커버인 7월호를 가지고 돌아오다가 걸려서 피갈은 MAXIM을 훔치고 15만 원의 벌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이곳은 무슬림 국가라 할복은 여자는 TV 광고에도 안 나올뿐더러 여자들이 흑종회도 아니고 검은 천으로 가리고 다닙니다. 2월 초에 휴가 나오면 아이패드를 사서 꼭 정기구독을 할 예정입니다. 이 척박하고 밤꽃냄새 나는 땅에서 일하는 제게 위로를 주세요! (손군, 이메일 사연)



**에디터 조웅재** 밤꽃냄새 나는 땅이라고 우울해 하기보다는 개척 정신을 발휘해 보는 건 어떨까요? 원래 폐쇄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일수록 방문화는 더 은밀한 법입니다. 그 흑종회 같은 여자들도 밤이 되면 흑종회로 변신해 열정적인 사사를 즐긴다고 들었습니다. 언젠가 MAXIM도 이태원에서 타고 좀 빨라 봤다는 흑종회 아가씨들을 설외해 보고 싶네요. 검은 천 아래에 김태희보다 예쁜 얼굴과 아리아니 셀레스티보다 섹시한 몸매를 감추고 있을 그녀들의 (미스 탈레반 선발대회)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위료가 좀 될까요?

-1inch

작심 1. 허리 1인치 줄이기!

-1kg

작심 2. 체지방 1kg 줄이기!

작심사

작심 3. 유연성 1cm 늘리기!

+1cm

작심 4. 체온 1도 높이기!

+1°C

WORLD  GYM™

[www.asiaworldgym.com](http://www.asiaworldgym.com)

일산 본점 031-932-7010 여의도점 02-782-1003 교대점 02-593-7766 논현점 02-543-5800  
강남점 02-2052-0096 개포점 02-3495-0200 부산 연산점 051-758-5554 부산 해운대점 051-740-7008



## 곰인형 선물하는 남자

얼마 전 여친의 생일에 선물로 무엇을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그녀의 소지품을 도배하고 있는 일본산 곰 캐릭터가 생각이 나서 케이코와 함께 어린이이만한 곰인형을 사들고 그녀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선물을 본 순간 굳은 그녀의 표정이란... "내가 초딩이냐"며 면박을 주는 그녀가 너무 야속해 눈물이 날 뻔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소?

(BK, 이메일 사연)



**에디터 김희성** 곰인형을 사느라 피같은 돈을 썼을 BK님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앞을 가리는군요. 아무리 최저가로 구매해도 십만 원은 훌쩍 넘었을 테니까요. 제 방 옷장에는 곰인형 무리들이 신주단지처럼 모여져 있습니다. 혹시 누구든 여친에게 곰인형을 선물할 계획이 있다면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그냥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곰인형들은 다 어디서 났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 수상한 동호회 회원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로 주말에 넘쳐나는 시간을 일차게 보내고자 싸이클 동호회에 가입했다요. 주말마다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를



타는 나를 유익하고 건강한 체육 생활이요. 거기서 만나 친하게 지내는 남동생 녀석이 있었는데, 이 녀석이 조금 수상하오! 반반하게 생긴 것이 여친도 없는지 하루 웬종일 문자를 보내고, 밥이나 먹자 하고, 심지어 저번주에는 술을 먹다 허벅지를 건드려 움찔하기까지 했어요! 이게 혹시 말로만 듣던 그거요? (삼각팬티, 이메일 사연)



**에디터 손안나** 말로만 듣던 그것인지 아닌지는 제 눈으로 확인해 보기 전에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반반하게 생겼다고 하셨죠? 얼마나 잘 생겼나요? 일단 삼각팬티님이 떼어 놓기 전에 제 눈으로 먼저 확인하고 싶네요. 제가 확실하게 떼어(데려가) 드릴 테니 꼭 연락 주세요.

### 벌레가 무서워요

얼마 전에 여자친구네 집에 놀러갔다가 침대 아래에서 스몰스몰 기어나오는 바퀴벌레를 발견했습니다. 기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친이 전광석화같은 스피드로 달려가 신고 있던 슬리퍼로 바퀴벌레를 단숨에 때려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윽고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벌레를 털어내고 씩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좀 쪽팔렸습니다. 진짜 같다고 생각했겠죠? (김호진, 이메일 사연)



**에디터 이영환** 축축한 뱃가죽을 드러낸 채 벌러덩 누워서 지랄발광을 하는 벌레를 보고 멀쩡할 수 있는 영장류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마 여친님도 무서움을 무릅쓰고 한 행동이었을 겁니다. 벌레를 잡고 씩 웃으며 돌아왔다고 하셨죠? 그동안 그녀를 섬섬하게 하진 않았나요? 눈치가 있다면 화이트데이엔 백이라도 하나 선물하세요. 슬리퍼로 뺨대구 맞기 싫으면 말이지요.

## 독자 사연 응모

화이트데이의 위험한 편집부 방문 가이드!

### 응모 방법

#### ▶우편 접수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빌딩 4~6층 편집부

####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 ▶QR 코드 접수

16페이지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을 달아라.

#### ▶방문 접수



때는 3월 14일 아침, 맑은 공기에 눈을 뜨니 시간도 마침 인간이 가장 사연을 잘 쓸 수 있다는 오전 8시. 간만에 책상에 앉아 옛 사랑 떠올리듯 한 줄씩 사연을 써 내려 가자. 남몰래 숨겨 둔 사랑장 안 사랑과 편지 봉투를 꺼내어 편지를 담고 힘차게 서교동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MAXIM 사옥에 도착하면 군침을 흘리며 화이트데이 사랑을 기다리는 에디터들을 만날 수 있다. 사회성이 무척 떨어지는 그들을 절대 놀라게 해선 안 된다. 준비한 사연과 사랑을 조용히 내려놓고 돌아오자.(해해...)



다음 4월호 독자 사연에 채택된 모든 분께 **'에브리맨택 페이스 스크럽 시그니처 민트'**를 증정할 예정

이다! 두피 자극을 유발하지 않는 천연 계면활성제를 사용했으며, 용량은 1개 중대가 보디샴푸로 사용해도 남을 만큼 넉넉하다! 가늘고 똑똑 끊어지는 연약한 당신의 모발 관리에 탁월한 해결사가 되어 줄 이 선물이 탐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사연을 투척하시게!

GIORGIO FEDON  
1919



**HAWK EYE**

조르지오 페돈 | (주)기노코퍼레이션 | [www.konocorp.com](http://www.konocorp.com) | [www.giorgiofedon.co.kr](http://www.giorgiofedon.co.kr) | 02.3397.7100

[직영점] 롯데백화점 분당 (031-738-2140) 대구백화점 프라자 (053-253-7133) 롯데백화점 미아 (3/12 오픈) 하이힐 (3/8 오픈) 롯데백화점 부산 오픈예정



# Dear. Readers

## 나인뮤지스 손성아의 독자 고민 처방전

사마의와 제갈량의 진법보다 앞서서 그녀의 연애 통찰력을 보았느냐!

**Q. 남친이 있으면서 솔로인 척 하던 처자에게 낚였습니다. 심지어 그 남친에게 협박까지 받았어요. 대체 이게 무슨 꼴이죠?**

〈영통구 이모씨, 이메일 사연〉

**A.** 그나마 빨리 안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여자는 정말 대놓고 바람을 피우려고 작정한 모양인데, 그럴 바에는 정들기 전에 빨리 알아차려서 정리하는 게 낫지요.

**Q. 아직은 여자친구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주변에서는 권태기를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여자가 권태기에 하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Csoap, 이메일 사연〉

**A.** 일단 연락을 잘 안 하겠죠.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뭘 하는지 묻지도 않을 거구요. 만나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사소한 일로 오해가 생겨 다투게 되고... 권태기는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Q. 화이트데이가 다가오는데 기억에 남을 만큼 괜찮은 선물이 뭐 없을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유그봉, 이메일 사연〉

**A.** 추억이 담긴 사진을 앨범으로 만들어서 주는 건 어떨까요? 거기에 사랑을 엄청 담아 '먹을 때마다 내 생각 해'라고 하는거죠. 평생 못 잊으라고 사랑을 왕창 주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Q. 고시를 준비하는 3년차 고시생인데 이번에도 낙방했습니다. 그동안 기다려 준 여친에게 미안하네요. 헤어지자 하는 게 예의겠지요?**

〈신림동 아이폰, 이메일 사연〉

**A.** 기다리지 못할 거였으면 여자는 이미 진작에 떠났어요. 자기를 그만큼 사랑해주던 여친을 차버린다는 건, 그건 절대로 배려가 아니예요.

독자 사연  
투척



당장 104페이지를 펼쳐 보자!

바비 인형 귀싸대기 후리는 강력한 미모로 당신을 유혹할 나인뮤지스의 뉴페이스 여신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스커트 폴앤베어  
반지 스트라디바리우스  
구두 슈즈원



# HELL DIVER

## 1942 SB2C



HELLDIVER

공식수입원 에이맨 인터네셔널 1644-3885 | 공식 홈페이지 <http://www.helldiverwatches.com>

|                           |                        |                           |                         |                        |
|---------------------------|------------------------|---------------------------|-------------------------|------------------------|
| 굿모닝시티2F(동대문) 02-2118-8075 | 이와치(명동점) 02-771-7033   | TIME 21(강변점) 02-3424-7073 | 탑타임(안산점) 031-413-7656   | 북와치(청주점) 043-223-1333  |
| 헬로APM6F(동대문) 02-6388-2927 | 이타임월드(신촌점) 02-313-4108 | TIME 21(강변점) 02-3424-1210 | 티파니(임산점) 031-931-5300   | 타임북(부산점) 070-7530-1219 |
| 두산타워3F(동대문) 02-3398-5528  | 타임랜드(은평점) 02-350-8471  | 테크노마트B1(신도림) 02-2111-1120 | 워치보이(인천점) 070-8632-5300 | 삼성새대구점) 053-422-3002   |
| 두산타워5F(동대문) 02-3398-7527  | 이츠와치(홍대점) 02-323-0980  | 샤론주얼리(안양점) 031-463-9788   | 타임런(부평점) 070-7516-4545  | 엘가시계(대구점) 053-255-6940 |
| 원타임(왕십리) 02-2200-1355     | 와와치(반포점) 02-537-8977   | 보석상자(안양점) 031-466-1014    | 뱅크통(부천점) 032-662-0686   | 엘가시계(구미점) 054-451-6940 |
| 프로워치(남대문) 02-779-6964     |                        |                           |                         |                        |

# Circus M

A MAXIM VIEW OF THE WORLD

## 휴지가 없다아아아!!!!

이런 18스럽게 당황스러운 일이 있다.  
우리가 휴지 대응품을 추천해주마!



•에디터가 직접 주먹에 생크림을 묻히고 닦아내면서 실험한 결과임.

### 1 명함

세정력: ★★

지갑을 뒤적거렸을 때 가장 만만한 것은 역시 명함이다. 보통 때는 수심장씩 가지고 다니는 아이템일 테지만 하필 그 순간 명함이 몇 장 없다면 가장자리에 침을 묻혀 고무마 겹질 벗기듯 살살 벗겨보자. 한 장의 명함으로 최소 2장에서 10장(응?) 까지 만들 수 있다. 뒤처리 후, 내 이름에 똥칠이 되어 버려지는 것은 꺼림칙하지만 이대로 집에 가는 것보다는 낫잖아.

### 2 휴대폰 케이스

세정력: ★

스마트폰에 상처가 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현대인의 필수품. 주머니를 뒤져봐도 아무것도 없다면 휴대전화에 부착된 이 녀석을 떼어내, 사각 모서리를 이용해 쓱쓱쓱 일을 처리하자. 한번 쓰고 버릴 것인지, 씻어서 다시 휴대전화에 부착해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할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렸다.

### 3 양말

세정력: ★★★★★

라코스테 같은 고가의 양말이 아닌 길거리에서 파는 싸구려 양말이라면 재벌 수지맞는 장사다. 게다가 누구나 기본적으로 양말에 착용하고 다니니, 최소 두 번의 기회는 있는 셈이다. 명함보다 달는 느낌도 깔끔한 편이다. 발목까지 올라오는 목이 긴 양말이라면 스킨에 따라 몇 번은 더 닦을 수 있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요즘 발목 양말을 안 신는구나!

### 4 지푸라기

세정력: ★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데, 똥통에 빠진 사람이 똥들 못 잡겠는가? 지푸라기에는 섬유질이 많아 예로부터 조상님이 똥그릇을 닦는 데 널리 이용했다고 한다. 먼저 지푸라기를 살살 비벼서 연하게 만들고 지푸라기 더미로 매듭을 지어 표면적을 넓게 만들어 목표 지점을 훑쳐내자. 똥꼬에 상처가 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 aximus



6

## 5 두루마리 휴지 심

세정력: ★★  
휴지는 없어도 그분의 고귀한 뼈대는  
고스란히 걸려 있는 경우가 많다.  
두루마리 휴지 심이 종이를 여러 겹  
돌돌 말아서 만든 것임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과도로 사과를 깎듯 종이를 살살  
벗기자. 아... 그녀를 벗길 때도 이렇게  
긴장하진 않았는데...



5



7

## 6 상추, 잎사귀

세정력: ★★★  
우리네 조상님은 용변을 거름으로  
활용하곤 했다. 그래서 밭에서 일하다가  
그 자리에서 용변을 보기도 했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주변에 있는  
각종 이파리였다. 호박잎, 연꽃잎이면  
좋으련만 이 겨울에 연꽃이 있을 리는  
없고, 그 대신 마트에서 상추를 사서  
사용했다. 이후로는 상추쌈을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날 것 같다.

8

## 7 지폐

세정력: ★★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면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레알 수컷이라면 천  
원짜리 몇 장 정도는 항문 청결을 위해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지갑을  
열었는데 만 원짜리밖에 없다면 옆  
칸에 조용히 노크해서 천 원짜리로  
바꿔달라고 하자. 뒤처리 후 돈 독(毒)  
이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할 것.



## 8 누군가 한 번 쓴 휴지

세정력: ★★★★★  
이건 정말 심각하게 고민된다. 에디터  
지인들에게 자문하니, 두말할 것 없이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외쳤지만,  
에디터는 항문으로 항문을 닦는  
느낌이 들어서 진저리를 쳤다. 차라리  
입고 있던 팬티로 처리하고 분연히  
일어서리라.

## 9 영수증

세정력: ★★  
평소 지갑 정리를 잘 하지 않는  
귀차니즘이 드디어 빛을 발할 때다.  
그동안 뻑뻑하게 모아둔 카드 영수증을  
활용하자. 종이 재질이 좀 뻑뻑하니  
꾸깃꾸깃 문질러서 영수증을 연하게  
만든 뒤 활용하자. 이걸로 항문과의  
정산은 끝났다.



9

## 10 신발 깔창

세정력: ★★★★★  
신발을 벗어 밑에 깔린 깔창을 꺼내자.  
발가락 부분과 뒤꿈치 부분을 나누어  
이용하면 한 짝당 두 번의 기회가 있는  
셈이다. 키 높이 깔창을 칸 사람이라면  
여기서 기회는 배가된다. 발로 뒤를  
쑤시는 찝찝한 느낌이 들지만 그나마  
뉘울 수 있다는 데에 감사하자.



10



BY 박원복·누리 PHOTOGRAPH ARC STUDIO LAYOUT 사문경

## 세계 최초 섹스 로봇 록시

어머, 저건 사야해!



**외모**  
몸매는 매우 훌륭하지만 얼굴이 아쉽다. 단백집 인형같이 귀엽고 말랑말랑하고 아련한 표정이 없다. 어찌 보면 얼굴이 녹아내릴 지경에 이른 마이클 잭슨 같다. 볼을 찌고 하는 것을 추천.

**성격**  
사교적이고 대담한 성격,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 어리고 상처입기 쉬운 성격, 어머니와 같은 배려심을 가진 성격, 그리고 SM 취향 중 원하는 걸로 선택 가능하다.

**단점**  
인공관절은 있지만 걸어다니지 못한다. 록시의 창조자이자 위대한 발명가이신 더글라스 하인스는 "록시는 청소도 못하고 요리도 못 한다. 하지만 그거 빼곤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말 뭐든지 다하는 거야, 록시?

서방님, 실살...



**장점**  
사전 프로그램 입력을 통해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안다. 당신에게 꼭 맞는 여친 구실을 한다. 첼시의 광팬이면 록시도 첼시를 좋아하고 당신이 컵라면을 좋아하면 록시도 컵라면을 좋아한다. 당신의 터치에도 반응한다. 무엇보다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또 다른 장점**  
혼자 독차지(?)할 수 있으니 위생적이다. 한 번의 섹스를 위해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밥 먹으며 마음에도 없는 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돈도 굳는다. 성병에 감염될 위험도 없고 혹시나 잘못해 당신의 2세가 생길 위험도 없으니 공휴가 부러지도록 마음껏 할 수 있다.

**사후 서비스**  
무선 인터넷으로 성격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지원, 이메일 수신마저도 가능하다. 아이폰 업데이트 저리가라네.

**중요 부위**  
산부인과 의사의 조언을 따라 살아있는 여자의 그곳 질감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이거 뺐으면 환불처리 할거요) 그래서 그런지 이미 록시와 섹스를 해 본 사람들의 후기가 관참은 편.

뒹고, 조이고, 칠하고!

**SPEC CHECK**

이름: 록시(Roxyxy)  
신장: 170cm, 54kg  
가슴 크기: 팍찬 C컵  
가격: 약 1,000만 원



하나 더 주세요

### 허니돌이 더 좋은 5가지 이유

록시가 마음에 안들면 이걸 어때?

1. 양쪽 가슴에 센서를 심어놔 유두를 움켜쥐면 신음소리가 새어나온다.
2. 키가 156cm으로 록시보다 이담해 한 팔에 쑥 들어온다. 록시는 너무 컸어...
3. 물로 행구는 것만으로 청소가 가능해 편하다.
4. 최근 탄력 좋은 스틸렌 소재를 사용해 오렐 섹스의 만족도를 높였다.
5. 원하는 멘트를 SD카드에 저장할 수 있다.



**이름:** 허니돌  
**키:** 156cm  
**몸무게:** 26kg  
**가격:** 약 1,000만 원

UFC 데뷔 **임현규**

UFC 8승 도전 **김동현**

UFC 데뷔 **강경호**

코리안 파이터 3인 동시출전

**UFC** *in JAPAN*

3일 3일 일요일 오전 9시

**SUPER ACTION** *독점 생중계*

수퍼액션  
공식블로그



### 이스터 에그를 찾아라!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처럼 드라마틱한 유머가 숨어 있는 디지털 세상 속 이스터 에그를 찾아서!



#### '이스터 에그'란?

부활절 달걀이란 뜻의 이스터 에그. 디지털 세계에선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던 제작자들이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프트웨어 속에 몰래 장난질을 쳐놓은 기능을 뜻한다. 예컨대 특정 명령어를 입력하거나 게임 속 숨겨진 장소로 이동하면 프로그램 속에 감춰진 메시지나 재미있는 기능을 체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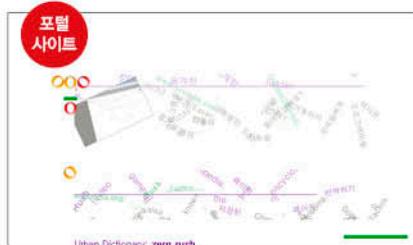


#### 하늘을 달리는 안드로이드

실행 방법

1. 안드로이드 OS(진저 브레드 이상) 기기에서 환경 설정을 클릭 후 휴대폰 정보를 누른다.
2. '안드로이드 버전'이라고 표시된 텍스트 상자를 연타한다.
3. 동한 표정으로 화면 밖을 응시하는 안드로이드가 나타난다. 여기서 녀석의 배를 지그시 누르고 있으면 느닷없이 여러 마리의 안드로이드가 나타나 공중 부양을 하기 시작한다.

**부스리기 상식:** 하늘을 나는 안드로이드는 유튜브 유명 유행 밈 'Nyan Cat'을 패러디했다.



#### 빨찌의 메카 Google

실행 방법

1. 구글 홈페이지(www.google.com)에 접속한다.
2. 검색창에 'zerg rush'를 입력한다.
3. 마우스 커서가 십자 모양의 조준경으로 바뀌며 'Google'의 일파벳 'O'들이 페이지에 표시된 콘텐츠를 갉아먹기 시작한다.
4. 조준경으로 저그(일파벳)를 쏘 죽일 때마다 화면 오른쪽에 일파벳 길 수와 분당 행동 수가 표시된다.

**부스리기 상식:** 게임에서 패하면 일파벳 'O'들이 페이지 중앙에 모여 친절하게 'GG'(Good Game)를 쳐준다.



#### GTA 최강 든기 밀도?

실행 방법

1. <GTA 산안드레스>를 실행한다.
2. LSPD HQ(경찰서)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3. 우측에 있는 첫 번째 문(하얀 셔츠를 입은 남자가 서 있는 문 앞)을 비집고 들어간다.
4. 라커 룸을 지나 샤워실에 들어가면 경찰 한 명이 서 있는데, 경찰을 죽이면 보라색 밀도(성인용품)가 나타난다. 경찰이 왜 이런 걸...?

**부스리기 상식:** <GTA 산안드레스>에는 미니 게임으로 포함한 약 20개 이상의 이스터 에그가 존재한다.



#### 지렁이가 유튜브 영상 속에!

실행 방법

1. 유튜브 영상(웬만하면 HQ 영상)을 재생한다.
2. 키보드의 좌, 우 버튼을 눌러 로딩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한다.
3. 그 즉시 위 혹은 아래 방향키를 누른다. 로딩 이미지가 뱀으로 변하고 컨트롤이 가능해진다.
4. 영상이 끝날 때까지 화면에 표시되는 점을 먹으며 꼬리를 늘려나간다.

**부스리기 상식:** 아쉽지만 랭킹 표시 시스템은 없다.

### All About Easter Egg



#### 왜 하필 이스터 에그?

본래 이스터 에그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해 사람들에게 나눠주던 부활절 삶은 달걀을 뜻한다. 하지만 몇몇 허파에 바람 든 사람들이 삶은 달걀 대신 날달걀을 주는 장난을 치고는 끝났는데, 바로 그런 장난이 현재 '이스터 에그'의 유래라고 전해진다.



#### 최초의 이스터 에그는?

최초의 이스터 에그는 1978년 출시된 비디오 게임 <Adventure>에서 발견된다. 게임의 개발자인 워런 로비 넷(Warren Robinett)은 게임 속에 숨은 스테이지를 만들어 자신의 이름을 블랙으로 새겨 넣었다. 당시엔 화려했던 게임 개발자의 헤드 헌팅을 우려해 게임사가 제작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



#### 신도불이 고전 이스터 에그

이스트소프트의 '알집이' 국내 이스터 에그의 대표적 예. 새(new) 폴더를 만들면 새(bird) 이름의 폴더가 생기는데, 계속 하다보면 '그만 좀 만들어', '어느새', '추임새', '냄새' 등 얼토당토않은 폴더명이 나타난다. 또 꿈틀레이어는 '프로그램 정보'에서 꿈 로고를 클릭하면 과거 '뿔뿔'으로 유명했던 국악 난이도의 총알 피하기 게임이 실행된다. 이런 랭킹도 표시된다.

# Hot Place

어서 와, 이런 덴 처음이지?

## 멀티 헤어숍 NuFACT Hair & Pub

허벅지나 뺨뺨 긁으며 하품을 해대던 미용실은 잊어라.  
여기 대체 뭐하는 미용실이야?

→ 헤어숍에 들러 두어 시간 지루하게 머리만 하고 탈레탈레 집으로 가는 과정이 허무했다는 NuFACT  
이우섭 원장. 술도 마시고 게임도 하고 필 받으면 토마스 한 바퀴쯤 돌아도 눈살 찌푸릴 사람 없는 공간. 이우섭 원장이 상상한 NuFACT란 헤어숍의 모습이다.



shop @  
애인이 4시간 걸리는 디지털 펌을 하러 가자고 한다면 망설임 없이 NuFACT를 추천하라. 애인, 동성 친구 할 것 없이 NuFACT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전혀 새로운 문화 공간이다. (단, 미성년자는 제외)



다양한 종류의 향수가 구비돼 있다. 준다든 뜻은 아니야...



오, 저도 한입만 빠라빠라빙.



헤어 시술을 하는 고객에게 무료로 음료가 제공된다. 메뉴판에는 헤어 시술 관련 정보들이 적혀 있다.



철권 지면 리브샷 하는 거 안 배웠나?

NuFACT에는 플레이스테이션과 흡연실, 음료를 마실 수 있는 비 그리고 미러볼이 돌아가는 적당한 크기의 라운지까지 구비되어 있다. 이거 주변 상권 독점한다고 신고 들어오는 거 아닌가 보라...



춤이 땡기면 추면 그만이다. 이쯤 되면 헤어숍이란 말이 무색하지?



구레나룻 남겨드려요?



로컬 이하의 싸구려 헤어 제품을 취급도 안 한다는 NuFACT. 일반편의 가격은 정찰가인 7만 원. 드레드, 블레이즈 같은 특수 머리는 30만 원부터다.

**NuFACT Hair & Pub**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11-114 (2, 3F) 02-463-3338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4번 출구 30m 부근 [www.nufact.co.kr](http://www.nufact.co.kr)



술을 못하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커피도 마련돼 있다.

**NuFACT 오븐 이벤트**  
**₩10,000**  
모든 헤어에 시술 가능  
사용기간: 2013년 4월 30일까지  
**Free**

# Circus Maximus Noodle

## 일본 컵라면 베스트 4

언제까지 지빠귀 플러더의 그녀들에게 단백질만 뺏기고 있을 것인가. 이제 원기를 보충할 시간이다. 한국인의 입맛으로 열도의 컵라면을 벗겨보자. Get It Noodle!



김연빌



박스프



### 1위 마루짱 미끌미끌 완탕면

뜨끈하고 구수한 국물이 온몸을 휘감는다. 느끼한 갈비탕 같은 맛. 밥 한 그릇 말아 먹으면 필수 단백질의 일일 권장량을 모두 섭취할 수 있을 듯하다. 게다가 면발의 탄력은 얼마나 놀라운지 문득 SOD에서 다리를 찢던 유마 아사미가 떠오른다. 중간중간 씹히는 완탕 또한 별미. 우리네 입맛에 완벽히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 우리가 야동 볼 때 국적 따졌나. 누들도 똑같다. 맛있으면 장병.



### 2위 닛싱 스프 누들 카레

진하고 짙은 일본식 카레가 원기를 회복시켜준다. 봉지 면으로 나왔으면 백세 카레면을 단종시켰을 법한 고 퀄리티 라면. 라면 회사 사장이 인도 사람인 걸까? 아니면 적어도 인도 피가 섞인 걸까? 레알 카레의 풍미가 느껴진다. 거기에 각설량 모양의 감자도 식감을 높인다. 다만 면발이 국물에 녹아들지 못하고 홀로 부유하는 것이 단점. 연기는 잘하는데, 핑크 가발을 쓴 야동 배우를 보고 있는 느낌이다.



### 3위 닛싱 U.F.O.

포장 사진을 보고 짜장 혹은 데리야키 맛일 거라 예상했지만, 막상 먹어보니 UFO처럼 미확인된 범주의 맛이였다. 단맛, 짠맛, 매운맛 그렇다고 신맛도 아닌 것이 설날에 파키스탄 전래 동요를 듣는 듯 어색하게 느껴진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끝 맛이 개운치 않다는 점. 짜장처럼 달지도 않고, 데리야키처럼 고소하지도 않다. 탄력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면발이 생강 맛과 어우러져 젓가락질을 머뭇거리게 한다. 돈이 아깝다.



### 4위 묘소 잇페이짱 야간 매점의 야끼소바

여태 먹은 열도의 라면은 비교적 맛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놈... 마요네즈와 고추냉이의 절묘한 조화가 기분을 잡치게 한다. 면발 한 줄기 한 줄기 넘기기도 힘들다. 얼굴 보고 다운받았는데, 가슴이 나보다 작은 배우일 때 느끼는 분노와 비슷하다. 다른 의미에서 맛의 울가미! 맛의 땃! 맛의 감옥! 덧붙여 라면 봉지 안에 들어 있는 원피스 스티커에는 듣도 보도 못한 캐릭터가 그려져 있다. 호기심이라도 먹어보지 않았으면 한다.



## 누들러 배 아이디어 경진대회 결과는?

누들러는 1월호에서 라면 한 박스를 내걸고 독자들에게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그 영광의 당첨자와 탈락자를 공개한다!

당첨자

해외 컵라면 비교 체험  
(mechawans@gmail.com)

바용문제가 발목을 잡긴 하지만, 재미와 실현 가능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

탈락자

컵라면 종류별 자위법  
(shyang4@gmail.com)

↳ 나라면 잡지에 고추 까겠냐?

그냥 라면 좀 주세요.  
(agidi2002@gmail.com)

↳ 시먹어라.

은꼴사 보냈는데...  
(nike606@naver.com)

↳ 안 왔습니다.

직장 상사가 열받게 했을 때 뒤통나 먹을 라면 베스트(700@daum.net)  
↳ 요즘 같은 세상에 회사 잘 다녀야지요.

죽풍 섹스 후 보양 누들  
(genesis029@hanmail.net)

↳ 테스트 대상자 부재

여자친구가 라면 먹는 소리나 포즈 베스트  
(marshals80@naver.com)

↳ 여자친구 없다고!

라면 먹을 때 섹스하면?  
(sayclone@naver.com)

↳ 좋죠.



o r o l o g i o d i u n a n g e l o



Milton Stelle™  
Italy

밀튼 스텔라 전국 구입처 글로벌 타임 02.788.1590 - 온라인 샵 <http://www.globaltimeshop.co.kr>

MILTONSTELLE ITALY 전국 구입처 : 백화점 (서울) 현대 신촌점 02.3145.2169 / NC 백화점 강서점 02.2667.9514 / AK 구로점 백화점 02.839.5129 / 디큐브 신도림점 02.2211.0149 (경기) 현대백화점 중동점 032.632.2163  
AK백화점 분당점 031.8023.2032 / AK백화점 수원점 031.240.1293 /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031.8082.0344 (광주) 현대백화점 광주점 062.510.7171 (대전) 갤리아백화점 동백점 042.487.0628 (충청)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041.640.5082 (대구) 동아백화점 수성점 053.780.1701 (부산) 현대백화점 부산점 051.667.1159 / NC백화점 부산대점 051.509.7221 / 아울렛, 마트 (서울) 2001아울렛 중계점 02.3399.8236 / 뉴코아아울렛 강남점 02.533.2470  
김포공항아울렛 공항점 02.6343.3979 / 롯데마트 송파점 02.406.1311 롯데마트 잠실점 02.411.0829 이마트 목동점 02.2653.1312 / 이마트 왕십리점 02.2200.1121 (경기) 뉴코아아울렛 부천점 032.642.8337 / 뉴코아아울렛 일산점 031.900.5163 / 롯데마트 구리점 031.556.1312 / 롯데마트 오산점 031.374.1319 / 롯데마트 화정점 031.938.1311 (인천) 롯데마트 검단점 032.565.1314 / 롯데마트 부평점 032.506.1312 롯데마트 삼산점 032.506.1312 (대구) 교보유통트럭스 대구점 053.422.8981

서울 타임타임 02.2111.1141 / 와와치 02.537.8977 / 워치북 070.4136.5090 / 원타임 02.2200.1355 / 패션존 02.3398.7527 / 이노아이 02.6002.6123 / 타임21 02.3424.7063 / 타임존 02.762.1537 / 이타임월드 02.313.4108 / 이와치(명동) 02.737.7033  
파반느 02.305.8055 / BA(신림) 02.881.8048 / BA(홍대) 02.325.2120 / 모래시계 019.695.0512 / 시도 010.6269.7586 / 경기 티파니(타일24) 031.931.5555 / 사프 031.463.9788 / 핑카롱 032.662.0686 / 타임루트 031.487.9057 / MS시계 032.613.0516  
시계상자 031.441.0158 인천 워치보이 07.8632.5300 / 타임런 070.7516.4545 / 프리미스 031.271.2519 / 카시오 포유 032.502.7138 / 에델링 010.8762.7705 충청 대전와치 042.487.0628 / 복와치 010.5362.9731 / 대전(마켓) 010.4036.4155 광주  
중앙보석 062.521.7551 / 골드룩 062.410.0137 / 골드케니언 062.714.1121 / 금만들기 010.2713.8623 / 티파니 062.671.7458 / 현대코아 010.2646.3544 전북 익백(군산) 063.443.0090 / 포에루체(전주) 063.223.3331 부산 명성시계(광복점) 051.253.5315  
제주 금부처 064.738.5354 / 피카소 064.762.9777 / 다빈치 064.732.3131 / 티파니 064.746.3123 / 그린드호텔 064.746.1993 / 동명백화점(무시) 019.9140.4723 / 삼미보석 064.757.4144 / 제주 롯데호텔점 064.738.3366



# HOW TO

## Office Life Tip

### #3. 신입 사원 생존법

<정글의 법칙>보다 더 살 떨리는 게 첫 출근이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여기 입사하길 잘했어!

너네 사무실에  
이런 여직원  
있어?



브라 플레이텍스



**명함을 깜빡 잊고 안 가져 왔을 때**

신입 사원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다. 에디터도 명함을 안 가져가서 당황한 적이 여러 번 있거든. 이럴 땐 상대방이 명함을 주기 전에 사과의 말을 건네는 게 예의다. "아, 어떡하죠. 명함이 다 떨어졌는데 미처 못 챙겼네요. 죄송합니다."

**Good Choice** 조금 더 연차가 쌓인 직장인은 같은 실수를 했을 때 상대방의 명함을 받고 나서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와 같은 멘트를 덧붙이기도 하더라. 역시 연륜은 못 속여...

**Worst** 계속 주머니와 가방을 뒤적거리며 명함을 찾거나 명함이 방금까지 있었는데 없어졌다. 명함에 발이 달린 게 분명하다며 사과 한마디 없이 이상한 핑계를 늘어놓는 것.

**상사가 질문할 때**

상사가 질문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게 신입이다. 신입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상사가 질문했을 때 일의 수행 과정과 부연 설명을 한참 늘어놓고

나서 마지막에 답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질문하는 사람은 답이 가장 궁금한 법. 상사가 질문하면 질문 유형에 맞게 대답하도록 하라.

**Good Choice** 답변할 때 '다음번에', '다음 달에', '2~3주 후에'와 같이 애매한 단어 말고 '내일 오후', '모레 오전' 같은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더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Bad choice** 당신이 어떤 노력을 해서 그 일을 완수했는지 구구절절 늘어놓는 무용담.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상사는 늘 당신보다 바쁘다고. 그리고 그런 거 아무도 안 궁금해하거든?

**퇴근 시간에 상사가 퇴근을 안 할 때**

상사가 한창 필바아서 일하고 있는데 퇴근 시간이라면, 이때만큼 난감한 순간도 없다. 어느 정도 직장 생활 좀 한 뒤라면 요령껏 퇴근하지만 신입 때는 퇴근 시간만 되면 그렇게 눈치 보일 수가 없다. 특히 약속을 잡아놨는데 퇴근하지 못하는 경우엔 초조함이 극에 달한다. 이럴 땐

"제가 도와드릴 건 없나요?"라고 물어본 뒤 퇴근하는 게 예의다. 다른 신입이 눈치만 보다가 어정정한 인사를 하고 나갈 때 당신은 예의바르고 뭘 좀 아는 신입이 되는 거다.

**Worst** 퇴근 한 시간 전부터 약속 잡느라 '카톡!' 사운드를 사무실에 쩌렁쩌렁 울리며 문자질하는 놈

**상사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될 때**

이런 경우 대부분의 신입 사원은 일단 상사의 업무 지시가 끝난 뒤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들으면서 이해 못한 건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마찬가지다. 상사의 지시가 잘 이해되지 않거나 애매하게 느껴지면 그 자리에서 질문하라. 그리고 114 교환원처럼 상사의 말 중 핵심어가 나오면 되물어라. "닌듀지스 화보 촬영 건 말씀하신니까?" 혹시나 버릇없어 보이지는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지시를 엉뚱하게 이해해 업무를 엉망으로 처리해놓고 상사가 하는 말을 잘 못알아들었다고 핑계를 대는 게 더 최악이거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예뻐받는 게 바로 신입 사원이야!

**Worst** "엥?"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지? 있더라고..)

# 영춘권으로 안부 인사 드리기

친척집에 화끈하게 봄맞이 인사 드리러 가볼까?

### 영춘권

코피를 립밤처럼 왜놈 입술을 시뻘겋게 처바르는 액션 영화 <엽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중국 무술. 중국 광둥 지방에 뿌리를 둔 무술로, 짧은 거리에서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강력한 공방이 특징이다. 단번에 적을 제압하는 데에 목적을 두어 이소룡이 창시한 '절권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 → 승급 체계

수련생 단계에서는 그냥 흰 티에 배바지(...)를 입고, 테크니션부터는 진짜 도복을 입는다.



수련생 단계    테크니션 - 프랙티션 - 마스터



### 1 치사오

근거리에서 상대의 움직임을 읽는 기초 수련법. '세세세' 하듯 상대의 팔을 이리저리 돌리며 공방을 주고받다 보면 나중엔 눈 감고도 움직임을 예측하는 경지에 다다른다. 상대가 없다면 연습용 나무 인형 목인장을 이용하자.

### 2 연환권

주먹을 꼭 친 상태로 어깨를 움직이지 않은 채 팔의 스냅으로만 가격하는 기술. 팔을 채찍처럼 휘두르는 느낌으로 몸의 중심선 안에서 연타한다. 주먹은 가로로 쥐는 것이 아니라 세로로 잔을 쥐고 건배하듯 내질러야 한다.



### 3 촌경

이소룡이 창시한 절권도의 '1인치 펀치'는 바로 이 영춘권의 촌경을 응용한 것이다. 근육을 떨 때 발생하는 힘을 극대화해 빠른 타격으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악수하다가도 상대를 타격할 수 있어야 한다.

### 4 박타

상대의 공격을 손바닥 부분으로 밀치면서 빠르게 파고들어가 남는 손으로 권격을 가하는 기술이다. 에어로빅하듯 하나~둘~ 하다가간 레프트 훅에 언어타질 수 있으니 두 동작을 단번에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 마포구 영춘권 도장 박정수 사부



광속 펀치 아다다다다!



## 관장에게 직접 묻는다! 영춘권 Q&A

**Q. 한때 영화 <엽문>으로 영춘권이 화제가 되었다. 혹시 영화 상영 이후 수강생이 늘어났는지?**

어린 친구 중에는 그런 수강생도 꽤 있었다. 영화를 보고 나서 건자단의 액션에 반했는지... 반면 연령대가 좀 높은 분은 주로 수련 목적으로 오신다.

**Q. 이소룡이 엽문의 제자로 알려져 있다. 절권도와 인연이 있는 셈인데?**

영춘권을 배운 이소룡은 미국으로 넘어가 배우 활동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개인 사정으로 영춘권 수련을 못하게 되자, 갖가지 무술을 조합해 '절권도'를 창시했다. 결국 절권도의 뿌리는 영춘권인 셈이다.

**Q. 영춘권과 절권도 중 뭐가 더 강한가?**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영춘권은 그 이론과 정신을 안에서 발전해나가는 무술이고, 절권도는 온갖 무술을 조합한 실용성 위주의 무술이다. 그런 면에서는 절권도가 우위에 있겠지. 하지만 절권도는 갖가지 무술을 마스터한 이소룡이 창시하고 구사한 무술이다. 그런 스펙이 없다면 과연 일반인이 이소룡 같은 힘을 100% 발휘할 수 있을까.

**Q. 영춘권의 창시자에 대해 설이 많더라. 정확히 누구인가?**

김제로 불랑배의 구애를 받던 여인 엄영춘이 스승 오매사태에게서 전수한 무술에서 비롯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공식적인 자료나 문헌 같은 게 전해져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전설이다. 정확한 뿌리는 알 수 없지만 대중화의 중심에 엽문 선생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엽문(1893~1972)**

영춘권의 정통 계승자. 절권도를 창시한 이소룡의 스승으로, 무술로 이름을 떨칠 당시에는 도장 활동을 하지 않고 숨은 고수로 지내고 있었다. 이후 공산혁명때 홍콩으로 이주하여 도장을 열고 문하생을 받아 영춘권을 대중화시켰다.

건자단이 아니라네.



**간수 박정수 사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 해외에서 6개 도장을 운영했다. 엽문의 직계 제자인 양정 태사부로부터 영춘권을 전수한 27년 경력의 전문가. 현재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영춘권 수련원을 운영중이다.

OD MUSICAL COMPANY, CJ E&M & PHOENIX ENTERTAINMENT Present

Book, Music & Lyrics by JIM JACOBS and WARREN CASEY

*Sugar Love, Sweet White Day with Grease!*



단 한순간이라도 지루하다면 그리스가 아니다!

# No.1 뮤지컬 그리스

**B** ITALIAN FOOD & WINE BISTRO  
**BONAPPETIT**  
식사패키지

그리스 VIP석 1매 + 식사권 1매

112,000원 **▶ 85,000원**

(자세한 사항은 예매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스캔하면  
티켓준다



2013년 1월 25일-4월 28일 | 한전아트센터

|예매| 오픈리뷰 1588-5212 인터파크 1544-1555 옥션 1566-1369 |문의| 오픈리뷰 1588-5212 인터파크 1544-1555

|제작| **OD** 오디뮤지컬컴퍼니 **CJ** E&M |주관| 오픈리뷰(주) |협찬| **LOUN.G** |후원| **K1 B O** 기술보증기금

# Cartoon

麥心



## 핵폭탄!! 알아야 산다!



핵폭탄이 떨어져도 제대로 된 지식만 있으면 살 수 있을지도?

먼저, 지금 떨어진 핵폭탄이 어떤 핵폭탄인지 알아야 하겠습니까!



그냥 원자폭탄의 경우, 원자핵은 사이좋은 커플처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결합에너지가 어찌나 강한지 빠지지를 않네~



그런데 이 커플에 웬 중성자를 충돌시켰더니만!

동쳐먹은 동거녀가 나 포함 스무 명!!

저 인간 애가 셋이여!!

헐퀴?!



커플이 깨질 때 방출되는 막대한 번외 에너지!

그것이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폭탄의 원리.

우에에에앵!!



하지만 핵융합 이라면?!

속궁합- 아니 속융합 맞춰 볼까요

깨지는 커플이 있으면 새로 맺어지는 커플도 있는 법.



그렇게 두 원자핵이 하나가 되면서 발생하는 사랑과 희망의 에너지! 그것이 핵융합을 이용한 수소폭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핵융합은 1억℃의 고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고온을 만들기 위해 어차피 원자폭탄을 기폭제로 삼아야 수소폭탄이 작동합니다.

커플들의 따뜻한 행복은 솔로들의 타오르는 번외 온도 1억℃가 데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1억℃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원자폭탄은 이 땅에 핵분열 같은 분열과 커플 브레이킹만 가져올거란 거죠.

동무랑 커플 되기는 일 없습네다! 동반 자폭이면 모를까.

좀 버려라 그지야

항공기용 15M 원자폭탄 21억 원

BY 카툰니스트 콧바스프

# 연애 비상 체제 풀 가동! 잠깐, 안경부터 벗고.

진정한 비주얼남의 공통점은 안경 없는 얼굴을 갖고 있다지?

3월이다. 계사년을 맞아 굳은 심지로 다짐한 계획들은 이미 잊은 지 오래. 여전히 PC방 안락의자와 혼연일체가 되어 아오이 소라 몸짓에 몸 떠는 재원이, PC방 갈 돈도 없어 방구석에서 무릎 나온 트레이닝 바지처럼 자라목을 하고 앉아 악플이나 달고 있는 창현이, 너와 내가 다 동병상련. 이심전심이다만 이제 서로 불쌍한 처지를 위로하는 일은 그만하자. 새마을운동의 기상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서야 할 때란 말이다!

사실 12월 크리스마스, 1월 신년맞이, 2월 밸런타인데이라고 친구 녀석이 기념일마다 여친이랑 찍은 셀카를 카스에 올려놓은 걸 보면서 참 기분이 거시기했지 뭐야. 난 그저 <아빠, 어디가> 보면서 아빠 미소나 짓고 가끔 실색 사진을 보며 잘 살았단 말이지. 근데 어느새 내가 초라해지더니 죽어 있는 줄만 알았던 연애 세포가 다시 살아 숨 쉬더라니까?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연애하고 싶다고 절규하던 단계를 지나면 연애하거나 행복한 사람들에게 이유 없는 비방과 저주를 퍼붓는 단계가 돼. 이 단계가 지나면 나도 모르게 MAXIM마저 외면한 버린 자식이 되어 있다지.

평생 버린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기 전, 본격적으로 연애 실전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해. 연애도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건 다들 알고 있지? 자 그럼, 이 형님이 연애 성공 비법을 알려주마.

남들은 1, 2월에 끝낸 연애 비상 체제 가동! 자금도 늦지 않았다.

## Chapter 1. 화장품 좀 사라.

옛날 축구계 꽃미남 레전드 안정환이 광고하던 '컬러 로션' 기억하나? 남자 비비크림의 조상님인데 그 정도는 알아줘야지. 근데 당시 남자가 컬러 로션을 쓴다는 사실을 밝히는 건 매우 용감한 행동이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남자가 비비크림을 바르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 TV 화면에 조인성이 뿔루지가 난 채로 방송하거나 뿔루지 안 가리고 뿔루고 인터넷 기사판에 댓글 달라는 시대라는 거지. 비비크림은 보통 1만 원 대면 괜찮은 거야. 혹시 얼굴에 개기름이 많이 끼면 꼭 지상용을 쓰기 바란다. 멧 모르고 아무거나 썼다가는 파랗고 얼룩이 되니까 조심하고.

## Chapter 2. 머리발 무시하지 마라.

여자들이 환상하는 훈남 연예인 윤계상도 군대 갈 때 머리를 보니깐 안습이더라(머리발 얘기에 원빈민은 예외다). 이제 당신도 파란클럽 가서 귀뚜캣만 고집하는 습관은 버리고 예쁜 디자이너 누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전문 헤어숍으로 직행하는 건 어때? 최신 트렌드에 맞게 머리도 다듬고 약스까지 바르면 이미지가 확 달라질걸?

## Chapter 3. 안경은 이제 그만~!

버라이어티 정신 외치다가 인생 참 버라이어티하게 된 몽키스러운 외모와 이름의 가수. 그가 뉴스에



나오면서 유행시킨 안경, 솔직히 멋있나? 뽕뽕이 안경 쓴 훈남보다 안경 안 쓴 훈남이 되는 게 훨씬 쉬워. 안경 쓰면 코드 낮아 보이고 눈도 작아 보이거든. 이제 그만 안경과 이별하자. 이 부분은 전문 지식 필요하니 MAXIM 공식 훈남 의사 Dr.K에게 패스~!



도움말: 서울밝은안과 김성일 대표원장

## MAXIM 공식 훈남 의사 서울밝은안과 김성일 원장, Dr.K가 말한다!

### Dr.K! 개강이 3월인데 수술해도 돼요?

독자님은 MAXIM 열성 독자가 아닌 듯? 내가 늘 MAXIM에서 얘기했거늘. 검사받고 수술하는 데 3시간이면 OK! 이것은 PC방 야간 정액보다 짧은 시간이라니까. 라식 수술하고 나서 알아 누운 사람이 없고 수술 후엔 광명 찾으니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걸? 하지만 라섹 수술은 2~3일 회복 기간이 걸리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길.

눈 수술하고 나서 비스트에 뒤통지 않는 아이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데.. 아이 메이크업을 하면 화장품 가루가 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후부터 계획하시라~

### 수술할 때 많이 아파요?

마취한 뒤 수술하기 때문에 아픈 건 없어. 라식 수술은 수술 끝나고 나서도 안 아파. 라섹 수술은 좀 아플 수도 있어서 그때는 진통제 처방 크리함.

### Dr.K도 수술 했어요?

아쉽게도(?) 난 최우 시력이 2.0 근데 우리 이모는 내가 직접 수술했지. 참고로 우리 직원도 내가 다 직접 수술했는데 수술 일주일 만에 토익을 보거나 여행을 떠나기도 하니 수술 통증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TV는 사랑을 싣고>처럼 몇 년 전에 수술 받고선 원하던 바(연애 또는 취업)를 이루게 해줘 고맙다며 다시 인사하러 오는 고마운 환자도 많으니까 말이야.

백약이 무효!  
산삼보다 섹스가 좋은 이유 18

잘라서 그녀에게 슬며시 건네주자.

좋았어?

산삼 좀 달여  
먹어야겠어.

## 백 피 白皮

### 피부가 좋아진다

섹스는 피부 표면 바로 아래 자리한 진피의 콜라겐 합성을

촉진한다. 일주일에 세 번 이상 꾸준히 하면 이너비, 마시는 콜라겐, 홍초 따위 다 필요 없다. 차라리 그 돈으로 소고기나 사먹지.

## 육 덕 肉德

### 몸매가 예뻐진다

근살은 빠지고 근육이 생긴다. 체위에 따라 살이 빠지는

부위가 달라지니 다양한 자세를 시도할수록 몸매가 예뻐지겠지? 참고로 배의 근살을 빼고 싶으면 남자가 위로, 복근을 만들고 허벅지의 근살을 빼고 싶으면 여자가 위로 가면 된다.

## 불 로 不老

### 노화 방지에 좋다

오르가즘을 느끼면 노화 방지 호르몬인 DHEA의 혈중

농도가 평소의 5배나 증가한다. 스코틀랜드 로열 애든버러병원 연구팀이 3,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당 3회 이상 하는 사람은 평균 10년 더 젊은 것으로 평가됐는데 자, 한 살 더 먹었으니 작년보다 더 많이 해야겠지?

## 원 기 元氣

### 감기에 잘 안 걸린다

섹스를 하면 면역력을 높여주는 항체의 수치가 무려 3분의 1이나

올라간다. 미국 윌크스대학 연구팀은 1주일에 한번 이상하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고 호흡기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진다고 발표했다. 키스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정 시간이 없으면 키스라도 우리 심심한데 뽀뽀나 할까?

## 명 상 冥想

### 우울함이 사라진다

불이 오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것이 봄 타서

우울해지는 여자들이 많다. 이럴 때 폭풍섹스를 하면 부교감신경이 자극돼 긴장이 이완되고 마음이 안정된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섹스를 권하는 의사가 있다. 슬플 땐 오빠에게 전화해.

뉴욕주립대학이 여성 29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콘돔 없이 섹스를 한 여자들은 콘돔을 끼고 섹스를 하거나 아예 섹스를 안하는 여자들에 비해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이 덜 나타났다고 한다. 이 조사는 남성의 정액 자체에 기분을 전환하는 '에스트론', 여성에 대한 애정을 증가시키는 '코르티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그리고 '세라토닌'을 포함한 최소 세 가지의 항우울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뒤에 실시한 건데 연구팀은 정액의 이런 성분들이 질을 통해 흡수됐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했다.

## 거 유 巨乳

### 가슴이 커진다

섹스를 할 때 뇌하수체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되는데,

옥시토신은 몸에 생기를 불어 넣고 출산 후 자궁수축을 돕는 역할을 하는 엄마의 역할과 관련 있는 호르몬이다. 그래서 옥시토신은 가슴을 커지게도 해준다. 언니들, A컵에서 딱찬 B컵 되는 건 이제 시간문제예요.

## 안 마 按摩

### 마사지 효과가 있다

섹스는 긴장된 근육들을 풀어 휴식 상태로 돌아가게 해준다.

몸 구석구석에 있는 근육들까지도 풀어주니 바쁜 돈 주고 마사지를 제대로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 천 재 天才

### 머리가 좋아진다

말초신경이 자극되고 호르몬이 분비돼 대개 가리도 잘 굴러가게

하는 게 섹스다. 특히 섹스 후 30분쯤이 되면 뇌의 능력이 최고조에 이르니 중요한 시험이 있기 전에 책을 한 번 더 보는 것보다 섹스해라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를 때도, 수학 문제가 잘 안 풀릴 때도, 원고가 잘 안 써질 때도(응?) 섹스가 해결해 줄 거다.

## 항 체 抗體

### 슈퍼 면역력을 갖게 된다

윌크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1주일에 1, 2회 섹스를 하는

대학생은 안하는 학생에 비해 세균과 싸우는 항체의 양이 30% 더 많았다.

## 거 식 拒食

### 식욕이 사라진다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은 밤에 생각하는 치킨이다. 패기에

반응하는 뇌 부위가 식욕을 느끼게 하는 섭식 중추가 겹쳐 있어 섹스를 하면 식욕이 사라진다. 오밤중에 치킨이 생각나면 치킨집이 아니라 이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

## 항 암 抗癌

### 암세포가 죽는다

남성의 정액 속에는 여성의 난소암 세포를 죽이는 성분이

들어있다. 카톨릭대 강남성모병원 산부인과 배석년 교수와 박래옥 연구원은 정액에서 정자를 제거한 뒤 정액 속에 들어있는 성분을 농축해 난소암 세포에 넣었는데 81% 이상이 죽는 경이로운 결과가 나왔다. 이쯤 되면 돈 내고 해야겠네.

## 색 곤 色筋

### 살이 빠진다

키스는 한 번에 12kcal, 10분간 애무를 하면 50kcal가 소모된다.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섹스는 1시간에 200kcal가 소모되지만 폭풍섹스를 하면 500~600kcal나 소모할 수 있다. 섹스만 잘해도 하루에 800kcal 정도의 열량은

거뜰히 소모할 수 있다는 얘기다. 러닝머신에서 30분 뛰었을 때 300kcal 정도가 소모되니 운동으로 빼려면 러닝머신 위에서 내리 2시간 정도를 달려야 한다. 당신은 어떤 쪽을 택하겠나?

## 무 통 無痛

### 생리통이 사라진다

규칙적인 섹스는 에스트로겐을 비롯한 여성호르몬의 혈중 농도를

올라가게 해 불규칙했던 생리주기도 규칙적이 되고 생리통도 사라진다. 그래서 폐경된 중년 여성들이 섹스를 활발히 하면 다시 생리를 하게 되기도 한다.

## 개 운 開運

### 스트레스가 풀린다

직장 생활 스트레스는 섹스로 풀면 된다. 섹스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느끼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섹스가 끝나고 나서도 호르몬 수치가 정상 수준이 되는 몇 시간 동안은 스트레스 제로 상태가 유지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맡기 전 섹스를 한 사람은 할일이 덜 올라가거나 할일이 정상 수준으로 유지되며 당일 긴장을 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오일섹스나 자위는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철 골 鐵骨

### 골다공증이 예방된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두 배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 허리 디스크에도 좋다. 우유 열 잔, 멸치 한 박스와 맞바꾸는 한 번의 섹스!

## 청 명 淸明

### 두통이 사라진다

클리토리스와 질벽이 자극되면 천연 진통제 성분이 방출된다.

럿거스 대학의 심리학 교수 배리 코미사루크의 연구에 따르면 섹스도이로 자극 받고 있는 여성은 손가락에 가해지는 고통스러운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르가즘을 느낄 때는 통증에 대한 내성이 2배로 커졌다. 그러니 머리가 아플 땐 섹스를 하면 된다.

## 쾌 활 快活

### 밝고 명랑해진다

섹스를 할 때 분비되는 페닐에틸아민은 구아의

호르몬으로 성격을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만들어준다. 캔디같이 늘 밝고 명랑한 성격이 부러웠다면 많이 해라.

## 보 습 保濕

### 질 건강에 좋다

섹스를 안 해 방치된 성기는 시간이 갈수록 퇴화된다. 규칙적인

섹스는 윤활제 역할을 해 질이 부드럽고 촉촉할 수 있게 해준다. 건어물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네.



# Comment

MOVIE OF THE MONTH

## 스파이가 직업인 남자 베를린

주의: 다량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경고했다?).

여기 짜장면 하나,  
단무지 들



### → “Revenge is a dish best served cold (복수는 언제나 차갑게).”

죽은 형의 복수를 위해 표종성(하정우)을 죽이려는  
입들에게 동명수(류승범)가 날리는 대사다. 하지만  
영화 《베를린》의 온도는 결코 차갑지 않다. 류승완&  
정두홍식 액션은 이번에도 역시 뜨겁다 못해 찰찰  
끓고 찰찰찰찰 살아 숨 쉰다. 이 영화가 《본 시리즈》  
의 영향을 1mg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의도적인 오마주로 보이는 몇 장면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액션 장면에서 《본 시리즈》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류승완 감독은 “기물이 부서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부서지는 콘셉트로 이번 영화를 찍었다”고  
말했다. 시각적으로 화려한 액션이 아니라 실제로  
인물이 더 고통을 느낄 만한 액션에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 바위 위에 사람을 매치고, 통조림으로 사람을  
난타하는 독창적 액션이 바로 그 결과물이다.  
《본 시리즈》를 기대한 관객이 실망감을 토로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베를린》은 액션뿐만 아니라 캐릭터에서도  
《본 시리즈》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관객들이 꼽는  
《본 시리즈》의 최고 명장면은 《본 얼티메이텀》의  
엔딩 신. 죽은 줄로만 있었던 제이슨 본이 물 속에서  
꿈틀거리는 바로 그때, 지극히 냉정하고 사실적인 이  
영화의 주인공이 결국은 절대 죽지 않는 ‘액션 히어로’  
임이 드러난다.  
이에 반해 《베를린》은 영웅이 아닌, 스파이가 ‘직업’  
인 인물들의 살기 위한 발버둥을 보여준다. 영화 중반  
표종성이 남측 요원 정진수(한석규)에게 왜 자신을  
도와주느냐고 묻자 그는 “이게 내 일이니까” 라고  
대답한다. 갈대밭 신에서 표종성 커플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비슷한 아픔을 겪어본 적이 있는 사람  
처럼 연민으로 가득하다. 그렇다. 지금보다 젊고  
활기찼던 《쉬리》의 유종원(한석규)은 14년의 세월이  
지나 《베를린》의 정진수가 되었다. 위에서는 짝어  
누르고 아래에서는 기어오르지만 ‘먹고사니즘’을  
버릴 수 없는 남자. 더럽고 치사해도 일을 놓을 수  
없는 우리 시대 중년 남자. 조금 특이한 점은 직업이

스파이라는 것뿐이다. 하긴, 조폭도 아빠고(《우아한  
세계》의 송강호) 살인 청부업자도 회사원(《회사원》의  
소지섭)인데, 스파이라고 다를까?  
북한 첩보원 표종성에게서도 의외로 영웅적 면모를  
찾아보기 힘들다. 남한과 대처해야 할 ‘인민의 영웅’은  
같은 복속 동지를 향해 총구를 겨눈다. 김정은 체제는  
아직 불안정하고 북한 정부는 그를 보호해줄 여력이  
없다. 돈도, 뺨도 없고 믿을 건 몸통이 하나뿐인  
개인은 상부의 정치 논리와 일력 다툼 속에서  
공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보면 스파이나 우리나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게다가 그는 일은 잘하지만 사랑은 모르는  
전형적인 한국 남자다. 아내를 사랑하지만 표현법을  
몰라서 내내 머뭇거리는 그의 모습은 에디터를  
답답하게 했던 구남친을 떠올리게 한다.  
감독 류승완은 날 것 그대로의 액션, 생황인으로서의  
캐릭터를 영화에 녹여내서 기존 첩보물과는 다른  
한국형 첩보 영화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본 시리즈》  
를 통해 《베를린》을 규정해선 안 되는 이유다. ☹

충격 유출!  
하정우  
베를린 막방



나는 아직도 베고프다.

**<베를린>에 대한 사소한 사실**

1. 표종성의 권총은 <투모로우 네버 다이>에서 피어스 브로스넬이 사용한 독일 발터 P99와 체코 CZ-75이다.
2. 극 중 표종성이 '변장'을 위해 뒤집어 입는 깔깔이는 명품 브랜드 B사의 제품으로, 300만 원 상당이다.
3. 영화의 하이라이트인 갈대숲 심은 사실 베를린이 아닌, 대한민국 김포에서 촬영했다.
4. '막방의 신' 하정우는 잼을 바른 빵과 바게트를 먹는 장면을 촬영했으나, '너무 맛있게 먹는다'는 이유로 편집당했다.

**나라별 첩보 요원이 나오는 영화 5종 세트** 전부 다 봤다고? 당신을 첩보 영화 마니아로 임명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7급 공무원>**  
MBC 드라마 <7급 공무원>의 원작 영화. 서로의 정체성을 숨기고 연애하는 꼬라지가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주연의 <미스터&미세스 스미스>를 떠올린다.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수상스키를 타고, 당나귀를 타고 수험성곽을 도는 이들의 액션은 가히 눈물겹다. 7급 공무원이 이렇게 백선 직업이었다면 말인가?



**이스라엘 모사드 <언피니시드>**  
이스라엘 요원답게 이들의 목표는 오직 나치 전범 때려잡기. <키에스: 영웅의 탄생>과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의 감독 매튜 본이 각본을 맡았기 때문인지 식겁할 만한 폭력 장면이 다수 포함됐으니 애들은 개 전작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 탓인지 모사드 요원이 된 터미네이터로밖에 보이지 않는 샘 워싱턴의 연기가 살짝 아쉽다.



**영국 M16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치고받는 액션 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섭외가 잘되었는지 게리 올드만, 톰 허디, 콜린 퍼스, 베네딕트 컴버배치 등 후덜덜한 배우가 떴거지로 등장한다. 첩보 소설의 클래식 존 르카레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나름 자적인 스토리인데 "모든 스파이는 내가 잡는다"라는 다소 유아스러운 포스터 문구가 옥의 티.



**미국 CIA <스파이 게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 하고 이리저리 나대는 후배(브래드 피트) 때문에 퇴직 전날 큰 도박을 하게 된 네이스(로버트 레드포드). 그 이유가 "죽여야 하는 부상당한 말을 다른 사람이 죽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니... 오싹하지만 결말은 훈훈한 편 영화에 등장하는 로버트 레드포드의 포르세 빈티지 모델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러시아 KGB <솔트>**  
통 크루즈가 <미션 임파서블>이랑 캐릭터가 너무 흡사하다며 출연을 고사하면서 여 주인공으로 내용이 대폭 수정되었다. 북한군이 "간나 새끼 똑바로 말하라"고 말하며 안젤리나 졸리를 고문하는 장면으로 시작해 속편을 암시하면서 끝났다. 그러나 현재 속편 제작은 지연되고 있다. 과연 우리는 흑발의 졸리를 또 만날 수 있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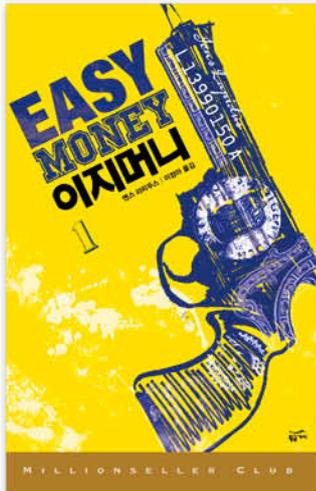
# 이지 머니

초특급 스펙타클 하드보일드 북유럽 범죄 스릴러

→ MAXIM에서 일하다 보면 평생 한번 해볼까 싶은 일도 많이 하게 된다. 어시스턴트로 입사하자마자 편집장님에게 받은 특명은 닭머리를 구해 오라는 거였다. 닭 머리는커녕 닭 목을 판다는 데도 없었지만, 가락시장 축산물 구역의 한 닭집에서 겨우 닭 머리를 발견해 1,000원을 내고 6개를 샀다. 닭 머리가 수북이 쌓여 있던 창고는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편집장님은 그 닭 머리로 젤리를 만들었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마취한 개구리가 촬영 도중 깨어난 이야기, 지네로 팔방수를 만든 사연, 입사하자마자 여자 브래지어와 마주한 남자 에디터의 고충 등 후배 에디터에게 무용담처럼 들려줄 얘기가 산더미 같다. 그리고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한다. 여기서 겪은 일들을 언젠간 소설로 써야지.

이런 생각을 에디터만 한 건 아니었나 보다. 소설 <이지 머니>는 마약, 검은 돈, 폭력 등 보기만 해도 웬지 볼곤거리라는 단어가 진득 나열돼 있어 수컷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북유럽 범죄 스릴러다. 묘사가 어쩐지 사실적이라 했더니 작가가 현직 형사 전문 변호사다. 작가 옌스 라피두스는 실제 법정에서 무장

강도 사건을 다룬 재판을 본 후 집으로 돌아가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소설에는 고도소를 탈옥하고 증오심에 차 복수를 꿈꾸는 마약상 호르헤, 상류 사회를 향한 갈망으로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이는 대학생 JW, 안정된 삶을 추구하지만 폭력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강단원 브라더스가 등장하는데, 경험해보지 않고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생생하고 흥미로운 이야기 때문에 화장실도 들어가며 책장을 넘기게 된다. 기존 북유럽 범죄소설과 달리 철저히 범죄자의 관점에서 범죄를 바라보는 실험적 글쓰기로 북유럽 범죄 소설의 새 지평을 개척했다는 극찬을 받고 있는데 전 세계 30여 국가에 출판 계약이 성사됐고, 2010년에는 영화로 만든 데 이어 미국 워너 브라더스사에서 이 영화의 리메이크 판권을 획득해 제작을 앞두고 있다. 그만큼 소설이 끝내준다라는 거다.

에디터도 빨리 실행에 옮겨야겠다. 마감과 사투를 벌이는 MAXIM 에디터의 치열한 생존 다크! MAXIM 편집부에서 벌어지는 암투, 배신과 음모 그리고 사랑... 어때, 좀 팔릴 것 같지 않아?

<이지머니 1, 2>

옌스 라피두스 지음 / 이정아 옮김  
황금가지, 각 11,000원, 12,000원

## <이지 머니> 미리보기

읽다가 확 꽃혀버린 구절들

파트리크가 브라더에게 사적인 질문을 했다.  
“형님은 몇 명이나 죽여봤습니까?”  
“1999년에 난 유고슬라비아의 감옥에 있었어. 그럼 얘기 끝난 거 아닌가?”  
(p.104)

“나한테 완전 끝내주는 생각이 있는데, 우연찮게 코카인 2그램을 가져왔거든. 너도 전에 해봤다며, 조금 줄까? 분명 파티 분위기도 확 살아날걸.”  
(중략) JW는 안나의 윗도리 속으로 손을 넣어 젓가슴을 어루만졌다. 안나는 그의 바지 지퍼를 열고 구부러져 있던 그의 성기를 꺼내 빨기 시작했다. 그의 성기에 립글로스가 묻었다. JW는 낮게 신음 소리를 토해냈다. 정말 잡아보려고 노력했다. 아직 사정하고 싶지 않았다. (중략)

코카인은 비아그라보다 효과가 더 좋았다. 15분 후면 다시 뿔뿔해졌다. 그런데……. 전화도 건너뛰고 곧바로 섹스하기에 바빴다. 넉넉잡는다고 해도 2분 만에 사정해버린 꼴이더니 쪽팔리게, JW는 마음이 헛헛했다. 잠자긴 다 틀린 듯했다.  
(p.186~189)

그런데 자네 사람 배매기를 칼로 썰어 본 적 있겠는가?  
“있지, 총검으로, 1995년에 스텔레브리차에서.”  
“그럼 알겠구만, 피를 팔팔 쏟아가 결국 누구나 끌려 간다는 걸, 폭풍 잘 들어가는 부분도 아주 많고 상처도 아주 많이 입힐 수 있지. 호르헤 눈한테 바로 그런 방법을 쓰라고, 당장 밟아버려.”  
(p.234)

“덤벼, 이 동맹이 크로아티아 새끼야!”  
(p.288)

- <이지 머니 1> 중에서 -

MAXIM 2월호  
도서 증정 이벤트  
당첨자 발표!

## 내가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읽어야 하는 이유

에디터의 마음을 사로잡은 5명은?

책 읽는 걸 싫어하는 여자친구가 이 책을 보고 책도 재미있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교재X>

물 오른 27세 여성 직장인입니다. 재겐 한 살 어린 남자친구가 있어요. 다 좋은데요, 이 아이는 절 만나기 전 도태솔로였답니다. 하나하나 가르치기 벅할 때도 있지요. 직구 날립니다! 이 책 보고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이미X>

나의 여친은 아직 많이 미숙하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중이오. 마음 같아서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가르치고 싶지만 아직 문화적 충격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수업하고 있도오. 하지만 부족함을 느끼고 있소. 교과서가 있다면 더욱더 교육하기 좋지 않을까 하오. <뽕이>

여자와 손 한번 못 잡아본 소심남인 저에게 이 책은 과분한 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문에서 이영비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젊은이의 특성이겠지요? 그래서 도전해봅니다. <꼬마새우>

곧 여친님의 생신이오, 만난 지 3년이 넘어 웬만한 생일 선물은 다 줬봤소. 참신한 걸 찾고 있었는데 마침 적당히 게 있구려. 전권 구매도 가능하오? <천생문군>

축하한다. 에디터의 마음에 속 드는 댓글을 단 당신들에게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1, 2권을 모두 발송했다. 잘 읽고 있나? 이번 달도 도서 증정 이벤트는 계속된다. <이지 머니>를 읽고 싶다면 어서 아래 QR 코드를 스캔해 자신이 <이지 머니>를 읽어야 하는 이유를 댓글로 달도록. 훗날 잔디밭에서 범죄 스릴러 읽는 남자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 거리는 걸?



단 하나의 타겟,  
사상 최대의 첩보작전을 목격하라!

# ZERO DARK THIRTY

10년간의 추적실화

## 제로다크서티

전미 박스오피스 1위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 수상  
아카데미 주요 5개 부문 노미네이트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 작품

스캔하고  
영화보자



3월 7일 대개봉



15세이상관람가

수입/제공 unikorea 배급 SBS 콘텐츠이브

# Game

CHARACTER OF THE MONTH

**KRITIKA**

## 크리티카: 암살자

이 정도 미모라면 남자 여럿 숨지게 만들었겠군.



|                    |         |
|--------------------|---------|
| 제작사                | 올렘      |
| 플랫폼                | 온라인     |
| 형태                 | MORPG   |
| 유통사                | NHN 한게임 |
| 클라우드 베타 서비스(CBT) 중 |         |

### ← 암살자

1:1 싸움에서 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건 역시 암살자 클래스다. 숨기기도 버거운 볼륨 있는 몸매로 슬쩍 다가갈 강력한 입격으로 적을 제압하는 멋진 여자. 근거리 특화된 캐릭터로,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근처 남캐의 스테미나가 쪽쪽 소모될 것 같다. 이런 여자가 있다면 암살자의 이름을 걸고 한판 거르고 싶다. 쪽쪽 늘어나는 여(육)봉은 여러 여자의 마음을 암살한 내 무기지.

### → 도적(ROGUE)

쌍수 무기를 사용하는 근접형 기본 캐릭터. 본격적인 육감녀가 되기 전 모습은 천진난만한 모습의 클래식 소년다. 레벨 15가 되면 세 가지 클래스 중 하나로 진작해 특정 스킬을 강화할 수 있다.



### → 체술사

고양이 영혼에 빙의해 재빠른 몸놀림과 시원시원한 콤보로 다수의 소형 적을 제압하는 대(對)다구리 클래스. 쥐새끼들처럼 귀찮은 적은 그녀에게 물어주자.



### → 천랑주

하늘의 늑대 천랑(天狼)을 소환해 병서들로 무리며 번개의 힘으로 적을 무찌르는 일진형 클래스. 귀여운 강아지네요? 훗 살이에요? 아니, 그쪽 말이예요. 최하하!



## 크리티카

'초액션 RPG'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존 온라인 액션 게임과 차별화를 둔 <크리티카>. 잔뜩 처맞아서 딱이 된 몬스터를 공중에 띄워서 패고 두들기고 고기 다지듯 썰어버리는 화려한 액션은 확실히 유저들의 입맛을 만족시킬 만하다. 다만 남캐 둘에 여캐 하나로 제한된 캐릭터는 여캐가 대세인 요즘 유행을 조금 간파한 것이 아닌가... 싶다가도 홍보 영상에 등장하는 도적의 귀여운 모습과 엄한 버스트(+모핑)를 보고 있노라면 그저 감사합니다. 다음엔 국내 최초로 히프 모핑 기술을 도입하는 건 어떨까요? 나로해도 날렸는데, 그 정도는 껌이죠!



커플탄생의 비밀이 밝혀진다

연극

# 기막힌 스캔들

다섯남녀의 배꼽잡는 사랑 쟁탈전



스캔하고  
연극보자



BASED ON THE PLAY 'Pyjamas Pour Six' BY FRENCH PLAYRIGHT MARC CAMOLETTI.

**대학로 신연아트홀 OPEN RUN** 평일 5시·8시 | 토 2시·4시·6시 10분·8시 10분 | 일 2시·4시·6시 10분

원작\_마르크 까몰레띠 | 프로듀서\_조행덕 | 각색\_박은혜 | 연출\_김재우 | 제작\_▲(주)악어컴퍼니 · 극단 두레 | 문의\_(주)악어컴퍼니 02-764-8760 |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 위닝 일레븐 온라인 VS. 피파 온라인 3

바야흐로 축구 게임 전성시대. 유서 깊은 스포츠 게임 가문 간의 최종 승자를 가려보자.



## 억 소리 나는 경쟁의 서막

온라인 축구 게임 간의 경쟁을 알리는 휘슬이 울렸다. 지난해 12월 18일 <피파 온라인3>를 서비스하는 넥슨은 이날부로 본격적으로 게임 서비스를 오픈하며 <위닝 일레븐 온라인>에 선봉을 날렸다. 게임을 론칭하기 전부터 넥슨이 순수 마케팅 비용으로 쏟아 부은 비용은 무려 150억 원가량. 넥슨은 서비스를 시작한 지 나흘 만에 <아이온>과 <블레이드 앤 소울>을 제치고 PC방 게임 순위 3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본격적인 라이벌 경쟁에 앞서 강도 높은 초반 리시를 감행한 넥슨의 압승이었다. 하지만 <위닝>은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전이었으니... 풍치 한 마리 준비하지 못한 채 서방을 기다리는 아낙처럼 불안하고 초조한 심정이었으리라.

### 페이스온 완성도



\* 페이스온(얼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기술)

### 피파 온라인 3 이 정도면 평가

스타급 플레이어 중 개성이 강한 웨인 루니로 세리머니 영상을 재생했다. 위닝과 달리 루니의 특징 면면이 잘 살아 있는 느낌이다. 바이킹족 가슴에 난 털을 연상시키는 루니의 얼은 얼굴 털의 색감과 밀도, 특유의 푸른 눈까지 완벽하게 재현했다. 유니폼 옆구리에 있는 숨구멍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은 센스 역시 눈에 띈다. 페이스온 완성도 부분에선 단연 피파의 승. 하지만 덜 유명한 선수들의 페이스온 완성도는 다소 아쉽다.

한 줄 평: 월드컵 시즌을 대비한 국내 선수 페이스온도 수준급.

"나 MAXIM 모델 한 남자야" -정성룡 골키퍼



### 위닝 일레븐 온라인 이게 누구야?

세리머니 화면에 압실하게 웃고 있는 붉은 주(시발 깡깡이아) 한 마리가 나타났다. 유독 작은 입과 어색한 검은 눈동자, 귀 표현 또한 압권이다. 보통 스타급 플레이어는 제작사도 신중하게 페이스온을 하기 마련인데, 다소 성의 없어 보이는 부분이다. 이것은 2005년도 출시작 <위닝 일레븐8 인터내셔널(PS2)>의 그래픽 엔진을 차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유저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제작사는 추후 그래픽 업그레이드로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참고로 캡처 사진은 최고 해상도+퀵티로 플레이한 화면.

한 줄 평: 페이스오프 말고 페이스온을 해달라고.

### 이 정도 그래픽이면 맞출 수 있겠지?

<피파 온라인 3>에서 등장한 이 선수들의 이름은?



작년 첼시가 영입한 유고슬라비아 버전 메시.

( )



반 페르시와 같은 팀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는 미드필더.

( )



2011, 2012 세계 베스트 일레븐에 이름을 올린 바르셀로나 선수.

( )



미녀 가수를 와이프로 둔 스페인 출신 수비수.

( )

본격  
감정 이탈  
해설 듣기



## 그래픽



### 피파 온라인3 명불허전

〈피파 온라인 3〉는 PC 게임 타이틀로 발매한 〈피파 11〉의 물리 엔진과 〈피파 13〉에 사용된 그래픽 엔진을 차용했다. 이것은 EA가 아케이드성 축구 게임에서 벗어나 사실적 묘사에 주력하며 완성한 엔진이다. 그 덕분에 〈피파 온라인 3〉에서는 사실적 볼 트래킹과 디테일한 선수들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하지만 클로즈업 장면에서 선수들의 몸짓과 따로 노는 어색한 표정 연기는 폭소를 자아낸다. 또 관중이 오와 열을 맞춰 북한 응원단의 군무처럼 앉았다 섰다를 반복하는 모습은 오히려 게임의 집중도를 떨어뜨린다.

➔ **한 줄 평:** 관중이 축구를 하는 건 아니잖아? 이 정도는 PASS.



### 위닝 일레븐 온라인 명허전(이름이 헛되이 전해졌다...)

과거의 명성이 무색하다. 〈위닝 일레븐 온라인〉 플레이 화면은 스마트폰 축구 게임이라는 놀림을 받으며 각종 유머 사이트 게시판에 오르내리는 중이다. 어딘가 어색한 선수들의 움직임과 탱탱볼 차는 초딩을 보는 듯한 슈팅 장면은 가히 압권이다. 특히 경로당 게이트볼 대회 구경 나온 할배마냥 종종걸음으로 걷는 선수를 보고 있노라면 답답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다. 클로즈업 장면에선 〈테크모 월드컵98〉을 연상시키는 그래픽도 안습이다. 해상도를 1920X1080까지 올려도 640X480처럼 보이는 이유 또한 미스테리.

➔ **한 줄 평:** 카트라이더 그래픽이 좋은 편이었다는 걸 새삼 느꼈다.

## 조작감 및 전술 구현력



### 피파 온라인 3 캐주얼과 전략 플레이의 절충점

〈피파 온라인 2〉가 슈팅 게임에 가까웠다면 이번 타이틀은 확실히 축구에 가까워졌다. 조작감은 지금껏 나온 온라인 축구 게임 중 비교 대상이 없을 만큼 사실적이고 다양하다. 기존 위닝 시리즈의 단점으로 지적받던 '노인정 일레븐'스러운 답답함도 없다. 스루 패스와 티키타카 플레이(짧고 간결한 패스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전술), 역습 전술 등의 플레이는 〈피파 온라인 3〉의 중요한 승리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사기에 가깝던 광속 슈팅과 하프라인 독수리 슛 등이 없어서 레벨 차이에 따른 필패 현상이 줄어들었다. 전술을 구성하는 방법 또한 기존의 단순 선택 방식에서 1-100까지의 수치를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 세밀한 조정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피파 온라인 2〉에서 전술 조합 기능이 없어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 **한 줄 평:** 현실하는 초딩에게 질 가능성이 줄어든 점은 매우 만족.



### 위닝 일레븐 온라인 투박한 조작감, 하지만 직관적인

전략을 이용한 사실적 축구 게임의 초석을 다진 쪽은 위닝이다. 그 때문에 물리 엔진이나 전술 운영 시스템에선 위닝의 기술력이 앞선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PC 게임으로 발매한 〈위닝 일레븐 2013〉 이야기. 대학생 시절, 강의 땀땀이치고 플스방에서 위닝으로 날밤 좀 새운 조운재 에디터는 "어쨌든 8년 전 게임이다. 조작감이 요즘 게임에 비해 떨어지고 움직임이 딱딱하다"라고 답했고 피파 빠돌이인 박한빛누리 에디터는 "움직임이 투박하고 몇 개 없는 개인기 때문에 전략 시뮬레이션하는 기분이다"라는 평을 남겼다. 하지만 제법 괜찮은 구석도 있다. 위닝의 전술 구현력 중 장점을 하나 꼽자면 경기 도중 숫자키를 이용해 수비/공격 성향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인데, 빠른 공수 전환이 중요해진 현대 축구의 특성을 잘 반영한 시스템이라 하겠다. 또 공간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선수 머리에 별도의 표시가 되는 시스템도 나름 직관적이라 좋다.

➔ **한 줄 평:** 제목을 〈테이블 서커 온라인〉으로 고치는 편이 나을지도.

말장 빠기나?

### 극강 미소녀 카드 게임: 소드걸스

그간 모니터만 보며 타액을 양쯔 강  
대범람하듯 방류하던 에디터들은 손에 쥘  
카드를 들고 박찬 감동에 빠졌다.

#### 〈소드걸스〉란?

〈밀리언아서〉, 〈바하무트〉 등 모바일과 온라인을 휘어잡고 있는 네트워크 트레이딩 카드 게임(NTCG)계에 순수 국산 기술과 일러스트로 혜성처럼 등장한 게임. 각 플레이어가 직접 구성한 카드 세트인 '덱(Deck)'을 이용해 배틀을 하는 대전 게임으로, 오프라인 카드로까지 발매해 많은 유저의 호응을 얻고 있다.



#### “모든 승부는 사이즈로 결정된다”

→ 에디터 박한빛누리  
선정 이유: 평소 가슴 큰 여지만 밝히는 그는 카드를 선택할 때도 일관된 취향을 고집했다. 〈마녀의 탑〉 세트를 개봉해 뒤적거리던 그는 “파워 센 카드는 너네나 가져”라며 웰드컵보다 귀하다는 D급 미소녀 카드를 고르고 또 골랐다.



#### “금발이 좋아서 어떡하지 나?”

→ 에디터 이영환  
선정 이유: 큰 가슴을 보고 흥에 겨워 각기 댄스를 추는 박 에디터를 한심하게 바라보던 그는 소녀시대 제시카가 이상형이라며 금발 미소녀를 골랐다. 평소 사무실 내 여인네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더니... 실은 백마 마니아였나?

시카 시카 제시카양!



#### “로리도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시죠.”

→ 에디터 조웅재  
선정 이유: '귀여운 여자'가 이상형이라는 조웅재 에디터가 뽑아 든 카드는 현장에 있던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박한빛누리 에디터는 “발육이 그게 뭐냐”라며 혀를 골골 찡고, 주변에서 지켜보던 여직원들은 수화기를 들고 112를 급하게 눌렀었다.



#### 〈소드걸스〉 초보자 설명회 이벤트!

에디터들의 미소녀 탐닉에 이게 뭔가 싶은 사람은 이번 TCG 초보자 설명회에 참가해보세요! 참가자 전원에게 스트러처 맥을 증정하며, 문화상품권과 프로모션 카드 등 푸짐한 상품이 준비돼 있다.



← 기술러는 텍스트가 없는 프로모션 카드!

#### 홈플러스를 찾아온 그녀들!

1. 홈플러스에서 구매한 제품과 영수증을 인증해 메일로 쓰면 추첨을 통해 구매한 부스터 팩, 스트러처 맥과 같은 상품을 1+1로 추가 증정한다!



2. SNS와 블로그에 이벤트를 많이 홍보한 유저 중 추첨을 통해 부스터 팩, 스트러처 맥을 선물로 증정한다!



3. 두 이벤트 모두 '어린이 시리즈' 독자 현수막이 행운상으로 걸려 있다!  
이게 제일 탐나네!



행사 기간: 2013년 3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소드걸스 TCG 공식 홈페이지(www.sc-tcg.com)를 참조하도록!



# SWORD GIRLS

TRADING CARD GAME

온라인 전시장에서 절찬 판매 중!

## 사상 최강의 미소녀 카드게임



스트러처 덱 사립학원 스트러처 덱 공립학교



신입생 환영회 부스터 팩



마녀의 탑 부스터 팩

**부스터 팩 5개 증정 쿠폰**  
자세한 내용은  
TCG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WWW.SG-TCG.COM](http://WWW.SG-TCG.COM)  
2013년 6월 30일까지



\*흑백처리된 커버의 월호는 품절을 의미합니다.

→ 지난 호 MAXIM을 놓쳤나?  
 목숨과도 같은 당신의 MAXIM 컬렉션에 이빨이 빠졌나?  
 서점에서, 인터넷 서점에서 MAXIM 과월호를 구할 수 없다.  
 좌절하지 말고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으로 오라!  
 MAXIM 홈페이지의 과월호 구매 메뉴로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나온 MAXIM  
 매거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녀가 품절되기 전에 어서 챙취하시길!  
 \*평일 오후 4시 이전에 입금하시는 독자님께는 당일 발송 가능합니다.  
 일부 과월호는 품절되었을 수 있습니다.

**MAXIM**  
 과월호  
 총알 배송!  
 (총알을 드리진 않아요.)



남자가  
버려야 할  
한 가지!



## 크게 오디션을 켜고 시나위 8대 보컬 오디션 현장에 가다!

전설의 로커는 이렇게 탄생하는 거였다.

→ 세상 참 좋아졌다. 록 밴드들이 공중파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와 경연을 벌이고, 톱 여배우는 록 밴드 보컬과 공개 연애를 한다. 무엇보다 TV를 틀면 시나위가 나오는 시대란 말이다. 무려 시나위게! 2006년 9집 앨범 이후 소식이 없어 이대로 전설 속으로 사라지..는 줄로만 알았던 밴드 시나위는 지난해 〈나는 가수다 2(이하 나가수 2)〉로 재결성했다. 신대철, 남궁연, 김바다, 락스의 손 등 이름만으로 락덕후들의 피를 끓게 만드는 드림팀이었다. 이제 〈나가수 2〉는 끝났고 김바다는 자신의 동지인 아트오브타티스로 돌아갔다. 전설의 밴드에게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월 28일, 홍대 롤링홀에서 사상 초유의 공개 오디션이 열렸다. 시나위의 새 보컬리스트를 뽑는 자리였다. 500여 명이 오디션에 응모했고 1차 온라인 예선, 2차 오프라인 본선을 거쳐 파이널 경연에 오른 도전자는 총 6명. 이들은 '크게 라디오를 켜고' 혹은 '서커스' 둘 중 한 곡을 선택해 시나위 멤버의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시나위 멤버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1위로 뽑힌 인물은 8대 보컬로 선정된다. 임재범, 김중서, 김바다 등 쟁쟁한 로커가 시나위 보컬 자리를 거쳐갔다. 그 스타의 탄생을 현장에서 지켜보다니... 나중에 그가 임재범같이 훌륭한 보컬리스트가 되었을 때 에디터는 꼭 이날을 기억하리라.

얼마나  
잘 하나  
영상으로  
확인



시나위 소속사 에코브리드 총괄이사 은준형, 수석 프로듀서 제이크, 포니캐년 음악사업부 박태용 팀장, 〈탑밴드〉 메인 작가 박준배, 〈문화콘서트 난장〉 음악감독 전용석. 이상 심사위원 5명이 시나위 멤버와 함께 6명의 참가자를 평가했다.



🔴 첫 번째 참가자

이름: 김건

직업: 보컬 트레이너

오디션 참여곡: 서커스

**“밴드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시나위 보컬로 선다는 건 최고의 행운이다.”**

첫 번째 순서라는 부담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무대였다. 보컬 트레이너답게 기술적이고 안정된 무대를 선보였다. 하지만 크게 질한 것도 못한 것도 없는 그의 무대는 이후 5명의 도전자가 차례로 등장하면서 이내 기억에서 사라졌다.

🔴 두 번째 참가자

이름: 김동찬

직업: 학생

오디션 참여곡: 크게 라디오를 켜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냉정하게 평가해달라.”**

찰랑거리는 이 남자의 긴 생머리는 등장과 함께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1, 2차 오디션을 지켜보던 네티즌 사이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던 참가자. 간주 부분에서 보여준 폭풍 헤드뱅잉은 데뷔한 지 20년은 족히 된 프로 로커처럼 노련했다. 곡 중간에 애매한 음이탈 실수를 범한 것이 아쉬웠다.



🔴 세 번째 참가자

이름: 류기훈

직업: 가수

오디션 참여곡: 서커스

**“시나위라는 말에 무조건 참가했다.”**

어쩐지 연예인 느낌이 난다고 생각했던만 알고 보니 '페페인'이라는 2인조 밴드로 이미 데뷔한 바 있는 프로였다. 수줍은 첫인상과 달리 음악이 시작되자 그는 프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모션도 크고 성량에 자신감이 넘쳤다. 질하긴 하는데 어쩐지 박현빈이 연상되는 건 꼭 뻘은 고음 탓이겠지?



🔴 네 번째 참가자

이름: 심은지

직업: 자영업

오디션 참여곡: 서커스

**“설마 + 흑시나 + 주위의 부추김으로 참가했다”**

유일한 여자 참가자. 스스로 시나위의 짱팬이라고 밝힌 그녀는 “같은 무대에서 협연을 하게 된 것만으로 무한한 영광”이라며 시나위 멤버에게 감사를 표했다. 다만 선곡이 아쉬웠다. 여자가 부르기에 '서커스'의 키가 너무 낮아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운되고 말았다. 이해는 간다. 남자가 '나가거든'을 불러야 한다면 아무리 임재범인들 쉽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다같이  
짹짹!!

실사 결과 발표 전, 노브레인의 축하 공연이 있었다.



5천만  
명겨주세요~



저 새끼  
잘하네...



기도하는!

**우승**  
시나위 김현  
로큰롤 베이비

4 다섯 번째 참가자

이름: 윤지현

직업: 학생

오디션 참여곡: 크게 라디오를 켜고

“최고 밴드의 보컬이 되는 게 내 목표다”

“서울말을 잘 쓰고 싶은 대구 남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섯 번째 참가자의 훈훈한 생김새는 윤도현의 젊은 시절을 연상시켰다. 사회자가 “딱 홍대 스타일인데 바지가 대구 스타일”이라며 그의 하이패션을 놀려댔으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때 알아봤어야 했다. 노래하는 내내 자존감이 넘쳐났다. 그뿐 아니라 여유로운 무대 매너에서는 밴드 프런트 맨으로서의 자질이 보였다.

5 여섯 번째 참가자

이름: 정현구

직업: 학생

오디션 참여곡: 서커스

“시나위니까, 이 한마디가 동기다”

수줍은 듯 참해 보이던 마지막 참가자. 뻘한

반전이지만 음악이 시작되자 그도 돌변했다. 다른 참가자에 비해 감성적 보컬이 매력적이었다. 만약 시나위 보컬 오디션이 아니라 부활의 보컬 오디션이었다면 그가 1등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모든 무대가 끝났다. 드디어 시나위의 8대 보컬리스트 발표를 앞둔 시점, 사회자가 후보들에게 심경을 물었다. 6번 후보는 이미 떨어진 사람처럼 침울한 목소리로 자신 없음을 내비쳤다. 누가 우승할 것 같냐는 질문에 많은 관객이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이미 완성된 로커의 외피를 쓴 2번 후보를 지목했다. 그러나 우승의 영광은 5번 윤지현에게 돌아갔다. 2011년에는 <팀밴드>에 출전해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신대철을 멀리서 바라만 보던 그가 약 2년 만에 같은 멤버로서 신대철과 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엄청난 신분 상승이 아닐 수 없다. ‘신대철 행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아니면 ‘신대철 선배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 록 스피릿 충만한 청년의 목소리는 올 봄 발표하는 시나위 미니 앨범에서 만나볼 수 있다. 



## Born to Rock! 시나위의 기타리스트 신대철

전대미문의 공개 오디션을 기획한 이 남자의 저의가 궁금하다!



심사에서 참가자들의 어떤 면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했나?

시나위의 음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곡을 잘 표현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봤다.

**‘서커스’랑 ‘크게 라디오를 켜고’ 두 곡으로 참가자를 평가한 이유는?**

‘크게 라디오를 켜고’는 굉장히 스트레이트한 곡이고 ‘서커스’는 멜로딕한 곡이다. 한마디로 극과 극. 시나위가 하는 음악이 그런 양극단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각을 대표할 수 있는 두 곡을 뽑았다.

**〈나 가수 2〉에서 함께한 김바다 씨나 다른 뮤지션과 무대에 선 모습을 만나볼 수는 없나?**

이번에 뽑힌 보컬이 시나위의 공식적인 보컬리스트 역할을 할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는 너무 20세기 마인드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 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앞으로는 록뿐 아니라 타 장르에서 음악하는 이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생각이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숨은 인재가 많다는 걸 새삼 느꼈는데, 그게 이번**



**오디션을 기획하는데 영향을 미쳤나?**

그렇다. 음악적 재능은 뛰어난데, 기회가 없거나 길을 모르고 가거나 아직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 보석 같은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런 이들을 자주 찾아내서 세상에 알리는 게 선배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 가수 2〉에서는 한동안 평가를 당하는 입장이었지만 여기서도 평가를 하는 입장이다. 기분이 어떤가?**

원래 인생이 그런 것 아닌가? 평가받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우리 음악을 세상에 내놓으면 많은 관객과 일반 대중이 그것을 평가하니까 사실은 항상 평가를 받는 쪽에 가깝다.

## 터질듯한 여자 보컬 3

이렇게 예쁜 얼굴로 록을 한다고?



**EVANESCENCE의 에이미 리**

미국의 얼터너티브 록 밴드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밴드. 메이저에 등장하자마자 단숨에 그래미상을 두 개나 거머쥐었다. 잦은 멤버 교체가 그녀의 더러운 성격 때문이라는 소문이 파다하지만 독특한 보컬 탓에 여전히 잘나가고 있다.



**ARCH ENEMY의 안젤라 고소우**

스웨덴의 데스 메탈 밴드

남자 보컬 뺀 후려치는 이 언니의 그로울링을 듣다 보면 오줌을 지릴 정도. 그녀의 탄탄한 복근과 폭발적인 무대매너는 남성 팬들로 하여금 경외심과 애정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EPICA의 사이몬 시몬스**

네덜란드의 심포닉 파워 메탈 밴드

꽃다운 18세에 데뷔한 이후부터 많은 남성팬들을 거느리며 ‘메탈계의 마(미)녀’로 군림하는 그녀. 얼굴도 예쁘지만 오페라틱한 보컬로 밴드의 얼굴 마담이 아닌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MAXIM 정기 구독 신청

| 3개월 정기 구독           | 6개월 정기 구독           | 12개월 정기 구독             | 24개월 정기 구독          | 36개월 정기 구독          | 48개월 정기 구독   |
|---------------------|---------------------|------------------------|---------------------|---------------------|--------------|
| 정가 35,400원          | 정가 70,800원          | 정가 141,600원            | 정가 212,400원         | 정가 283,200원         |              |
| 3천 원 할인<br>1000씩 적립 | 7천 원 할인<br>2000씩 적립 | 1만 5천 원 할인<br>4000씩 적립 | 3만 원 할인<br>6000씩 적립 | 5만 원 할인<br>8000씩 적립 |              |
| 정가 17,700원          | 할인가 32,400원         | 할인가 63,800원            | 할인가 126,600원        | 할인가 182,400원        | 할인가 233,200원 |



## MAXIM 정기 구독 신청 안내

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정기 구독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 결제 방법

1. www.maximkorea.net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

### 2. 무통장 입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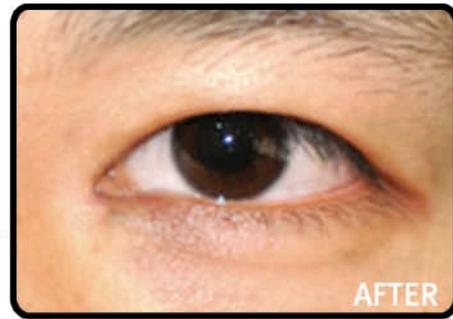
(예금주\_주식회사 와이미디어)

|        |                   |
|--------|-------------------|
| 하나은행   | 569-910012-00904  |
| 국민은행   | 185801-01-004866  |
| 농협     | 355-0006-4797-03  |
| 신한은행   | 100-026-074070    |
| 우리은행   | 1005-701-637646   |
| 기업은행   | 208-107032-04-013 |
| SC제일은행 | 117-20-225316     |
| 우체국    | 012559-02-079161  |

\*떡은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 시  
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1떡=1원)



〈눈 성형술 6개월 후〉



〈눈 성형술 8개월 후〉

# 쌍꺼풀 없이 크고 시원한 확대 남성 눈 성형술

1. 쌍꺼풀이 생기지 않으면서 자연스런 모양으로 커집니다.
2. 눈을 감고 있어도 수술 흉터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3. 수술 후 이미지가 지나치게 변하지 않습니다.

\* 드물게 수술 후 염증 발생이나 좌우 비대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진성형외과의원

압구정역 4번출구 방향 / 02-3445-4514 / [www.medoctor.co.kr](http://www.medoctor.co.kr)

Meet the Funny Guy

자전거 본인 소장  
야상 스톤아일랜드  
셔츠 스투시 by 카시나  
양말 아이헤이트연데이  
선글라스 푸마

# 마이티 마우스 SHORRY J

키는 작아도 마음은 리명훈 뽀치게  
환칠한 쿨가이 소리가 군대 간 상추없이  
어떻게 지내는지 만나봤다.



**아직도 소리와 소리를 헛갈리는 사람이 많다.**  
아, 꼭 하고 싶었던 말이다. 지누션에서는 '선'인데, 소리는 왜 '손'이인지 모르겠다. 선리라고 표기해야 맞는데, 그 한 단어 때문에 헛갈린다. 게다가 둘 다 민머리니까 더 그런 것 같다.

**그나저나 왜 닉네임이 소리J인가?**  
키가 작은 사람이라는 의미의 'Shorty'를 빨리 발음하면 소리잖나? '짧은 준섭'이라는 뜻이다.

**태티서 수상 소감 때 당신이 장난치다가 소시 팬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던 게 아주 인상적이었다.**  
추억을 만들고 싶었다. 가요 프로그램에서 1위 수상 소감이라면 즐거워야 하는데 빨리 소감만 발표하고 그냥 끝나서 항상 아쉬웠다. 장난을 칠 때 뒤에서는 반응이 매우 좋았다. 상추 형도 옆에서 "야, 계속해! 계속해! 지금 완전 웃겨!" 부추겨서 그렇게 되지 않으나 싶다.

**\* 태티서 수상 소감을 말하는 도중 티파니 뒤에서 소리가 장시간 웃긴 표정을 지어서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연예계 대표 단신인데 키 큰 처자들 옆에서 사진 찍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키가 컸으면 키 크고 늘씬한 여성분 옆에서 사진 찍을 일 자체가 없었겠지. 내가 작으니까 마יתי 마우스도 이렇게 둘 수 있었을 거고, 키가 컸으면 아무 캐릭터 없는 사람이었겠지. 그래도 내가 키만 컸으면 여자 많이 울렸을 거란 소리는 많이 듣는다.(웃음)

**장신 여성을 좋아하나?**  
장신보다 중장신을 좋아한다. 168cm 정도? 힐 신으면 나보다 크고, 힐 안 신고 플랫슈즈 신으면 나만 한 여자. 이게 진리다.

**래퍼로서 흑인 여성에 대한 로망은 없나?**  
아예 흑인 말고 중흑인이 있다. 제시카 알바 같은 피부 톤이 정말 썩시하다. 남미 쪽 여성도 좋다.(웃음)

**본인 외모의 리즈 시절은 언제였다고 생각하는가?**  
지금.(웃음) 내가 잘생긴 건 아니지만, 비호감도 아니잖나? 나 또한 사람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려고 하고, 선배나 후배한테도 예의 있게 대하려고 노력한다.

**마יתי 마우스의 전성기는 1집 때였나?**  
우리 뒤로 언터처블, 써니사이드, 슈프림 팀도 나오고 했으니 랩 듀오로 트렌드를 선도하지 않았나 싶다. 달달한 노래가 나오면 "이 노래 마יתי 마우스 같애" 라고 말하기도 한니까, 그리고 '에너지'를 발표한 이후에 광고에서 에너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I'm your energy!" 이 광고 문구가 나를 때마다 뿌듯하다.

**언더그라운드에서 메이저로 왔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있나? 여자 연예인 사귀는 것이 첫 번째 아닌가?**  
물론이다. 상추 형이 나를 이용해서 여자한테 접근을 많이 했다. "소리가 그쪽 팬이예요." 난 뭐 팬도 아닌데 얼떨결에 그분의 팬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많이 친해지기도 했으니까 딱히 불만은 없다.(웃음)

**“**  
**키만 컸으면 여자 깨나 울렸을 거란 소리 많이 듣는다**

**”**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의외의 인맥이 있나?**  
수영 선수 박태환. 태환이도 상추 형 덕분에 알게 되었다. 상추 형은 정말 아는 사람이 많다. 이게 발판 걸쳐놓은 건지 정말 제대로 아는 건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강남에서 유복하게 자랐다고 들었다.**  
부족하지 않게 자라긴 했지만 일반을 많이 했다. "넌 무늬만 강남아구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다. 데뷔전까지 상문고등학교에서 급식 운반하는 일을 했다. 상문고 학생들도 내가 데뷔한 게 엄청 신기했을 거다. 맨날 김치랑 밥 갖다 주는 형이 TV에 나오니까 말이다.

**상추는 닭 가슴살을 팔아서 돈깨나 벌었는데, 흑시 해보고 싶은 사업이 있나?**

몇 개 있긴 한데 사업하려면 연예인을 그만둬야 한다. 그만큼 너무 좋은 아이탬이라 얘기하고 싶지 않다.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어린이들을 위한 영양 식단 사업' 정도?

**상추와 소리의 관계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있다던데?**  
간혹 사람들이 우리를 성 소수자로 보는 눈빛이 느껴진다. 상추 형이 군대 갈 때 눈물을 흘린 건 연예인 역사상 제일 늦게 군대 가는 연예인이고 안타까운 마음이 커서 그랬던 거다. 난 여자를 좋아한다.

**상추 씨가 휴가 나오면 어딜 제일 먼저 데려가고 싶은가?**  
당연히 클럽이다. 상추 형이 클럽에서 내공이 깊은 사람이다. 옛날에 서클이라는 클럽이 있었다. 거기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함성이 울려 퍼졌다. 딱 봤는데 상추 형이 붐에 거꾸로 매달려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난리가 났지만, 상장은 원치 않았으나 보다. 다음 날 또 갔는데 붐이 없어 졌다. (웃음)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드는 소리만의 비법이 있다던?**  
정성이 가득 담긴 이벤트를 준비한다. 작게 자른 색종이를 이용해 여자친구의 모습을 모자이크로 만들어 선물한 적이 있다. 또 여자친구 이름이 누리면 '누리 부동산, 누리 슈퍼, 누리 문구점' 등을 사진으로 찍는다. 그걸 전부 모아 선물하면서 한마디 내뱉는 거다. "어딜 가도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그만해라. 손발이 오글거려서 퇴화할 것 같다. 친한 연예인 중에 여자가 가장 절실해 보이는 연예인은 누가 있나?**  
MAXIM 2월호에서 인터뷰했던 주석 형. 그분은 좀 많이 절실하다.

**소리에게 남자란?**  
사랑을 주는 존재. 

**마יתי 마우스와 여성 편력** 부럽다. 젠장...



'에너지' 선예



'패밀리' 손담비



'사랑이란' 김희선



'연예특강' 현아&유이

# Meet the Funny Guy



티셔츠 스투시 by 카시나  
운동화 반스  
선글라스 푸마

비니 스투시  
점퍼 더파트먼트  
니트와 셔츠 시스템 울모  
핀츠 더티서츠뮤지엄  
운동화 반스



상추형, 잘 지내?



## SHORRY J

본명: 소준섭

생년월일: 1982년 10월 4일

신체: 168cm, 62kg

### 데뷔

2008년 마이티 마우스 디지털

싱글 앨범 '사랑해'

### 대표곡

'에너지', '패밀리', '특특'

### 소리와 친구가 되자

[twitter.com/soddong01](https://twitter.com/soddong01)

# Drink Beer Story



가서 오징어나 한 마리 구워와.

괴테

## 세계 맥주 기행: 블랙 비어

개성과 스타일, 품위 3박자를 모두 갖춘 블랙, 블랙이 알코올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떤 녀석이 탄생할까? 독일 대문호 괴테도 반했다는 블랙 비어의 정체가 궁금하다!



### 맥주에 설탕을 넣으면 맥주가 아니다 vs. 설탕을 넣어도 맥주는 맥주다

민약 '김밥에는 햄, 달걀, 단무지, 시금치, 당근, 우엉, 쌀밥과 김 외에 다른 재료를 쓰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다면? 참치 김밥의 이름은 아마 '김밥 형태로 만든 참치 마요네즈 밥 김밥'으로 바뀔 거고, 전국에 계신 김밥천국 사장님들은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집어치우라며 법원 앞에서 단무지를 흔들며 분통을 터뜨릴 거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독일에서 벌어졌다.

2004년 7월 12일, 독일 법정은 맥주에 '설탕'을 넣은 노이젤 지역의 양조업자 헬무트 프리슈에게 2만 5,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설탕을 넣은 맥주에 감히 '맥주'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독일의 맥주순수령에 따르면 '맥주'란 몰트로 만든 곡식과 물, 호프 그리고 이스트만으로 만든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독일에선 순수령을 어긴 맥주는 라벨에 '맥주'라는 용어를 쓸 수 없다. 설탕 넣은 맥주를 양조한 헬무트 프리슈는 양조업자의 창의적 권리를 제한한다며 이 판결에 불복했다. 맥주에 설탕을 첨가한 것은 "차나 커피를 마실 때 설탕이나

우유를 넣는 것과 비슷하다. 일부는 블랙으로 마시고 다른 사람들은 화이트로 마시기도 한다. 맛이 좀 다를 뿐이다"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마치 아이유가 불탄 피자마를 입든, 초미미를 입든, 아이유는 아이유듯. 그가 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한 것은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 독일 재통합 이후 독일 정부는 동독 정부의 재산을 일부 처분했는데, 이 해에 프리슈는 국영 양조장 하나를 인수한다. 양조장은 그가 인수하기 전부터 인근의 다른 양조장과 마찬가지로 설탕 시럽을 넣은 '맥주'를 만들고 있었다. 서독의 엄격한 순수령과는 달리 동독 정부하에서 맥주 제조법은 좀 더 관대했다. 그런 까닭에 설탕을 넣은 맥주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재통합 이후 순수령이 동독 지역에도 적용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라벨에 맥주라는 용어를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전의 'OO맥주'라는 라벨 표기는 이전 "OO맥주로 만든 스페셜티, 시럽이 첨가되었음"의 형태로 바뀌어야만 했다. 엄격한 맥주순수령도 적용에 예외가 있긴 하다. 가령 2013년 2월호 MAXIM에서 소개한 베를린 지역의 베를리너 바이스와 같은 지역 특수 맥주는 허브나

### We Drink For You!

2011년 6월호 MAXIM의 <남자를 위한 완벽한 맥주 가이드> 기사에서 괴슈트리처 슈바르츠 비어는 시음한 수십 종(사실 얼마나 마셨는지 기억이 없어) 중 만점을 받고 1위를 차지했다. 당시 시음평을 다시 공개한다.

"이런 맥주가 있었다니!" 모두 이 맥주를 처음 마셔본다고 했다. 입안에 구름 같은 크리미한 맥주가 닿는 순간 다들 그 풍부한 맛에 놀라고 말았다. 강한 캐러멜 향과 견과류 향이 좋고, 묵직한 보디감이 좋으며(노원철), 달콤함도 감돈다(나침찬). 짝조름한 맛(홍완상). 코를 쓰는 탄 누룽지 맛(최인영)을 느낄 정도로 풍미가 다채롭다. '괴테가 사랑한 술'이라는 홍보 문구가 사실인지는 괴테한테 안 물어봐서 정확히 모르겠다.

평점: 5.0/5.0



산딸기로 만든 시럽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그래서 프리슈는 자신 역시 지역 맥주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브란덴부르크 주 당국에 정식으로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요청할 때마다 거절당했고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된 것이다. '브란덴부르크 맥주 전쟁'이라고 불린 이 소송은 결국 독일 연방 법원에 의해 노이젤 양조장의 설탕 넣은 맥주가 '맥주'라는 이름을 쟁취하면서 끝이 났다.

**설탕과 달걀을 넣어 마신 맥주,  
분단과 함께 사라지다**

위에 언급된 프리슈의 설탕 탄 맥주는 슈바르츠 비어 (Schwarz Bier) 또는 블랙 비어를 가리킨다. 작센 일대, 특히 괴슈트리츠(Köstritz)의 명물로 오랫동안 독일인의 사랑을 받았지만 독일 분단 이후 동독을 제외한 나머지 유럽에서 거의 잊힌 맥주다. 분단 이전만 해도 독일 사람들은 아저씨들이 생화차에 낱달걀 띄워 마시듯, 괴슈트리처에 설탕과 달걀을 넣고 무슨 건강 음료처럼 마셨다. 술집에서 맥주를 저그(Jug)에 담아 집으로 가져와서는 각자 입맛에 맞게 설탕을 타거나 낱달걀을 넣고 저어 마시기도 했다. 1950년대까지 블랙 비어는 드레프트로만 팔았지만 곧 이어 병맥주로도 출시되는데, 설탕을 탄 버전과 타지 않은 버전 두 가지다. 아마도 사람들이 집에서 설탕을 타 먹는 모습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다. 하지만 재통합 후 맥주수송량이 다시 옛 동독 지역에 적용되면서 설탕 탄 병맥주는 사라지거나 나오더라도 '맥주'라는 이름을 달지 못했다. 오늘날 설탕과 달걀을 넣은 괴슈트리처의 맛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분단 이전 세대인 나이 든 사람들은 설탕과 달걀을 타서 마시던 괴슈트리처의 맛을 잊지 못한다.

**괴테, 괴슈트리처로 보신하다**

블랙 비어는 전통적으로 몸을 보하는 강장제(Tonic)로 여겼다. 시인 괴테와 괴슈트리처의 일화는 유명하다. 그가 아팠을 때 이야기를 한 친구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에게 몇 병의 괴슈트리처가 있다.” 한편 독일의 몇몇 시에서는 블랙 비어를 젓을 먹이는 어머니의 음료로 표현하고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의 산모들이 스타우트를 강장제로 먹었다던 이야기와 비슷하다(약간의 설탕과 함께, 낱달걀을 넣고 저어 먹으라고 권장했다). 젓을 먹이는 어머니의 음료라는 괴슈트리처의 이미지는 독일인의 기억속에 강하게 남아 있는 듯하다. 베를린 장벽이 철거된 직후 비트부르거(Bitburger)는 괴슈트리처를 생산하는 양조장을 인수하는데, 여기에는 사업적 마인드 외에 소유주이자 설립자 가문의 후손인 악셀 지문의 개인적 동기가 크게 작용했다. 그의 어머니는 종종 지문에게 젓을 먹이면서 괴슈트리처를 마시곤 했고 지문이 10대에 처음으로 마신 맥주 역시 괴슈트리처였다고 한다. 알뜰한 젓을 먹고 자란 아이는 훗날 괴슈트리처를 괴슈트리츠 지역에서 생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엄청난 돈을 들여 옛날 양조장을 보충했다. 대부분의 서독 양조업체가 동독의 양조업체를 인수한 후 양조장을 폐쇄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동독의 양조장은 대부분 시설이 노후해 수리 비용보다 분거지와 가까운 곳에 새로 짓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인구 4,000명 남짓한 작은 마을에 있는 허름한 양조장을 다시금 맥주의 명사로 만들겠다는 그의 생각은 다분히 감성적인 판단이었다. 다행히 괴슈트리처는 독일 전역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다. 4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학생들이 양조장

근처 선술집에서 파는 맥주를 맛보기 위해 말을 타고 괴슈트리츠까지 왔고 한 번 오면 3일 동안 들어가지 않았다. 지금도 양조장 건너편에는 그 선술집이 있다. 괴슈트리츠 지역에서 양조를 한 최초의 기록은 1505년에 등장하고, 마을 지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1543년에 와서다. 또 오늘날 괴슈트리처는 하면 발효로 만들지만 1600년경부터 1870년경까지는 상면 발효로 제조했을 거라 짐작한다.

**설명은 이제 됐고, 그 맛이 궁금하다!**

괴슈트리츠는 바바리아 경계를 넘어 남쪽에 있는 바이로이트, 쿨름바흐, 밤베르크, 에를랑겐 그리고 뮌헨과 같은 옛 양조 중심지와 멀지 않다. 이 지역에서는 훌륭한 다크 라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다크 라거와 비교하면 블랙 비어는 볶은 몰트를 사용해서 색이 더 짙고 불투명하다. 또 담금 온도를 내내 높게 유지하고 발효를 억제하기 때문에 보디가 더 풍부하고 씹새래한 초콜릿 맛이 난다. 괴슈트리처 슈바르츠 비어를 잔에 따르면 크림 같은 베이지색 헤드가 생긴다. 맥주는 완전히 흑색이며 독특한 쓴 초콜릿 맛이 난다. 그리고 블루베리 같은 검은 열매, 몰트로 만든 빵, 쓴 초콜릿 향이 느껴진다. 크림 같은 두텁고 부드러운 맛이 뒤따르는데 끝맛이 길며, 검은 열매, 커피, 초콜릿 맛이 난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엔 그녀와 함께 블루베리가 박힌 다크초콜릿을 안주 삼아 괴슈트리처 한 잔 어떨까? “자!야, 괴테는 아플 때 이것만 마셨다. 강장제라고 생각하고 말아야. 내가 이거 마시면 어떤 짐승으로 돌변할지 궁금하지 않아?” ☹

**비르에서 삐루로!**

독일 블랙 비어, 열도에 새끼 치다.



일본인이 맥주 맛을 알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부터다. 일본 맥주 하면 색이 옅은 라거를 떠올리기 쉬운데, 일본 현지에서는 색이 진한 유럽 맥주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일본은 1892년경부터 블랙 비어를 생산해왔다. 일본에서 만든 블랙 비어는 괴슈트리처 맥주에서 영감을 받았다(구 동독의 괴슈트리처가 어쩌다 열도까지 갔는지 알려진 기록은 없다).

**삐루로 블랙 비어(5%):** 이 스타일의 고전이다. 페일 몰트, 크리스털 몰트, 뮌헨 몰트 그리고 초콜릿 몰트에 쌀이 약간 들어간다. 호프는 아로마 호프 종과 일본산과 외국산을 쓴다. 잔에 따르면 풍성한 헤드(Head)를 만든다. 아로마는 강렬하고 다크 몰트가 지배적인데, 볶은 커피를 연상시킨다. 블루베리 같은 검은 열매와 호프, 몰트의 맛이 느껴지며, 끝맛으로는 커피, 쓴 초콜릿, 호프의 맛이 풍부하다.

**기린 블랙 비어(5%):** 부드럽게 낱곡식 같은 맛으로 시작해 점점 볶은 커피와 말린 감초 뿌리의 맛이 뚜렷해진다.

**아사히 블랙(5%):** 삐루로 블랙 비어보다 덜 검으며, 붉은 빛의 갈색이 약간 보인다. 맛과 끝맛이 달다. 종종 라거와 섞어서 맥주의 캐러멜 맛을 조절한다.



삐루로 블랙 비어      기린 블랙 비어      아사히 블랙

Hot Debut

# Blonde in Blue Brittany Cole

올 상반기 할리우드 기대작 <PAIN&GAIN>에 등장하는 브리타니 콜. 메간 폭스를 발탁한 영화감독 마이클 베이가 짚힌 신예라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



마이클 베이의  
여자들





먼저 축하한다. 세상에서 최고로 재미있는 영화를 만드는 감독 마이클 베이에게 낙점됐다.

**<Pain&Gain>은 어떤 영화인가?**

액션, 액션 그리고 액션이지! 계속되는 액션과 영화 전개를 돕는 재미있는 대사가 감상 포인트다. 액션과 유머는 언제나 좋은 조합이잖아? 마이클 베이는 이런 스타일 넘치는 액션 영화에 유머 코드를 적절히 섞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촬영 중 마이클 베이 감독에게 잊지 못할 연기 지도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얘인가?**

풀장 바닥에 설치된 카메라를 그냥 지나쳐야 하는 장면이 있었다. 촬영 중간에 나도 모르게 걸음을 멈춰 서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가 "뭐하는 거야? 넌 배우라고, 모델은 그만해!"라고 말하며 소리쳤다.

세트장에 있던 스태프가 모두 빵 터졌지만 나는 너무 창피했다.

**촬영이 없는 날에는 주로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 말해달라. 어디에 가면 당신 같은 예쁜 모델을 만날 수 있나?**

날 만나고 싶다면 카지노에 블랙잭 테이블로 오면 된다. 내가 캠블링을 워낙 좋아하거든. 심지어 매우 잘한다. 그리고 일단 나를 웃게 만들면 절반은 성공이다.

**당신 같은 예쁜 여자들은 모델이나 배우, 유명 감독이나 셀러브리티, 부자하고만 만날 것 같다. 남자 모델과는 절대로 데이트를 하지 않으니 안심해라. 물론 돈이 많은 재력가나 지적인 사람 혹은**

“

**당신이 나를 웃게 만들었다는 건 나와 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

내게 접근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넘치는 남자라면 오케이다. 보통 남자들은 예쁜 여자에게 다가가는 걸 겁내는데,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여자는 '조건'이 넘치는 남자보다 '자신감'이 넘치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직업 좋고, 잘생긴 데다 성격도 완벽하고, 멋진 미소와 유머감을 가졌고, 따뜻한 마음씨에 몸매도 근육질인 남자. 하지만 키가 작은, 너무나 작은 남자가 있다. 160cm쯤? 그래도 사귈 수 있나? 나보다 큰 남자를 좋아하는 건 사실이지만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내가 170cm가 넘으니까 그는 내 관심을 끌려면 아마 굉장한 사람이여야 할 거다. 내 호기심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 그 키 작은, 하지만 멋진 남자가 너무 어려 보여서 같이 다니면 모두 그가 당신 조카냐고 묻는다. 여전히 그를 사랑할 텐가? 그가 내 조카처럼 생겼다면 데이트하지 않는다, 절대!**

**한국인 남자와 사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 남자가 자신감 있고, 귀엽고 그리고 정신 나간 여자를 감당할 수 있다면 물론 대환영이다.**

**한국에서는 이맘때 처녀를 마음이 들뜬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떤가?**

흠... 빨리 새 작품을 하고 싶다. 당분간은 내 커리어에 집중하겠다. 사랑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지금껏 남자들에게 받아본 최고의 생일 선물은 무엇인가?**

밝힐 수 없다. 한 명만 꼽으면 다른 걸 준 사람들이 얼마나 서운하겠나.

**모델 활동 당시 겪은 에피소드 중에 재미있는 비밀을 하나만 말해준다면?**

내 비밀이 비밀인 건 다 이유가 있다. 알면 다친다. 절대로 말해주지 않을 거다.

**마지막으로, 왜 미국 사람들은 오바마를 다시 뽑아줬나? 그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나?**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지만, 확실히 그는 멋진 사람인 것 같다. ☺



**Brittany Cole**

생년월일: 1989년 9월 28일

태어난 곳:

미국 플로리다주 오먼드 비치

현재 거주지:

마이애미, 로스앤젤레스

그녀의 드림카: 레인지로버

지금 탄 차: 레인지로버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중독:

초콜릿

**BRITTANY in SCREEN**

- 마이클 베이 감독 신작 영화

〈PAIN&GAIN〉 출연

- 〈트랜스포머 4〉 출연 예정

# Fight

UFC OF THE MONTH

## 코리안 파이터 3인방 UFC 동시 출격

자, 달력들 꺼내시고 3월 3일에 빨간 동그라미!

### 코리안 고추의 매운맛을 보여줘

지난해 11월 마카오에서 열린 UFC 경기에는 UFC 코리안 파이터 1호 김동현과 로드FC 밴텀급 초대 챔피언 강경호 그리고 동급 최강 리치 임현규 등이 동시에 출전하기로 했다. 당시 MAXIM도 신이 나서 경기 예상 기사를 짹짹 훑어봤다. 하지만 강경호는 연습 중 부상으로, 임현규는 체중 감량 중 탈진으로 출전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런 쟁쟁!" 한국 격투기 팬들의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졌다. 김동현의 승리만이 이 아쉬움을 달래줬다. 드디어 오는 3월 3일, 일본 사이타마 현 슈퍼아레나에서 열리는 UFC in JAPAN 경기에 코리안 파이터 3인방이 다시 출격한다! 강경호와 임현규는 마카오 대회 대결 상대인 일렉스 케세레스(24·미국), 마르셀로 기마라에스(30·브라질)와 붙을 기회를 다시 잡았다.

필공치 갈아냈어. 덩베!



### 미스터 퍼펙트 vs. 브루스 리로이

강경호의 상대 케세레스는 아프로 헤어에 빛을 쬐은 독특한 스타일에, 경기 도중 실실 웃기도 하는 등 재미있는 구석이 많은 선수다. 겉모습만 요란한 건 아니다. 총 전적 7승 중 4승이 서브미션일 정도로 그라운드 실력이 훌륭하고 TKO승도 두 차례 거둔 바 있다. 하지만 뛰어난 레슬링 실력과 그라운드 압박, 강한 타격(게다가 불공평하게도 얼굴마저 꽃미남인) 강경호는 공수 모두 고르게 타격하므로 상대하기에 무척 까다롭다. 만만치 않은 공방이 예상된다.



### 에이스 vs. 마그라오

기마라에스는 지난해 7월 UFC 데뷔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MMA 데뷔 이후 지금까지 8연승째다. 2번의 서브미션승과 TKO 1승이 있는 그는 힘이 좋고 그라운드도 발군이다. 2011년 8월 정글 파이트 31에서 리어 네이키드 초크로 상대를 실신 지경에 이르게 하는 냉정한 모습을 보면 간담이 서늘해질 지경. 현재 상승세라는 것도 임현규에게는 부담이다. 하지만 2m의 최강 리치를 지닌 '에이스' 임현규 역시 뛰어난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한 스탠딩 초크와 긴 리치를 이용한 타격으로 민반의 준비를 마쳤다.



### 코리안 스텝전 vs. 아프간 킬러

마카오에서 파울로 티아고를 만장일치 판정승으로 완벽하게 누르고 아시아인 최초로 UFC 7승을 거둔 김동현의 UFC 8승째의 희생양 후보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시야르 바하두르자대(29)다. 어릴 때 자기보다 나이 많고 큰 형들을 쥐어패서 할아버지가 '더 킬러'라는 별명을 붙여줬다는 그는 15세 때 네덜란드로 이민을 와 격투를 시작했다. 그는 UFC 데뷔전에서 김동현이 제압한 티아고에게 1라운드 42초 만에 KO승을 거두었다. 아시아 최강의 그래플리이저 상남자 중의 상남자 김동현이, 상대 머리통을 수박 쪼개듯 후려치는 강편치를 가진 킬러를 만나 어떤 경기를 펼칠지 벌써부터 피가 끓는다.

### 도끼 살인마와 슈퍼사모아인도 출세됩니다 (그 외 일본인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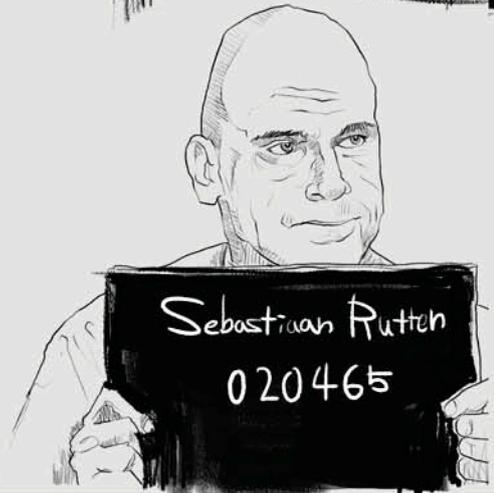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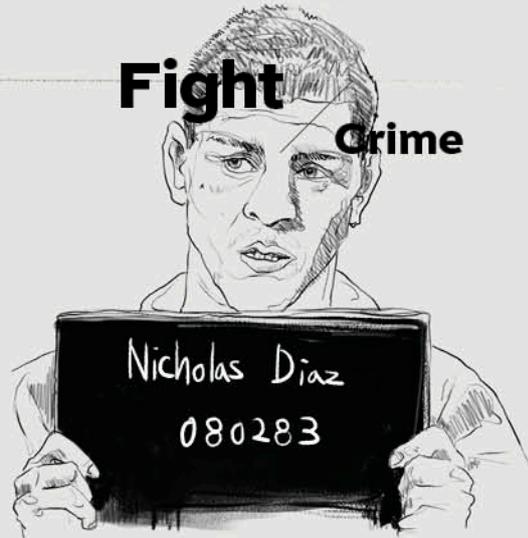
한편 대회 메인 카드엔 '도끼 살인마' 빈더레이 실바와 미국 전생 영웅 브라이언 스텐, '슈퍼사모아인' 마크 헛트와 4연승의 기린아 스테핀 스트루브의 경기가 대기 중이다. 일본 대표 파이터 고미 타카노리와 디에고 산체스, 오카미 유신과 헥터 롬바드의 경기 역시 기대 만발이다. 3월 3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 UFC in JAPAN on AIR

이 재미난 경기를 일본에서 직관 못 한다고 섭섭해 마라. 액션 전문 채널 슈퍼액션을 통해 편안하게 인방에서 볼 수 있다. 단,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방방 뛰면 요센 아랫집 사람에게 칼뿔 맞는다고 하니 조심해!

**3월 3일(일) 오전 9시 슈퍼액션 전 경기 생중계**

# Fight Crime



## 파이터가 저지른 5가지 통제 불능 범죄 이야기

함부로 볼지 마세요. 경찰에 양보하세요. (안 그럼 죽어요)

→ 인간은, 특히 남성은 살면서 한 번쯤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분노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가끔은 이것이 폭력 사태로 발전하게 되는데 필자같은 대부분의 보통 사람의 경우엔 한두 명 정도 쌍코피, 눈탱이 밤탱이, 입술 당나발, 광대뼈 탕탱 부기 정도로 끝이 나고 다정하게 합의금을 주고받으면서 상황이 종료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만약 직업 파이터가 통제를 잃고 날뛰게 된다면? 혹은 파이터가 작심하고 범죄를 저지른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 No. 5 닉 디아즈 vs. 110kg 넘는 흑인 형제 두 명



| 닉 디아즈  |                             |
|--------|-----------------------------|
| 신장     | 183cm                       |
| 평소 체중  | 85kg 이상                     |
| 리치     | 193cm                       |
| 전적     | 35전 26승 13KO<br>8SUB 8패 1NC |
| 주요 커리어 | IFC, WEC, 스트라이크 포스 웰터급 챔피언  |

닉 디아즈는 뛰어난 지구력과 끝을 알 수 없는 맷집을 바탕으로 난타전을 벌이고 역전 KO승을 수확하는 데 일가견이 있는 우수한 파이터다. 그는 어린 시절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앓았고 성인이 된 지금까지 그

증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사와 행동이 굉장히 거칠고 특이하다. UFC 웰터급 챔피언 조르주 생피에르에게 도전할 기회를 잡았으나 기자회견장에 불참하면서 UFC CEO 데이나 화이트의 성질을 건드렸고 그걸로 타이틀매치를 날려 먹은 적도 있다(다행히 올 3월 16일 UFC 158에서 다시 타이틀에 도전할 기회를 잡았다). 다음은 닉 디아즈가 동료와 MTB를 타러 갔을 때의 일을 직접 술회한 내용이다.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어. 한적한 주택가였는데 자동차 경적이 시끄럽게 울리더니 차 안에서 어떤 놈들이 소리치는 거야. 형제였어. 내가 자전거에서 내리니까 녀석들도 차에서 내리더라. 둘 다 녹다운시켜버릴 수 있었는데, 하필 그 상황에서 바이크 슈즈 때문에 자빠져버린 거야. 그렇게 두 놈한테 붙잡힌 채로 맞다가 한 놈에게 발목 꺾기를 걸어서 넘어뜨리고는 뺨을 후려쳤어.



영양.  
사인해 달라고...

## No. 4 바다 하리 vs. 암스테르담 클럽 기도



바다 하리

|        |                    |
|--------|--------------------|
| 신장     | 197cm              |
| 평소 체중  | 115kg 이상           |
| 리치     | 208cm              |
| 전적     | 111전 100승 88KO 11패 |
| 주요 커리어 | K-1 헤비급 챔피언        |

바다 하리는 매우 쉽게 통제 불능에 빠진다. 성격이 극도로 난폭해 경기장 안팎을 가리지 않고 기술을 쓰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0년 초, 그는 암스테르담의 한 클럽에서 출입을 금지당했다. 바운서(기도)는 그에게 복장을 문제 삼으며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고 하리는 법보다 가깝다는 '그것'을 사용했다. 그를 막아선 바운서는 코가 주저앉았고, 안와골절을 당했으며 이마에 철판을 대야 할 만큼 크게 다쳤다. 바운서는 고소하지 않았지만, 경찰이 냄새를 맡았고 하리는 벌금형을 받았다. 이 정도로 정신을 차렸으면 좋았겠지만 하리는 이후에도 계속 폭력을 휘두르고 다녔다. 최근에도 그는 암스테르담의 한 클럽 오너에게 무지막지한 폭행을 가해 상대의 다리를 못 쓰게 만들었다고 한다. 곧 법정에서 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법정에서 다들 그의 범죄가 한두 가지가



바다의 주먹  
맛이 어떠냐!

너무 짜요.

아니라는 것. 하리는 현재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클럽 오너 폭행 건인데, 검찰은 이 사건에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이 외에도 클럽 에어리어 곳에서 발생한 2건의 폭행, 클럽 쿨다운에서 전 애인의 동생을 폭행한 일, 클럽 지미 우에서 일어난 폭행, 2010년에 있었던 폭행, 2011년 7월에는 여성을 포함한 두 명을 폭행한 것 등등. 불과 2년 사이에 8건의 폭행 사건에 휘말린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한 놈이 나를 집어 던지더라. 그렇게 다시 잔디밭에서 두 놈한테 깔린 채 한참 맞았지. 나는 그만하자며 보내달라고 말했어. 그러고는 그들이 나를 놔주자마자 신나게 때리기 시작했지. 녀석들은 힘이 다 빠진 상태였거든. 그랬더니 이번엔 형제 중 한 놈이 펜을 꺼내 들고 나를 막 찌르더라고. 깜짝 놀라서 펜을 왼 손을 붙잡고는 넘어뜨려서 발길질을 해댔지. 결국, 형제는 자동차로 도망쳤고 차에 있던 여자친구인지 뭔지가 내게 생육을 섞어 소리치더군. 더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쯤에서 접었어. 나도 나지만 그놈들은 나보다 심하게 당했으니까.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걸? 아무튼 혼자서 두 사람을 상대로 싸우면 안 돼. 그것도 각각 240파운드 이상 나가는 형제와... 바이크 슈즈를 신고는 더더욱."



바다 하리의 스승 톰 하링크는 하리에 대해 "브랑코 시카틱(K-1 초대 우승자)과 피터 아츠(K-1 그랑프리 4회 우승, 레전드 오브 레전드)를 합친 것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했다. 그의 평가는 정확했다. 하리는 엄청난 성적을 내며 K-1의 신세대를 대표할 기수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그는 수입을 향락사업(매춘업)에 투자했고 암스테르담을 장악한 밤의 황제와 어울려 다녔다. 현재는 선수인지 건달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 No. 3

### 댄 헨더슨 & 랜디 커투어 vs. 나이트클럽 기도 7~8명



|        |   |
|--------|---|
| 댄 헨더슨  |   |
| 신장     | 180cm   |
| 평균 체중  | 약 98kg  |
| 리치     | 180cm   |
| 전적     | 37전 29승 13KO 2SUB 8패  |
| 주요 커리어 | UFC 17 미들급 토너먼트 우승, 킹 오브 킹스 1999 우승, 프라이드 웰터급-미들급 동시 제패, 스트라이크 포스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



제발 우리 가게 오지 마...

이 이야기는 1990년대 중반에 일어난 사건을, 두 선수의 절친한 친구이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든 알려보려 했지만 실패하고만 클린치 기어 (MMA용품 및 의류 제조사)의 대표이사 애런 크래시가 조 로건(UFC 해설가)의 라디오 프로에서 증언한 것이다.

장소는 미국 애틀랜타의 한 술집이었다. 그곳에서 댄 헨더슨은 한 미모의 여성을 상대로 작업에 성공했고, 랜디 커투어는 장난으로 헨더슨의 작업 타겟이 타 있던 차 안으로 헨더슨을 거칠게 밀어 넣었다. 바로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바운서가 커투어를 향해 야구 배트를 치켜들며 당장 꺼지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바운서도 나름대로 쇠고기 좀 먹는 계층이고 체격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내지른 것이다. 하지만 상대는 앞으로 MMA 피이터가 되어 챔피언 벨트 수집을 취미로 삼을 거물이었다. 운이 나빠도 이렇게까지 나쁠 수는 없었다. 표정이 급변한 헨더슨이 먼저 차에서 뛰어나와 "야구 방망이를 XX에 박아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야구방망이를 든 바운서가 그런 헨더슨을 보며 움찔할 때 커투어가 라이트 후러치기로 먼저 주먹을 날렸고 그것을 정통으로 맞은 바운서는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그러자 주변의 바운서 6~7명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커투어는 업소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바운서를 하나씩 처치하며 업소 내부로 진입해 가게 안에 있던 바운서 서너 명과 가게 안 모든 테이블을 주저앉혔다. 크래시의 증언에 따르면 커투어는 여러 명의 바운서를 '공기놀이'하듯 다뤘다고, 커투어가

어이쿠, 시원하네요!



안면 경락 출장 마사지 나왔습니다!

업소 내부를 평정하고 있을 때 크래시는 밖에서 헨더슨을 찾아다녔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핏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희생자를 하나씩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끝에 마지막 희생자와 그 위에 올라타 포효하는 헨더슨이 있었으니까. 다음 날 커투어는 체육회 관계자와 만나 미국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대표 팀 코치를 맡는 문제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과 업소 매니저가 오더니 퇴거를 요구했다. 알고 보니 인터뷰 장소가 바로 전날 커투어와 헨더슨이 썩대발을 만든 가게였던 것. 다행히 업소 매니저는 고소하지 않았고, 다만 다시는 자기네 가게에 나타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        |  |
|--------|--|
| 랜디 커투어 |  |
| 신장     | 185cm  |
| 평균 체중  | 약 110kg  |
| 리치     | 191cm  |
| 전적     | 30전 19승 7KO 4SUB 11패                           |
| 주요 커리어 | UFC 13 토너먼트 우승, UFC 헤비급 챔피언 3회,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2회 |

## No. 2

### 바스 루튼 vs. 스웨덴 클럽 기도 5명



| 바스 루튼  |                               |
|--------|-------------------------------|
| 신장     | 185cm                         |
| 평소 체중  | 100kg 이상                      |
| 리치     | 193cm                         |
| 전적     | 33전 28승 12KO<br>13SUB 4패 1무   |
| 주요 커리어 | 킹 오브 판크라스 3회 챔피언, UFC 헤비급 챔피언 |

이것도 조 로건의 라디오 프로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루튼이 직접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우리나라엔 '대머리 독수리'로 더 잘 알려진 바스 루튼은 1세대 타격 스페셜리스트이며 엄청난 하드 히터였다. 그의 보디 킥은 거의 살인 병기였으며 보디 펀치가 정확하게 들어가면 비장이 파열될 수 있다.



**로건:** 왜 네덜란드 바에서는 킥복서, MMA 피이터가 그렇게 싸움에 엮이는 걸까? 알리스타 오브레임도 술집 싸움에 엮였다가 손이 착살난 적이 있잖아.



**루튼:** 바운서가 문제야. 진심으로 우릴 상대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자기네 패거리가 있기 때문일까?

**로건:** 너랑 한판 붙어보려고 시비 거는 취객은 없어?

**루튼:** 한동안 있었지. 하지만 스웨덴 술집 사건이 있는 뒤에는 그런 일이 똑 끊겼어.

**로건:** 스웨덴 술집 사건은 뭐야? 인터넷에서 엄청 유명하던데.

**루튼:** 스웨덴 술집에 갔는데 바운서가 "당신이 설치고 다녀서 다른 손님한테 방해된다"며 나가라더군. 나가겠다고 말했는데 그놈은 내가 그렇게 순수히 가겠다고 할 줄 모른 모양이야. 당황한 나머지 나를 밀치더래. 그만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가슴을 손가락으로 콕콕 찌르면서 어찌고저찌고 중얼거리는 거야. 내 인내심의 한계는 거기까지였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면 너 큰일 난다"라고 경고했지만 통하지 않았지. 그래서 녀석을 밀쳐. 그랬더니 뒤에 있던 놈이 점프해서 놈을 뛰어넘어 오더니 손가락으로 내 눈을 찌르는 거야. 그만하자고 말하며 수습하려는데 아까는 찌른 놈이 반대편 눈을 또 찌렸어. 그래서 넘겨버렸어. 그야말로 대형



비보잉 하나 봐.



떡실신이었지. 아직도 그놈이 넘어갈 때 내던 '우어우어' 소리가 생생하니까. 기도 패거리가 금방 모여들더라. 5명 정도였는데 이놈은 이렇게 한 방, 저놈은 저렇게 한 방 차례로 쓰러뜨리는데 싸움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자꾸 일어나서 덤비면 끝이 없겠더라고.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로건:** 그렇게 여럿을 때려눕히고 나서야 겨우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루튼:** 녀석들이 마대를 집어 들었거든.(웃음)

**로건:** 마대를 든 다섯 명과 싸웠단 말이야?

**루튼:** 응. 빠져나가려고 계단을 내려와 보니까 철문이 있었어. 안 열리더라고. 할 수 없이 돌아섰지. '다 때려잡을 수밖에 없다. 울대 치기와 낭심을 가격해야겠구나...' 마음먹고 있는데 경찰이 왔어. 나한테 맞은 놈 중 한 명이 경찰이었던 거야. 그길로 바로 감방행이었어. 교도소로 이송됐는데 간수들이 전부 나를 알아보더군. 그래서 비디오와 커피, 쿠키 같은 걸 얻기도 하고 그들과 포커를 치면서 함께 어울렸지. 전화도 쓰게 해주더라니까?

### 친구를 살해한 피이터



매직 머시룸을 과다하게 복용한 제로드 와이어트는 환각 상태에서 자신의 트레이닝 파트너 파웰을

살해했다. 법정에서 그는 "하늘로부터 그 친구는 악마이므로 죽어야 한다는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와이어트는 파웰의 허를 찌르고 가슴을 열어 심장을 꺼냈다. 이 사건의 헤드라인은 'MMA 피이터가 잔혹하게 살해를 저지르고 구속되다'라고 올랐지만 사실 그의 프로 경력은 단 1전에 불과했다. 사건 자체는 충격적이지만 과연 이 선수를 프로 피이터로 봐야 할지는 의문.

## No.1

### 리 머레이 vs. 영국 경찰



| 리 머레이  |                              |
|--------|------------------------------|
| 신장     | 191cm                        |
| 평소 체중  | 95kg                         |
| 리치     | N/A                          |
| 전적     | 12전 8승 4KO<br>4SUB 2패 1무 1NC |
| 주요 커리어 | 현금 1,000억 강탈                 |

파이터가 연루된 사건 중에 이만큼 빠른 사건은 없었다. 이 사건은 범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을 강탈당한 사건이다. 피해액은 당시 기준으로 약 1,000억. 사건의 주인공은 리 머레이라는 인물이었다. 머레이는 1977년생으로 런던의 서쪽 끝자락에 있는 우범지대에서 모로코인 아버지와 영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지역의 랭 리더인 마크 앵스타인은 머레이에 대해 “어릴 때부터 이쪽 업계(암흑가)에서 주시하던 인물이다. 총을 사용하는 위험한 게임에도 능숙한, 함부로 상대해서는 안 될 녀석”이라고 말했다.

1999년 5월 머레이는 MMA 무대에 데뷔했다. 처음 세 경기를 모두 1회에 KO와 서브미션으로 정리한 그는 네 번째 경기에서 조 덕슨을 만나 암묵에 의한 서브미션으로 처음 패했다. 2000년부터 머레이는 아이오와의 밀레티치 아카데미에서 수련을 시작했다. 핏 밀레티치(초대 UFC 웰터급 챔피언 출신의 MMA 지도자)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의 육체적 재능은 타고난 것이다. 아주 빠르고 강하다. (계속했다면) 아마 세계 챔피언이 됐을 거다.” 2002년 머레이는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었고, UFC는 최초로 영국에서 이벤트를 개최했다. 당시 티토 오티즈와 머레이 간에 벌어진 난투 사건은 유명하다. 현장에 있었던 밀레티치는 이렇게 증언했다. “티토가 그에게 레프트훅을 날렸지만 빗나갔어요. 머레이는 5단 펀치 콤비네이션으로 반격했고 모든 공격이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빠와 빠가 충돌하는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오티즈는 쓰러졌고 머레이가 그의 머리를 두 차례 발로 걷어차셨습니다.”

2004년 1월 8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던 머레이는 UFC에 데뷔했다. 이 경기에서 그는 한니발 렉터를 연상시키는 복장으로 등장했다. 상대인 호르헤

리베라를 삼각 조르기로 처치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분 45초였다. 그러나 이 경기 이후 머레이는 UFC에서 향후 진로가 불투명해진다. 미국 비자 발급을 거절당했기 때문. 수년 전 상대가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갔던, 영국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때문이었다. UFC로 가는 길이 차단당하면서 머레이는 케이지 레이저 (Cage Rage)라는 단체로 옮겨갔다. 첫 경기는 초대 미들급 타이틀을 걸고 벌어졌다. 상대는 ‘격투의 신’ 앤더슨 실바였다. UFC행은 좌절되고 케이지 레이저에서는 하필 앤더슨 실바를 만나 패하다니... 머레이의 격투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미국 진출이 좌절된 것이 문제였을지, 혹은 앤더슨 실바와 대면한 뒤 어떤 절망감을 느꼈는지는 알 수 없다. 2005년 머레이는 한 파티에서 난투를 벌여 상대가 사용한 나이프에 난자당했다. 몇몇 주요 동맥과 폐에 관통상을 당한 그는 목숨이 풍전등화에 이르렀지만 네 차례의 CPR과 의료 스태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겨우 생명을 건졌다.



머레이는 격투의 신 앤더슨 실바를 보고 파이터의 길을 접은 걸지도 모른다.

그리고 2006년 머레이는 새로운 무대로 진출했다. 바로 어둠의 세계다. (ESPN The Magazine)의 손 아셀은 리 머레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이것은 스포츠 스토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국제적 반향을 일으키기엔 충분하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데 사상 최대의 인원이 동원되었다. 안전 가옥과 007이 반할 만한 스파이 도구가 사용됐고, 일곱 살 난 아이가 인질로 잡히기까지 한 세계 범죄 사상 최대의 현금 강탈 사건이다. 브링크스 헤이스트 (Brink's Heist: 1950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은행 강도 사건)나 런던 대열차 강도 사건(1963년 영국에서 일어난 현금 수송 열차 강탈 사건) 등 여러 가지 대사건을 모두 생각해보도 이 사건만큼 대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 리 머레이 사건의 재구성

2006년 2월 21일

오후 7시

런던에서 남동쪽으로 45km 정도 떨어진 한적한 교외에서 ‘세큐리티스 캐시 웨어하우스’의 매니저는 퇴근길에 (리 머레이 일당이 변장한) 경찰의 정지 명령에 따라 차를 세웠다. 머레이 일당은 과속을 이유로 그를 차에서 내리게 했다. 그리고 자동 권총 등을 이용해 매니저를 위협하고 제압했다.

오후 8시 40분

머레이 일당은 매니저의 차에서 그의 아내에게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속이고 그녀의 일곱 살짜리 아들과 함께 납치해 안가로 데리고 갔다. 안가에서 아내와 아이는 묶여 있던 가장과 재회한다. 머레이는 매니저에게 “협조하면 아내와 아이는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머레이 일당은 매니저를 이용해서 경보망을 피해 세큐리티스의 현금 보관소로 잠입하기를 원했다.

2월 22일

새벽 1시 21분

매니저는 경찰복을 입고 수염으로 얼굴을 숨긴 머레이 일당을 이끌고 현금 보관소로 진입했다. 방탄조끼와 자동 화기로 중무장한 머레이 일당은 내부를 손쉽게 장악했다. 경비 직원들이 머레이 일당의 무장 상태를 보고 저항을 포기한 것.



새벽 1시 34분

직원 교대를 위해 금고의 문이 열리고 머레이 일당 7명은 모두 금고로 침입해 금고 내부에 있던 직원을 빠른 속도로 제압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7.5톤 트럭이 도착하자 머레이 일당은 지게차 등의 장비를 이용해 현금을 트럭 안에 가득 싣고 도망쳤다.



경찰에  
흔지르면 알지?

사, 실려주세요...

철장에서 싸우던 머레이는 이제 철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혹시 철장 페티시라도 있나?



머레이 일당이 훔친 돈은 현금 5,300만 파운드로  
우리 돈으로는 약 1,000억 원이다. 당시 세큐리타스  
디포에는 3억 달러의 현금이 있었다고 한다.  
“그들이 더 큰 트럭을 가지고 왔다면 더 큰 액수를  
훔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인질은 모두 무사히 풀려났다. 이 사건은  
즉시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군사작전 수준으로 정밀하게 수행한 톱  
레벨의 조직범죄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한  
차량과 돈다발을 담은 케이스 등 증거가 발견되었다.  
결정적 물증은 그들이 변장에 사용한 수염에서  
채취한 DNA였고 이를 통해 일당 3인을 검거하면서  
수사진은 이 사건을 총지휘한 인물이 파이터 리  
머레이라는 사실을 알아낸다.

머레이는 이미 모로코로 도주한 상태였다. 영국  
경찰은 모로코 정부에 그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다만 모로코 경찰만이 머레이의 행동을  
주시해달라는 영국 측 요구를 수용해 머레이를  
감시하던 중 그가 마약을 하는 모습을 포착하고  
체포한다.

모로코 정부는 머레이가 체포된 후에도 영국 측의  
인도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머레이의  
변호인은 “모로코 국왕이 머레이를 보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영국 측은 머레이가 모로코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그 대신 10년 형을  
선언하기를 원했고 모로코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최근 영국 정부는 수형 기간을 25년으로 늘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

## 리 머레이의 감방 라이프



머레이는 모로코에서 수감하던 중에 탈옥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사실은 다른 수감자가  
머레이의 샌드위치를 훔쳐 먹으려다 빵  
사이에서 줄 톱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머레이는 줄 톱으로 창살을 제거하고 탈옥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이를 위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한 수감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현재 교도소 내에서 최신  
유행하는 값비싼 옷을 입고 마약을 즐기며  
왕처럼 살고 있다고 한다.

# Fight

# Battleground



죽이면 반칙이여

## King of Grappling

잘 치고 잘 차는 게 MMA의 전부라고?  
어렵없는 소리. 잘 잡는 자가 이긴다.

### 그래플링 르네상스

MMA 하면 화끈한 헤드킥과 경기를 뒤집는 한 방, 또는 앤더슨 실바의 신내림 장풍(?) 등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 하지만 진정한 강자는 입식 타격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현대의 MMA 최강자들에게서 그래플링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다. 한 예로, 주짓수 세계 챔피언 출신이자 세계 최강의 헤비급 파이터 중 하나로 꼽히는 파브리스오 베투들은 트라이앵글 임바 그림으로 표도르에게 사상 최초로 탭을 받아낼 수 있었다. 또 다른 예, UFC에서 아시아 선수 중 경량급이 아닌 웰터급 이상의 체급에서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보이는 사람은 한국 파이터 김동현과 일본의 오카미 유신이다. 둘의 공통점은

상대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그래플링 실력을 갖췄다는 점이다. 특히 김동현은 격투 관계자들이 인정하는 아시아 최고의 그래플러다. 지난 마카오 경기에서 김동현의 개미지옥에 붙들린 상대 파울로 티아고가 경기 내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진 장면만 봐도 충분히 그 지독함을 알 수 있다. 최근 10년간 세계 격투기 동향을 뒤엎어버린 그래플링. 대체 얼마나 강한 기술이기에 이리도 호들갑들일까. 의심 많은 에디터는 지난 2월 24일 내로라하는 국내 그래플러들이 '킹 오브 그래플링'에 쓰러리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대회가 열리는 용산 문화체육센터를 찾았다.

경기  
하이라이트  
보러 가기



### 그래플링이 뭐야?

그래플링은 쉽게 말해 입식 타격을 제외한 일련의 격투 행위를 뜻한다. 그래플링 (Grappling)은 엮어서 싸운다는 뜻으로, 메치기, 조르기, 누르기와 관절 꺾기 등 누워서 하는 싸움이 주를 이룬다. UFC와 로드FC, 프라이드 등이 그래플링을 허용하는 종합격투기 대회다. 입식 타격을 제외한 행동이라고 해서 귀 뭉어뜯기나 낭심 격파, 찌찌뿔 같은 치출한 공격을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니 오해 없기 바란다.

### KING OF GRAPPLING?

'킹 오브 그래플링'은 국내에서 꾸준히 개최해 온 이부다비킴벳(ADCC)에 이어 탄생한 또 하나의 그래플링 대회다. 이 대회는 계파와 단체를 초월해 누구나 출전 가능하며 오픈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도, 레슬링, 합기도, 캐치 레슬링, 삼보 등 모든 종목이 참가할 수 있다.



### 한국의 그레플링 강자를 찾아라!

영하 14℃까지 떨어지는 맹추위 속에서 킹 오브 그레플링이 열렸다. 강추위와 주말 오전 시간대라는 악조건에서도 적지 않은 인파가 몰려 그레플링의 인기를 반증했다. 경기장엔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도 제법 눈에 띄었다. 아가씨들이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격하게 경기에 몰두하는 모습이 수십 차례 목격됐다.



빙가운 로드걸의 모습, 유니폼을 벗어도 예쁘네.



로드FC 부대표 박상민과 육진수 선수가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남 메달 빨리 주셈. 가서 디즈니 만화 동산 봐야함.



박대성 선수(왼쪽), 배기성 선수(오른쪽)



통합 체급 여성부 토너먼트에서 1위를 차지한 김지연 선수. 결승에서 만난 외국인 제스 헤이스에게 광속 테이크다운과 사이드 마운트를 성공시키며 판정승을 거뒀다. 얼굴만 예쁜 줄 알았더니 동양 복싱 챔피언도 차지한 바 있는 무서운 언니. 현재는 MMA 선수로 활동 중이다.

경기는 초등부, 여성부, 왕초보, 비기너, 어드밴스, 슈퍼파이트 총 6개 레벨로 구분해 진행했다. 아마추어와 프로 선수들이 다양한 체급으로 출전해 경기를 비교하며 관람하기 좋았다.



초등학생끼리 붙는다는 말에 웬지 모르게 잔뜩 기대했으나 출전 선수는 고작 2명. 그래서 골동해도 2등. 이런 아름다운 선의의 경쟁 같으니라고!



주짓수 블랙 벨트 사범인강 감 뇌라 배 뇌라 혼육질하던 관객 일동이 숨죽이며 지켜본 경기. 박대성 선수는 자신보다 족히 20kg은 더 나가 보이는 배기성 선수에게 인사이드 태클을 걸어 득점을 얻으며 결승에 진출했다. 특히 장외로 경기가 중지된 상태에서 상대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던져버리는 신경전이 오가며 경기는 더욱 화끈했다.

## Super Fight

슈퍼파이트는 주짓수 파이터와 MMA 파이터 간의 대진으로 진행했다. 별도의 포인트 없이 오직 서브미션으로만 승패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더욱 치열한 장면이 많았다.

### 1경기 주짓수 파이터 정윤호(퍼플 벨트) vs. MMA 파이터 브라이언 최

경기 초반부까지 두 선수는 하체 관절기와 지속적인 압박을 주고받았다. 경기가 시시해지려던 차, 정윤호 선수가 필살의 니바를 시도했다. 몸을 굽베기로 잡은 듯한 최 군의 표정으로 보아 경기가 종료되는 듯했지만 최군은 이내 탈출에 성공했다.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다.



정윤호 선수(왼쪽), 브라이언 최 선수(오른쪽)



로드걸...

최근 격투기 매력에 푹 빠졌다는 천정명도 대회장을 찾았다.

### 2경기 주짓수 파이터 박현갑(브라운 벨트) vs. MMA 파이터 김지훈

'묻지 마 폭행남'을 제압해 유명해진 김지훈 선수가 출전한 경기. 김지훈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 바닥에 주저앉으며 박현갑 선수를 공략했다. 두 선수는 주로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했다. 경기 말미에 포지션을 바꾸던 김지훈의 공중 부양 니킥(?) 이 박현갑 선수의 복부를 스치는 일이 발생했다. 장내가 순식간에 초상집 코스프레할 뻔했지만, 다행히 그의 복부는 이상이 없다는 후문.



저리가방~

박현갑 선수(왼쪽), 김지훈 선수(오른쪽)



권배웅 선수(왼쪽), 석상준 선수(오른쪽)

손금 보니 장수할 필자네!



소재현 선수(왼쪽), 크리스 김 선수(오른쪽)

BEST 슈퍼파이트 경기

### 3경기 주짓수 파이터 석상준(블랙 벨트) vs. MMA 파이터 권배웅

내내 탄성이 끊이지 않았던 화끈한 경기다. 석상준은 초반부터 수차례 스윙(가드 포지션 상태에서 뒤집어 역전하는 기술)을 노렸고, 권배웅 또한 길로틴 초크를 시도하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쳤다. 권배웅은 꾸준히 가드 패스를 시도한 끝에 기무라 그림을 잡아냈고 침착하게 암바로 전환하며 상대 선수의 탭을 받아냈다. 슈퍼파이트 유일의 서브미션승.



대회 현장을 방문한 UFC '코리안 쏘비' 정찬성

### 4경기 주짓수 파이터 크리스 김(블랙 벨트) vs. MMA 파이터 소재현

초반부터 크리스 김의 다양한 서브미션 기술이 들어갔지만 소재현의 방어도 만만치 않았다. 경기 중반, 크리스 김이 초크 그림을 잡아내며 승리를 거두는 듯했지만 소재현이 그리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다. 경기는 결국 무승부로 끝났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소재현은 "서두원 선수 대신 출전했는데 기대에 못 미쳐서 미안하다"라고 밝혔다. 서두원 선수는 다리 부상으로 이날 경기에 참석하지 못했다.

## Meet the Grappler



### 김지훈

나이: 32세  
소속: 팀 GN  
통상 전적: 4승 9패

**오랜만에 공식 대회 출전인데 몸 상태는?**  
작년 하반기에 손등이 부러지는 바람에 손등에 핀을 박았다. 체중도 10kg가량은 상태라 힘들었지만, 경기 승패에 핑계 덜 정도는 아니었다.

### 과거 체중 감량 실패로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그렇다. 당시 시험이 한 달 앞당겨졌는데, 무리하게 수락했던 것 같다.

### 왕년에 싸움으로 왜 유명했었던대?

어릴 때 이 정도 사고 안 친 사람이 있나? 유명했는지는 모르겠다.

### 이번 킹 오브 그레플링 대회에서 본인의 경기는 만족스럽나?

더 과감하게 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 경기 시작과 동시에 바닥에 주저앉았다. 전략이었나?

훈련 기간이 짧아서 스탠딩 자세에서 태클을 주고받기에 체력 소모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래로 유인해서 태클로 넘어뜨리는 것이 전술이었다. 성공해서 기분 좋았다.

### 경기 중 니킥 비슷하게 아래로 찍는 모습을 연출해 아나운서가 놀랐다. 의도한 건가?

그런 건 아니다.(웃음) 패스 동작을 하던 중에 무릎을 너무 깊게 넣어서 박현갑 선수의 다리에 걸렸다. 미치지 않고 그레플링 대회에서 니킥을 왜 하겠나!

### 싫어하는 경기 스타일이 있다면?

무조건적 방어만 하는 플레이를 싫어한다. 재미 요소가 떨어지니 관객

역시 지루해질 수밖에 없다.

### 그레플링만의 묘미가 있다면?

여러 가지 움직임과 테크닉으로 체급 차이를 이겨내고 승리한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다.

### 김지훈 하면 폭행남 제압 사건을 빼놓을 수 없다. 그 상대도 참 재수가 없다. 하필 당신이 근처에 있었다니.

당시 강남 차병원 부근에서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고 집에 가던 길이었다.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에 한 청년이 50대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래서 그냥 집아서 경찰에 인계했다. 그게 끝이다.

### 서무원과 어릴 때부터 절친한 사이였다고 들었다. 어쩌다 친해졌나?

초등학교 3학년 때 좋아하는 여자아이 집 앞을 서성이다가 같은 반 친구인 서무원을 만났다. 그때부터 두원과 그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놀이를 했다. 여자아이 어머니께 들켰는데, 어머니가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하고 아이스크림을 사주셨다. 그 뒤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을 때마다 그 집을 찾아가자고 의기투합했다. 그때부터 친해졌다.

### 서무원의 비밀 하나만 폭로한다면?

이건 노코멘트하겠다. 내가 하나를 얘기하면 두원도 하나 폭로할 게 뻔하기 때문에...

### 불량배한테 시비 안 걸리는 방법이 있다면 꼭 좀 알려달라.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아침에 주짓수나 배워보는 건?



### 장덕영

킹 오브 그레플링 대표  
로드FC 심판위원장  
주짓수 블랙 벨트

### 사실 그레플링은 일반인이 관람하기에 약간 지루한 부분도 없지 않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남자끼리 껴안고 뛰는 거야"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레플링 대회의 점수 시스템만 알아도 충분히 재미있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선수가 서 있는 상황에서 한 선수가 상대를 넘어뜨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 2점을 받는다. 흔히 말하는 테이크다운(태클)이다. 서 있는 사람이 앉아 있는 사람의 다리를 치우고 상대 옆으로 가서 자세를 유지해도 2점을 받는다. 가드 패스라고 부른다. 상대방 배 위에 올라타서 그 자세를 유지하면 가장 높은 점수인 3점을 받는데, 이것을 마운트 포지션이라고 한다.

### 대회마다 룰이 다른 이유가 있나?

가장 큰 그레플링 대회인 ADCC의 기본 룰을 따라가는 추세지만 킹 오브 그레플링은 조금 다르다. 일반인이 취미로 연습하고 대회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점수 시스템으로 룰을 바꿨다.

### 이번 대회 명경기를 꼽자면?

1년 이상 수련자가 경쟁하는 어드밴스 부문 앵슬루트(체급에 관계없이

경쟁하는 카테고리) 결승전이 가장 인상 깊었다. 보통 무체급으로 경쟁하면 크고 힘 좋은 친구가 결승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결승에는 -62kg 선수와 -74kg 선수가 올라왔다. 그것도 +86kg에 출전한 큰 친구들을 이기고 말이다. 이런 경기를 볼 때 짜릿함을 느낀다.

### 선수 발목에 청테이프는 왜 붙이나?

종목 특성상 선수끼리 뒤엉키는 경우가 많아 서로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다.

### 암바가 들어가면 팔이 부러질 것 같은데, 실제로 자주 부러지나?

극히 드물다. 기술에 걸리면 항복 표시(탭)를 하니까 생각만큼 위험하지 않다. 또 심판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경기를 중지할 수 있다.

### 주짓수가 실용 무술 중 최고라고들 한다. 당신 생각은 어떤가?

어떤 무술이 최고라고 단정 짓기는 매우 어렵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약하고 작은 친구가 큰 친구를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이 주짓수라는 것이다. 

## ROAD FC 011 in Seoul

2013년 4월 13일 토요일 /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그레플링이 현대 격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기술이지만, 타격이 없는 격투 대회는 뭔가 공깃밥에 물김치만 놓고 먹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화끈한 로드FC의 11번째 대회가 열리니 기대하시라. 남익철과 쿠메 타카스케, 이은수와 미노와맨 등 아시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출격 대기 중이며, 부상으로 킹 오브 그레플링 대회에 못 나온 서무원과 정익의 파이터 김지훈도 출전한다니 듣기만 해도 아주 심장이 터질 것 같다!



## 심판을 심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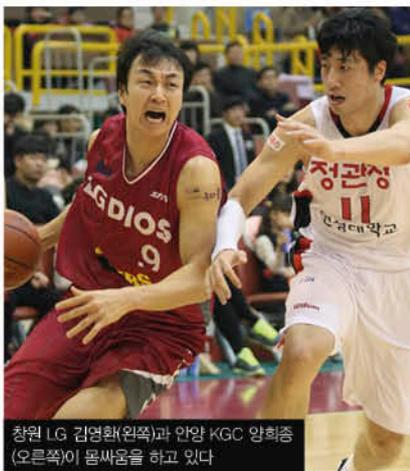
확 마 로봇을 세워두빠까?

2012년 12월 5일 KB국민카드 프로-아이 농구 최강전에서 전자랜드 유도훈 감독이 심판에게 항의하는 모습. 그나마 이때는 KT와의 경기만큼 억울한 오심은 없었던 상황.

### 저 XX가 XX라고 했더니까! XX!

2012년 12월 29일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LG와 KGC인삼공사전. 경기 종료 2분여를 남기고 승부는 이리저리 튀는 농구공 마냥 방향을 알 수 없었다. 이 때 뜬금없이 심판 때문에 경기 흐름이 꼬였다. 윤호영 심판이 선수에게 ‘욕설’을 했다는 KGC의 항의가 코트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LG 김영환과 KGC 양희종이 공을 다루는 과정에서 김영환이 신청한 작전타임이 받아들여졌다. 공 소유권도 불분명했다. KGC 선수들의 항의가 이어진 것은 당연지사. 이 과정에서 KGC 이상범 감독이 선수들보다 더 흥분해 심판진에 항의했다. 윤호영 심판이 문제를 제기하는 선수들에게 “야, 이 XX야!”라고 욕을 했다는 것이 이유다. 금쪽같은 자기 선수들이 심판에게 쌍욕을 먹었으니 꼭지가 돌 법하다. 실제로 TV 중계 화면에는 이 감독이 “이XX야 라고 했잖아!”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이 그대로 흘러나왔다. KGC는 테크니컬 파울을 받아 LG에 자유투를 내줬고 흐름은 완전히 넘어갔다. 페이스가 뒤바뀐 탓에 결국 경기는 LG의 대승으로 끝났다. 다음날 곧바로 재정위원회가 열렸다. 하지만 결과는 ‘중거 불충분’이다. 확실해 들은 사람이나 영상, 오디오 자료가 없었다는 게 이유였다. 심판과 KGC 인삼공사 중 한쪽은 분명히 사기를 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윤 심판의 욕설을 들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다. 결과적으로 KBL의 자기 식구 감싸기가 된 셈이다. 두 달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은 뒤통수는 얼얼한데 후려친 놈이 안 보이는 ‘미지의 X파일’로 남아 있다.



창원 LG 김영환(왼쪽)과 안양 KGC 양희종(오른쪽)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단체로 항의하는 KGC인삼공사 선수들 가운데 양희종의 짜증섞인 표정이 유독 띠다

### 뭘 자꾸 물어봐

욕설 논란이 터진 지 열흘이 조금 지나서 또다시 사건이 터졌다. 1월 10일 고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고양 오리온스와 부산 KT의 경기. KT 전찬진 감독이 오리온스 리온 윌리엄스의 3초 룰 위반에 대해 심판에 항의했다. 그러자 최한철 심판이 전 감독에게 “뭬요!”라며 큰소리를 쳤다. 심판은 감독, 선수에게 판정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상황에서 “뭬요!”라고 되레 뚱뚱을 부린 것이다. 이걸 뭐 중국집에서 단무지 좀 달랬더니 “왜요?” 소리가 되돌아온 모양새다. 황당한 전 감독은 “지금 ‘뭬요!’라고 그랬어?”라고 심판에게 따졌다. 그러자 최 심판은 곧바로 전 감독에게 테크니컬 파울을 쳤다. 단무지 좀 달랬더니 알바가 와서 손님이 먹던 짜장면을 얼굴에 집어 던진 셈이다. 미심쩍은 판정에 탄죽을 걸었더니 테크니컬 파울로 응수한 심판은 심판설명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역시 증거자료는 없다고 한다. 이 사건 또한 엄마에게 말긴 지난 설날 세뱃돈처럼 미궁에 빠져버렸다.





KT 전창진 감독이 양 팔을 들어 올리며 항의하고 있다

오심,  
눈으로  
확인하자



전자랜드 강혁이 골 밑으로 들쭉하고 있다

### 내 눈에 콩깍지

앞서 언급한 윤호영 심판이 또다시 사고를 쳤다. 이번에는 승부처에서 발생한 결정적인 오심이다. '오심'이 무엇인가. 한 마디로 '말도 안 되는 판정'이다. 판정을 제대로 하라고 심판에게 월급을 주는 거다. 그게 아니라면 로봇 3개 세워놓으면 그만이다. 게다가 바로 앞에서 벌어진 상황도 판단하지 못하면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한다. 국회의원 정도면 적당할까. 지난 1월 13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전자랜드와 KT의 경기가 열리고 있을 때였다. 아무래도 심판이 경기를 일른 접고 집에 가고 싶었나 보다. 전자랜드가 2점 차로 앞선 4쿼터 종료 2분여를 남기고 전자랜드 강혁이 골 밑을 파고드는 과정에서 베이스라인을 타고 돌파를 시도했다. 윤호영 심판은 기다렸다는 듯 강혁의 발이 베이스라인을 밟았다고 선언했다. 공격권은 넘어갔다. 이후 흐름을 빼앗긴 전자랜드는 역전패했다. 강혁이 실제로 베이스라인을 밟았다면 평범한

파울에 불과하다. 하지만 TV 중계 화면에서 강혁의 발은 사이드라인을 '전혀' 밟지 않았다. 윤 심판의 이글라이는 카메라가 감지하지 못한 중력장 왜곡 현상까지 잡아내나 보다. 지극히 정상적인 플레이가 판정 하나에 '턴오버'되었다. 게다가 경기까지 내줬으니, 유도훈 감독은 스바루 안에서 고함을 질러댔다. 전자랜드는 KBL에 심판 설명회를 요구했고, 오심으로 확인됐다. 윤 심판에게는 5경기 배정 정지와 징계금 100만 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승리를 날려버린 전자랜드로서는 분이 풀릴 리가 없다.

### 심판을 위한 농구는 없다

프로농구 리그가 출범한 지 어느새 16년이 지났다. 누가 뭐래도 명실상부한 대표 프로스포츠다. 하지만 심판진과 관련된 오심 논란은 매 시즌 계속 터지고 있다. 판정 논란은 팬들을 쫓아내는 파리지레 같은 존재다. 심판의 오심으로 승패가 뒤집힌다면 그 영향력은 견줄 수 없다. 한 경기의 심판은 수능 시험 감독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만약에 당신이 수능 시험 중에 감독관이 시간 다 됐다면 당신 시험지를 빼앗아 갔다고 치자. 그런데 감독관의 시계가 10분 빨랐다면? 기분이 어떨겠는가.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다. 못 해서 지는 건 열받지만 억울하게 진다면 다시는 하기 싫다. 심판진도 선수와 마찬가지로 '집중력'이 필요하다. 시합 하나하나에 클럽너 성형 뜯어보듯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 또한, 권력을 남용해서도 안 된다. 선수와 팬이 아니라 심판이라면 '가장 정확한 판단'에 신경써야 좋다. 심판의 권위는 창문 너머 웃 갈아입는 이웃집 여자의 풍격처럼 거저 얻는 게 아니라, 욕실에서 들려오는 여친 샤워 소리처럼 인내와 신뢰로 쌓아올리는 것이다. ☹

## 농구장 난투극 Best 3

원래 키 큰 애들이 더 잘쳐

### 피로 물든 코트

1988년 2월 19일 기아산업 대 삼성전자전 기아산업의 김유탉이 삼성전자 임정명을 밀치자 임정명이 김유탉의 뺨을 때렸다. 공장 기어의 정덕화가 임정명의 등에 발길질을 했고, 한기범은 대걸레를 거꾸로 들고 휘둘렀다. 삼성 오세웅은 본부석 명패로 맞아 눈가가 찢어졌고, 실상가상으로 관중이 던진 병에 맞아 병원에 실려 갔다.

### 고소한 주먹의 맛

1991년 11월 30일에 농구 대전치 기아 대 현대전. "니네 왜 이따식으로 플레이하나?" 라는 말을 내뱉은 기아의 허재에 격분한 현대의 김광은이 주먹을 날렸다. 이 때문에 김광은은 퇴장 및 출전 정지 15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전치 3주 부상을 입은 허재가 이에 그치지 않고 김광은을 고소, 경찰은 그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주먹맛이 이렇게 고소할 줄이야.

### 욕은 안 돼!

1999년 3월 7일 나산(현 코리아텐더)과 현대의 경기 3쿼터 후반, 나산 김병천이 현대 조성원에게 반칙을 범했고, 판정에 항의하다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다. 이때 김병천이 18이라고 욕설을 하자 황순팔 심판은 퇴장을 명령. 이에 격분한 김병천은 심판에게 주먹을 날렸다. 결국 김병천은 1년간 선수 자격 정지에 200만 원 벌금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주먹 한 방에 200만 원이라...

## BONUS

### 심판을 폭행한 파스코

최한철 심판은 국내 프로농구 초유의 심판 폭행 사건의 피해자기도 하다. 2007년 LG 의 퍼비스 파스코는 자신을 거칠게 막던 (증언에 따르면 '할퀴기도 했다'고 한다) 장영재의 목덜미를 때렸다. 장영재는 코트에 쓰러져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당연히 퇴장이다. 아마 파스코는 사각 코트를 팔각 철창으로 착각한 모양이다. 그런데 그는 퇴장 명령을 내린 최 심판에게도 팔을 휘둘렀다. 최 심판은 그 자리에서 코트에 나랑굴었다. 프로농구가 WWE를 벤치마킹하는 순간이었다. 파스코는 "외국인 선수의 말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한국 무대를 떠났다. 결과는 파스코의 '영구 제명'. 그는 농구를 사랑한 파이터였다.



MAXIM  
시승기  
#27

# CITROEN DS3 Chic 1.4 e-HDi

이 예쁘장한 차에 몸을 실으면 고추가 떨어질까 못 타겠다고?  
DS3에서 디자인을 빼면 남는 게 없다고? 전부 틀린 말이다.

픽이가는  
DS3  
구경하기





2,855만원

**SPEC CHECK**

|       |                |
|-------|----------------|
| 배기량   | 1,398cc(다젤)    |
| 엔진 형식 | I4 1.4         |
| 최대 출력 | 68hp           |
| 최대 토크 | 16.3kg.m       |
| 구동 방식 | 앞비터굴림          |
| 변속기   | 자동 5단          |
| 차체 길이 | 3,950mm        |
| 공인 연비 | 20.2km/L (1등급) |



**For Homme**

길거리 새침한 미녀들의 고개가 시계 분침처럼 도르르 따라온다. 타임 옴 슈트를 빼입고 입구정을 얼쩡거렸을 때도 이런 적은 없었다. 'DS'는 프랑스어로 '여신'이라는 의미의 'Deesse'에서 유래했다. 여신은 여신을 알아보는 법. DS3 안에서 차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미모의 여성들과 눈이 마주치는 경험은 무척이나 즐거웠다. 하지만 DS3의 국내 판매는 생각보다 저조하다. 그 원인 중 하나가 'DS3는 여성(중)에서도 부모 잘 만난 사람과 여대생 혹은 노처녀 티 내기 싫은 골드미스 등이 타기에 적합하고 수놈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작고 앙증맞은 차라는 편견 때문이다. 그러나 에디터가 데일리 카로 DS3를 시승해 본 결과는 이와 정반대다. 지금부터 왜 시트로엥 DS3가 혈기왕성한 젊은 사내에게 적합한 차인지에 대해 경험을 바탕으로 요목조목 설명할 테니 집중하도록. 아봐, 이런 건 MAXIM 아니면 못 들어.

**미적 기준의 재확립**

우리나라 도로 위를 굴러다니는 차 중에 무채색이 아닌 녀석을 찾기란 솔밭에서 바늘 찾는 것만큼 어렵다. 흰색, 검은색, 그것도 아니면 번쩍이는 은갈치 색이 대부분이다. 도로에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차들은 튀거나 조금이라도 개성을 드러내면 사단이 날 것처럼 무난하기 그지없다. 마치 '남자색', '여자색'을 칼같이 나누는 올드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우리나라의 천편일률적인 무채색 차량을 보면 모두가 일종의 컬러 강박 관념에라도 걸린 것 같다. 새누리당도 붉은 색을 당 컬러로 쓰는 이 마당에, 각각의 컬러가 내포한 고정된 이미지와 주입된

편견에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억지로 끼워맞춰 물개성한 무리에 섞일 필요는 없다. 차의 가격이 모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대변한다면, 컬러를 포함해 차의 디자인은 운전자의 개성과 취향을 대변하는 분신이기 때문이다.

2012년 봄, 프랑스 태생 멋쟁이 시트로엥이 다시 한 번 한국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거의 10년 만에 말이다. 대한민국의 무채색 도로에 던져진 멋진 디자인의 DS3는 그간 억눌린 자기 표현에 대한 욕망을 강렬하게 자극한다.

**눈을 땀 수가 없어!**

BMW 미니 시리즈의 성공에 너나 할 것 없이 예쁜 소형차를 들고 국내 시장에 들이닥쳤다. 예쁘고 연비 효율성 좋은 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도심에서 발견되는 수입 소형차의 8할이 BMW 미니다. 이미 유럽에서 미니의 속적으로 이름을 떨친 시트로엥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었다. <탑 기어>가 '올해의 자동차'로 선정한 디자인과 효율성의 아이콘 DS3 아니던가.



여탕도 아닌데 국내에서는 유독 '여성 전용'이라는 편견을 안고 있는 DS3를 에디터가 시승해본 결과, 후크시아(자홍색) 컬러의 이 녀석은 길 가는 여성들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국내에 유통되는 DS3는 루프(사이드미러 포함)와 보디에 서로 다른 컬러를 쓴다. 시트로엥만의 탁월한 색감 표현을 위해 선루프는 아예 옵션 목록에서조차 제외했다. 컬러에 대한 시트로엥의 고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트로엥의 심볼을 형상화한 라디에이터 그릴은 상어의 모습을 겹쳐놓은 듯한 강한 인상을 준다. 보닛에서 시작된 라인이 후면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모습 또한 상당히 남성적이다. 사회통념과 상식을 뒤흔드는 모험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시트로엥다운 면모다.

**암고나 메이크 유 룩**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DS3가 예쁜 건 둘째고 이 차를 보는 사람들은 그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렇게 독특하고 컬러풀한 디자인의 차를 모는 운전자가 누구일지 궁금해 하는 게 당연하다. 당신이 이 차에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무랄 데 없이 경쾌하고 귀여운 매력의 이 녀석은 평범한 사람도 위트 있고 매력적인 남자로 보이게 한다. 메탈릭 블랙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 블랙이냐 하는 그럴싸한 이름의 컬러를 바른 커다란 외체 차 사이에서도 그녀들의 시선을 가장 많이 사로잡았던 건 이 녀석이었다. DS3는 디자인적 위트뿐 아니라 환경과 연비 효율을 생각하는 스마트함까지 겸비한 영리한 녀석이다. 이토록 쿨한 녀석이 세상 어디에 또 있을까.



가장 마음에 드는 컬러를 골라 보시라.

## 연비 효율+디자인+드라이빙 = DS3

차가 예쁘기만 해서 쓰겠나? DS3는 2012년 8월 28일 에너지관리공단이 187개의 모델을 놓고 실시한 공인 연비 테스트에서 20.2km/L로 연비 1위를 차지한 친환경적인 녀석이다. MCP 변속기에 패들 시프트까지 갖춘, BMW 미니의 대항마이며 2011년부터 올해까지 월드 랠리 챔피언십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터프 가이기도 하다. 우리 엄마랑 너네 엄마가 롤루랄라 마트에 장 보러 갈 때나 타는 엄마 차가 결코 아니란 뜻이다. MCP 변속기는 전자 제어 기어 시스템으로 기어 레버나 패들 시프트로 기어를 변경하도록 설계해 수동 변속기와 같은 주행의 즐거움을 제공한다. 또한, 일반 수동 변속기 대비 약 23% 연비 효율을 자랑하며 내구성도 뛰어나다. 고속 주행에서 크루즈(액셀을 밟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속도를 유지하는 기술) 기능을 이용한다면 전기 자동차 뺨파귀 날리기에 충분한 연비 효율을 발휘한다. 1.4 e-HDi 엔진은 국내 수입차 브랜드 중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가격이나 좋은 연비 효율에 PSA(푸조&시트로엥) 그룹의 3세대 스톱&스타트 시스템을 적용해 도심 주행 시 연료 효율을 극한까지 끌어 올린다. 승차감 역시 소형차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인상적이다. 특히 요철을 빠른 속도로 밟고 지날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 핸들링은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아 안정적이다. 코너링에서 차체를 힘 있게 잡아주는 서스펜션과 고속주행에서 핸들이 묵직해지는 느낌 또한 등적이다.



중형 세단을 보는 듯한 DS3의 여유로운 실내 공간.

## 자이언트 베이비

3도어 해치백 특성상 뒷좌석에 앉으려거든 앞좌석 시트를 접은 다음 아크로바틱한 포즈로 기어들어가야 한다. 인간히 급한 일이 아니고선 언어 탈 생각은 말라는 DS3의 세심한 배려라고 하고 싶다만, 사실 이걸 3도어 해치백의 고질적인 단점이다. 라이벌 모델인 BMW 미니쿠퍼보다 전장을 200mm 정도 늘렸지만 키 160cm대의 여성이 차마를 입고 타기엔 다소 불편해 보인다(장점인가?), 182cm 이상의

성인남성이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는 운전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점도 불편하다. 특히 바지 무릎이 늘어날까 노심초사하는 패션 피플들에게 이 문제는 꽤나 거슬린다. 그렇다고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두 달 전 에디터가 시승한 대형 컨버터블 BMW 650i의 실내 공간과 비교해도 DS3가 그닥 꿀릴 이유는 없다. 뒷좌석이 좁은 건 피장파장이다. 게다가 650i의 트렁크 용량은 300리터(탑 오픈 시)로, 소형차인 DS3에 비교했을 때 고작 15리터 차이다. 그러고 보면

DS3는 오히려 소형차치고 제법 몸집이 큰 자이언트 베이비에 가깝다. DS3의 트렁크 크기는 285리터로 동급 최대다. \*트렁크 공간의 깊이는 미니쿠퍼보다 무려 2배 정도 넓고 전고는 10cm 이상 높아 키가 큰 운전자의 정수리가 차 천장과 하이퍼이브하는 불편함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뒷좌석 공간도 경쟁 소형차종보다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한다. 뒷좌석을 접으면 더욱 넓어지니, 유모차나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는 이들에게겐 관철은 장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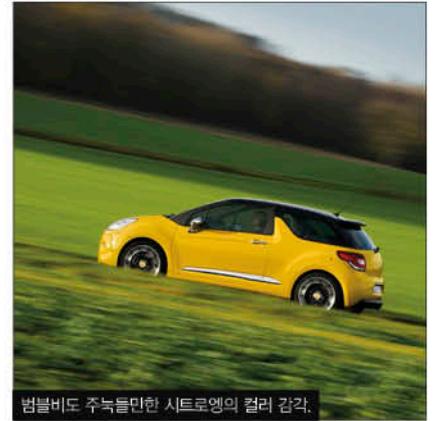
\*트렁크 공간 깊이(세로 길이): 미니쿠퍼: 36cm / DS3: 60cm

### 전방에 목표를 확인

DS3는 영리하고 유머러스하며 힘까지 좋은, 게다가 위기 때마다 능수능란한 운전 솜씨를 뽐내는 007의 제임스 본드를 닮았다. 그러나 공무 수행 중에도 미녀들을 줄줄이 낚을 수 있겠지... 하지만 정작 007 시리즈에 열광하는 것은 여성이 아닌 남성이다. 젠틀하지만 강하고, 매끈하지만 티프한 본드의 아이덴티티를 남자들은 닮고 싶어 한다. DS3의 마케팅 전략은 이 맥락에서 다시 쓰여야 한다. 시트로엥의 숙적 BMW 미니의 성공 비결이 일관되게 귀여운 이미지로 여성층을 공략한 데 있다면, 시트로엥은 조금 다른 차원의 접근 방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젊은 여성들의 '드림 해치백'은 명실상부 미니다. 그렇다면 젊은 남성의 '드림 해치백'은? 아직 무주공산이 아니던가. DS3에겐 역전의 찬스다. 시트로엥이 이러한 블루오션을 제쳐두고 피 튀기는 여성형 소형차 시장에 발을 담글 필요가 없다.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젊은 남성들도 본인의 스타일과 취향 맞는 디자인이라면 기꺼이



지갑을 여니까 말이다. 이러한 남성 소비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지금의 한국에서 DS3는 더 이상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다. 심지어 DS3는 미니 시리즈와 비교해서 디자인, 연비 효율, 드라이빙의 즐거움 어느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는 완성도 높은 해치백이 아닌가. 이 작고 귀여운 녀석 위에 걸터앉아 패들 시프트로 기어를 조작하고 도심 외곽을 내달리는 상상을 해보라. 그것도 20km/L 이상의 연비 효율을 뽐내며 말이다. DS3를 타는 순간 운전은 그 자체로 설레는 경험이며, 수컷만의 놀이 문화가 된다. 화이트 셔츠 차림에 팔을 걷어 올리고 운전대를 잡은 당신에게 쏟아지는 여성들의 시선은 시트로엥의 보너스다. ☺



범블비도 주목할만한 시트로엥의 컬러 감각.

## Girl Talk About CITROEN DS3

MAXIM 미녀 에디터가 생각하는 DS3 타는 남자의 이미지는?



**희성:** 예술적인 일을 하는 재치 있고 유머러스한 남자가 떠오른다. DS3와 어울리는 파스텔 계열의 컬러풀한 양말을 망설임 없이 신는 패셔너블한 남자일 것 같다. 센스 있는 타입이라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 딱 유희열 같은 스타일!



**안나:** 뻘한 스타일을 싫어하는 남자일 것 같은 느낌이다. 활명한 화이트 셔츠를 아무렇게나 청바지에 우겨넣는 것을 아는 남자. 예를 들자면 류승범 같은?





### 쌍용자동차 코란도 투리스모 출시

쌍용자동차는 안락함과 활용성을 겸비한 프리미엄 코란도 투리스모를 출시했다. 코란도 투리스모는 11인이 탑승 가능한 넉넉한 실내 공간을 제공하고, 한국형 디젤 엔진 e-XDi200 LET를 장착했다. 또한 저속 토크 중심으로 설계하고 동급 유일의 전자식 4WD 시스템을 탑재해 한국 지형과 도로 상황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한다. 이 큰 덩치를 세단과 같은 느낌으로 운전할 수 있다니 어디 하나 빠지질 않는구나. LT 2,854만 원, GT 3,118만 원  
 쌍용자동차(www.smotor.com)



### 영화로 먼저 만나는 재규어 F-TYPE

2인승 컨버터블 스포츠카 재규어 F-TYPE이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과 만나 화려한 느와르 액션으로 다시 태어난다. 올 하반기 F-TYPE의 공식 출시에 앞서 영화 <F-TYPE Desire>가 국내에 개봉하는데, 영화는 오는 3월 서울 모터쇼에서 공개되며 시사회도 개최할 예정이다.(뽕콘 주나요?) 재규어는 3.0L V6 슈퍼차저 엔진을 탑재하고 최대 출력 340마력을 내는 F-타입,

그보다 최대 출력이 40마력 높은 F-타입 S 그리고 V8 슈퍼차저 엔진을 탑재한 최대 출력 495마력의 F-타입 V8 S를 포함해 총 3가지 모델을 국내에 출시한다.

재규어 코리아(www.jaguarkorea.co.kr)



### BMW NEW 3시리즈, xDrive와 액티브 하이브리드 3 모델 출시로 탄탄한 라인업 구축

BMW 코리아가 NEW 320d xDrive와 액티브 하이브리드 3 모델을 출시하며 3시리즈 라인업을 확장했다. NEW 320d xDrive는 기존 320d 모델에 동력을 앞뒤로 전달하는 BMW 인텔리전트 사륜 구동 시스템을 적용, 특유의 다이내믹함을 구현하여 어떠한 상황에도 우수한 코너링과 안정감을 제공한다. 같이 출시되는 NEW 3시리즈의 액티브 하이브리드 모델은 직렬 6기통의 BMW 트윈파워 터보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하여 340마력의 강력한 힘을 낸다. 전기 모터의 구동력만으로 최대 거리 4km, 최고 속도 50km/h를 낼 수 있다고 한다.

xDrive 5,130만 원, 액티브 하이브리드 3 8,690만 원

BMW 코리아(www.bmw.co.kr)

### 운전의 재미를 살린 제네시스 다이내믹 에디션 출시

드라이빙의 맛을 극대화한 제네시스 다이내믹 에디션이 출시된다. 역동적이고 단단한 주행감, 쫄쫄한 핸들링, 강화된 제동력으로 무장한 다이내믹 에디션은 기존 제네시스와는 다르게 19인치 휠과 독일 컨티넨탈사의 타이어와 대형 브레이크 디스크를 탑재해 운전의 맛을 살렸다. 2012년 내구품질조사(VDS)에서 벤츠 E클래스, BMW 5시리즈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대한민국 대표 프리미엄 세단 제네시스가 다이내믹 에디션으로 또 한 번 그 명성을 계속 이어갈지 기대가 크다. 3.3프리미엄 5,126만 원, 3.8 프라다 7,060만 원  
 현대자동차(www.hyundai.com)



### 시트로엥 크로스오버 세단 DS5 국내 출시

시트로엥이 DS 라인의 최상위 모델인 DS5를 국내에 공식 론칭한다. DS5는 현 프랑스 대통령의 의전 차량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시트로엥의 플래그십 모델이다.

DS5는 국내에 2.0 HDI 모델로 먼저 선을 보인다. DS5 2.0 HDI 모델은 직렬 4기통 디젤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163마력, 최대 토크 34.6kg·m의 힘을 뽐낸다. 또 6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해 날카로운 변속과 뛰어난 정숙성을 실현했다. 고유가 시대에 연비 14.5km/L를 자랑하는 것도 큰 장점이다.

Chic 4,350만 원, So Chic 4,750만 원, Executive 5,190만 원  
 시트로엥(www.citroen-kr.com)



### 인피니티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 Q50 모델 공개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2013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인피니티 Q50가 세계 최초로 공개됐다. 인피니티 Q50은 2014년부터 적용될 인피니티의 새로운 명명 체계를 도입한 최초의 모델이다. 세단, 쿠페, 컨버터블에는 Q, SUV, 크로스오버엔 QX를 붙이는 식인데, Q, QX 뒤 숫자는 차량 서열을 의미한다. Q50은 V6 엔진을 탑재하고 328마력의 강력한 파워를 자랑한다. 외관은 단단하고 스포티한 스타일이며, 실내엔 운전자 지향적인 넉넉한 공간, 프리미엄급의 다양한 편의 장치를 탑재했다.

인피니티(www.infiniti.co.kr)



공식 수입원 : 성원 02-3445-4603

직영매장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031-695-1277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031-8082-0344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041-640-5082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45-2297  
현대백화점 신촌점 02-3145-2169

지정 판매처

천원시(종로) 02-745-0333  
엘가(대구) 053-255-6940

**MOSCHINO**  
**CHEAPANDCHIC**

# MAXIM 뽐뿌질

여친님하, 십자수 말고 요런 거...

## 분당 48,800번 진동의 기적! 오랄-비 트라이존 3000

구강관리 전문 브랜드 오랄-비가 분당 48,800번의 움직임을 자랑하는 전동칫솔 트라이존 3000을 출시했다. 오랄-비트라이존 3000은 칫솔로 쉽게 닿지 않았던 깊숙한 곳까지 칫솔모가 침투해 플라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며 압력 센서가 내장돼 치아에 필요 이상의 압력이 가해지면 스스로 압력을 내린다. 또 권장 칫솔질 시간인 2분이 되면 진동을 통해 알려주는 제법 독특한 전동칫솔이다.

트라이존 3000은 일반 칫솔을 사용할 때와 같은 방식을 구현하여 초보자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오랄-비(080-920-6000, [www.oral-b.co.kr](http://www.oral-b.co.kr))



치카치카 차카차카  
초코초코 초!



## 애니모드, 무선 충전기 갤럭시 노트2 파워 스테이션 출시

아직도 스마트폰 커버를 벗기고 충전하고 또 씌우고 하는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커버 제거 없이 바로 스마트폰 충전을 할 수 있는 도우미를 소개한다. 애니모드에서 선보이는 무선충전기 갤럭시 노트2 파워 스테이션이 그 제품. 충전 배터리에 무선 충전 회로가 내장되어 어떠한 액세서리를 장착하더라도 충전이 가능하며, 충전하는 동안 커버를 벗기지 않아도 된다. 특히 본체 위에 배터리를 올려 놓아도 충전이 돼 타사 제품과도 호환이 가능하다. 제품은 컨시어지, 애니모드샵,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다.

애니모드([www.anymode.com](http://www.anymode.com))

## 손목 위의 스마트 라이프, 소니 스마트워치

사람이 봄비는 만원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차마 확인할 수 없었던 경험이 한 번씩 있을 거다. 그 불편함을 해결해 줄 스마트워치가 등장했다. 스마트워치는 전화, 문자, SNS 전송 여부를 알려주고 뮤직 플레이어 컨트롤 기능도 탑재해 자유 자재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 스마트폰에 저장된 일정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비즈니스맨에게 유용하다. 스마트폰을 꺼내기조차 싫은 귀차니스트(그래, 당신과 나)에게도 제격이다. 그나저나... 애플도 곧 이 시장에 뛰어들enda지?

149,000원

소니스토어([www.sony.co.kr/store](http://www.sony.co.kr/store))



## 프리미엄 콤팩트 카메라의 혁신, X100S, X20

후지필름 X100, X10이 더욱 강력한 매력으로 무장하여 X100S와 X20 모델로 컴백했다. X100S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0.08초의 자동 초점을 지원해 어두운 실내에서도 빠르게 촬영할 수 있다. 또 뷰파인더가 236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되어 피사체를 더 섬세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X20은 X10 대비 약 20% 이상 향상된 고해상도를 자랑한다. 어두운 곳에서도 좀 더 선명한 촬영을 할 수 있게 됐다. 광학 4배 수동 줌렌즈는 다양한 각도의 이미지 촬영을 지원한다. 2013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되기도 한 X100S, X20가 2013년 우리나라 디카 시장을 리드할 다크호스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후지필름일렉트로닉이머징코리아주([fujifilm-korea.co.kr](http://fujifilm-korea.co.kr))



## 2013 SIAS 서울국제오디오쇼

2013.03.01 ~ 03.03

2013.03.01 ~ 03.03

## 2013 서울국제오디오쇼 입장권 증정 이벤트

국내 최대의 하이파이 오디오, 홀시어터 전시회인 2013 서울국제오디오쇼가 3월 1~3일까지 진행된다. 국내에 내로라하는 오디오 업체 중 로이코의 참여가 단연 눈에 돋보인다. 하이엔드 오디오에 열광하는 사람이라면 꼭 방문하자. 또 최고의 명품 음향기기를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다양한 브랜드의 헤드폰과 이어폰 체험도 할 수 있다. 지금 MAXIM 홈페이지에서는 2013 서울 국제 오디오쇼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자, 다들 클릭할 준비되었나?

로이코([www.facebook.com/RoycoKorea](http://www.facebook.com/RoycoKorea))

서울국제오디오쇼([www.seoulaudioshow.co.kr](http://www.seoulaudioshow.co.kr))

## 삼성전자, 아티브 스마트 PC 화이트 모델 출시

삼성전자가 윈도우8에 특화된 아티브 스마트 PC의 화이트 모델을 출시했다. 아티브 스마트 PC는 29.5cm의 스크린과 키보드를 버튼 하나로 분리할 수 있어 휴대성과 업무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제품이다. 키보드를 분리하면 무게가 744g밖에 나가지 않으며 두께는 9.9mm로 얇은 편이다.

14.5시간의 넉넉한 배터리도 휴대성을 더욱 높인다. 분리 가능한 키보드는 13인치 노트북의 풀 키보드와 동일한 사이즈로 문서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터치 기능을 탑재한 스크린은 이동 중에도 사용할 수 있다. 갤럭시 노트 시리즈에서 큰 인기를 얻은 S펜도 아티브 스마트 PC에서 그대로 즐길 수 있다.

삼성전자([www.samsung.com](http://www.samsung.com))



# Stuff

TEST OF THE MONTH

리시버를 테스트해봐



## It's So Sweet!

니 귀에 화이트데이 사랑보다 달콤한 소리를 박아주마.



**For**  
승모근이 발달한 헤비메탈 마니아

### Skullcandy Mixmaster

#### 외관

간지가 생명인 보드 매니아들이 애용한다는 브랜드답게 외관부터 남다르다. 360도 킥플립을 하다 두개골이 흥해처럼 갈라져도 제품은 멀쩡할 것 같은 탱크 보디와 유광 소재가 로봇 갑빠처럼 든든해 보인다. 하지만 역시 크고 화려한 외관은 조금 부담스러울지도. 집 밖에서 사용하려면 최소한 GD급의 패션 센스는 있어야 한다.

#### 착용샷



#### 소리

롤리팝이 떠오르는 '스컬캔디'라는 평기한 이름은 하이엔드 헤드폰 유저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소리는 가볍지 않다. 기대만큼 베이스가 웅장한 느낌은 아니나 타격감과 공간감이 좋아 충분히 재미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고음에 특화되어 있는 편이라 힙합이나 클럽 음악의 쿵쿵거리는 저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겠다. 오히려 지지고 볶는 록이나 메탈을 즐기는 유저들의 입맛에 맞다. 해상도가 좋아서 디스토션 기타의 저음부까지 세밀하게 잡아내는 능력은 놀라울 정도다. 최근 Bose의 사운드 엔지니어를 영입했다고 하더니만... 역시 이적시장만 잘 파면 된다. QPR도 이런 것 좀 본받았으면 좋겠네.

#### 착용감

큰 보디 때문에 웬지 끼면 아플 것 같은 불안함과는 달리, 헤드밴드의 쿠션이 뽕뽕해 착용감이 부드럽다. 하지만 나가서 쓰고 다니기에는 조금 압도적인 크기인데다 무게도 만만찮다. 오래 착용하면 목이 빠근할지도...

#### 차음성 ★★★★★

#### 해상도 ★★★★★

#### 공간감 ★★★★★

#### 분리도 \*\* ★★★★★

#### 디자인 ★★★

\*음악 재생 중 기기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차단하거나 반대로 기기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정도  
\*\*저음, 중음, 고음이 뚜렷하게 나뉘어 들리는 정도



↓  
**For**  
스테이지에서  
DJ가 듣는  
사운드가 궁금한  
사람

**AKG K267 TIESTO**

**외관**

세계 최고의 DJ 'TIESTO'와 음향기기 전문 회사인 AKG가 합작해 내놓은 제품답게 기존의 AKG 제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로고가 삽입되어 있다. 얼핏 보면 고무동력기 같기도 하고 날치 같기도 한 것이 예쁘긴 하다. 항상 컴팩트하고 심플한 맛을 추구했던 AKG의 기존 제품들과 비교해 보면 이례적인 일.

**착용성**



**소리**

DJ들이 현장에서 쓰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그런지 신디사이저의 소리를 확실하게 구분지어 준다. 유닛이 커서 성능도 좋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할 만한 충실한 사운드를 들려준다. 하지만 의외로 소리가 잘 새어나가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민폐일듯. K267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스 조절기가 양 유닛에 달려있는데, 베이스의 강도를 세 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원래부터 저음부가 풍성하게 들리는 제품이 아니라서, 거의 모든 상황에서 베이스를 최대로 고정해 놓고 사용하는 편이 낫았다. 유닛별로 따로따로 베이스를 조절할 수 있어서 싱글 유닛으로 DJ 모니터링을 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편리하겠다. 하지만 베이스 조절부가 덜렁거리는 편이라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허술하게 느껴져 아쉽다. 고급 세단에 리어가 바퀴를 달아 놓은 것 같달까.

**착용감**

착용감은 지극히 평범하다. 리시버 유닛이 큰 소년의 MDR 시리즈의 착용감과 비슷하다. 비싼 제품인 만큼 귀를 꼭 눌러 주는 헤드밴드와 귀 전체를 부드럽게 덮는 가죽 이어패드 덕에 포근한 느낌이 든다.

**차음성** ★★☆☆

**해상도** ★★☆☆

**공간감** ★★☆☆

**분리도** ★★☆☆

**디자인** ★★☆☆



  
**For**  
 정장 입고 출근할 때  
 무난하게 어울리는  
 헤드폰이 필요한  
 사람

**Bowers & Wilkins P3**

**외관**

현대적이고 날렵한 선을 그리는 PVC와 메탈 보디, 그리고 클래식한 패브릭 스피커가 조합된 외관이 고급스럽다. 이런 외관 덕에 헤드폰은 어린 학생들이나 쓰고 다니는 거라는 편견을 단숨에 날려주는 제품이다. 아웃도어용 제품답게 편리한 전이식 구조로 되어 있으며 별도의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어 보관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블랙/화이트 두 가지 색으로 출시되었다.

**착용감**



코 파는 거 아니다양

**소리**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무난한 제품이며 어쿠스틱 기타의 통통 튀는 느낌이나 퍼커션의 세세한 소리를 잘 살려 준다. 저음을 화끈하게 뽐내주는 Monster 사의 닥터 드레 시리즈에 비하면 오히려 P3의 저음은 부드럽고 과하지 않다. 따라서 드럼통 백 개 매고 달리듯 쥐어 패는 헤비메탈 드럼이나 디스토펬 사운드보다는 어쿠스틱하고 통통 튀는 팝이나 힙합 쪽이 어울린다. 레퍼런스형 헤드폰들이 대부분 공간감을 주기 위해 보컬을 뒤로 쪽 빼고 악기 소리를 전면으로 빼내는 성향이 있는 반면, P3는 보컬과 악기의 밸런스를 잘 살린 편이다. 무엇보다 하이파이 제품답게 모바일 기어의 콘셉트를 달고 나온 소형 리시버 차고는 놀라운 공간감을 맞출 수 있다.

**착용감**

직물 소재로 되어 있는 패드 부분이 양날의 검이다. 가죽 소재처럼 귀를 축축하게 적시지 않아 깔끔하지만, 패드를 빼고 들으면 고음부가 확 사는 시원함과 배신감을 함께 느낄 수 있다. 취향에 따라 빼도 좋을 듯.

**차음성** ★★★★★

**해상도** ★★★★★

**공간감** ★★★★★

**분리도** ★★★★★

**디자인** ★★★★★

↓  
**For**  
아기자기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



### Marshall Major 50 FX

#### 외관

세계 최고의 앰프 제조사 Marshall의 트레이드마크인 블랙 보디와 골드라인을 그대로 옮겨 온 디자인이 센스 넘친다. 라이브홀을 자주 찾는 공연 마니아라면 익숙할 로고를 보고 구매 욕구가 샘솟을 거다. 밴드 브릿지 부분을 메탈 프레임으로 처리해 빈티지한 느낌을 주며 플러그 부분을 기타 잭 모양으로 만들어 높은 디자인은 가히 신의 한수라 하겠다.

#### 착용샷



#### 소리

유닛의 크기가 작아서일까? 음 분리도가 확실히 타 제품들에 비해 떨어진다. 베이스와 고음부가 엉망진창으로 뭉쳐있는 느낌은 아니지만 밸런스가 뛰어나지는 않다는 얘기가. 저음부는 묵직하기보다는 통통 튀는 느낌이지만 심심하지 않다. 타 리시버들의 저음부가 <반지의 제왕> 스케일이라면 이쪽은 <해리 포터> 스케일이랄까? 의외로 중음역은 땡땡한데 듣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강하다 싶은 생각도 든다. 입합이나 록 음악 보다는 보컬이 부각되는 가요, 팝 등을 감상할 때 더 괜찮았다.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사실 같은 가격대에서 사운드적 메리트를 크게 못 느꼈달까. 유명 앰프 제조사의 작품 치고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 역시 뭐든 한 우물만 파는 게 좋구나.

#### 착용감

유닛이 작지만 귀를 꼭실히 덮어주는 뽕뽕한 가죽 쿠션같은 이어패드 덕에 장시간 착용해도 귀가 아프지 않다. 하지만 밴드 부분이 조금 뽕뽕해 에디터처럼 한 머리 크기 하는 사람은 삼장법사 손오공 머리띠 조이듯 압박을 받을 수도 있겠다.

- 차음성 ★★★★★
- 해상도 ★★★
- 공간감 ★★★
- 분리도 ★★★
- 디자인 ★★★★★

↓  
**For**  
 온라인 전쟁 놀이를  
 좋아하는  
 게임 매니아들



**Razer Tiamat 7.1**

**외관**

'게이머를 위한, 게이머에 의한(For gamers, By gamers)'이라는 슬로건을 내딛 브랜드답게 외관에서부터 포스가 짙을 넘친다. 전원 공급용 USB 케이블을 꽂으면 리시버에 녹색 불이 들어와 RAZER의 트레이드 마크인 뱀 로고가 빛을 낸다. 게다가 우주비행선 제어판을 연상시키는 볼륨 컨트롤러의 아날로그 버튼은 목적하다 못해 누르면 대포동 미사일이라도 발사될 것 같다.(단순히 그냥 음소거 기능이야.)

**착용샷**



**소리**

티아맷은 절대적으로 게임을 위한 인더어 제품이지, 음악 감상용이 아니다. 하지만 7.1채널 기술을 도입한 제품답게 게임이나 영화 감상을 할 때의 공간감은 다른 리시버와 비교를 불허한다. 여러 채널을 드라이버 안에 때려박아 FPS와 같은 1인칭 게임을 즐길 때 착용해보니, 바로 뒤에서 폭탄이 터지거나 총알에 피격되는 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이번 화이트데이엔 박진감 넘치는 게임으로 방구석을 진주만 공습 전장으로 만들어 보자. 실감나는 티아맷의 현장감과 당신의 외로움이 낡은 분노 덕에 다음 날 아침이면 당신은 이미 국가적 영웅이 되어 있을 거다.

**착용감**

한 번 마우스를 잡으면 오랫동안 놓지 않는 게임 매니아의 지구력과 집중력을 의식했는지 착용감이 대단히 좋다. 보기보다 부드럽게 머리에 착 감기는 헤어밴드와 폭신한 이어패드느 밤을 새고도 남을 안락함을 제공한다.

**차음성** ★★★★★

**해상도** ★★★★★

**공간감** ★★★★★

**분리도** ★★★★★

**디자인** ★★★★★

## Spec Check!

|         | Skullcandy Mixmaster | AKG K267 Tiesto | B&W P3      | Marshall Major 50 FX | Razer TIAMAT 7.1                   |
|---------|----------------------|-----------------|-------------|----------------------|------------------------------------|
| 드라이버 유닛 | 20mmx2               | 50mmx2          | 30mmx2      | 40mmx2               | 20mmx4, 30mmx4, 40mmx2 (다중 7.1 채널) |
| 임피던스    | 20Ω                  | 32Ω             | 34Ω         | 47Ω                  | 서브우퍼 16Ω / 나머지 32Ω                 |
| 감도      | 102dB                | 115dB           | 111dB       | 98dB                 | 116~123dB                          |
| 주파수 대역  | 20~20,000Hz          | 5~30,000Hz      | 10~20,000Hz | 20~20,000Hz          | 20~20,000Hz                        |
| 가격      | 399,900원             | 440,000원        | 326,000원    | 220,000원             | 299,000원                           |

## MAXIM's Tip

맨날 봐도 된 소리인지 모르겠지?

### 드라이버 유닛

소리가 나오는 스피커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체급이 좋을수록 동파워를 발휘하듯, 드라이버가 크면 클수록 저음부터 중음까지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으나 그만큼 제품 자체도 커져 휴대성이 떨어진다.

### 임피던스

기기를 얼마나 버틸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저항값. 플레이어보다 저항값이 낮은 리시버를 물리면 노이즈가 심해지고 기기에도 무리가 간다. 포터블 기기는 대체적으로 16Ω 을 채택하기 때문에 흑형처럼 분박스를 들고 다닐 게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 감도

1mW의 전력을 리시버에 공급했을 때, 몇 dB(데시벨)의 소리를 낼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수치. 동일 기기로 똑같은 출력을 주었을 때 음입이 높은 기기일수록 더 큰 소리를 낸다. 출력이 크면 잡음이 심해질 수 있어,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 주파수대역

기기가 재생할 수 있는 소리의 범위를 의미한다. 범위가 넓을수록 소리가 풍부해지며 일반적인 헤드폰의 대역폭은 20~20,000Hz다. 하지만 인간의 귀는 한계가 있어 그 이상의 대역폭은 의미가 없다. 조상 중에 돌고래가 있다면야 모르지만...

### 최대 입력

기기가 견딜 수 있는 전력의 최대값. 쉽게 말해 가장 큰 소리를 낼 때 전력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측정할 수치다. 당연히 음량이 커질수록 mW수도 늘어나므로 최대 입력값이 작은 리시버를 들을 땐 무리하게 볼륨을 높이지 않는 것이 좋다.

## 테스트 음원 공정한 테스트를 위해 장르별로 감상했다.



### 록/메탈

#### Avantasia - Scarec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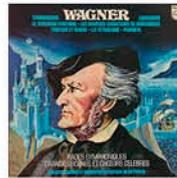
17세에 데뷔해 메탈계를 발각 뒤집어 놓은 독일의 천재 뮤지션 토비아스 사렛. 그가 헬로윈, 김마레이, 앨리스 쿠퍼 등 최고의 뮤지션과 함께 German Film-orchestra의 장엄한 버프를 받아 멋진 메탈 오페라를 만들어 냈다. 우리도 리시버 버프를 받아 판타지 세계를 맛보자.



### 가요/팝

#### Bistu - Midnight

신사동 호랭이는 가요계의 애플썸 되나 보다. 뮤지션에 최적화된 곡을 매번 이렇게 뽑아내는 걸 보면 신기할 따름이다. 엠씨스퀘어처럼 반복되는 신디사이저와 복고풍 비트 그리고 앙양성의 가창력이 만들어내는 풍부한 멜로디는 테스트 음원으로서 충분하다. 충분해.



### 클래식

#### 바그너 - 탄호이저 서곡

마녀의 유혹에 빠져 타락의 길을 걷던 탄호이저가 연인 엘리자베스의 간절한 기도로 구원을 얻는다는 아침 드라마스러운 오페라의 서곡. 메인 선율을 연주하던 현악기 뒤에 나오는 장엄한 트럼본 소리가 당신의 리시버를 울릴 것이다.



### 댄스/일렉트로니카

#### Skrillex - Bangarang

시종일관 위용위용거리는 일렉트로니카와는 달리 강력한 베이스와 퍼커션, 그리고 정직한 4분의 4박자가 만들어 내는 플로우감이 가히 이 계열의 헤비메탈로 불릴만 하다. 타격감이 좋은 리시버와 함께 한다면 출근시간의 댄스머신이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 MINI vs. MINI

대세는 미니. 말이 꼭 찬 도토리 키 쯤 재볼까?



## 미니 컨트리맨

차종 SUV/RV 연비 13.6~15.1km/L  
연료 디젤 가격 3,670~5,290만 원



→ 벤츠 몰고 다니는 오빠만 여자를 유혹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귀여운 BMW의 미니 시리즈로도 외제차고는 오빠 반열에 낄 수 있지 않은가. 미니 치고는 조금 큰 SUV 타입의 차체가 어색할지도 모르겠다. "미니 치고는 좀 크네?"라고 묻는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하자. "오빠를 달아서 우리 예쁜이가 탈 때만 커지더라고."

## CAR

이거 탈래,  
저거 탈래?  
**VS.**



## 미니 쿠퍼 로드스터

차종 스포츠카 연비 12.4~12.7km/L  
연료 가솔린 가격 3,940~4,470만 원

→ 이 녀석을 끌고 다니면서 당신도 '작지만 강한 녀석'임을 어필하자. 미니답게 승차감이 와이드한 미니 쿠퍼 로드스터는 큰 엔진 소리와 거친 흔들림을 동반한다. "오빠, 이거 승차감이 너무 안 좋아서 엉덩이가 아파!"라며 칭얼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자. "좀만 참아, 이따가 승차감이 무척 좋은 오빠를 태워줄게."

### Editor's Choice

이왕이면 넓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게 더 많겠지. 안 그래? 미니 컨트리맨 승!

## 아이패드 미니

AP A5 RAM 1GB  
해상도 1024x768 IPS



→ 잡스 사후 애플은 망할 것이라는 예측을 단숨에 깨부수듯, 애플은 콤팩트한 사이즈와 발군의 성능을 발휘하는 아이패드 미니를 내놓았다. 부드러운 당신의 손놀림으로 확확 넘어가는 화면을 보며 "역시, 애플의 터치감은 섬세한 것 같아"라며 감탄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자. "내 혀의 터치감은 더 섬세해."

## TABLET

강통 로봇이 좋아,  
사과가 좋아?  
**VS.**



## 넥서스 7

AP NVIDIA Tegra3 RAM 1GB  
해상도 1280x800 IPS

→ 넥서스 7은 독주 중인 아이패드를 따라잡을 안드로이드 태블릿의 선두 주자다. 해상도 1280x800의 디스플레이는 HD급 화질의 영화를 선명하게 즐기기에 전혀 무리가 없다. "오빠, 이것저것 같이 해도 안 끊기네?"라며 감탄하는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하자. "오늘 밤 네 몸을 멀티태스킹해주겠어."

### Editor's Choice

하드에 HD급 AV가 잔뜩 쌓여 있기에 조금 더 높은 해상도를 선택했다. 넥서스 7 승!

## 보험 시가 미니 5mg

타르 5.0mg 니코틴 0.50mg  
패키지 브라운 가격 2,500원



→ 이국적이고 고풍스러운 불박이장 같은 컬러가 시크한 멋을 내기에 제격이다. 셔츠 주머니에서 미니북 같은 담배 패키지를 꺼내는 순간 그녀는 당신의 얼굴에서 올랜도 블룸을 발견하고 낄낄 웃을 것이다. 그녀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며 얘기하자. "무슨 일이야, 미란다."

## TOBACCO

거친 게 좋아,  
부드러운 게 좋아?  
**VS.**



## 보험 시가 미니 1mg

타르 1.0mg 니코틴 0.10mg  
패키지 화이트 가격 2,500원

→ 중세 유럽의 거울처럼 클래식한 멋을 지닌 패키지가 고급스럽다.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디자인은 부드러운 당신의 이미지와 품격 있는 감각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부드럽고 진한 쿠바산 시가 향을 맡겠 누리며 담배 즐이라고 잔소리하는 그녀에게 사기를 치자. "이거 카드 지갑이야. 새로 산 건데 어때?"

### Editor's Choice

고타르 담배를 선호하는 젊은 에디터는 좀 더 독한 녀석을 고를 수 밖에 없었다. 보험 시가 미니 5mg 승!

# 그거 왜 샀어? #6

지름 품목: icover®  
FOR iPhone 5

얼마 전, 아이폰 5를 장만한 MAXIM 여직원,  
휴대폰보다 휴대폰 케이스에 더 꽂혀 있더라!

### 이 휴대폰 케이스를 고른 이유가 뭔가?

지난달, 영겁처럼 길게 느껴지던 소니에릭슨 엑스페리아x1의 3년 약정이 끝나고 아이폰 5를 장만했다. 처음에는 G마켓에서 파는 5천 원짜리 플라스틱 케이스를 썼는데, 몇 번 바닥에 떨어뜨리니 모서리마다 케이스가 찌꺼 갈라지더라. 위기감을 느끼고 제대로 된 케이스를 구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내 아이폰은 소중한니까.

### 하고 많은 케이스 중에 왜 아이커버 케이스를 고른 건가?

엑스페리아 시절에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휴대폰 케이스가 존재하지 못했었다. 아이폰으로 갈아타니 신세계가 펼쳐진 거다. 유치한 만화 캐릭터도, 부담스러운 가죽 케이스도 아니고 세련되고 워트 있는 팝아트 케이스가 매대에 쭉 진열된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뭔가에 홀린 듯 케이스를 집어 들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커버에서 출시한 디자인 케이스 라인이었다.

### 어디서 얼마 주고 득템했나?

에이샵 타임스퀘어점에서 두 개(왼쪽부터)는 35,800원, 나머지 한 개는 31,800원 줬다.

### 이 사탕 무늬는 취향인가? 나잇값을 해라.

무식하긴. 그냥 사탕이 아니라 츄파춥스 사와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팝아트대 사탕이 뭐 어때서? 봄을 맞아 특별히 상큼한 디자인으로 골라 봤다. 이외에도 블리자드와 진행한 스타크래프트2,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디아블로3 케이스와 무한도전 케이스, 아티스트 키스 해링의 일러스트 시리즈 등이 있다. 꽃피는 춘삼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판다리아의 안개' 같은 캐릭터를 휴대폰 케이스로 사용하는 여자를 발견하면 다가가서 이렇게 작업하는 거대 "판다렌처럼 귀여운 애완 남친 하나 키우실래요?"

### 가격이 선물하기에 적당해 보인다.

그렇다. 선물로 받으면 기분 좋을 텐데... 자비로 3개나 구입했다. 갑자기 눈에서 습기가 차오르네... 인터뷰 잠깐만 끊었다 가자.



(왼쪽부터) 포르테, 이젤, 아이덴 케이스

### 그러게 하나면 됐지, 누가 케이스를 3개나 사라고 했나?

그날 기분에 따라 번갈아가면서 쓰면 기분 내기에 얼마나 좋은데! 휴대폰을 매일 바꿔서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

### 사용해 본 소감은? 3만 원대인데, 가격대비 만족할 만한 제품이던가?

일단 케이스 자체가 거의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벼워서 좋다. 아이폰 5가 가벼운 무게(112g)를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장착하는 케이스가 그보다 무거운 밀짱 도루묵 아닌가? G마켓에서 구입한 저가형 플라스틱 케이스와는 달리 겉면은 특수 코팅으로 제작된 고급형이다. 또 케이스 안쪽에는 실리콘 소재를 사용해 바닥에 떨어뜨려도 충격흡수가 잘 되는 점은 확실히 칭찬할 만하다.

### 점수를 매긴다면 5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은가?

가볍고 튼튼하고, 무엇보다 다양한 팝아트 작품을 취향대로 내 손안에 넣을 수 있는데 이 정도면 5점이지.

### 어떤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가?

화이트데이에 여자친구에게 정말로 사랑만 줄 생각이었던 남자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성의 없이 사랑 꾸러미만 전하지 말고 이런 케이스를 같이 넣어 선물하는 건 어떨까? 신경 쓴 듯, 안 쓴 듯 센스있는 남자임을 어필할 수 있을 거다. ☺

## 고급 정보: 화이트데이에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 > 전품목 최대 30% 할인쿠폰 (1인 1매)

아이커버에서 이벤트를 기간동안 신기종 제품을 제외한 전 상품에 최대 30%까지 할인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신기종 25% 할인쿠폰 (1인 1매)

iPhone5, iPad mini, iPod Touch5, Galaxy Note2 25% 할인쿠폰을 제외한 전 제품은 최대 30%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츄파춥스 케이스 구매시 사탕 증정

츄파춥스 후르츠 10입 상품을 드립니다. 사탕은 상품(케이스) 배송시 동봉하여 배송됩니다. \* 해당 이벤트는 사랑상 조기종료 및 시운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왕기 시운종류 휴일은 생산수입자 농성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화이트데이에선 짝사랑하는 그녀에게 마음을 고백하자. 3월 14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아이커버 츄파춥스 케이스를 구매하면 30% 할인 쿠폰은 물론이고 츄파춥스 사랑까지 덤으로 받을 수 있다! 화이트데이에 선물로 이만큼 쉽고 확실한 콧보가 또 있을까?



## 구매자 리포트



구매자: 마케팅팀 정진선  
 구매 가격: 31,800원, 35,800원  
 구매 동기: 충격 흡수가 잘 되는 세련된 디자인의 휴대폰 케이스가 필요했음

구매 만족도: 🍌🍌🍌🍌🍌  
 부러움 자수: 🍌🍌🍌🍌🍌

우리도 하나씩  
 지를까?



# Style

## 단신남의 스타일 살리는 9가지 철칙

연예계 대표 단신 소리에게 배우는  
키 작은 남자의 옷 잘 입는 법

**1** 모자를 정직하게 쓰지 마라  
간지 폭발 외국인 많이 쓰는 스타일이다.  
모자를 비둘기 쓰거나, 뒤로 쓰거나, 걸쳐 쓴다.  
모자를 햇빛 가리는 용도가 아니라 액세서리  
아이템으로 활용하자.

**2** 한 착용을 사라  
티에 어울리는 바지를 사고, 거기에 어울리는  
모자를 사고, 그에 어울리는 신발을 사자. 그렇게 한  
착장을 만들고 그때 산 바지에 맞는 다른 한 착용을  
또 사는 거다. 그렇게 두 벌이 되면 거기서 또 바꿔  
입고 이런 식으로 옷을 사야 "옷이 많구나" 하는  
소릴 듣는다.

**3** 비율이 좋아 보이게 옷 입는 법  
팔이 길어 보이게 하면 비율도 좋아 보인다.  
그래서 나는 팔소매를 내려 입는다. 손가락이 보일 듯  
말 듯하게 말이다.

**4** 바지를 너무 내려 입지 말자  
바지를 내려 입는 본인만의 마지노선을  
정하자. 스트리트 패션에서 바지를 내려 입는 게  
생명이라고 너무 내려 입으면 다리가 더 짧아 보인다.  
사실 바지를 내려 입는 패션은 여자들이 싫어하니, 꼭  
하지 않아도 된다.



1, 3, 4번 모자  
트래셔매거진  
2, 5번 모자  
스투시 by 카시나  
후드티 트래셔매거진  
팬츠 코토부키  
신발 반스  
선글라스 하이비전

BY 박현필/누리 PHOTOGRAPHY ARC STUDIO ASSISTANTS 박종민, 박수현, 최성준



**5** 멋의 시작은 신발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괜히 백구두, 백구두한 게 아니다. 신발이 간지 나아 멋있는 사람이고, 멋지게 차려입었다는 인상을 풍긴다. 나는 항상 신발에 포인트를 준다. 검은색 옷을 입어도 신발은 빨간색, 노란색 등 튀는 색으로 신자.

**6** 깔창은 필수

키 큰 사람도 깔창을 끼는 시대다. 아니, 180cm 넘는 상추 형이 나보다 높은 에어 달린 깔창을 낀다니니까?

**7** 검정옷이 최고!

옷을 뭘 사야 할지 모르겠으면 검은색 옷을 사자. 가장 무난하고 어디에든 어울린다.

**8** 이것만 신경쓰면 중간은 간다

디자인이 아주 심플한 옷을 사라. 후드티 왼쪽에 지퍼가 있거나, 단추가 없어야 할 부분에 단추가 있거나, 바지도 뒷주머니가 특이하게 생겼다가나 하는 것은 피하라. 티셔츠도 라운드 티가 가장 예쁘다. 그리고 몸매가 좋지 않다면 브이넥 좀 입지 말자. 제발.

**9** 소리에게 간지남이란?

한 스타일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타일을 입을 줄 아는 사람. 스트리트 스타일을 추구하더라도, 가끔은 슈트를 멋있게 입을 줄도 알고, 캐주얼 패션에도 도전해야 진짜 간지남이다. 🍻



- 비니 포스타
- 셔츠, 팬츠
- 케이알쓰리더블유 데님
- 소리 착용 신발 반스
- 선글라스 그래픽 플라스틱
- 1, 3, 6번 신발 반스
- 4번 신발 뉴발란스
- 2, 5번 신발
- 나이키 by 피나클

COOPERATIONS 그래픽 플라스틱(02-3443-4340) 뉴발란스(02-2028-6847) 스투시, 카시나, 피나클(02-3444-5467)  
 케이알쓰리더블유 데님(www.kc3 denim.com) 트래시 매거진(www.ltrashermagazine.com) 하이바인(02-3443-1703)

## 여자들이 말하는 남자의 스타일

홍대를 거니는 옛지녀들에게 물었다.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김지원 (24세, 학생)** →  
선호하는 이성의 패션 스타일은?  
잘생기면 머리에 꽃을 달고 다녀도 상관없다.  
‘이것만은 제발 참아줘!’ 하는 아이템이 있다면?  
어그는 여자나 신게 됨!



← **양예슬 (21세, 학생)**  
선호하는 이성의 패션 스타일은?  
비니 쓴 남자. KCM 말고!  
‘이것만은 제발 참아줘!’ 하는 아이템이 있다면?  
바지에 달린 체인



← **하타이 사야 (18세, 학생)**  
선호하는 이성의 패션 스타일은?  
팔, 다리가 길어 보이는 스타일



**김정민 (21세, 학생)** →  
선호하는 이성의 패션 스타일은?  
색을 잘 조합해서 입는 김C 같은 스타일.  
‘이것만은 제발 참아줘!’ 하는 아이템이 있다면?  
알 없는 큰 볼테 안경.



**김예슬 (21세, 학생)** →  
선호하는 이성의 패션 스타일은?  
류승범처럼 막 입어도 멋있는 스타일.  
‘이것만은 제발 참아줘!’ 하는 아이템이 있다면?  
3,000원짜리 비니.





이윤경 (21세, 학생)

선호하는 이성의 패션 스타일은?  
단다하고 깔끔한 스타일.  
'이것만은 제발 참아줘!' 하는 아이템이 있다면? 백구두와 몸에 딱 붙는 조끼.



명하은 (20세, 학생)

선호하는 이성의 패션 스타일은?  
류승범 스타일.  
'이것만은 제발 참아줘!' 하는 아이템이 있다면? 장발 머리는 정말 싫다.

문보미 (21세, 백조)

선호하는 이성의 패션 스타일은?  
이민기같이 깔끔한 스타일.  
'이것만은 제발 참아줘!' 하는 아이템이 있다면? 젓꼭지 도드라지는 폴티.



박채연 (20세, 학생)

선호하는 이성의 패션 스타일은?  
귀여운, 아니 얼굴이 귀여운 스타일.  
'이것만은 제발 참아줘!' 하는 아이템이 있다면? 앙상한 발목이 드러나는 7부 바지.



한규리 (23세, 모델)

선호하는 이성의 패션 스타일은?  
헐렁한 니트 소재의 옷을 입는 남자.  
'이것만은 제발 참아줘!' 하는 아이템이 있다면? 굵이 높은 구두.

## 그녀들이 뽑은 영화 속 BEST&WORST STYLE

Best Style



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의 이선균:  
비즈니스 캐주얼  
심플한 싱글 코트에 원색 계열의 머플러를 매치한 이선균이 BEST STYLE 로 뽑혔다.

Worst Style



영화 <러브픽션>의 하정우: 스포츠 웨어  
막 운동을 마친 듯 자연스러운 복은 매력적이지만, PC방 가는 백수 느낌의 추리닝은 최악이라고 한다. 젤장..



## Warm Touch

봄을 깨우는  
멋진 시계들

1



2



1. 스크래치에 강한 사파이어 글라스와 슈퍼 루미노스 코팅은 이 녀석의 스포티한 터프함을 말해준다.  
자스페로 735,000원
2. 다른 기계식 시계와 달리 잔여 사용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스마트한 시계. 아부투스 516,000원



1. 슬쩍 보이는 기계식 시계의 속살이 시계를 왜 예술품이라 하는지 알려준다. **잉거솔 550,000원**
2. 화려한 밤을 계획하고 있다면 나이트 비전 튜브를 장착한 시계는 어떨까? **루미녹스 990,000원**
3. 문자판을 수놓은 비늘들을 보고 있으면 NASA가 탐내던 스위스 시계의 정밀함이 느껴진다. **아큐트론 by 갤러리어 클락 1,060,000원**
4. 제플린 비행선을 모티브로 제작한 시계답게 빈티지한 디자인이 멋스럽다. **제플린 by 갤러리어 클락 505,000원**

# Style Watch



1. 안전한 디자인이지만 100m방수  
기능 덕에 아웃도어 활동도 끄떡없다.  
**제이스프링스 285,000원**
2. 금시계가 촌스럽다는 편견은  
없어진 지 오래다. 빅 사이즈 보다가  
내뽐는 박력은 당신을 레알 수컷으로  
만든다. **헬다이버 279,000원**
3. 잡다한 장식이 부담스러운 덴디남  
을 위한 베이직 시계. **휴고보스 by  
갤러리어 클락 430,000원**
4. 사용자의 운동에너지로 작동하는  
고급스러운 오토매틱과 품위 있는  
디자인이 당신의 품격을 높인다.  
**세이코프리미어 1,750,000원**

1. 고급 원단으로 마감한 가죽 밴드와 시계 뒷면의 드로잉에서 꼼꼼한 손길이 느껴진다. 폴스미스 by 갤러리어 클락 598,000원
2.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깔끔하고 든실한 시계를 만나기 쉽지 않다. 타이맥스 by 갤러리어 클락 83,000원
3. 스위스 아미 나이프의 명성에 걸맞게 스크래치 방지 3중 코팅을 자랑한다. 빅토리노크스 by 갤러리어 클락 745,000원



1800PERATIONS, 갤러리어클락(02-422-84-1300) 루미녹스(02-757-9666) 시이코(02-6002-3827) 아부투스(www.globaltime.co.kr)  
 앙지출(02-3397-7105) 자스카트(6698-8307) 케이 스프링스(www.jourtime.co.kr) 볼디이비(1644-8895)

신기한  
시계  
보러가기

# Watch out!



## 로즈 골드 클래식한 해석, 자스페로 CASTELL 라인

자스페로에서 럭셔리 시계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로즈 골드 컬러에 화이트 문자판을 넣은 CASTELL 라인을 제안한다. 클래식하고 세련된 화이트 자판 위에 검은색 문페이스를 넣어 포인트를 주었다. 멀티 크로노를 넣어 요일, 날짜를 표시해주고 메탈 밴드뿐 아니라 가죽 밴드와도 호환이 가능해 스타일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이중 입체 다이얼을 적용해 기술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완성도도 높였다. 화이트데이에 사랑만 주지 말고, 그녀의 허전한 손목을 감싸주자. 감동 받은 그녀가 더 큰 선물로 보답할지도 모르잖아!  
CG101.18 모델 438,000원 자스페로(1688-8907, [www.zaspero.co.kr](http://www.zaspero.co.kr))



## 스포츠 기능성 시계, KILLER SHARK 출시

해위 워치 브랜드 프리스타일에서 그 이름만큼이나 강렬한 KILLER SHARK 워치 라인을 선보인다. 케이스 베젤이 상어 입 모양을 하고 있는 독특한 디자인에 상어 지느러미 형상의 로고를 넣어 강인한 인상을 준다. 반면 소재는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을 채택해 스포츠와 야외 활동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다. 케이스의 베젤 교체가 가능해 옷 스타일에 맞춰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부담 없는 10만 원 초반의 가격도 큰 강점. 블랙, 그레이, 화이트의 세 가지 컬러로 구성했다.  
성원(02-3445-4603)



## 헬다이버 SB2C-4001M 출시!

헬다이버 SB2C-4001 시리즈가 메탈 밴드를 장착해 업그레이드 된 SB2C-4001M 시리즈로 또 한 번 충격에 나선다. 항공기 조종석을 연상시키는 올 블랙의 입체적인 문자판을 적용해 시크한 멋을 풍기며, 문자판의 사이즈를 키우고 블루 미네랄 글라스로 마무리해 시원한 맛을 더했다. 또 크로노그래프 기능에 JAPAN 무브먼트를 기본으로 하여 성능에 대한 걱정을 없었다. 로즈 골드 색상의 메탈 모델도 있으니 가까운 매장과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자.  
389,000원  
에이맨인터내셔널(1644-3885, [www.helldiverwatches.com](http://www.helldiverwatches.com))

## 심플한 정장 시계의 새 기준, 아부투스 AR602SWF

볼과 가을. 찬뜩한 신사로 빙의하고 싶은 이들에게 반가운 제품이 있다. 1980년대 초에 뉴욕에서 설립된 뉴욕 스타일 브랜드 아부투스에서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의 워치 AR602SWF 모델을 출시한다. 달콤해 보이는 초콜릿 컬러 가죽 밴드를 사용해 클래식한 맛을 높였으며, 은색의 세련된 케이스를 사용해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또한 오토매틱 방식의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뒤편의 케이스를 투명하게 제작하여 요즘 시계의 트렌드를 반영했다. 클래식한 기본 아이템으로 손색 없는 워치.  
GLOBAL TIME(02-778-1590, [www.arbutus.co.kr](http://www.arbutus.co.kr))



## 레드 포인트의 매혹, 루미녹스 Modern Mariner 6265

익스트림 아웃도어 워치의 대명사 루미녹스에서 기능과 패션을 동시에 잡은 Modern Mariner 6265 워치를 선보인다. 은빛의 강화 스테인리스 케이스와 블랙 컬러 가죽 스트랩을 조합해 세련된 맛을 풍긴다. 또 스트랩의 레드 컬러 재봉선과 붉은 색상의 케이스 테두리가 포인트를 주어 자칫 밋밋할 수 있는 디자인을 완벽히 보완했다. 루미녹스의 스위스 멀티 쿼츠 무브먼트와 발광 테크놀로지는 기본. 아웃도어 활동에 엿지를 더하고 싶다면 강추!  
72만 원 미림시계(02-757-9866, [www.milimwatch.co.kr](http://www.milimwatch.co.kr))

## 여행자의 감성을 담은 ALBA 글로브 트로터 워치

명품 패션 워치 브랜드 ALBA에서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글로브 트로터 신모델을 선보인다. 이름에 걸맞게 세계 지도를 문자판에 얹고 시각 및 날짜 표시, 1/20초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착실히 넣었다. 특히 이번 모델은 이전 모델보다 측면 부분의 핸즈를 좀 더 샤프하게 만들고 베젤과 밴드의 메탈 모양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였다. 클래식한 디자인과 높은 완성도, 4가지 컬러 구성으로 선택의 폭까지 넓은 빈틈이 없는 제품이다.  
21만 원 삼정시계(02-511-3182, [www.albawatch.co.kr](http://www.albawatch.co.kr))





# 나도 짝을 찾고 싶다 -일본 규슈편

바다 건너 후쿠오카까지 가서 짝을 찾고 싶었던  
에디터의 일본 여행기

하우스텐  
보스의  
간지 조명소



## 첫차에 몸을 싣고, 꿈도 싣고

새벽 5시 37분, 해가 뜨지도 않은 어둑어둑한 시간에 인천공항철도에 몸을 실었다. 이른 아침 후쿠오카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다. 2012년도 초부터 지금까지 십여 회에 걸쳐 진행된 '짝 여행' 참가자는 6,000여 명, 협력사인 티켓몬스터 측은 '짝 여행'을 해외 여행으로 확대해 더욱 화려한 볼거리와 빅제미를 선사하고 있다. 에디터 역시 그렇게 이 프로그램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다는 소문을 듣고 무작정 여행상품을 장바구니에 넣어버렸다. 이렇게 이런저런 각자의 이유에서 모인 수십 명의 남녀가 후쿠오카 공항에 모였다. 주최자 엔타비 여행사의 안내에 따라 첫 번째 목적지 하우스텐보스로 향하는 버스에 탔다. 이동하는 2시간 동안 레크리에이션



네덜란드보다 더 네덜란드 같은 하우스텐보스

강사의 진행에 따라 간단한 자기소개와 옆자리에 앉은 여성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2시간이 2분처럼 느껴질 만큼 진행자의 이빨은 수준급이었고 여성분들의 미모는 챔피언급이었다.

## 하우스텐보스

옆에 앉은 여성과 호구조사를 하며, 규슈의 네덜란드라 불리는 하우스텐보스에 도착했다. 여성이 한 명씩 먼저 내리고, 그 여성이 마음에 드는 남자가 같이 따라내리는 방식으로 첫 번째 짝이 정해졌다. 자기소개 때 첫인상이 괜찮았던 여성분이 내리자,

에디터도 재빨리 따라 내렸다. 역시 보는 눈은 다 비슷비슷한지 같이 따라 내린 남자 경쟁자가 세 명이나 되었다. 아... 이 걸질들은 뭐지? 하우스텐보스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17세기 네덜란드식 건물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놀랍게도 한겨울에는 볼 수 없는 화려한 꽃들이 사방에 피어있었고, 미술관, 박물관 등 유럽풍의 우아한 건물들이 가득했다. 분위기가 아주 좋아 동네 북덕방 수준의 유머감각만 있다면 같이 몇 코스만 걸어도 여자의 마음을 거저로 주위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BY 박한빛 누리 LAYOUT 서윤정  
COOPERATIONS 일본관광청(www.welcometokyo.jp.or.kr) 엔타비여행사(www.nabi.co.kr) 티켓몬스터(www.ticketmonster.co.kr)



오후 3시, 하우스텐보스 일루미네이션 광장에 모여 2차 짝 선택을 했다. 이번엔 반대로 징검다리에 남자들이 일렬로 서있으면 여자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 뒤에 서는 방식이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순간이었다. 뒤가 술렁술렁 거리길래 역시나 하는 마음으로 뒤돌아 봤더니, 아무도 없었다(제길). IT 업계에서 일하는 남자 6호가 여자 5명의 표를 얻으며 의자왕으로 등극했다(젠장, 대세는 IT산업이다). 오후는 짝 없이 그냥 혼자 돌아다니기로 했다. 그래 어차피 인생은 혼자니까... 하우스텐보스는 유럽식 건물은 물론, 테디베어 파크와 애니메이션 '원피스 체험관'으로도 유명하다. 짝이 있었다면 당연히 여자들이 환장하는 테디베어를 찾았겠지만, <원피스> 조로 역후인 에디터는 '원피스 체험관'으로 향했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호수 위에는 루피의 해적선인 '메리고잉호'가 떠 있었고 조로, 흰 수염 해적단 에이스의 동상과 칠무해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다. 역시 여자들은 초파에 열광했다. 기념관에는 <원피스> 관련 기념품들로 가득했다. 환전한 돈을 모조리 쏟아부을 뻔했다.



관광보다 더 재밌는 짝 선택



짝 선택에 실패한 남정네들



## 구로카와 온천마을

혼자 돌아다니느라 지친 몸을 이끌고 구로카와 온천마을에 있는 다케오 고토야 료칸으로 향했다. 료칸은 일본 전통 숙박시설로 일본 정원이 어우러져 있으며, 코스별로 식사가 제공된다. 에디터가 묵은 온천마을은 1,3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졌다고 한다. 역시 1,300년 된 온천물은 피부에 짝짝 달라붙더라. 온천욕 한 번에 피부가 도자기가 된 듯했다. 료칸 전통에 따라 유카타를 걸아입고 연회장으로 모였다. 한 각자의 자리 앞에는 일본 전통식이 차려져 있었다. 하우스텐보스에서 짝이 안 돼서 쓸쓸한 에디터의 기분이 단박에 풀릴 만큼 맛있었다. 회가 어찌나 싱싱하던지, 식도에서 꿈틀거리면서 들어가는 게 느껴졌다. 어색함을 깨기 위해 약간의 사케와 맥주를 곁들이니, 남자들이 허로 드러블하기 시작했다. 연회장이 점점 시끌시끌해지기 시작했다. 역시 남 녀가 어색할 땐 술이 최고다. 식사가 끝나고, 상을 구석으로 치우고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조별게임이 진행됐다. 댄스 타임, 스피드 퀴즈 등은 좀 식상했는데, '지로 끝나는 신체 부위 말하기' 게임의 여운이 아주 깊게 남았다. 허벅지, 장딴지, 엄지, 약지, 검지 거의 모든 단어가 나왔는데,



피마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레크리에이션의 단골 코스, 알사람 안마 하기

정말 말할 수 없는 두 단어를 가지고 말을 할지 말지 처절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그렇게 재밌어서 실컷 웃었다. 그날 밤은 그렇게 먹고 마시며 새벽까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 다케오 올레길

이른 아침, 전날의 숙취가 가시기도 전에 버스에 올라 다케오 올레길로 향했다. 다케오 올레길은 제주도 올레길을 본따 만든 코스로 경치 좋고 공기 좋은 다케오 마을을 둘러볼 수 있는 산책길이다. 역시, 남녀가 가까워지기엔 산들바람 부는 길을 걸으며 농담 따먹기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햇빛이

반사되는 호숫가를 바라보며 진솔한 얘기를 하면서, 마을 어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에게 해맑게 대화를 건네면서 말바보 코스프레 좀 했는데, 여자들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다.

마침내 이케노우치 호수공원에서 최후의 도시락 선택만이 남았다. SBS <짝>에서 행하는 엄청난게 잔인한 방법이다. 먼저 남성이 도시락을 들고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도시락을 건넨다. 여성은 앞에 있는 남성이 마음에 들면 도시락을 받고, 다른 사람이 마음에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을 생까고, 다른 남성에게 도시락을 건낼 수 있다. 아바위보다 더 사람 피 말리는 사랑의 도시락이었다.



드디어 최종 선택, 밀리는 것보다 오글거려서 죽을 것 같았다.



올레길을 찾는 관광객에게 저를 무료로 대접하는 할머니들



※파워스팟(Power Spot): 기가 증만해 영험이 있는 장소로, 이곳에 흐르는 기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치유되고 안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에디터 차레가 되자, 첫인상 선택 때 마음에 들었던 여성에게 다가가 도시락을 건넸다. 그녀가 도시락을 받든 안 받든, 그 앞에 서있는 10초가 10년보다 길게 느껴졌다. 도시락을 내밀었던 손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그녀가 마음을 받아준 것이다. 에디터 외에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커플이 되었다. 이미 전날 밤 한잔 두잔 주고받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 많이 친해진 덕분이었다. 커플이 된 사람들은 둘이서 식사를 나누었고, 커플이 되지 못한 사람들도 무리지어 모여서 다 같이 도시락을 먹었다. TV 처럼 잔인하게 혼자 밥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승자라는 있어도 패배자는 없었다. 이 얼마나 인간적인 사회인가.

### 3,000년 된 녹나무

후쿠오카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다케오 신사 내 녹나무 파워스팟에 들렀다.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파워스팟. 일본 내에서도 몇 안 되는 진귀한 장소다. 파워스팟에서 흘러나오는 정기를 받으면 모테솔로에게도 필자에 없는 애인이 생기고, 인기와 건강을 얻으며, 안 되는 일도 술술 잘 풀린다는 이야기가 있다. 수령 3,000년 된 이

다케오 녹나무는 약 50년 전에 벼락을 맞았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 있고 한다. 거참, 질긴 놈이다. 에디터는 녹나무 앞에 두 팜을 벌리고 서서 주변에 우거진 죽림과 소나무의 기운까지 모조리 빨아들였다. 같이 온 일행들이 부끄러우니까 손 내리고 빨리 내려오라고 아우성쳤지만 개의치 않았다. 기운이 차고 넘쳐서 가운데 있는 용이 꿈틀꿈틀 거리는 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 이 원기옥을 어디다 풀면 될라나?

서울에 도착해서 헤어지면서 거의 모든 참가자가 서로 휴대폰 번호를 교환하고 명함을 주고받으며 조만간 다시 모임을 가질 것을 기억했다. 건설업, IT 업계종사자, 군인, 법조인 등 정말 이 '짝' 여행이 아니었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었다. 눈을 즐겁게 해주는 볼거리, 혀를 호강시키는 맛있는 음식, 마음을 설레게 해주는 좋은 짝 그리고 재밌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만큼 값진 경험이 또 있을까? 혹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조금만 마우스를 팔아 짧짤한 여행 프로그램을 찾아보자. 혼자보다는 둘, 둘보다는 서너, 수십 명이 함께하면 여행이 더욱 풍요로워진다. 그만큼 재밌는 변수(?)도 훨씬 많이 생길 테니까. ☺

# newest HOT doll

나인뮤지스  
손성아

경고 위험한 공구를 다루거나, 물을 끓이고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주의를 요하는  
일을 하던 중이라면 당장 잡지를 덮어라.  
나인뮤지스의 아홉 번째 여신 손성아의  
도발적이고 때론 귀여운 매력이 당신의  
머릿속을 새하얗게 만들 테니까.



인형이  
무척이고  
말을 해?





뱅글 모두 스트라다바리우스  
화이트 팬츠 버쉬카  
구두 엘리자벳



왼팔의 실버 팔찌 액세서라이즈  
오른팔의 체인 팔찌와 파란색  
스터드 장식 팔찌와 반지  
모두 어거스트하모니



**나인뮤지스와는 전에도 화보 촬영을 한 적이 있었지만, 당신과는 처음이다. 소감이 어떤가?**  
너무 편하게 촬영했다! 굉장히 재미있었다.

**모델이 잘해준 덕분이다. 카메라 렌즈를 전혀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노련하게 잘 하던 걸?**  
보통 멤버들이랑 인터뷰나 촬영을 할 때에는 우리 멤버 수가 워낙 많아서 정신없이 후딱 지나간다. 그런데 오늘은 나에게만 집중된 촬영이다 보니 느긋하게 즐길 수 있었다(웃음). 기분이 좋았지.

**이국적인 매력이 넘친다. 외국에서 살다는 티가 나는데?**  
원래 남태평양 피지에서 살다가 중학교 2학년 때쯤 한국에 왔다.

**나인뮤지스 전에도 꼭 연예계에서 활동을 했다고 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었나?**  
어릴 때부터 연기, 백댄서 등등 가리지 않고 많은 활동을 했다. 많은 걸 해 보는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 기회가 주어지면 뭐든 최선을 다해야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어?

**데뷔 전과 데뷔 후에 달라진 게 있다면?**  
주얼리의 예원이랑은 동갑내기 친구다. 예원이가 먼저 데뷔하면서 "너도 잘돼야 할 텐데" 하고 걱정해 주곤 했다. 그러다 내가 데뷔하니깐 "와! 연예인이다!"라며 축하해 주더라고 그래서 나도 "나 연예인이야~" 라고 대답했었다(웃음).

**아홉 명의 멤버 각자만의 개성이 있을 텐데, 당신이 그룹에서 맡은 역할은 뭔가?**  
음... '장난꾸러기'? 멤버들이랑 장난치는 걸 좋아해서(웃음).



원팔의 시계 장식 팔찌  
어거스트하모니  
오른팔의 골드 팔찌  
스트라디바리우스  
빈지 폴앤베어

**선배 중에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선배 걸그룹 멤버들도 좋지만, 처음엔 내가 가수가 아닌 연기로 데뷔해서 김혜수, 엄정화 선배님을 본받고 싶었다. 40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멋지고 섹시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게 너무 부럽다.

**큰 키 때문에 말연니라는 오해를 받을 것 같다.**

사실이다. 하지만 반드시 키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웃음) 처음에 내 외모를 딱 보면 쉬운 인상은 아니지 않나. 착해보인다기보다는 조금 사나워보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인상이 굉장히 좋은데?**

됐다.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

**본인의 큰 키에 만족하나?**

원래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리 좋아도 만족 못하는 거라고... 솔직히 좀 작아 보고 싶다. 아담해서 누가 안으면 꼭 안겨서 보호받는 그런 느낌? 나처럼 키가 크면 강해 보이잖나.

**‘완벽한 S라인’이라는 뉴스 기사가 화제가 되었다.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역시 허리?**

아, 그런 기사가 있었나? 몰랐대! 어깨, 골반이 큰 편이라 다이어트를 조금만 해도 들어갈 곳은 쏙 들어가고 나올 곳은 확 나온다. 지방은 아니다 (웃음).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겨먹고 다니나?**

우리 팀이 정말 먹는 거 하나는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닌다. 몸매가 그나마 유지되는 이유는 꾸준한 운동 때문이다.

**멤버들과 가장 많이 먹는 간식 혹은 야식은?**

멤버가 많아서 좋은 점 중 하나는 서로 취향이 달라서 야식을 이것저것 시킬 수 있다는 거다. 먹을 걸 다 시켜 놓고 보면 완전히 뷔페가 되어 있다(웃음). 가끔씩 하나로 통일할 때도 있지만, 시간이 좀 여유있을 땐 먹고 싶은 것 다 시켜서 또 뷔페를 차려 먹는다.



“

이번 화이트데이,  
솔직히 조금 기대하고 있다

”

원팔의 뱅글 모두  
스트라디바리우스  
팬츠와 오른팔의 핑크 체인  
팔찌 모두 버쉬카  
반지 어거스트하모니  
구두 슈즈원



**얼마 전 육군 1사단에서 쇼케이스를 열었다.**  
우리가 즐겁게 헤드리러 갔는데 되려 즐거움을 받고 돌아왔다. 이젠 군인 아저씨가 아니라 친구 내지는 동생뻘이더라.(웃음) 공연 마치고 돌아올 때는 너무 아쉬웠다. 벌써 정들었는데 발걸음을 떼기가 쉽지 않았다.

**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다가나 군인 남자친구를 사귀 적이 있나?**  
안타깝게도 없었다. 응? 안타까운 게 아닌가?  
(웃음)

**그럼 만약 사귀던 남자친구가 군대에 간다면 기다려 줄 수 있나?**  
모르는 소리다. 요즘 군화 거꾸로 신는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줄 아나? 반대로 제대하는 날까지 나를 만나 줄 남친을 만나는 게 더 현명하겠지.

**얼마 전 인터뷰에서 나인뮤지스의 맴니들은 결혼이 절실하다고 하더라. 본인은 어떤가?**  
때가 되면 해야지. 아직은 아니다. 근데 이제 막 데뷔한 사람에게 결혼을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다니 실례 아닌가?(웃음)

**늦게 결혼할 생각인가?**  
물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한창 활동을 하다가도 이 사람이다 싶으면 소속사 물래 약혼부터 해야지. 아, 저기서 다 듣고 계셨네  
(웃음). 괜찮아요. 그럴 일 없으니까. 아하하.

**일과 사랑 중 하나를 택하라면?**  
일과 사랑은 경중을 따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 다 나에게는 중요한 삶의 활력소니까. 당장 일이 좋다고 평생 일만 하면 허전한 마음 한 구석을 누가 달래 줄 건가?

**이별의 아픔을 달래는 각 멤버들의 노하우를 담은 '억 조공 짬'이 화제였다. 본인은 이별이 닥치면 술을 퍼 마시는 타입인가?**  
내가 만들긴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웃음). 재미있게 보라고 만든 그림이라 먹고 놀면서 잊으라고 했는데, 이별을 잊는 최고의 방법은 아무 생각 없이 바쁘게 사는 거다.

필씨 모두  
어거스트하모니  
팬츠 숄



파란색 가디건 스트라디바리우스  
옷핀 장식의 팔찌 어거스트하모니  
팬츠 룩시



**화이트데이가 다가온다. 폭탄 같은 사랑세례를 기대하고 있는지?**

에이, 그 정도 아니다...만 기대를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기대돼요(웃음)

**가장 기억에 남는 화이트데이 선물은 뭔가요?**

화이트데이라고 흰 색으로 된 온갖 생활용품 플세트 같은 걸 받은 적이 있다. 나름대로 센스가 있어 보였지. 기분이 좋았다.

**끝으로 MAXIM 독자들에게 한 마디!**

이번에 새 싱글 'Dolls'로 컴백했습니다! 노래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곧 또 음반이 나올 거예요. 늦지 않게 다시 찾아 볼게요. 저희 이훈 명, 세라, 민하, 이샘, 헤미, 은지, 이유애린, 경리, 현아 그리고 저까지 모두 개성있는 매력이 넘치는 여자들이니까 꼭 지켜봐 주세요! 너무 수상 소감 같았나?(웃음)

**한마디만 하겠더니!** 



**손성아**

**생년월일:** 1989년 7월 8일

**학력:** 성균관대학교  
연기예술학과

**화이트데이:** 기대되는 날

**남자:** 가벼운 남자는 질색,  
진심을 보이는 게 중요!

**좋아하는 음식:** 해산물과 육류,  
그 중 으뜸은 단연 회!

**소녀 팬:** 듀스와 디베이스  
그리고 원타임의 테디  
팬이었다.

COOPERATIONS 북시(070-4369-5300), 머라이어(02-3413-9800), 숲(02-514-0693), 슈즈원(02-3443-1703), 스트라다바리우스(02-3413-9800)  
액세서리이즈(www.accessorizekorea.com), 아거스트하모니(070-8839-8255), 엘리자벳(02-3409-1027), 폴앤베어(02-3413-9800)

# ICON

## THE ONE IMPACT Collaborated with MAXIM!

튼튼하기로 소문난 녀석이 상남자의 옷을 입고 돌아왔다.

**반갑다! 많은 남자를 인터뷰해왔지만 담배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건 처음이다.**

나 역시 사람을 상대로 인터뷰하는 건 처음이다. 아니, 나뿐 아니라 세상 어느 잡지도 담배를 상대로 인터뷰를 하진 않겠지. 역시 MAXIM답다고 생각한다. (웃음) 어쨌든 말문을 틀 수 있으니 반갑고 기쁘다.

**등쪽에 익숙한 MAXIM 로고가 있어서 깜짝 놀랐다. 대대적인 스타일 변신을 꾀한 이유라도 있는지?**

이전의 블루 컬러는 1mg이라는 타르 함량에 걸맞게 건강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번엔 '임팩트'라는 이름에 초점을 맞춰 강렬한 블랙 톤 보드에 레드 컬러 포인트를 믹스 매치해 나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고 싶었다. 나이키 맥스도, 노스 800도 컴빨이 대세니까.

**얼마 전 <나는 가수다 II>에 나온 가수 더원과는 무슨 관계인가?**

하하하(웃음) 이 사람 싱겁기는. 하하하... 그러는 당신은 동서식품이랑 무슨 관계야.

**예전에도 당신을 MAXIM에서 종종 본 적이 있다. 우리 구연인가?**

질도 알아보는군. 이전에도 나를 모델로 촬영한 적이 있다. 1mg 담배를 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내용이었지. 그때 아마 에디터들이 구별을 못 해서 곤란해진 걸로 기억하는데... 내 인상이 그렇게 강했다고 감탄했다는 얘기를 매니저한테 들었다. 나중에 인터뷰 한번 하자고 그러더니 결국 이제서야 연락이 온 거다.

**당연하지. 담배랑 인터뷰하는 건 당신이 처음이라고 했잖아.**

나도 방금 전까지 내가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더니까.

**참고로 에디터는 THIS PLUS 유저다. 서운하지 않은가?**

말했지만 그 친구 조금 징징대는 감이 있어도 괜찮은 녀석이다. 워, 애연가들이 같은 국산 친구를

좋아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뮤직뱅크>에서 2NE1이 짱먹었다고 빅뱅이 뺏치지는 않잖아?

**당신의 대인배스러움에 이런 질문을 던진 내가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괜찮다. 나도 당신 팬은 아니니까. 손안나 에디터 같이 안 왔나?

“

남자라면 가볍게 입을 놀리지 않는 법이다

”

**꽤 많은 패밀리 멤버가 있다고 들었다. 혼자 된다고 나머지 멤버가 뭐라고 안 하던가?**

나를 포함해 블루, 오렌지, 화이트, 그린, 에티팩까지 총 6명의 패밀리 멤버가 있는데, 그 친구들과 나는 약간 성향이 다르다. 다른 멤버가 부드럽고 순한 초식남 분위기라면, 나는 조금 마초남스럽지. 내가 이번에 MAXIM과 콜라보레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도 “넌 좀 세니까 블랙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겠네”라고 하더라고.

**타르 함량이 1mg이다. 건강 생각하는 중·장년층 이랑만 놀 것 같은 이미지인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다.(웃음) 하지만 방금 말했듯이 1mg라는 약한 스펙에 비해 상대적으로 향은 강한 편이니까. 나와 같은 해 데워한 에티팩은 냄새를 즐긴다고 나온 친구라 내 이미지와는 거리감이 좀 있기도 하고, 실제로 기존 패밀리 멤버보다 상대적으로 내가 젊은 친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한창 팔팔한 젊은이들은 사실 약한 1mg 담배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어필할 계획인가?**

고타르 담배를 찾는 친구들은 사실 나를 구입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물론 뭐 누구나 입맛에 맞는 담배가 있게 마련이지. 하지만 나를 데뷔시키기 위해 2년간 연구하고 1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며 트레이닝시킨 소속사의 노력이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 나를 만나본 친구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알 거다. (웃음)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담뱃잎 덕분이다. 한창 트레이닝받던 시절에 담배나무 밭 길을 산책하다가 유난히 발색이 좋고 향이 괜찮은 잎사귀를 발견했는데, 재배하는 아주머니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바로 ‘임팩트 리프(impact leaf)’ 라더라. 담배 나무에서 햇빛을 가장 많이 받아 잘 익은 녀석이라며 “한 잎사귀 하실래예” 하더라고. 내가 저타르 담배임에도 강한 맛을 내는 건 바로 그때 내가 먹은 임팩트 리프 덕분이다.(웃음)

**자랑할 만한 신체 부위가 있다면?**

담배는 필터가 생명이지. 무쇠 같은 나의 슈퍼 파워 하드 필터가 자랑거리다. 입에 물어보면 바로 그 단단함을 느낄 수 있다. 거기, 사장님. 거 물 때 조심하세요. 이가 부러질지도 모르니까. 아하하

**그렇게 단단한 필터라면 잘 안 빨릴 것 같은데?**

이봐, 기자 양반. 다르게 생각해보자고. 담배를 피우다 보면 입안에서 분비되는 아밀라아제 성분의 침이 필터를 적시는 경우가 많은 말이야. 그렇게 되면 녹록해진 필터 사이로 기체 상태의 연기가 침투하기 힘들어지지. 그래서 오히려 ‘잘 안 빨리는’ 경우가 발생해. 하지만 내 하드 필터는 그런 침 따위로 녹록해지지 않아. 오히려 일관성 있는, 안정적인 흡연감을 제공하지.

**그런 깊은 뜻이 있었다니 기대가 커지는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릴 건가?**

2월 27일에 본격적으로 컴백할 예정이다. 총 100만

갑 정도를 한정 판매하고, 활동 기간은 대충 한 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오랫동안 활동할 계획은 없으니까 일아서들 찾아주기 바란다. (웃음)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는지?**

앞서 언급한 디스 플러스의 경우도 그렇고.. 사실 그 친구는 나한테 대선배지만, 워낙 있는 듯 없는 듯 보급품처럼 털털하게 사는 친구라 말 놓고 지내라 하더라. 보험 선배는 특유의 카리스마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한데 그쪽 패밀리도 요즘 한창 잘나가고 있어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려는 중이다. 다만 모히또가 요즘 잘나간다고 인사도 잘 안 하더라고..

**활동 기간이 그리 길진 않을 거라고 했는데... 한정 판매 기간이 끝나고 나면 아쉽지 않을까?**

앞서 언급했듯 앞으로 한 달 정도만 활동할 예정이다. 물론 반응에 따라 약간은 스케줄에 변동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블랙으로 한창 휘감고 있을 때 더 많은 사람과 만나고 싶다.

**끝으로 MAXIM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남자란 입을 가볍게 놀리지 않는 법이다. 나에 대한 평가는 얼마든지 달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나를 만나본 자에 한해서다. 그래도 성에 안 차서 1mg밖에 안 된다며 까고 싶다면 한번 만나봐라. 파워풀한 내 매력에 흠뻑 빠져들 거다! 



**생년월일:** 2013년 2월 27일  
**신체:** 55mm x 23mm x 86mm  
**소속:** KT&G  
**이상형:** 입술이 두터운 섹시한 여자  
**애장품:** 볼티나, BIC  
**좌우명:** 공초는 쓰레기통에  
**활동 지역:** 금연 구역을 제외한 모든 곳

**가장 마음에 들었던 MAXIM 표지 모델**  
 제시카 고메즈

**요즘 자주 듣는 음악**  
 Deep Purple의 Smoke on the Water

**인상깊게 본 영화**  
 스모킹 에이스





완연한 봄 날씨, 춘곤증 탓에 자꾸만 감기는 눈꺼풀을 어찌할 수 없다고?  
그녀의 두 번째 MAXIM 화보 사진을 눈앞에 투약하고 필요한 만큼 반복하라.  
어때,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지? 이게 바로 'MAXIM Care'다!



to  
**Katrina  
Bowden**



# WW

WOW!

당신을 향해 미소짓는 저 예쁜 엉덩이를 보라! 저 엉덩이의 주인은 시즌 9을 끝으로 막을 내리는 인기 코믹 미드 <30 ROCK>의 사무 보조 세리 역의 배우 카트리나 보든이다.

처음 그녀가 세리 역의 오디션을 봤을 때 그녀는 코미디 경험이 전무한 16세의 카톨릭 학교 여학생이었다. (이 자리를 빌어 보든을 뽑아준 캐스팅 담당자에게 한마디하고 싶다. 정말 고마워!)

10대 소녀 때부터 지금까지 지난 7년간 카트리나 보든은 남성 시청자들의 입에서 침을 줄줄 흘리게 만든 큐티 섹시의 아이콘으로 성장했다. 잘 컸네, 잘 컸어!

←  
스웨터  
Wildfox

→  
란제리  
KiKi de Montparnasse  
주얼리  
Iosselliani



NBC 방송국에서 <30 ROCK>을 시작할 당시, 이 드라마가 7년이나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나?

전혀. 바로 그 다음 시즌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드라마 초반에 비평가의 찬사는 받았지만, 정작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시청자가 없다면 아무리 에미상을 쓸어담는대도 무슨 소용이 있겠나?

<30 ROCK>은 티나 페이가 <SNL> 코미디작가로 활동하던 당시에 직접 겪은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제작했다. 세리 역도 실제 인물을 모델로 했나? 아마도. 아주 돈이 많고 똑똑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걸 들리지 않는 여자. 그리고 이미 모든 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뭘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다. 제작진이 거기가다 실을 붙여서 만든 캐릭터가 세리인 것 같다.

처음 여기서 연기를 시작할 때가 16세였다. 너무 어려서 동료 배우나 스태프가 불편했던 적이 있나?

다행히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배려해줬다. 나 역시 일부러 출연진과 자주 어울리고 뒷풀이 파티에도 빠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미처 날뛰는 파티광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라. 그리고 생각보다 작가들이 꽤 절기 때문에 그리 불편하지 않았다. 물론 <30 Rock>이 <가십걸>처럼 어린 여자애가 많이 나오는 드라마였다면 내 도래 배우들과 함께 더 신나게 놀았을지도 모르지만!

학창 시절, 당신을 질투하던 친구는 없었나?

어릴 때부터 모델 활동을 해 왔지만 어디서든 늘 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여학교를 다닌 데다, 그 나잇대 여자애들은 다른 여자아이에게 꽤나 심술을 내는 편이니까.

그렇게 조용하던 소녀가 지금은 유명한 TV 스타가 되었으니, 동창회에 가면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하겠군!

그런 적은 한번도 없다. 사실 고교 시절은 악몽 같았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번 화보를 보니 여전히 모델 일을 즐기는 것 같다.

촬영 내내 정말 즐거웠다. 심지어 지난 번 촬영보다 더 재미있었다. 두 번째 촬영이라 그런지 스태프 얼굴도 한 명 한 명 다 기억나더라.

남자친구가 첫 번째 MAXIM 화보가 나온 직후 당신에게 프러포즈했다고 들었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당신을 붙잡아두려는 건가?

해! 난 꽤 오랫동안 프러포즈를 준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듣고보니 MAXIM 화보에 자극을 받아서 썩기를 받고 싶어서였을 수도 있겠군.

우리로 결혼식에 초대할 건가?

당신들이 우리 결혼에 불을 붙인 은인일지도 모르는데... 물론이지!

드라마가 끝난 다음엔 뭘 할 작정인가?

모르겠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장르도 경험해보고 싶다. 범죄를 다루는 <Breaking Bad>나 <Homeland> 같은 정치 스릴러도 좋을 것 같다.

앞으로 평생 동안 TV를 켜면 자기 얼굴이 나오는 인생을 살게 될 텐데, 그건 어떤 기분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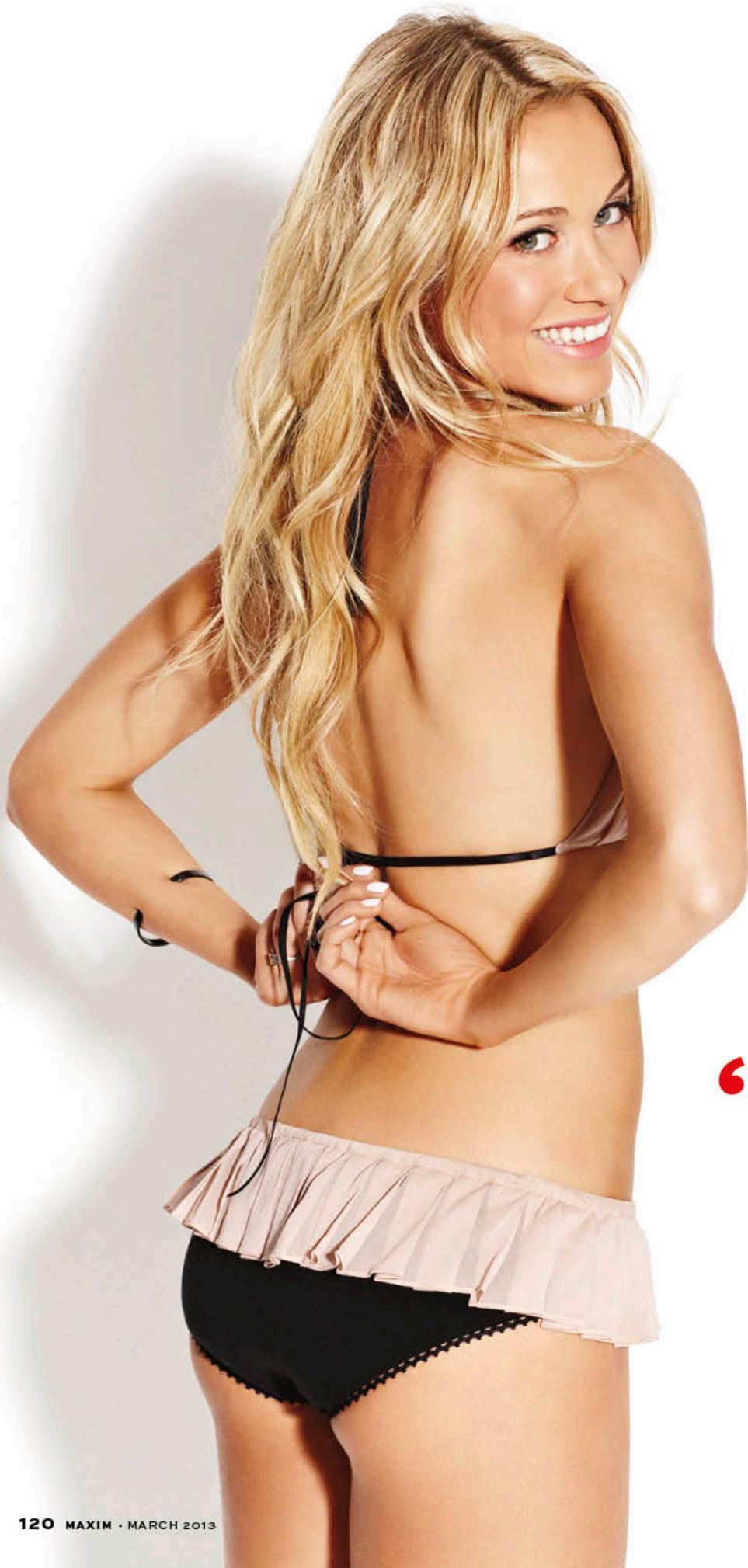
드라마의 편권이 다른 방송사에도 팔려서, 어떤 날은 하룻밤에 서너 번씩 재방송이 나가기도 한다. '내가 저런 일머리를 했었나?' 혹은 '저때 무슨 야구 모자를 썼었지?' 같이 사소한 궁금증이 들기도 한다. 그런 옛 기억을 떠올린다는 게 어쩐지 드라마의 역사와 함께하는 것 같아 기분이 묘하다. 



☪  
란제리  
La Perla  
구두  
Versus  
목걸이  
Le Mos  
팔찌와 반지  
Jennifer Fisher



“ 지난 MAXIM 화보가  
나온 직후 남자친구가  
프러포즈를 했다. ”



다음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범죄나 정치  
스릴러도 해보고 싶다

BY DAVID SWANSON PHOTOGRAPH MATT JONES HAIR JOSH PEREZ(THEGLAMGOESON.COM) MAKE UP CASSANDRA GARCIA(BOBBI BROWN COSMETICS) STYLING MICHELA BURATTI



란제리  
Kiki de Montparnasse  
구두  
Giambattista Valli  
반지  
Jules Smith  
팔찌와 귀걸이  
Le Mos



# Amazing Battle #5

# MAXIM VS REFLEX



피 뒤통스  
대결 현장



인디 밴드 리플렉스와의 대결.  
패기 넘치는 록 밴드라 그런지 그들은 대결 내내 약에 받쳐 있었다.

## Rock n Roll

2월 7일 오후 2시, 홍대 브이홀. 평소에는 파워풀한 공연이 펼쳐지는 곳이지만 이날만큼은 MAXIM과 결전을 치를 비장한 전쟁터였다. 승리를 향한 의지로 불타는 신에 인디 록 밴드 리플렉스는 인사를 나누는 초반부터 기선 제압을 위해 이를 악물고 악수를 청했다. 벌써부터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리플렉스는 "MAXIM 회사랑 브이홀이랑 겹고 하면 안 돼요?"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주먹 쥔 손에 불끈 힘이 들어갔다. 고작 피구랑 말뚝박기 내기에 회사를 걸자니...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법 괜찮은 제안이었다. 이기면 브이홀에서 주말마다 난고 콘서트를 벌여도 되는 거잖아?



리플렉스 홍석원, 신동연, 조규현, 변형우, 정영희(스타프)

## 1 ROUND 피구

피구 공에 불꽃 마크를 그리며 자란 세대라면 누구나 피구에 환장한다. 파워슛을 쏠 땀 공을 타원형으로 놀려야 한다는 등 모두가 추억을 회상하는 사이, 점프볼과 함께 경기가 시작됐다. 공연장 안에서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피구를 하니 옥타곤에서 경기하는 것처럼 어깨가 들썩거렸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진짜 통키로 빙의된 듯 발 빠르게 공을 피해 도망 다녔다.



리플렉스 변형우

MAXIM 이현구



이기면 여기서 주말마다 난고 파티를...



번개썬



이크, 갈비뼈 나갈라.

리플렉스 신동연

처음엔 장난으로 깔짝대며 주고받던 공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공에 맞은 조용재 에디터가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으며 조퇴를 요구했다. 경기 막바지, MAXIM은 손안나 에디터만 남고 전원 사멸. 리플렉스는 3명이 코트 안에 남았다. 리플렉스 멤버는 그대로 바닥에 누워 던질 테면 던져보라며 허세를 부렸다. 손안나 에디터는 그때 상황을 떠올리면, 진심 존나 패 죽이고 싶었다고 말했다.



MAXIM 손안나



리플렉스 조규현



2:0  
리플렉스  
勝!

## 2 ROUND 기마전

드디어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다. 다음 경기는 양 팀 여성을 앞세운 기마전이었다. MAXIM은 의정부에서 한주먹한다는 손안나 에디터의 힘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든든한 떠대의 박종원 대학생 인턴이 밑에서 받쳐준다면 최홍만 위에 이시영이 탄 기마를 상대하는 것만 아니라면 두려울 게 없었다. 양 팀 모두 과성을 지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MAXIM 원정문



MAXIM 박종원

애가 깨



# Amazing Battle #5

리플렉스 정명희

MAXIM 손안나



어머, 이년아?



뭐 이년아?



내 안 놔?



MAXIM 원정운

2:0  
리플렉스  
勝!

공중에서 두 여성이 맞붙었다. 여포와 장비, 성룡과 이연걸, 아니 실베스터 스탤론과 아놀드 슈왈제너거가 붙는다 해도 이런 진풍경이 펼쳐지지는 않았을 거다. 그녀들의 주먹이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번쩍이며 피가 사방에 튀는 듯한 환각이 펼쳐졌다. 손안나 에디터의 손을 피해 브이홀 스태프 정명희는 연체동물처럼 척추를 반으로 집으며 뒤로 물러났다. <타짜> 고니의 밀장 빼기처럼 정명희의 손이 손안나 에디터의 모자를 연속으로 낚아챘다. '손이 눈보다 빠르다'는 얘기를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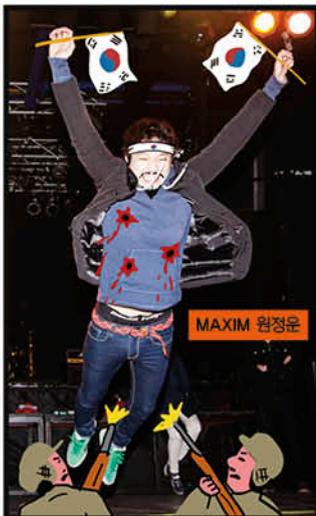
리플렉스 홍석원

MAXIM 이현구

## 3 ROUND 제자리멀리뛰기

2:0으로 MAXIM이 밀리는 상황이었다. 이대로라면 재미도 없고 분량도 없을 대결 기사가 걱정됐다. 에디터는 발을 동동 굴렀다. 2012년 6월 밀러와 대결할 때 쉴쉴하게 재미를 봤던 제자리멀리뛰기를 급하게 종목으로 정했다. 태권도 사범 출신 MAXIM 마케터 원정운의 운동신경은 익히 알고 있으니, '나머지 직원이 두 번만 이겨주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무책임한 생각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경기는 의외로 시시하게 끝났다. 마케터 원정운은 예쁜 여자 쫓아갈 때처럼 바람을 가르며 질풍같은 속도로 뛰어 나가 기대에 부흥했고, 나머지 MAXIM 직원들 역시 여의도 비둘기처럼 브이홀을 폴짝폴짝 뛰어 다녔다. 신기한 것은 큰 덩치의 박종원 인턴이 의외로 호날두급 점프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왜 그동안 숨겼니?

3:2  
MAXIM  
勝!



MAXIM 원정운



와, 새같은 새끼네.



리플렉스 정명희

MAXIM 손안나



리플렉스 신동연

MAXIM 박종원

#### 4 ROUND 탁구공으로 얼굴 맞추기

입안에 탁구공을 물고 약 5m 앞에 있는 상대의 얼굴을 맞추는 게임이다. 얼굴을 맞으면 탈락하고 맞춘 사람은 계속 공을 뱉는 서바이벌 방식이었다. 의외의 스나이퍼 MAXIM 인턴 이현구 혼자서 상대 선수들의 얼굴에 침이 묻은 탁구공을 강타시켰고, 리플렉스 멤버들은 침을 닦으며 얼굴에서 발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투덜거렸다.

5:0  
MAXIM  
勝!



MAXIM 이현구



리플렉스 신동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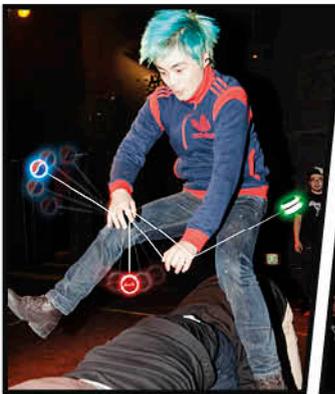
리플렉스 홍석원



앞으로 더 밀착하시지 않습니다.



오빠, 나 좀 잡아줘.



#### 5ROUND 말뚝박기

수컷의 수컷에 의한 수컷을 위한 게임인 말뚝박기로 마지막 승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다들 상대팀의 척추를 부숴버리겠다고 굳은 의지로 신발 끈을 고쳐 묶었다. 첫 공격은 MAXIM이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리플렉스 조규현을 타깃으로 영혼에서부터 에너지를 끌어모아 꼬리뼈로 9번 척추를 힘껏 내리 찌었지만 록 스피릿이 깃든 그의 척추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그날 MAXIM 직원들의 얼굴에 웃음기가 머문 것은 딱 여기까지였다. 그 후, 가위바위보를 내리 저서 리플렉스의 내리 찌기 수난까지 당했으니깐. 이 사람들이 어디서 척추를 갈아 왔나...



리플렉스 변형우

2:1  
리플렉스  
勝!



최종 결과  
**3:2**  
리플렉스 勝!



내기에 저서 MAXIM이 치킨을 샀다. 맛있나?

####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린다!

학교, 동아리, 직장, 부대, 어떤 단체도 상관없다. MAXIM에 도전장을 던져라. 기상 천외한 종목일수록 환영한다(MAXIM은 뭐든 잘하니깐). 도전 방법은 간단하다. 아래 QR 코드를 스캔하여 댓글을 달거나 reader@maximkorea.net으로 메일을 보내라. 단체명, 참가 인원, 날짜, 도전 종목 3가지, 내기 항목을 적어라. 이기면 소원 들어주기!

MAXIM에 도전장 투척하기





# Hey, Sk8er Girl : 고두림

아직은 하이힐보다 운동화가 잘 어울리는 나이.  
한기인 님은 얼짱에서 훗날 한기인을 능가하는  
여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당찬 그녀는 이제  
겨우 스물두 살이다. 그녀의 앞날을 응원하며,  
고두림! Go For Your Dream!

브라 르페  
필피 굿우드  
구두 슈즈원  
운동화 푸마, 수페르가, 반스 by 카시나,  
컨버스, 빅토리아 슈즈, 나이키  
카펫 러그마켓

골드 체인 팔찌 이미제이션  
그라탕 접시 스타우브  
노란 스니커즈 빅토리아 슈즈



BY 송원나 PHOTOGRAPH/ARC STUDIO ASSISTANTS 박수현, 박종민, 최성준 HAIR&MAKEUP 이현정



# MAXIM 여신발굴 프로젝트 #8

팬츠 록시  
팔찌 굿우드  
운동화 컨버스, 반스 by 카시나,  
빅토리아 슈즈, 수페르가, 나이키



오늘 촬영은 운동화를 신고 보드를 즐기는 스포티한 소녀 콘셉트였다. 실제로 운동을 좋아하나?  
전혀. 귀차니즘이 심해 집에서 강아지, 고양이랑 노는 걸 더 좋아한다.

몸매는 타고난 건가? 특히 바스트가 참으로 훌륭하데...

어차피 '거기'도 다 지방이잖아? 지방이 많은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인 것 같다. 기름진 고기나 유제품, 우유, 튀김, 생크림 같은 기름진 음식에 환장한다.

그렇게 고칼로리 음식을 먹고 운동도 하지 않는데 이렇게 날씬하다니 믿을 수 없다.

한 가지 비결이 있긴 하다. 대장 활동이 활발하다는 거? 먹으면 바로 나온다. 변비로 스트레스를 받아 본 적이 거의 없다.

〈얼짱 시대 7〉에서 자신이 노출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방송에서 와전된 부분이 있다. 원래 나 같은 체형은 옷을 박시하게 입으면 더 통통해 보인다. 그게 싫어서 어렸을 때부터 타이트하고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많이 입었다는 뜻이지, "저 노출증입니다. 벗고 다니는 게 좋아요."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고양이 같은 남자가 좋은가, 강아지 같은 남자가 좋은가?

고양이 같은 남자. 영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에 나오는 레스타드(톰 크루즈)가 내 이상형이다. 차고 빠지기를 잘하는 남자, 도도해 보이지만 개구진 면이

있는 남자가 매력적이다. 순정파에다 매사에 덩덤한 남자는 재미가 없다.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남자친구가 "물 떠 와" 라고 명령조로 말하는 게 그렇게 좋더라. 말도 되게 잘 듣는다.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건가? (웃음)

21세기에 이런 조선 시대 규수를 만나다니!

남자친구의 사생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남자친구가 클럽에 갔다고 하면 "물 좋았어? 어땠어?" 라고 물어 볼 정도니까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속박할 필요 없잖아?

남자에게 받아 본 화이트데이 선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뭐가?

워낙 '데이' 같은 걸 신경 쓰지 않아서 딱히 특별한 기억이 없다. 난 내 생일도 신경 안 쓴다. 그냥 지나가는 날 중에 하루 아닌가?

최근 싱글 앨범 〈아이스크림〉을 발표했다. 다른 솔로 여가수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아마도 내 실력이 부족하다는 게 기존 가수와 가장 다른 점일 것이다. 음악으로 먼저 승부하지 않고, 비주일이라든지 음악 외적인 부분에서 먼저 이슈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 점은 솔직히 부끄럽게 생각한다.



## MAXIM 여신발굴 프로젝트 #8

비주얼로 이슈가 됐다는 건 '한가인 달은꽃'로 유명해진 걸 말하는 건가? 맞다. 성형 전에는 손예진 언니 달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눈'을 하고 나서부터는 한가인 언니로 바뀌더라. 어쨌든 한가인 선배님을 등에 업고 인지도가 높아진 거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다.

한가인보다 본인이 더 나은 점은? 얼마 전에 관상을 봤는데, 한가인 씨보다 더 '남편 복'이 있을 거라고 했다(연정훈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최종 목표는 '배우'라고 들었다. 차근차근 연기 공부를 하고 있다. 작은 연극 무대든, 드라마 단역이든 안 가리고 열심히 할 거다.

요즘 당신을 괴롭히는 스트레스가 있다면?

20대는 원래 불안정하다고 하지 않나. 지금 딱 이십대 초반인데, 정말 그렇다. 결과 없는 도전만 계속하는 것 같아서 계란으로 바위 치는 느낌이다. 가끔은 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정말 내가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을지 혼란스럽다.

20대 후반도 여전히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걱정은 그만 하고 셀카를 잘 찍는 비결을 알려 달라.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서 휴대폰을 높이 든다. 내 경우엔 왼쪽 얼굴이 오른쪽보다 잘 나온다. 그럼 왼쪽으로 카메라 렌즈를 쳐다보고 이렇게 찰칵.

고두림에게 셀카란?

나의 이상형. 나도 셀카 속 얼굴처럼 생겼으면 좋겠다. 📷



“  
화이트데이를 대체  
왜 챙기는지 모르겠다  
”

슈즈 아디다스 by 카시나  
골드 체인 팔찌, 블랙 뱅글 모두  
이미지네이션  
나무 소재 팔찌 굿우드  
귀걸이 굿우드  
보드 스테레오 바이닐 크루저  
by 카시나



## MAXIM 여신발굴 프로젝트 #8



### 고두림

생년월일: 1992년 10월 28일

신체: 160cm, 40kg

혈액형: AB형

데뷔작: <얼짱 시대 7>

최근 활동: 싱글 앨범 <아이스크림>

취미: 누드 드로잉

몸매에서 가장 자신있는 부분: 쇠골

담고 싶은 여배우: 박시연

선글라스 이탈리아 인디펜던트 by 지오

운동화 나이키

양말 아이헤이트먼데이

귀걸이, 팔찌 모두 굿우드

보드 스테레오 바이닐 크루저 by 카시나

COOPERATINGS 굿우드(02-716-0665), 나비(080-022-0182), 리라바이벌(02-514-0693), 라그나(02-2675-9083), 루시(070-4369-5300), 빅토리(슈즈(1544-5995), 삼천통닷컴(www.3000ton.com), 수빅트개(02-3276-2040), 슈즈퀵(02-3443-1703), 스타우트(02-2192-9643)  
 아이웨어트렌디(070-028-1867), 르베(1544-6101), 이메지네이션(사립)즈(www.imaginationecc.com), 이탈리아 인디펜던트 by 지오(02-364-1132), 카사나 프라미엄샵(02-3445-5463), 컨버스(02-3447-7701), 쿨네일(www.coolnail.co.kr), 푸미(02-3443-7808)



선글라스 이탈리아  
 인디펜던트 by 지오  
 브라 르베  
 팬츠 랑리바이벌  
 필찌 모두 이메지네이션  
 자전거 삼천리 하이브리드  
 슬루 by 삼천통닷컴  
 네일 쿨네일



복스 만발  
예고편  
감상



# HOLLYWOOD

## KOREAN MAN IN HOLLYWOOD

### 저스틴 전이 할리우드에서 한국인으로 사는 법

디즈니 채널부터 <하우스>, <The O.C.> 등 인기 미드 단역, <트와일라잇> 시리즈 그리고 최신작 <21 앤드 오버>까지 저스틴 전은 지금 할리우드를 야금야금 접수하는 중이다.

할리우드 입성은 어렵다. 수많은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겠노라 부푼 꿈을 안고 이곳에 모여든다. 하지만 그 꿈을 실제로 이룬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인에게 그 장벽이 더욱 높다.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얘긴 아니다. 보통 아시아인에게 주어지는 배역은 고작 '숫처녀 스트리퍼'나 '수학을 잘하는 괴짜' 류니까. 한국인이 메이저 영화에서 주연을 맡는다? 작년에 개봉한 할리우드 대형 작품에서 주요 배역을 맡은 한국인의 숫자를 한번 세어보라. 다섯 손가락만 써도 충분하지 않나? 이쯤 되면 가운데손가락이 절로 일어날 거다. 할리우드, 나가 웬데? 미국에 사는 한국인 배우 저스틴 전은 보기 드문 재능을 가진 사람 중 하나다. 니켈로디언(Nickelodeon)이나 디즈니

쇼 등 TV를 가진 저스틴 전은 드디어 메이저 영화 2편을 찍게 된다. 하나는 해리스 포드와의 작품이었다.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신인 배우들로만 채워진 소설 원작의 뱀파이어 영화였다. 전자 <크로싱 오버>는 이민자를 다룬 아주 심각한 주제의 영화였고, 고로 흥행에 실패했다. 후자는 등장하자마자 전 지구를 뒤흔들고 후속작이 네 편이나 제작된, 바로 <트와일라잇> 이었다. 레이저 총을 쏘대는 •한 솔로가 반짝이는 피부를 가진 뱀파이어에게 발릴 줄 누가 알았겠나?

• 해리스 포드가 연기한 <스타워즈> 시리즈 속 함장으로 레이저 총을 쏜다.

저스틴 전은 이제 <21 앤드 오버>로 관객을 다시 만난다. <행오버> 시리즈의 작가가 감독과 각본을 맡은 이 배꼽 빠지는 코미디 영화에서 그는 주연을 맡았다. 21세 생일을 맞은 날 밤, 법적으로 술을 마셔도 되는 나이가 되었으니 미친 듯이 달리자는 절친들의 핏에 빠져 술에 취해 불알에 꿈인형을 달고 뛰어다니는 대학생을 연기했다. MAXIM은 영화 개봉을 앞두고 정신없이 바쁜 그를 만났다. 그의 간을 촉촉이 적신 특별한 추억의 도시 대전, 해장국의 기적, 아줌마 팬에게 섬뜩한 조건이 달린 별장 선물을 받은 사연 그리고 <트와일라잇> 속 뱀파이어 에드워드와 늑대인간 제이콥 중 누구 편을 들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까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오갔다.



소주 마티니로, 젓지 말고 섞어서.

**〈21 앤드 오버〉에서 맡은 배역이 대학생이다. 그것도 미국에서 법적으로 술을 마셔도 되는 나이인 21세의 아주 어린 남자인데, 실제 당신의 첫 고주망태 경험은 어떠했나?**

MAXIM 한국판에서 받은 생애 첫 질문이 음주에 대한 거라니 이런 우연이 있다. 처음으로 내가 만취하여 네발로 기어다닌 곳은 대전이었다. 14세 때, 대전으로 이사를 간 친구를 만나러 가서 친구 집 근처의 코믹지만한 카페에서 우린 술을 마셨다. 너무 심하게 취해서 이를 동안이나 숙취에 시달렸고 아무 것도 먹질 못했다. 친구 어머니가 스팸을 넣은 볶음밥을 해주셨는데 그 냄새를 맡자마자 그 자리에서 토해버리고 말았다.

**친구 어머니 앞에서 쏟았던 말인가? 제정신인가.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번 영화 〈21 앤드 오버〉에서 가장 제정신 아닌 장면은 뭔가?**

불일에 곰인형을 매달고 나오는 장면이 있다. 이 장면을 위해 다른 사람보다 4시간이나 일찍 촬영장에 나와서 내 다리에 있는 타투를 분장으로 지워야했다. 분장 트레일러에 출몰 벗은 채로 서서 메이크업 하는 사람이

에어브러시로 내 타투를 다 지울 때까지 기다렸다. 하필 타투가 내 거시기 근처에 있었지... 설상가상으로 그 곰인형을 끈 하나로 내 몸에 매달았는데 1시간쯤 지나니 불일이 서서히 아파왔다. 그래서 끈을 살짝 느슨하게 했는데 내가 뒀 때마다 이 곰인형이 덜렁 떨어지고 말았다.(웃음)

**함께 출연한 배우들과 영화에서처럼 광란의 파티를 즐기진 않았나? 영화에 더 몰입하기 위한 연구랄까...**

(웃음)그랬다. 동료 배우들과 상당히 자주 술을 마셨다. 시애틀에서 촬영할 때는 그들을 데리고 피어니어어 광장에

있는 한국식 바에 자주 갔다. 바 주인과 친구가 됐는데, 고압계도 조니워커 블루라벨을 공짜로 주고 새벽 5시까지 우릴 위해 문을 닫지 않았다. 근데 돈을 안 받는 거다. 너무 미안했다. 그래서 100달러짜리 지폐들을 막 구겨서 바 너머에 있는 그들을 향해 던지고 나왔다.

**조니워커 외에 또 뭘 빨았나?**

기네스 맥주와 그레이구스 위스키 칵테일을 엄청나게 마셨다.

**숙취를 해소하는 나름의 비법이 있나?**

뽕이 뽕이 해도 해장국이 역시 최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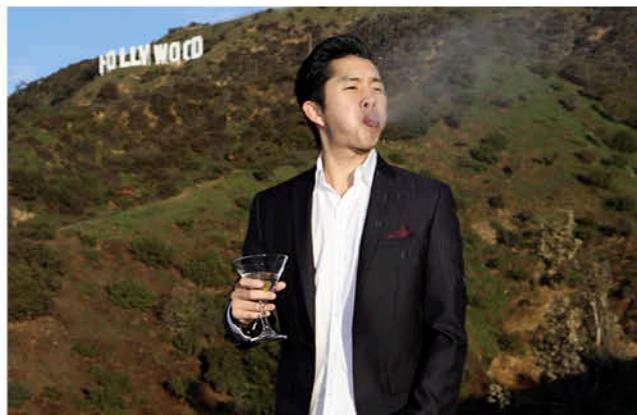
그리고 코코넛워터. 작은 병 말고 큰 병에 담긴 걸로 3병.

**뭘 좀 아는군. 이번 영화의 감독과 각본을 맡은 사람이 〈행오버〉 시리즈의 작가라고 들었다. 코미디 영화의 마스터피스 〈행오버〉에 등장한 또 다른 한국인 배우 켄 정은 궁둥이를 끼고 자동차 트렁크에서 튀어나오는 장면을 찍었다. 이번엔 당신의 은밀한 부위를 영화에서 볼 수 있나?**

내 것이 그의 것보다 더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잘 관리했다. 여러분은 영화에서 나의 남성적인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런 노출은)한국계 배우들이 반드시 거쳐야하는 통과의례인 게 분명하다.

**할리우드에는 동양계 배우들이 많지 않다. 한국 남자로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인가?**

무척 정형화되고 다분히 인종주의적인 배역이 아닌 일반적인 배역을 따내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다. 영화에 나올 때마다 태권도나 쿵푸를 해야 하는 상황을 원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트와일라잇〉 시리즈의 에릭 요키 역을 맡은 것이 나에게겐



더욱 의미있다. 배역은 작았지만 원래는 백인 남자가 말을 역할이었기 때문이다. 인종적인 특성을 제외하고 가장 힘들었던 건 무대공포증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럼 한국인이라서 캐스팅에 더 유리했던 적도 있나?**

해리스 포드와 함께한 〈크로싱 오버〉에 내가 캐스팅된 이유는 영화에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배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작품을 빼고 지금까지 유리한 점은 전혀 없었다.

**부친(전상철)께서 어린 시절 한국에서 유명한 아역 배우셨다고 들었다. 아버지의 배우 경험이 진로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어릴 때 아버지가 나온 흑백 영화를 보는 걸 무척 좋아했다. 하지만 배우가 되는 데 그리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내가 어린 시절엔 미국 방송이나 영화에 동양계 배우가 나오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국인인 내가 미국에서 배우가 되겠다고 결정한 건 아주 비합리적인 선택인 거지.

**어떤 계기로 연기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게 됐나?**

좀 웃기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연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진지한 직업을 구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의 비즈니스 스쿨에 다니던 시절엔 그래도 취직하고 싶은 회사가 몇 개 있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나는 책상에 앉아 일하는 걸 무척 싫어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사실 예전엔 연기를 취미로 여겼다. 물론 연기를 무척 진지하게 보긴 했지만 직업으로 삼을 생각은 없었다. 대학 졸업 후에 행사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하면서 진로를 고민했다. 그러면서 오디션들 몇 번 보고 연기를 시작하게 됐다. 연기로 버는 수입이 괜찮아지자마자 음식 나르는 일을 관두고 연기에만 집중했다.

**연기자가 된 후로 너무 힘들어서 이런 생각이 든 적은 없나? ‘젠장, 난 USC**

**에서 비즈니스 학위까지 딴 사람인데 여기서 대체 뭘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웃음)당연히 있지.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한다. 세 달에 한 번씩 내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하는 의심의 순간이 찾아온다. 하지만 이 일만큼 나에게 가치있고 의미있는 건 없는 것 같다. 뻔한 소리긴 하지만, 난 진정으로 연기를 즐긴다.**

**가장 자랑할 만한 출연작은 무엇인가?**  
사실 아직까지 그럴 만한 영화는 없었다. 아마 미래의 작품 중에 있겠지. 내가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니 저 사람들은 대체 왜 나를 캐스팅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든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트와일라잇〉 시리즈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엄청 소름 돋는 팬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나이 많은 아줌마가 나에게 숲속에 있는 그녀의 오두막집을 선물로 주겠다고 했다. 단, 그녀와 함께 거기서 주말을 보내야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그래서,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나?**  
그럴 리가! 난 아직 죽고 싶지 않다고. (웃음)



저스틴은 지금 영역 표시 중.

**You can see Justin in...**

**21 앤드 오버**



(왼쪽부터) 함께 출연한 배우 마일스 텔러와 스카이라 애스턴. 가운데 미녀는 34-24-34의 황금보디를 자랑하는 사라 라이트다. 너 이 자식 부럽다야.



여기 네이키드스스(알몸초밥) 1인분 추가!

**트와일라잇**



각막을 무지비하게 찌르는 앞머리가 인상적인 애릭 요키역의 저스틴 전. 20대 후반에 고등학교를 연기한 진정한 동안 배우다. 밥에 방부제 밀어 먹어?



내가 9살 오빠거든?  
건도 없이 뽀빠이어 여친(크리스틴 스투어트)에게 섹스질을 하는 조선 남자의 담대함.



늑대인간과의 다정한 모습. 크르르...

© 2011 Twenty One and Over Productions, Inc. PHOTOGRAPH John Johnson

## 저스틴 전이 말하는 '한국인' 제임스 본드에게 반드시 필요한 5가지는?

### 1. 애스턴 마틴

007인데 당연히 한 대 뽑아주겠지?

### 2. 자동차 글러브박스에 달린 제세동기

제임스 본드 하면 역시 파티!  
파티가 너무 격렬해질 경우를  
대비해 자동차에 응급조치가 가능한  
제세동기를 준비해야지. 흥익인간  
정신! 날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

### 3. 숙취 해소 펜

본드라면 언제 어디서든 숙취 해소가  
가능해야 하지. 버튼을 누르면  
해장국과 코코넛 워터가 나오는 펜을  
준비해 줘.

### 4. 로프가 나오는 시계

가공은 비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정말 어쩔 수 없이 여대생 가슴속에  
침입해야 할 일도 있을 터. 로프가  
나오는 시계는 필수다.

### 5. 소주 마티니

젓지 말고 흔들어서.



〈트와일라잇〉 시리즈는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이제는 솔직히 말해도  
된다. 에릭 요키는 에드워드 편인가,  
제이콥 편인가?

인간 편이지. 하지만 굳이 고르라면  
제이콥을 선택하겠다. 난 인디언 울프  
가이들이 너무 좋다. 아주 따뜻한  
사람들이다. 게다가 아메리칸 인디언은  
그 옛날 옛적에 베링 해협을 건너간  
아시아인이잖아. 따지고 보면 먼  
친척이지. 아주 태닝이 잘 된 친척.  
(웃음)

함께 일한 모든 남자 배우들 중 가장  
재밌었던 사람은 누구였나?

피터 갤러거를 꼽겠다. 드라마 〈The  
O.C.〉를 촬영할 때 나를 존나 쫓게  
만든 장본인인데, 나한테 계속해서  
"망치면 뒤통나"고 겁을 주는 거다.  
진심인 줄 알고 후덜덜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냥 장난친 거였다.

작품을 맘대로 고를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나?

제임스 본드. 그 고전적인 매력이 좋다.  
남자라면 누구나 탐내겠지.

최근 한국 감독들이 할리우드에서  
서서히 각광을 받고 있다. 함께  
작업하고 싶은 한국 감독이 있다면?  
박찬욱 감독과 함께 일해보고 싶다.  
〈올드보이〉를 포함해 그의 영화들을

무척 좋아한다. 새 영화 〈스토커〉도  
빨리 보고 싶다. 배우 유지태와도 함께  
일해보고 싶다. 몇 해 전, 한국에서  
실제로 그를 만났는데 영화 연출을  
시작한다고 들었다. 나는 신인 감독과  
일하는 게 좋다. 열정이 넘치고 예상치  
못한 연출을 시도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세상에 증명하고  
한계를 뛰어넘으려 애쓴다.

한국 영화에는 어떤 매력이 있나?

내가 좋아하는 한국 영화는 대체로  
어둡고 우울한 면이 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고군분투 하는 모습에서  
인간의 참모습을 발견한다. 한국의  
영화계엔 세계 최고의 감독들이 있다!

할리우드에 아주 소수지만 당신  
같은 한국인 배우들이 있다. 혹시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다면?

TV 시리즈 〈워킹 데드〉에 나오는  
스티븐 연. 재능도 출중하고 실제로  
성격도 아주 좋은 친구다.

최근에 직접 각본, 프로듀스, 연출을  
맡아 첫 영화 〈Man-Up!〉을 내놨다.  
작업은 어땠나?

해본 일 중 가장 빠센 일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을 책임지고 이끄는 일을 해보니  
눈이 번쩍 뜨이더라. 내가 배우임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됐다. 배우로서의  
나는 모든 것이 세팅된 촬영장에 가서

연기만 하면 됐지만, 감독으로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세밀히 고려하고  
배치해야 했다. 그래도 앞으로 더 많은  
중단편 영화를 연출하고 싶다. 물론  
아직 배울 게 많고 감독다운 감독이  
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

영화 말고 당신이 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동안 정말 많은 단편 영화를  
만들었다. 그중 두 편은 지금 마무리  
단계다. 하나는 〈Full Circle〉이란  
제목이고, 다른 하나는 〈You're  
Stoopid〉다. 아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다. 한가할 때마다  
영상을 만들어 올린다. 유튜브채널은  
바보같고 멍청하지만 동시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창구와 같은  
존재다.

연기나 영화 만드는 일 말고 잘하는  
거 있나?

서핑을 좋아한다. 기타, 바이올린,  
우쿨렐레도 연주할 수 있다. 그리고  
탁구도 꽤 잘 친다. 아, 맥주 마시는  
것도.

만약 당신이 연기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죽어있겠지. ☹



**저스틴 전**

**생년월일:**

1981년 5월 29일

**태어난 곳:**

미국 캘리포니아 주 얼버민

# MISS M

2013  
**MISS MAXIM  
CONTEST**  
The 3rd  
Semifinalist

박주비

MISS MAXIM 후보들을 긴장타게  
만든 역대 최강 글래머의 등장.  
YES, I LIKE MOVIE!

미스맥심과  
욕실  
안에서.avi





**이름이 상당히 특이하다. 혹시 부모님께서 영화를 좋아하시나? 미안하지만 영어가 아니라 한자다. 없을 무(無), 견줄 비(比)를 쓴다.**

**프로 모델처럼 포즈를 잘 취하더라. 모델 일을 많이 해봤나? 이번처럼 전문적으로 찍은 건 두 번째다.**

**복근이 있는 MISS MAXIM은 참으로 오랜만이다. 어릴 때 윗몸일으키기를 좋아하더라 했는데, 없어지지 않는 것 같다.**

**에이, 평소에도 운동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 무용도 한 티라 조금만 운동해도 복근이 다시 생기긴 한다. 그래, 몸매 관리한다. 해.

**좋아하는 이성에게 어필하는 당신만의 방법이 있나?**

좋아하는 사람 앞에선 말도 잘 못한다. 순간 집어도 얼굴이 빨개지고..

**손잡으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하길래 얼굴까지 빨개지는 건가! 화이트데이에 받아본 선물 중 최악의 선물은?**

사랑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한다. 먹는 데도 한참 걸리고 입에 넣고 계속 굴리고 있어야 하니 답답하다. 차라리 초콜릿을 주지(웃음)

**MAXIM 독자에게 한 마디.**

핀업 걸 콘셉트로 꼭 화보를 찍어보고 싶다. 열심히 할테니 응원 많이 해달라!

BY 김희성 WORDS&FILM 이영환 PHOTOGRAPH ARC STUDIO HAIR&MAKEUP 이현정 ASSISTANT'S 박수현, 최동희 LAYOUT 서운정

언더웨어 세트 게스 언더웨어

MISS MAXIM

구두 슈즈원

2013  
MISS MAXIM  
CONTEST  
The 4th  
Semifinalist

최연희

이 인형 같은 처지는 대체 뉘길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도 흔들어놓는단 말인가.



GO TO  
MAXIM  
IPAD



**➔ MISS MAXIM 콘테스트는 어떻게 알고  
지원했나?**

구지성 씨 등 MAXIM에 레이스 모델 선배들이  
나온 걸 보고 신청하게 됐다.

**평소에는 주로 뭐 하나?**

클럽 되게 잘 가게 생겼지만 요즘은 별로 안  
다닌다. 주로 카페에 간다. 하루에 여섯 군데를  
돌아다닐 정도다.

**어떤 커피숍에 가면 당신을 볼 수 있나?**

입구정 로데오 부근에 있는 홀스테드에 자주  
간다. 규모가 커서 그런지 물이 상당히 좋더라.  
(웃음)

**커피보다 술을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소주는 별로 안 좋아한다. 그 대신 동동주를  
즐거 마신다.

**동동주로 간에 기별이나 가겠나! 혹시 박스  
단위로 마시는 건가?**

아니다. 2병 정도 마신다. 근데 술만 마셨다 하면  
무조건 필름이 끊긴다. 남자들한테 완전 인기  
많을 스타일 아닌가요?

**모르는 남자가 말을 걸어오면 어떻게 하나?**

클럽 같은 곳에서 말을 걸면 아예 대꾸를 안  
한다. 계속 쫓아다녀도 그냥 유령 취급한다.  
그래서 가끔 화내는 사람도 있다.

**지금 남자친구 있나?**

없다.(웃음)

**왜 옷나? 혹시 헤어진 게 어제인가?**

어떻게 알았지! 당신 완전 점쟁이네.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나?**

일단 잘생긴 남자는 싫다. 남자가 멋있으면 내가  
너무 묻히니까. 같이 있을 때 불편하지 않고  
재미있는 사람이 이상형이다. 굳이 고르자면  
<코미디빅리그>에 나오는 김용진 씨?

**웅이 아버지는 별론가?**

그쪽은 내 친구가 좋아해서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COOPERATIONS-게스 인더웨어(02-514-9006) 슈즈원(02-3443-1703)

욕실 안  
옛보기



# Table of Truth

이 탁자에 앉으면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  
오랜만에 진실 게임 한판 해볼까?

## MISS MAXIM 3rd 박무비

스스로 생각해도 '이런 내 모습을 보면 남자들이 뺨이 갈 텐데...' 하는 순간이 있다면?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 있다가 거울을 봤는데 엄청 예뻐 보였다.(웃음) 셀카를 찍을까 했는데 참았다.

첫 키스는 언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빌라 단지 사이에 있는 화단 부근에서.

원래 돈 많은 남자와 성실하게 자기 힘으로 벌어들인 남자가 있다면 어느 쪽을 택하겠나?  
부모님 잘 만나 호강한 타입은 별라. 난 자수성가한 스타일이 좋다.

여자에게 고백받아본 적 있나?  
중학교 때 있었다. 다행히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라 안 보면 그만이었다.





## MISS MAXIM 4th 최연후

지금까지 만난 남자는 총 몇 명?  
100일 이하로 만난 남자는  
50~60명 정도, 100일 이상 만난  
사람은 4명밖에 없다.

남자들이 당신의 신체 부위 중  
가장 먼저 보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나?

가슴. 99%가 그렇다.  
여자들한테도 가슴 예쁘다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었다. 목욕탕에  
가면 그렇게 예쁘다고들 하더라.

모델 활동을 하면서 가장  
난감했던 경험은?

포타타임 때 남자들의 손이 바로  
내 엉덩이로 가는 경우다.

어떻게 대처하나?

웃으면서 손을 꼬집는다. 보는  
눈이 많으니까.

남자가 가장 섹시해 보일 때는  
언제인가?

침대 위에서 나를 아래로  
내려다볼 때. 그때 눈빛이 정말  
섹시하다. 거기에 사일 스포츠  
향수를 뿌린 남자라면 더욱  
섹시할 것 같다.



캐로보다 내가  
못한게 뭔데!



브레이저 게스언더웨어

# Sex in the Shadow





# WARNING!

당신이 모르는 성 도착증의 모든 것

취향이 너무나도 뚜렷해서 변태가 되어버린 비운의 위험한 여덟 남자



## 성 도착증(Paraphilia)이란?

일반적 상황이 아닌 특별한 상황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상으로, 정상적 성행위가 불가능한 성 불구자에게서 주로 발견된다. 어린 시절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자리 잡아 특정 상황이 아니면 흥분을 느끼지 못하는 일종의 정신 질환. 하지만 정작 본인은 '취향'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돌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크게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는다...만 요즘같이 흥흥한 때에는 취향이 곧 범죄니 혹시라도 자신이 이런 증상이 있다 싶으면 조용히 병원을 찾도록 하자.



영화 <킬 빌>의 빌 아저씨다.

### David Carradine

직업: 영화배우  
대표작: <킬 빌>  
취향: SM플레이  
특이 사항: 이혼 경력 2회



## → 황혼의 마조히스트 데이비드 캐러딘(1936~2009)

영화 <킬 빌>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빌' 역으로 영화 마니아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그는 2009년 타이의 한 호텔 장롱 안에서 목을 맨 채로 사망해 큰 충격을 줬다. 사건 초기에는 시신을 부검했음에도 타살인지 자살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전 아내 켄슨과 앤더슨은 그가 평소에 스스로 가학행위를 하며 쾌감을 얻는 셀프 본디지 취향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괜히 두 번씩이나 이혼 크리를 당한 게 아니구나. 참고로 사망 당시 그의 나이는 74세. 지긋하게 SM 플레이를 즐기던 그는 그렇게 황천길 편도행 티켓을 끊었다. 노잣돈 대신 목에 밧줄을 감은 채로 말이다.

## → 진단 질식 도착 증후군(Asphixiophilia)



자신 혹은 타인에게 질식 상태를 유도해 성적 흥분에 이르게 하는 행위. 질식 현상이 일어나면 뇌에 산소 공급이 적어지고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잠시간 환각 증세와 오르가슴을 느낄 수 있다. 코카인 수준의 환각 증세를 경험하지만 별도의 도구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중독성이 강하다. 보통 섹스 도중에 이 행위를 하면 여성의 경우 질 수축을 동반하기 때문에 상대 남성에게 큰 쾌감을 줄 수 있다.

**!** 내 주변에도 비슷한 사람이? 주변 사람 중에 넥타이를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이 증상이 있지 않나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목이 터질 것처럼 단추를 꼭 잠그고 정갈하게 넥타이를 꼭 매고 있는 그에게 가서 "답답하지 않니?"라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주자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튀는 짓이나며 소리를 버럭 지른다면 경계할 것. 넥타이로 목을 다시 죄며 거친 숨을 몰아신다면 더욱 수상하다.



목이 답답해 보이신다면...

## → 현대의 살인마 에드 게인(1906~1984)

영화 <텍사스 전기톱 연쇄살인 사건>과 <왕들의 침묵>의 모티브가 된 실제 연쇄살인마. 어느 날 유부녀 버니스 워든(Bernice Worden)이 실종되어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곧 어느 헛간에서 상의가 벗겨지고 목이 질린 채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녀의 시신을 발견한다. 결국 용의자로 지목된 게인의 집을 조사하던 경찰은 중이 가방에 압착되어 있는 그녀의 머리를 찾아냈다. 그 외에도 사람 얼굴 가죽으로 만든 가면, 뼈로 만든 그릇, 두개골이 열린 여성의 머리 10구, 유두로 만든 벨트 등이 발견되었다. 어릴 때 엄마가 레고 안 사줬니?



⊙ 이 정도 창인 정신이 있으면 차라리 공예를 하시지.

## → 진단 쾌락 살인 증후군(Erotophonophilia)



누군가를 살해하며 쾌감을 얻는 성 도착 증세의 최고 만페 단계. 오르가슴을 극대화하기 위해 섹스 도중이나 섹스 직후에 상대를 죽이는 경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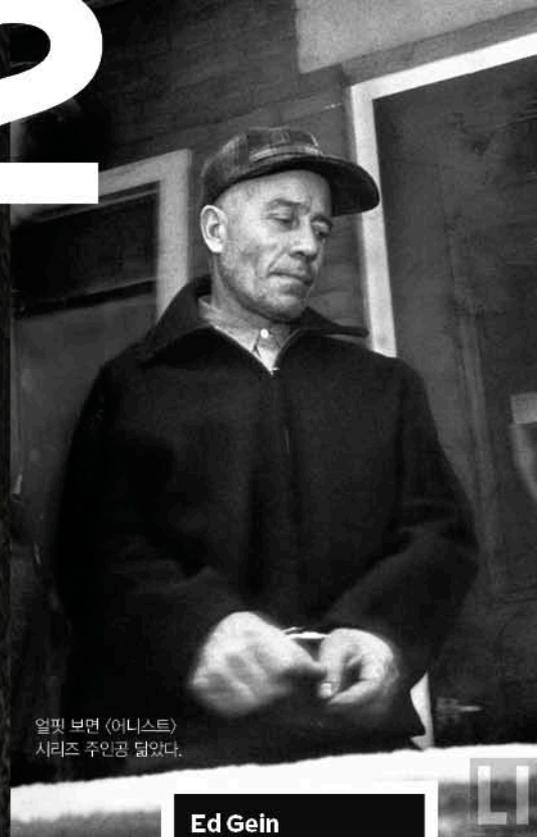
많다. 이런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대의 성기 혹은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아크로토모필리아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유명한 사례로, 사이코패스 유명철이 죽은 여성의 유두를 질라 얼굴 위에 놔뒀다는 얘기가 있으며, 영화 <감각의 재극>의 실제 모델인 일본의 게이샤 아베 사다는 상대 남성을 살해하고 성기를 질라 갖고 다녔다는 일화가 있다.

### ! 내 주변에도 비슷한 사람이?

심해를 통한 오르가슴을 추구하는 자들은 이미 사디즘의 정점에 서 있다. 따라서 이런 자들은 온갖 가학적인 성적 판타지를 지니고 있기 쉽다.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는 자신이 갖고 늘린 상단감이나 인형에 억압된 욕구를 표출하기도 한다.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로봇 머리에 미미 얼굴이 박혀 있거나 인형 얼굴이 티쳐서 귀맨 지국을 발견한다면 인체 상단감이 되기 전에 급히 탈출하자.



사실 나 존나 피해자야.



일찍 보면 <아니스트> 시리즈 주인공 닮았다.

### Ed Gein

국적: 미국  
별명: 플레인필드의 좀비, 미친 도살자  
특기: 인체 가공  
특이 사항: 사람 가죽 마스크를 즐겨 씀



여보, 신혼여행은 목우촌 어때요.

## Ngurah Alit

국적: 자카르타  
이상형: 암소  
가족 관계: 본인과 부인 암소(자식 계획 없음)  
특이 사항: 동물과 의사소통 가능

## → 가족을 사랑한 느구라 알리트(1993~)

2010년 7월, 빌리 섬 젤베라나 예 엠베에 사는 10대 소년 느구라 알리트는 벌거벗은 채 암소와 질롱 같은 섹스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심지어 그는 암소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하자고 고치는 바람에 넘어갔다고 증언했다. 사람 말을 할 줄 아는 암소도 대단하지만, 하자고 그걸 또 하는 남자가 더 대단하다. 결국 마을 장로들은 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정화하는 차원에서 '암소와 결혼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결국 그는 면사포를 쓴 암소와 식을 올렸다. 그림 뭐하노, 소고기 안 먹겠지.

## → 진단 동물 성애 증후군(Zoophilia)

동물과 성행위를 하며 쾌감을 얻는 사람들을 말한다. 흔히 말하는 수궤(獸姦) 마니아.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금기 행위로 여기나, 사실 이 수간 행위는 역사가 꽤 깊다. 폼페이 고대 유적에서는 암소와 통가봉가를 하는 사람의 조각상을 찾아볼 수 있으며, 청기즈칸 시대의 유목민도 가족과 수간을

했다는 얘기가 있다. 여태까지 알려진 피해 동물만 해도 염소, 개, 물개, 심지어 돌고래까지 다양하다. 서구 문화에서 이런 행위는 "동물 학대죄"로 처벌받는다. "왜요! 그녀(암컷)도 즐겼다고요!"

### ! 내 주변에도 비슷한 사람이?

하드디스크 깊숙한 곳에 위치한 '조용히' 폴더에 디스커버리 채널과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동물 다큐멘터리가 가득한 사람을 조심하자. 구하기 쉽지 않은 AV 수간물을 갖고 있다면 이미 심중은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다. 덧붙이자면 금기가 많은 문화일수록 억압된 리비도를 그릇된 방식으로 표출하곤 하는데, 예전에 북한에서는 <동물의 쌍굴기>라는 동물 섹스 비디오를 만들기도 했다. "저 개새끼 몸가락이 싫어구먼."



느구라 알리트의 범행 현장



⊙ 부제가 더 끌리는걸.

# Sex in the Shad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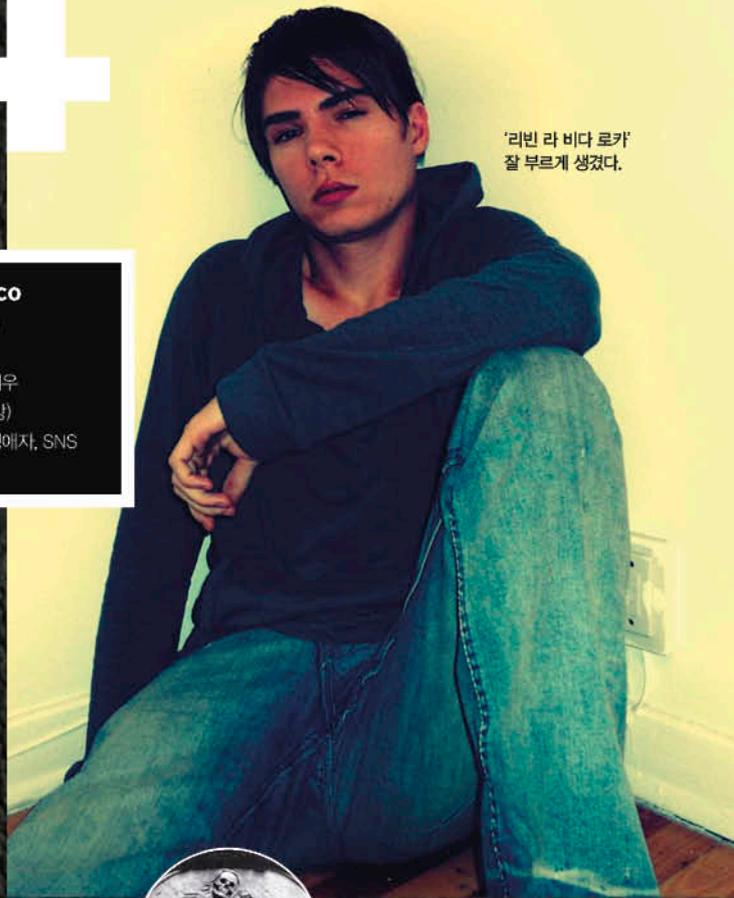
# 4

## → 시체 능욕자 루카 로코 매그노타(1982~)

'에릭 뉴먼'으로 알려진 캐나다의 게이 포르노 배우 루카 로코 매그노타는 중국인 동성 애인 린준(Lin Jun·33)을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시체를 토막 내어 오타와 주 국회 당사에 고이 보내드리는 행위를 부리다 잡혔는데, 토막살인 전 과정과 시간(屍奸) 행위를 10분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업로드하는 패기를 보여줬다. 아주 대놓고 지랄이야 그냥.

**Luka Rocco Magnotta**  
국적: 캐나다  
직업: 포르노 배우  
애인: 린 준(시망)  
특이 사항: 양성애자, SNS 중독자

'리빈 라비다 로카' 잘 부르게 생겼다.



## → 진단 시체 성애 중후군(Necrophilia)



시체를 뜻하는 그리스어 네크로(Necro)와 애호증(Philia)이 합쳐진 단어로, 시체를 보면 흥분을 느끼는 '시체 애호증'을 의미한다. 이런 도착 증세는 살아

있는 대상에 대한 동경이 방향을 잘못 잡아 '시체'로 옮겨간 사례다. 물론 순전히 시체를 좋아하는 정신병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네크로파일(시체 성애자)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을 거부하지 않는 상대'에 대한 소유욕 때문이다. 그런 이유라면 차라리 섹스들을 사는 게 어때?

## ! 내 주변에도 비슷한 사람이?

시체 애호가들은 단순히 시체라는 대상에 흥분을 느낄 뿐이지 살인을 즐기지는 않는다. 물론 커터 칼을 들고 "피, 피를 마시고 싶다!"라며 혼자 중얼거리는 걸 몇몇 든 중2병 환자들은 아니다. 이쪽은 콘셉트집이 아니니까, 오히려 새초롬한 얼굴로 길을 가다가 차에 밟힌 비둘기나 고양이 시체를 보며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자. "어제 우리 강아지가 죽었어"라고 침울하게 얘기해보자. "그것 참 안됐구나"가 아니라 "어디에 묻었는데?"라고 되묻는다면 네크로파일 확정.



고대인들의 취향도 참 특이하다.

**Edward Smith**  
국적: 미국  
애인: 바닐라(폭스바겐 비틀)  
첫 경험: 15세에 이름 모를 남의 자동차와  
특이 사항: 인간과 섹스 경험이 있음



내 사랑 헬기야, 귀여운 헬기야, 부비부비

## → 기계 덕후 에드워드 스미스(1950~)

인간에게서 성욕을 느끼지 못한다는 그는 이미 15세 때 자동차와 남부럽지 않은 첫 경험을 치렀다. 그렇게 종각 딱지를 댄 그는 눈을 넓혀(?) 다른 기계를 하나씩 범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는 역대 최고의 섹스 파트너로 미드 <에어울프> 시리즈의 주인공 헬리콥터를 꼽았으며 몇 년 전에는 도쿄쇼에 출연해 "사실 내가 범한 기계는 대부분 남의 것이었다"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걸 강간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도로교통법 위반인가.

→ 미친 로리콘  
이안 왓킨스(1977~)

영국의 유명 록 밴드 '로스트 프루벳츠'의 보컬인 그는 2012년 12월, 13세 이하의 여아와 성관계를 맺어 아동성범죄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에 팬들은 멘탈 붕괴에 빠졌으나, 이후 추가적으로 그가 1세 영아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팬들은 거의 혼돈의 카오스, 멸망의 디스트릭션에 빠졌다. 이 미친 작자는 소아 성애 증후군 중에서도 특히 0~3세 영아를 밝히는 '인판토피리아(Infantophilia)'가 아니었나 싶다. 이에 비하면 교영육은 양반이라고 해야 하나...

→ 진단  
소아 성애 증후군(Pedophilia)



소아 성애 기호증, '로리콘' 내지는 '소타콘'으로 부르는 증상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선호하는 연령별로 부르는 증상이 각기 다른데, 여차피 개쌍X 소리 듣는 건 마찬가지지

굳이 언급할 가치도 없다. 그리스 귀족들의 소년 성애 등 꽤나 역사가 깊은 성 도착중세지만, 현대에 와서 행동으로 옮겼다가 그냥 아동 성범죄 쓰레기. 이런 심리가 나타나는 이유는 어린 아이들을 저항 의지가 없고 때론 지 없는 순수한 상대로 보기 때문이라고.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을 페도파일이라 부른다. 그런 명칭 알 바 없고 그냥 약질 쓰레기 새끼들이지.



어린 애들이 좋아하게 생겼다.

5

Ian Watkins

직업: 록 밴드 보컬  
데뷔: 1995년  
별명: 미러보이(번역하면 거울왕자 썸 되려나)  
특이 사항: 디자이너 경력

⚠ 내 주변에도 비슷한 사람이?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남성들의 본능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물론 그렇다고 김연어나 손연재를 좋아한다고 해서 페도파일로 돌아갈 순 없는 법이다. 에디터 지인의 어떤 군 선임처럼 씨지방에서 <어린이 모델 선발대회> 참가자들을 보며 허약대는 인간을 발견한다면 조심하자. 특히나 이들은 어린이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뽀로로>나 <로보카폴리>같은 최신 트렌드를 꿰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 잉여들 사이에서 화제였던 로리콘 공평이 페도베어. "잘 때 널 보고 있어"라는 캐치프라이즈가 인상적이다.



→ 진단  
기계 기호 증후군(Mechaphilia)

생명이 없는 기계에 성욕을 느끼는 증상. 주로 비행기, 헬리콥터, 자동차, 모터사이클 등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정신분석학의 대가 예리히 프롬은 이 증상을 생명이 없는 대상에 대한 기호증이라는 측면에서 일서 소개한 '네크로필리아'의 일종으로 취급하기도 했다. 앞으로 자동차 동호회 사람들의 지나친 '애매' 타령이 조금은 수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 내 주변에도 비슷한 사람이?

은갖 기계의 모델명을 죄다 꿰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유심히 살펴보자. 마니아와 오덕후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하듯, 기계 덕후와 메카필리아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어느 날 "집에 좋은 거 받아놔"라며 함께 보자고 꼬시는 그를 벽천 마음으로 좇아간 당신, 곧이어 모니터에서 <트랜스포머>가 재생되고 있다면 말없이 빠져나오자. 타고 온 자전거는 반드시 챙겨서 말이다.

왜, 나 보면 흥~ 가나?



이들에게는 탑기에도 아동증 되려나...



# Sex in the Shadow



## 원샷 22킬의 실베스터 마투스카 (1892~1931)

헝가리의 기계공학자 겸 학살자. 그가 학살자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한탕(?)에 생겨나는 사상자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이다. 주로 고의적 열차 탈선을 유도해 사고를 일으켰는데, 언론은 분명 이런 형태의 범죄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거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검거된 마투스카는 "차가 뒤집히고, 사람들이 죽고 비명을 지르는 게 좋아서 자질렀다"라고 증언했다. 석방 이후 증적을 감췄는데, 향간에 떠드는 소문으로는 한국전쟁에 공산당 폭발을 전문가로 참전했다나 뭐라나. 기계공학 배워서 여기저기 잘 써먹는구나.

## 진단 재난 기호 증후군(Symphorophilia)

대 참사를 보고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후군. 지진, 해일, 화재 등과 같은 자연재해 뿐 아니라, 교통사고나 비행기 추락사고 등의 문명 재해에도 흥분한다. 가락 성욕의 일종으로 단순히 사고를 좋아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대량 살상에 흥분을 느낀다. 따라서 재산 피해보다 사상자 수에 더 관심을 둔다. 혼자

조용히 사건사고를 보며 흥분한다면야 대외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항상 실천하는 병신들이 있어서 문제다. 피해자들이나 유가족들에게는 그야말로 천하의 개새끼요, 민약의 근원.



**!** 내 주변에도 비슷한 사람이? 이런 성 욕구를 실천으로 옮기려면 대가리에 든 게 좀 있어야 한다. "무궁화호의 X구역 통과 시간을 RPM으로 계산했을 때, 여기에 Y의 질량을 가진 물체와 바퀴가 부딪힐 경우 발생하는 충격 Z를 구하면 F=ma에 따라..." 이번 류의 계산이 가능한 자들은 이공계생뿐이다. 그러니까 유독 자연재해에 관심이 많고 재난 영화를 즐기는 '이공계생 친구'를 멀리 하면 된다. 왜 처벌하느냐? 문과생들이 아무리 글 쓰고 말 잘하고 해봤자 마법은 못 쓰잖아.

수확이라는 건 포기하려고 있는 거다. 독한 자식들!



### Szilveszter Matuska

직업: 기계 공학자  
살인 인원: 22명(1931년)  
비이토르바지 열차 탈선 사고  
주 무기: 폭탄  
특이 사항: 한국 전쟁 참전 경력



## 맨날 이런 영화나 보니까 그렇지!

뭔 소리냐고? 범죄는 무조건 게임이나 영화 탓 아니었어?



### 킹밍 순(Coming Soon)

태국, 2008년  
질식 도착중 환자를 위한 '조르논' 영화 포스터부터 후덜덜한 포스를 자랑하는 이 타이 공포 영화는 영화 촬영 중 목매디는 장면을 촬영하다 진짜로 죽어버린 배우의 비극적 이야기다. 물론 신파극 따위는 전혀 없고, 시종일관 백내장이 있는 여배우 귀신이 주인공을 쫓고 쫓는 장면으로 가득하다.  
**흥분 포인트**  
영화 후반부에 주인공 귀신의 과거가 드러나며 목매단 장면을 반복 촬영하는 장면이 백미.



### 텍사스 전기톱 연쇄살인사건 (Texas Chainsaw Massacre)

미국, 2006년  
**쾌락 살인을 꿈꾸는 정신병자를 위한 살육 영화** 생양이치 10대들이 놀러 가다가 살육을 당한다는, 뻘해도 너무 뻘한 슬래셔 무비. 하지만 제이슨, 프레디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레더페이스의 톱파워는 살인을 꿈꾸는 자들에게 <아저씨>의 원인이거나 다름없지!  
**흥분 포인트**  
살인마와 주인공이 빨래가 널린 앞마당을 질주하는 추격 장면. 결국 다리가 썩고 질리는 장면이 압권!



**Russell Williams**

국적: 캐나다  
 직업: 군인(대령)  
 경력: 엘리자베스 2세, 필립 왕자 호위  
 특이 사항: 이중 생활

8



낮에는 이렇게 믿음직하던 그가...

밤에는 이렇게 린제리의 요정으로 돌변한다.

→ **슬립과 브리를 즐겨 입던 러셀 윌리엄스(1963~)**

남성다움의 상징이며 신뢰로 뚝뚝 뚫힌 공군 사령관이 실은 의상 도착증 환자라면 어떨까. 2010년 캐나다의 최대 공군 기지 트런던의 사령관 러셀 윌리엄스는 성 도착증으로 인한 여성 살해 및 강간죄로 체포되어 종신형 선고를 받았다. 낮에는 군의 족명받는 인재로 살다가 밤이 되면 브리와 슬립으로 무장한 채 강간을 치지르고 다녔기 때문이다. 셀프 캠으로 찍은 듯한 그의 속옷 착용 사진이 심히 혐오스럽다. "주님, 혐오스러운 변태가 되는 걸 허락해주세요."

→ **진단 의상 도착 증후군 (Transvestic Fetishism)**

이성의 옷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후군. 단순히 이성의 옷이나 속옷 등을 훑치거나 수집하기도 하고, 심하면 직접 입는 '크로스드레싱'이 된다. 하지만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트랜스젠더는 이성의 옷을 입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지만, 그것만으로 성적인 흥분을 얻지는 않는다. 물론 남성 여자는 보이시하고 귀엽지만, 여성 남자는 천대받는 게 현실이니 웬만하면 참아주는 게 좋겠다.



**!** **이런 사람을 조심하자**  
 의외로 여성에 취미가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보면 '여성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 카페가 나오는 것을 보면 생각보다 이쪽에 취향이 있는 사람이 꽤 많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몸매도 어지간한 여자 뺨치게 예뻐서, 게시글에는 어떻게 한번 해보려는 공유들의 리플이 엄청나게 달려 있다. 혹시 우습게 생각하고 호기심에 이쪽 분야를 기웃거리다가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심하자.



→ 수많은 남성들의 성 정체성을 흔들고 입대(?)해 버린 DC 와갤러, 박모 군



**트랜스포머(Transformers)**

미국, 2007년  
**기계 기호증 환자를 위한 섹시 배우 총 출동!**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자 성인에게는 추억을 새록새록 떠오르게 만든 최첨단 그래픽의 변신 로봇 영화. 하지만 기계 기호증을 가진 자들에게 SOD와 PRESTIGE의 최고 여배우들이 모여 강행을 하는 최신 AV처럼 느껴질 거다. 게다가 3D라니!  
**흥분 포인트**  
 크고 아름다운 옵티머스 프라임의 초반 변신 장면. 아아. 트레일러로 가버렸!



**2012**

미국, 2009년  
**재해를 사랑하는 당신에게는 둘도 없는 멜로영화**  
 <인디펜던스 데이> 같은 재난 영화의 대가 롤랜드 에머리히 감독의 작품. 온 지구가 멸망하는 스케일 절정의 재난 영화다. 2012 마이인의 달력에 예견된 지구 멸망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지만 2012년은 그렇게 무사하게 지나갔다. 분명 아쉬워한 사람이 있었을 거야.  
**흥분 포인트**  
 존 쿠삭이 탄 리무진이 모래성 무너지듯 붕괴하는 도시를 휘젓는 장면 더 무너져 데!!

MAXIM From Indonesia



# She's on Fire! Yasmine Wildblood

인도네시아의 인기 드라마 <구디투슈즈>에서 못 남성들의 심장을 조였다 났다를 반복했던 미모의 히로인 야스민 와일드블러드. 그녀가 MAXIM 촬영장에 불을 질렀다! 당신 가슴에도 불길의 옮겨불을 테니 조심해!



그녀의  
출연 작품  
옛보기



“  
서로 살짝 취해 있을 때야말로  
최고의 순간이다.  
”



**정말 화끈한 촬영이었다. 맘에 드나?**

기대보다 정말 멋지게 사진이 나온 것 같다. 아주 짜릿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뜨거운 촬영은 난생처음이다.(웃음)

**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면 어쩌나 걱정 많이 했다.**  
없다. 앞으로도 없을 거다. 걱정마라.

**요즘은 뭐 하고 지내나?**

촬영으로 바빴는데 최근에 끝났다. 드라마를 마무리하고 나니 휴가를 가고 싶어졌다.

**MAXIM 인도네시아판 커버 걸로 낙점된 소감은?**

MAXIM 섭외가 들어왔다고 하니 주변에서 다들 너무 좋아하더라. 오히려 나는 약간 자신이 없었는데.

**당신에게 섹시함이란 무엇인가?**

옛지있고 쿨한 모든 것. 하지만 포르노는 아닌 것.

**누드 화보 촬영을 제의받은 적이 있나?**

없다. 아무도 제의를 안 하던데? 드라마에서 착한 역할만 해서인가? 물론 나도 찍을 계획은 없다.

**격하게 좋아하는 게 있다면?**

욕심이 많아서 뭐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다. 여행도 자주 가는데 최근에는 두바이에 다녀왔다.

**요즘 새로 쏘는 취미 생활이 있다면?**

먹고 자고 영화 보는 것. 하하하. 그게 전부다.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나?**

드라마, 코미디, 액션을 좋아하지만, 호러는 별로 즐겨보지 않지만 가끔 기분 전환으로 보기도 한다.

**주로 뭐 하고 노나?**

그냥 친한 친구들과 함께 모여 노는 게 최고다.

**맥주도 한잔하면서?**

가끔은 술을 마신다. 그런데 내 음주 취향은 상당히 여성스러운 편이라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니다.

**같이 마시던 사람이 만취하면 좀 귀찮지 않나?**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서로 살짝 취해 있을 때야말로 최고의 순간이지!

**당신을 꼬시려면 어떤 음악을 준비해야 하나?**

뭐든 상관없다. 참고로 난 콘서트에 열광한다.

**혹시 콘서트라면 모가지 끊어져서 머리를 흔들는 헤비메탈을 말하는 건가? 눈 막 풀리고 가끔 침도 좀 흘려주고?**

(웃음) 그런 쪽 취향은 아니다. 나는 폴아웃보이나 굿 샬럿, 케이티 페리의 음악을 좋아한다.

**이것도 인연인데 MAXIM에 입사할 생각은 없나?**

만약 MAXIM 에디터가 된다면 유명인을 인터뷰해 보고 싶다. 하지만 질문지는 당신이 써주면 좋겠다. (웃음) MAXIM은 정말 재미있는 집이지만, 난 지금 내 일에 만족한다.

**실생활에서 연기를 써먹어본 경험이 있나?**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봤다. 내 남자친구를 연기로 속일 생각은 더더욱 안 해봤다.

**어떤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나?**

마룬파이브의 보컬 애덤 리바인 같은 스타일을 좋아한다.

**몸에 문신이 있다던데, 어디에 있는지 좀 보여달라.**

뒷덜미와 엉덩이 아래 그리고 갈비뼈 쪽에 있다.

**당신 몸 중에서 가장 섹시한 부분은?**

다리가 예쁘다. 상체보다 슬림해서 아주 마음에 든다.

**최근 친구에게 친 가장 못된 장난은 무엇인가?**

친한 친구에게 경찰이라고 속이고 장난 전화를 걸곤 했다. 얼마 후 친구에게 경찰 공포증이 생겼다. 대체 평소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마지막으로 MAXIM에게 한마디.**

고생 많았다. 화보가 벌써부터 너무 기대되는데? 

**MAXIM From Indonesia**





“  
원초적이고 쿨하면  
뭐든 다 섹시하다.  
”



야스민 와일드블러드

태어난 곳

영국 런던

출연작

Love Bodyguard

I Love Not Call Laura

Goody Two Shoes

그녀는 이런 걸 마셔

매캘란(Macallan), 위스키, 녹차

귀찮은 작업남을 물리치는 방법

남자: 혼자 왔어요?

야스민: 됐어요.

남자: 수고하세요.

트위터

@yaswildblood



PHOTOGRAPH Robby Agus WORDS Deta STYLING Freddy Martin HAIR&MAKEUP Utte



초강력 권총 액션



## 작은 살인 병기 최강의 핸드건 TOP 5!

호신용으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권총은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근접 전투용 무기이다. 현대에는 소총에 가려져 일종의 보조 무기로 전락했지만, 사거리에 따라서는 소총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무시무시한 녀석이다. 우리의 영원한 이상 주윤발 역시 자동권총과 중국 무술을 결합해 전례 없는 현란한 총격 신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번 호에서는 그 추억을 살포시 떠올리며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권총 5정을 소개하려 한다.



### No.5 007 제임스 본드의 권총 월터 PPK

파워 ★★★★★ 정확도 ★★★★★  
반동 ★★★★★ 인지도 ★★★★★  
무게 590g / 길이 155mm / 총신 길이 83mm / 사용 탄약 7.65x17mm(브라우닝 SR/ 32 ACP) / 탄창 7+1발

#### 007의 성은 입을 베스트셀러

독일의 월터 사가 1931년부터 생산한 PPK는 경찰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권총이다. PPK는 출시 당시부터 '작지만 매운 공휴'처럼 작고 아담하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해 많은 인기를 얻었다.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는 독일군과 경찰이 애용했으며, 친위대원들과 나치당 간부들도 PPK 권총을 선호했다. 그러다 결국 1962년에 영화 007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 <살인 번호>에서 주인공 제임스 본드가 사용하는 권총으로 캐스팅(?)되어 초대박을 터뜨린다. 깔끔하고 미려한 디자인은 질생기고 신사적인 제임스 본드의 이미지에 잘 어울려 멋진 인상을 남겼고, 이후 볼티나 라이터 팔리트 팔리나가 500만 정 이상이 제작되기에 이르렀다.

## SKYFALL

007

NOVEMBER 9



월터 PPK는 제임스 본드의 트레이드마크다.



  
**김대영**  
 군사 전문가,  
 10여 년간 국방 관련  
 언론계 종사,  
 월간 <디펜스 타임즈  
 코리아> 편집 위원.



전장의 무거운 공기가 느껴진다. 적인가...!

여기 아니란대 철수하재



내 우유!!  
내 우유 누가 먹었어!!

진정하게나!

어린 시절 BB탄 총의 대명사였던 베레타



조금 더 현대적인 을 블랙 버전

**No.4 미군이 선택한 이탈리아 권총 베레타 M9**

파워 ★★★★★ 정확도 ★★★★★  
 반동 ★★★ 인지도 ★★★★★  
 무게 952g / 길이 217mm  
 총신 길이 125mm  
 사용 탄약 9x19mm 파라벨럼 / 탄창 15발



**예상치 못한 인기, 그리고 불명예**  
 PPK 권총은 실제로 동서 간의 치열한 첩보전이 벌어졌던 냉전 시기에 많은 정보기관에서 사용되었다. 적당한 화력과 인기 덕분에 주로 첩보원들이 사용했지만, 그 인기가 역사에 긍정적인 결과를 낳은 것만은 아니었다. 히틀러의 자살에 사용되었으며, 10·26 사건 당시 김재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하는데 사용되기도 했다. 결국, 음지를 지향하는 정보기관에서 많이 사용했던 만큼 PPK 권총은 어두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다.

**콜트의 대타로 데뷔한 베레타**  
 1970년대 미군은 자신들이 쓰고 있던 콜트사의 M1911A1 권총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는 9mm 파라벨럼탄을 권총 탄약으로 선정했고, 이에 맞춰 회원국들은 9mm 파라벨럼탄을 사용하는 자동권총을 선정하게 된다. 결국, 미군도 1980년부터 신형 제식 권총을 선정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사업에 세계 유수의 총기 제작 업체들이 뛰어든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 끝에 이탈리아 베레타 사의 베레타 92SB-F가 선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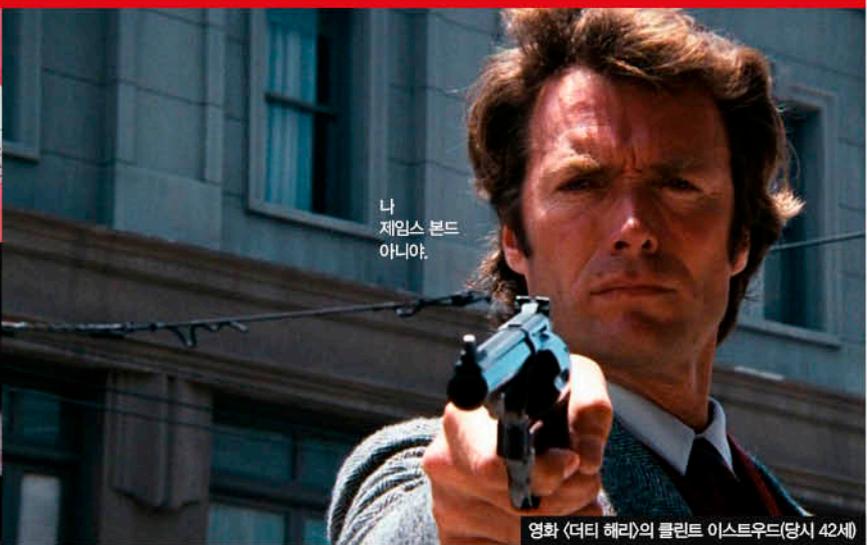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베레타 사**  
 사실 베레타 사는 1526년에 세워진, 400여 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총기제작회사다. 이탈리아군의 각종 제식 총기들을 생산하는, 산탄총으로 유명한 베넬리 사도 베레타의 계열회사였을 정도니까. 처음 미군이 92SB-F를 채택했을 때는 내구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잠깐 위기를 겪긴 했으나, 이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M9이라는 제식 명칭을 받게 된다. 이어 베레타 M9 권총은 1990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 50만 정이 넘게 생산되는 베스트셀러로 재탄생하게 된다.

# Military



서부 영화가 떠오르는 리볼버의 고전풍 디자인

아!!! 뜨거!!!



나 제임스 본드  
아니야.

영화 <더티 해리>의 클린트 이스트우드(당시 42세)

## No.3

### 육혈포라 불리는 권총 리볼버 (Smith&Wesson Model 10)

파워 ★★★★★ 정확도 ★★★★★  
반동 ★★★★★ 인지도 ★★★★★  
무게 907g(4인치 모델)  
총신 길이 51~150mm  
사용 탄약 38 롱 콜트, 38 스페셜, 38/200  
탄창 6발

수동에서 자동으로, 리볼버의 혁명  
최초의 리볼버 권총은 오늘날과는 차이가 있었다. 18세기 중엽까지는 탄환을 격발시키는 격발장치와 리볼버의 전매특허라고 할 수 있는 회전형 탄창까지 일일이 전부 손으로 회전시켜야만 했다.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없어 보이는' 불편함을 없애고자 새뮤얼 콜트가 회전형 탄창이 자동으로 돌면서 격발되는 리볼버를 만들어 낸다. 1844년에는 텍사스 레인저 대원 10명이 이 신형 리볼버로 80명의 코만치 인디언과의 교전 끝에 절반을 사살하고 다치게 하면서 그 위력을 인정받는다. 당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스미스&웨슨 모델 10의 경우에는 약 6백만정이 생산되기도 했다.

#### 가는 세월은 잡을 수 없지

1971년 개봉한 영화 <더티 해리>에서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스미스&웨슨 모델 29를 들고 나와 사랑을 받았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주인공 캘러한 형사의 이미지와 맞아 떨어지면서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으나, 리볼버의 수명은 거기까지였다. 자동권총이 점점 세력을 키워 가면서 리볼버는 조금씩 설 자리를 잃어가기 된다. 미국의 경우 범죄가 심각해지고 자동권총의 성능이 일취월장함에 따라 리볼버를 애용하던 사법기관도 서서히 자동권총으로 돌아서게 되었으니까. 하지만 그 매력을 잊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경찰들은 아직도 리볼버를 애용하고 있다.



탄피 수거 다 못하면  
집에 못 간다.

## No.2

### No.2 미국의 자존심 콜트 M1911

파워 ★★★★★ 정확도 ★★★★★  
반동 ★★★★★ 인지도 ★★★★★  
무게 1,105g / 길이 210mm / 총신 길이 127mm  
사용 탄약 45ACP(11.43mm) / 탄창 7발

#### 천재의 손길이 닿은 작품

MAXIM에서도 소개한 바 있는 천재 총기 설계가, 총포의 아버지 존 브라우닝의 손길이 닿은 권총. 역시 그 명성답게 제1차 세계대전을 시작으로 이라크전에 이르기까지 100여 년 넘게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9mm 파라벨럼탄 자동권총이 대세인 미국의 권총 시장에서도 45ACP탄을 사용하는 M1911 권총은 여전히 독보적인 존재다. 특히 내로라하는 유명 총기 회사들까지도 신제품 대신 M1911 권총을 개량해 다시 생산하고 있다.



### 권총 시장의 스테디셀러

M1911권총이 미국에서 유달리 인기를 얻는 이유는 거기에 사용되는 45ACP탄과 연관이 깊다. 1899년에서 1902년까지 4년 간 미국과 필리핀이 치른 전쟁에서 미군은 38 롱 콜트 탄을 사용하는 M1892 리볼버 권총을 사용했다. 하지만 김병만도 살아남기



힘든 정글이라는 전장 환경에서 원주민들을 상대하기에 38 롱 콜트 탄의 지지력은 몹시 시원찮았고, 결국 미군은 높은 지지력을 가진 45ACP탄을 선택하게 된다. 그 덕에 지금도 일부 미군 특수부대는 M1911 권총을 선호하며, 우리 군에서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작품답게 장난감 같은 모습, 무게도 상당히 가볍다.

## No.1 오스트리아에서 만든 플라스틱 공구(?) 글록(GLOCK 17)

파워 ★★★★★ 정확도 ★★★★★

반동 ★★★ 인지도 ★★★★★

무게 625g / 길이 186mm

사용 탄약 9x19mm 파라벨럼 / 탄창 17발

### 해성같이 등장한 신예

글록을 만든 동명의 제조업체 글록 사는 원래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던 업체였다. 이런 글록 사가 군용품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였다. 이 당시 글록 사는 수류탄 케이스, 군용 나이프, 삽 등의 군용 제품을 제작할 뿐이었다. 글록 사는 오스트리아 육군의 신형 권총 선정 사업에 뛰어들었고 18개월의 시간 동안 9mm 파라벨럼탄을 사용하는 글록 17 권총을 개발해 당당히 채용된다. 이 사건은 대단히 보수적인 총기 업계에서 일대 사건으로 남아 있다.

당대 최고의 자동권총들이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정체불명 권총에 나가떨어진 것이다.

### 권총의 대명사가 되기까지

이후 글록 사는 미국으로 눈을 돌려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시작한다. 하지만 권총에 있어 이름 못대가 높았던 미국인들에게 글록은 그저 장난감에 불과했다. 물론 그것도 잠시, 할리우드 영화에서 곧 주인공들이 글록 권총을 들고 날아다니면서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했다. 뛰어난 성능과 적절한 가격까지 갖춘 글록은 민간 시장뿐만 아니라 사법기관, 경찰에게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결국, 미국 경찰 총기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글록은 미국 권총 시장의 주류가 되면서 '글록'이란 단어 그 자체가 권총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다.

## 초특급 권총 액션!

이 정도는 쏘 줘야 포상휴가 나온다.



### 영웅본색

쌍권총 누아르 액션의 원조. 어릴 땐 성냥개비를 입에 문 주유발이 왜 그리도 멋져 보였는지 즐겁게 회식하고 있는 악당들의 림 문을 쫓히자마자 쌍권총으로 뜨겁게 안부를 묻는 장면이 몹시 통쾌하다. 뜨겁게 뜨겁게 안녕함~



### 이퀄리브리엄

크리스찬 베일이 트리플 악셀에 백 덤블링까지 하며 총을 쓰는 장면이 굉장히 멋지다. 하지만 악당들은 너무 오바했다. 아무리 영화라도 그렇지 수십 명이 소총을 들고 있는데 주인공 하나 못 잡고 줄 서서 죽는 게 말이 돼?



### 새도우맨

숲 속을 도주하던 스티븐 시걸은, 들켜지 않을법한 곳에 차를 두고 걸어 나와 헬기와 1:1을 뜨기로 작정한다. 그리고 하늘에 대고 땡! 땡! 하는데 헬기가 추락도 아니고 공중에서 폭발해 버린다! 아, CG 진짜 허접하네!

# Party



★the

# MAXIM UFC Party★

: 2013.2.15

미녀와 야수의 밤은 이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이날 파티엔 멋지게 차려입은 코리안 좀비가 나타났다.



파티장 입구에 설치된 포토월에선 서로 MAXIM 탈을 쓰겠다고 욕심각심하는 스태프들의 경쟁이 치열했다. 이렇게 예쁜 그녀들이 웃으며 자등으로 품에 폭폭 안기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잡지는 MAXIM, 클럽은 OCTAGON이라는 말이지? 지난 2월 15일, 밸런타인데이가 하루 지난 금요일, 영화 <토이 스토리>에서 불이 꺼지면 살아 움직이던 장난감처럼, 밤이 다가오자 클럽 옥타곤도 점점 활기를 얻기 시작했다. 이번 파티에 대한 입소문이 대체 어디까지 퍼진 건지, 수직은 그야말로 쉬리만 살 것 같은 1급 청정수였다. 가뜰이나 이리따운 처자들이 오늘을 위해 특별한 드레스를 입고 공들여 화장을 했다. 그야말로 무릉도원이었다.

# Party



이번 MAXIM파티는 UFC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특별한 볼거리가 많았다. 화려한 LED 조명 아래에서 파티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가던 무렵, 아수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게 느껴졌다. 강예빈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한국인 옥타곤 걸로 선정된 이수정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미녀가 있는데 아수가 빠질 수 있나? 그녀가 진행하는 UFC 퍼포먼스에 깜짝 등장한 사람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최강의 거친 남자 UFC 파이터 정찬성! 스테이지에서 펼쳐진 코리안 좀비의 나극, 원투펀치 시범에 남자들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고, 여자들은 환호성을 보냈다. 오빠 멋제!





새벽 두 시, 사람들의  
아수성이 깨어나기 시작한  
시간이었다. 스테이지에는  
짜이 없는 남녀들이 눈빛을  
주고 받으며 커플로 핵융합  
되었고, 이미 커플인 자들은  
임수 서로 정답게 몸을  
부벼 댔다. 라운지에는  
밸런타인데이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커플들의  
화끈한 애정행각이 끊이질  
않았다. DJ KOO가 달아오른  
분위기를 한껏 불입시켰고,  
모두가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술을 들이켜고  
몸을 흔들었다. 2013년 첫  
MAXIM PARTY의 시작은  
이렇게나 화려했다. 제대로  
놀 줄 알던 미녀와 야수들,  
다음 MAXIM PARTY에서 또  
보자구! 🍷



광란의 밤  
홈쳐보기



여기서 핵융합 하시면 안 됩니다.



# Party

## Veronica Party in CLUB VERA

뽕뽕 터지는 음악, 새끈한 DJ가 믹스하는 일렉트로니카에 정신 나간 채 몸을 흔들다 보니 어느새 척추 위치가 바뀌어 있더라.

영상 보며  
골반 털자



DJ KOO, 하우스몰즈, 비트버거 등 국내 최고의 아티스트와 함께한 홍대 클럽 베라의 '베로니카 파티' 시즌 2가 시작되었다. 첫 아티스트는 강남, 홍대 클럽씬과 국내 일렉트로닉 페스티벌 씬에서 짝다리 좀 짚는다는 초섹시 모델 겸 여성 DJ 림지다. 무대를 봐도 미녀, 주변을 봐도 미녀, 여기저기에 미녀가 풍년일세!





## Editor's Tip

클럽에서 나를 기억시키는 멘트

- 남: 저기요, 여기 미성년자 못 들어와요.  
 여: 네? (대부분 여기서 부채질하며 무시한다)  
 남: 저 경찰이에요, 잡으러 왔어요. (손 잡으면서)  
 여: 저 미성년자 아니에요.  
 남: 몇 년 산이신데요?  
 여: 풀! 뭐예요, 제가 흥심이에요?  
 남: 흥심보다 더 귀한 것 같은데요. 축하하하하!



### DJ 림지

본업인 그래픽 디자이너에 각종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Dog-Necklace라는 인디밴드 활동까지 하는 여성 DJ. 뛰어난 미모와 화려한 퍼포먼스에 못 남성 클러버들이 바지를 적신다고.

## DJ 림지를 만나다

###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가?

디제잉할 때는 일렉트로닉 하우스를 좋아하지만, 평소에는 모던 록이나 칠아웃, 보사노바, 인디 음악을 많이 듣는다.

### 어떤 클러버가 가장 꼴 보기 싫은가?

술에 잔뜩 취해서 "이 음악 틀어달라, 저 음악 틀어달라"며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 몸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취해 여기저기에 시비 거는 사람은 더더욱 최악이다.

### 클럽에서 멋진 남자가 되려면?

클럽에서 달한 마음으로 있는 것도 꼴볼견이다. 팔짱 끼고 서서 즐기지 못하는 사람도 꽤 많다. 분위기와 음악을 느끼며 좋은 사람들과 신나는 시간을 보내는 남자가 멋진 것 같다. 물론 스타일까지 좋다면 최고!

### 클럽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음란 동영상 촬영이나 픽업아티스트 같은 불건전한 의도로 클럽에 오는 사람들 때문에 시선이 곱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 찾아온 사람에게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애쓰는 스타프나 디제이, 클럽씬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도 있다. 무조건 나쁘게 보지 말고 유익한 접점을 볼태우며 음악을 즐기는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절었을 때 누구보다 즐겁게 노는 것도 필요하니까! 🍷

진짜로 이런 전역 선물을 나라에서 준다면 참 좋을 텐데...

# 전역자 우대 MAXIM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제대가 까마득한 전국 군바리의 부러움을 사고 싶지 않나? 민간인으로 복귀한 후 사바세계를 즐기는 티를 팍팍 내고 싶은가? MAXIM에 전역 신고 하면 정기 구독을 평생 30% 할인 받고, 후임들에게 MAXIM 1년치를 선물할 수 있다. 덤으로 멋진 시계를 받는 행운까지 누리보자. 어서 신청하러!

간첩 신고는 113,  
전역 신고는  
MAXIM으로!

## 신청 자격

전역 후 3개월 이내의 꿈과 의욕 충만한 예비역

## 신청 방법

1. www.maximkorea.net 접속
2. Board에서 '전역 인증 게시판' 클릭
3. 본인의 전역증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4. 전역증 확인 후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특별우대권'이 발급된다.
5.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전역 인증 게시판' 이용 안내를 참고하도록!

전역 인증  
게시판  
가기



오직  
전역자만을  
위한  
대박 혜택 3

# 30%

**하나.**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당신 할아버지가 월남 참전 용사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국가유공자급  
혜택이 주어진다!



**둘.** 군 생활 까마득한 자대 후임들을 위해  
당신 이름으로 선물을 보내준다!  
당신이 머물던 자대 내무실로  
MAXIM 과월호 12권을 무료로 쏜다!



**셋.** 전역 자랑질이 뛰어난 신청자 2명에게  
멋진 '헬다이버' 손목시계를 증정한다!  
아오, 손목에서 간지가 막 그냥 폭발하네!  
(~2013년 3월 20일까지)

# 전역사랑겔



**고대혁** 평생 30%

안녕, 형이야. 이놈들이, 평생 못 잊을 추억을 짚서 고맙다. 정말 전역하고 싶었는데 나오니까 마냥 좋지는 않고 더 힘든... 건 페이크고 존나 좋다. 전역중만 가지고 다니면 다 뽕 가는데? 형이 시계 그까짓 거 받으려고 이러는 건 아니야. ㅋㅋ 흑하긴 하지만 너희 개인정비시간을 성스러운 맥심으로 덮어주기 위해서 영웅이 돼 보련다.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 사람인 거 알지? 모두 건강하고 사랑합니다. 638 화이팅!



**오원찬** 평생 30%

애들아, 밖에 나오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힘 내고, 관형이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형들이 응원해 줄 테니까 힘든 거 있음 바로 바로 얘기해!! 사랑한다 애들이!!



**이태준** 평생 30%

아이고~ 구년남들! 나라 지키느라 수고와 많으십니다. 덕분에 매일매일 한량처럼

잘 놀고 먹는다 애들아, 우리 부대가 또 워낙 조국을 수호하는 데 힘써줘서 맥심 정기구독을 보내줘도 못 볼테니 아쉬워들 말고 잘 받아서 4사소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렴~



**김창종** 평생 30%

작년에 별로 안 추웠는데, 요번

년도는 무조건 영하 25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30~40도더라. 추운 날씨에도 근무 서느라 고생들 많다. 전방에 너희가 있어 내가 밑에서 열심히 놀 수 있단다. 나의 직속 분대 자동차 정비병들도 작업할 때 몸조심하고 특히 슬벤트, 추운 날씨에 무리하면서 작업하지 말고, 대한민국 육군 장병들, 간부들도 힘내시고 건강이 최고니깐 건강 잘 챙겨라.



**임용한** 평생 30%

애들아, 나 진짜 전역 했다? 전역하고 아직도 알뜰알뜰하네. 부대 안에 있을 때만 해도 MAXIM

하냐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이번 달에는 어떤 차자가 나와 이 해병의 마음을 흔들지 기대했는데 말이다. 우리 해병대 최강공수부대 들소들이, 힘들더라도 견뎌라. 그게 더 짜릿할 거다. 즐지 말고 덤벼라



**임재성** 평생 30%

내 맞추임 중용야. 네가 어느새 전역을 했구나. 넌 막내를

9개월이나 했기에 내가 항상 아꼈어. 근데 1년 전 휴가 복귀 때 네가 맥심 2011년 10월호, 창간100호 특집 맥심을 사서 읽고 부대 앞에서 걸릴까 봐 버리고 들어왔던 사건이 기억난다. 짬이 없던 시절, 내 맞추임이 그런 만행을 저질렀을 때의 그 배신감!!! 이제는 다 추억이 됐구나. 고생했고, 너도 어서 인증샷에 인증해서 정기구독을 하도록 하여라~



**신기섭** 평생 30%

애들아, 열심히 생활해 언젠가 전역날이 올 거야.

밖에 나오니까 진짜 좋다! 이번 겨울에는 눈도 많이 와서 힘들겠지만, 좋은 추억이 될 거야! 화이팅!



**도성민** 평생 30%

군대 전역하니까 군대 있을 때가

좋은 거 같더라. 근데, 밖에도 나쁘진 않아. 다들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서 좋았고 몰래 몰래 MAXIM 둘러보는 재미도 있었는데 그치? 과월호 볼 수 있다면 꼭 재미있게 봐라. 몸 건강히 잘 지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 뿐이네.



**이재영** 평생 30%

후후 내가 복무하는 동안 군생활 편하게

한다고 뭐라고 했던 전우들이, 내 생각에 내 매우 힘들게 했다고 전역했으니 그냥 추억으로 남겨두마, 내가 있었으니 너희들이 PX를 편하게 다녔던 거 아니냐. 너희들도 빨리 전역하길 바란다. 아성!



**김도균** 평생 30%

벌써 제대한 지 3일이 되었지만 노가다만

하고 별로 실감이 안 난다. 지금까지 내가 맥심 사온 거 돌려봤는데 이제 누가 사오려나. 전역할 때 약속한 거 이렇게 지킨다. 너희끼리 보지 말고 2소대 애들이랑도 같이 봐라.



**이세온** 평생 30%

사랑하는 12중대 아이들아 나 먼저

나왔다. 쫘만 더 고생하자 좋은 날이 올 거야.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멋진 날이라 생각하고 힘내. 밖에서 기다릴게.



**김동환** 평생 30%

전역하기 전에도 했던 이야기지만, 부대는 그렇지

않아도 너희들은 참스럽다. 아직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직도 휴가 나와있는 기분이야. 어쨌든, 과월호이긴 해도 깨끗한 거 준다고 하니깐, 둘러보느라 막 화보 찾아진 그런 맥심 말고 A급으로 간부들 몰래 제대로 감상했으면 좋겠다 (3소대 친구들!). 전역하는 그날까지 32중대 화이팅!!! 3소대 화이팅!!!!



**최찬웅** 평생 30%

애들아, 내가 전역하면 맥심 정기구독

한다고 했지?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다. 하지만 과월호 패키지는 나의 것!!!! 우리부대는 맥심 반입이 안 되잖나. 어차피 중대 돌아보면 과월호 패키지 2년차 나오니까 괜찮지? 거기에 내가 기부한 것도 꽤 된다의 거 잊지 말아라. 고생 마이 해라. ㅋㅋㅋㅋ 화이팅!!!



**이보은** 평생 30%

전역한지 한참 된 것 같은데 일주일도

안됐다니. 앞으로 뭐할지 막막해, 사회가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군대가 오히려 더 편한 것 같네. 내일모레 직장 면접 있는데 4:1 이거는, 붙었으면 좋겠다. 후임들은 훈련장을 텐데 나만 속 빠져서 미안하고, 마지막 흑한기 행군까지 별일 없이 마치길 바래. 만약 맥심이 가면 너희들 군생활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

위 148명을 비롯한 총 115명의 용사들이 MAXIM에 전역을 신고하고 정기구독 평생 30% V까지 되었다.

# MAXIM BUYER'S EDGE



## 불가리 맨 익스트림 퍼퓸 출시

불가리에서 강인한 카리스마를 지닌 남성 히어로를 표현한 불가리 맨 익스트림 향수를 출시한다. 선인장 수액에 핑크 그레이프 후르츠 향과 화이트 프리지아 향을 배합해 상쾌하면서도 부드러운 남성의 향을 선사한다. 향수를 담은 보틀은 고대 로마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아 조각한 듯한 기둥 형상으로 만들어 근엄한 남성다움을 표현했다.

86,000원

금비화장품(080-990-8989)



## 로드FC, 올해 첫 대회에서 화끈한 한일전 준비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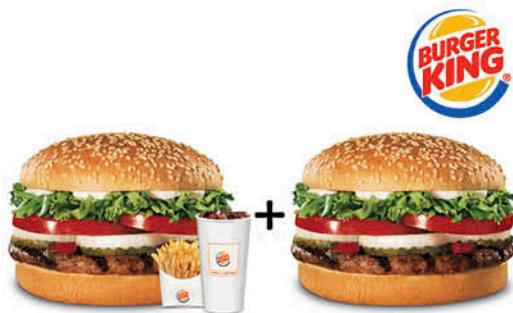
아시아를 대표하는 종합격투기 대회 로드FC가 오는 4월 13일(토) 2013년 첫 대회를 개최한다.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11번째 정규 대회의 메인 이벤트는 2010년 로드FC 첫 대회부터 꼭 5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남의철의 라이트급 토너먼트 결승이다. 상대 쿠메 타카스케는 일본의 신종 강자로 최근 9연승을 전부 서브미션으로 따내는 압도적인 실력의 파이터다. 둘의 화끈한 경기도 기대되지만 한일전 구도 역시 재미를 더한다. 또 이날은 프라이드와 UFC에서 쉼 라모 티에리 소쿠주, 일본의 베테랑 '괴짜 파이터' 미노와맨, 조제 알도의 동료로 UFC에서 활동한 루이즈 라모스 등이 출전할 예정이다.

로드FC(033-766-7666, www.roadfc.com)

## 맥주도 마시고 음악도 즐기는 신개념 헤어샵, 누팩트

여친따라 친구따라 미용실에 끌려와 죽치고 앉아있기 심심했지? 누팩트를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 헤어샵에 클럽 음악이 울려 퍼지고 펌과 카페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이만한 핫플레이스가 따로 없다.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승부함과 동시에 최고의 기술 실력을 자랑하는 원장님은 이미 입소문이 난 지 오래. 머리도 하고, 워닝도 하면서 펌의 자유로운 분위기도 즐기고 싶다면 꼭 한 번 방문해보길 바란다. MAXIM 독자들을 위한 특별 할인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이번 3월호 잡지에 있는 누팩트 할인 쿠폰을 오려가는 것도 잊지 말자. 단, 19세 미만은 출입 금지!

누팩트(02-463-3338, www.nufact.co.kr)



## 올 봄, 버거킹이 마구 쓴다!

버거킹이 2월 27일부터 4월 24일까지 와퍼세트, 불고기 와퍼세트, 치즈 와퍼세트, BLT 와퍼세트 구입 시 와퍼 단품 하나를 더 증정하는 WHOPPER Re-launching 프로모션을 펼친다. 추가로 제공되는 와퍼는 일행과 함께 방문해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되고, 혼자 가거나 추가 버거를 나중에 먹고 싶다면 원할 때에 사용 가능한 와퍼 키핑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여기 늘 먹던 걸로~ 참, 저번에 키핑한 불고기 와퍼세트 있죠? 그것도요.

버거킹(02-6331-8312)



## 소드걸스 TCG, 홈플러스 전 매장 판매 개시!

순수 국산 기술과 일러스트로 최고의 소장가치를 지닌 카드 게임을 소개한다. 바로 미소녀 트레이딩 카드 게임인 소드걸스 TCG! 못 남성들의 수집 욕구를 마구 자극하는 소드걸스 카드를 이제 전국 홈플러스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게다가 3월 31일까지 홈플러스에서 제품을 구매한 유저에게는 1+1 사은품을 증정하는 절호의 찬스도 마련되어 있다. 아직 소드걸스 TCG가 생소한 사람을 위해 초보자 대상 게임 설명회도 오는 4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기회에 소드걸스 TCG 매력에 푹 빠져보는 건 어떨까?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소드걸스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소드걸스 TCG(www.sg-tcg.com)



여자에게  
한번이라도  
고백받고  
싶어..

### 안경남의 성공적인 3월, 서울밝은안과와 함께해요!

화이트데이를 맞은 여자 친구에게 사랑보다 더 특별한 선물을 하는 건 어떨까? 시력교정술로 훈남이 된 당신의 모습이 그녀가 원하는 진짜 선물일지도 모른다. 그녀를 위해 안경을 벗고 멋진 모습으로 사랑 고백을 한다면 성공률 100% UP! 특별히 오는 3월엔 서울밝은안과에서 새학기 캠퍼스를 준비해 연애하고 싶은 사람, 군 제대 후 사회 복귀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더군다나 서울밝은안과는 간간한 에디터를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안과이기도 하다. 성공적인 3월을 위해 변신을 꿈꾼다면 MAXIM 에디터가 추천하는 서울밝은안과와 함께하자. 서울밝은안과(1566-0838, [www.yourlasik.co.kr](http://www.yourlasik.co.kr))



### 한국인 파이터 3인 동시 출전! UFC in JAPAN

아시아인 파이터 최초로 UFC 8승에 도전하는 김동현과 UFC 데뷔전을 갖는 강경호, 임현규 선수가 동반 출전하는 UFC in JAPAN이 3월 3일 일요일 오전 9시에 일본 슈퍼 아레나에서 펼쳐진다. 지난 UFC 마카오 경기 때 훈련 중 부상과 감염 중 탈진으로 데뷔전이 무산되었던 강경호와 임현규 선수의 UFC 데뷔 첫 승 사냥과 반더레이 실바, 마크 헌트, 헥터 룬바드 등 UFC 거물급 스타 파이터 출전 소식에 국내외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UFC in JAPAN의 11회 전 경기는 수퍼액션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수퍼액션(080-080-0780)



### 달콤한 유혹, 아이커버 츄파츄스 콜라보레이션 시리즈

국내 최대 스마트폰 케이스 업체 아이커버에서 츄파츄스 콜라보레이션 시리즈를 출시했다. 츄파츄스 팝아트에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가 식당에서 1시간 만에 남긴 위에 완성한 로고를 넣어 말 그대로 '대중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아이커버 케이스는 소장 가치가 높아 제품별로 수집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케이스는 아이폰, 아이패드, 갤럭시 등 여러 모델에 부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화이트데이를 맞아 여친에게 사랑과 함께 달콤한 아이커버 케이스와 함께 선물해보자. 당신에게서 아티스트의 향기를 맡은 그녀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나? 아이커버([www.icover.kr](http://www.icover.kr))

### 극단 하땅세의 연극 〈파리대왕〉 3월 초연

영국 작가 윌리엄 골딩의 소설 〈파리대왕〉이 연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극단 하땅세는 HanPAC 차세대 공연예술가시리즈의 하나로 오는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연극 〈파리대왕〉을 무대에 올린다. 스토리는 이렇다. 핵전쟁의 위험을 느낀 영국이 25명의 어린 소년들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려 했으나 도중에 비행기가 무인도에 추락한다. 그 후 무인도 안에서 벌어지는 소년들의 생존과 대립, 갈등을 그렸다. 3월 3일까지 조기 예매자에 한해 40% 할인을 해주니 관람을 원하면 예매를 서두를 것. 25,000원, 극단 하땅세(02-6406-8324)



### 밖에서도 세수한 듯! 가스비(GATSBY) 페이스 페이퍼로 깔끔하게!

가스비에서 남성의 얼굴에 묻은 개기름과 끈적임을 말끔히 제거할 남성용 페이스 페이퍼를 제안한다. GATSBY 페이스 페이퍼는 얼굴의 끈적임을 확실하게 닦아주고 멘틀 배합 성분을 함유하여 깔끔하고 상쾌한 사용감을 제공한다. 또한 수렴 효과가 있어 모공을 수축하고 피지로 인한 번들거림을 억제한다. 다가오는 황사철에, 그리고 운동과 업무, 운전 등의 일상 생활 중 얼굴이 땀과 피지로 끈적일 때, GATSBY 페이스 페이퍼로 그대의 얼굴에 활력을 불어넣어 보자! 2,500원, GATSBY([www.gatsby.co.kr](http://www.gatsby.co.kr))



# Unpicked

## 이 달의 몹쓸 사진들

미안. 이건 도저히 쓸 수가 없었어.



### MISS MAXIM 화보

못 쓴 이유: 다 좋은데 욕조를 배경으로 한 탓에 때를 밀어주는 것 같아서.



### 여신발굴 프로젝트 고두림

못 쓴 이유: 너무 연출된 '오늘 저 한가해요' 컷 같아서.



해바라기 마트에  
어서 오세요.

### 소리 인터뷰 기사

못 쓴 이유: 해바라기 마트 광고 사진 같아서. 얼핏 보면 얼굴이 스티커투 같기도 하고.



이달의  
불쌍한 사진

이형하영업

여 신년다

결국 우승하고 웃음을  
되찾은 어린이

### King of Grappling

못 쓴 이유: 눈을 찔린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격투 기사에 우는 아이라니!

The 2nd  
Korean Octagon Girl

Lee  
Su Jung



이수정 옥타곤걸 데뷔

**UFC** *in JAPAN*

3일 3일 일요일 오전 9시

**SUPER ACTION** 독점 생중계

FIGHT ESCAPE

# 2013 MISS MAXIM CONTEST

세계적인 남성 잡지 MAXIM에서  
모델 데뷔의 기회를 잡아라!

국내 최고 수준의 포토그래퍼, 헤어/메이크업  
아티스트, MAXIM 스타프들과 함께 하는  
멋진 화보 촬영의 주인공이 될 기회!

2013 총 상금 600만 원  
(온라인 예선만 통과해도 상금 10만 원)

온라인 예선 통과 시,  
MAXIM 월간 매거진 화보 촬영

8강 진출 시, MAXIM 특별판 매거진  
표지 모델 발탁

우승 시, 2014년 MAXIM 월간 매거진  
표지 모델로 선정(1~12월호 中 하나)

2012 MISS MAXIM 우승자 단영

## 참가 신청

MAXIM 홈페이지에서 **미스 맥심 참가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아름다운 몸매와 매력을 잘 표현한 사진 10장 이상을 업로드 한 뒤 MAXIM 독자들에게 전하는 한마디를 씁니다.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끝~!

미스 맥심  
바로 가기



## 콘테스트 진행

2013 MISS MAXIM 콘테스트 온라인 예선에서는 본인이 올린 사진이 공개되며, 다른 참가자와 1대1 인기투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2주 간의 대결에서 더 많은 독자들의 선택을 받은 참가자가 예선을 통과합니다.

온라인 예선을 통과하면? 승리하는 즉시 상금이 지급되며, **이달의 MISS MAXIM** 으로 선정되어 화보 촬영에 들어갑니다. 해당 화보는 다음 달 MAXIM 매거진에

실리게 됩니다.

이후 MISS MAXIM 콘테스트 16강전에 진출하여 우승을 위한 토너먼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16강부터는 상금액도 더욱 높아지니 숨은 매력녀들의 뜨거운 참가 신청 바랍니다!

## 문의

e-mail: [missmaxim@maximkorea.net](mailto:missmaxim@maximkorea.net)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



## MISS MAXIM in the World

MISS MAXIM의 인지도는 싸이급이다!  
호주 MAXIM이 <올해의 한국인>으로 1위 사이에 이어 2011 MISS MAXIM 우승자 이명희 양을 2위로 선정했다! 3위는 북한의 김정은. MISS MAXIM 이명희의 매력에 외국인도 푹 빠졌으니, 이제 당신이 세계에 매력을 발산할 차례다. 어서 도전하라!

# MAXIM



KOREA



## ICON

THE ONE  
IMPACT



## MAXIM

MARCH 2013



더원 임팩트 타르 1.0mg / 니코틴 0.10mg

경고 :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  
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스,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



경고 :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 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